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보 향

2015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지도교수 강 영 봉

김 보 향

이 논문을 문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김보향의 문학 박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I.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검토	4
1.3. 연구 방법	8
1.4. 조사 개요와 논의의 구성	10
II. 이론적 배경과 재일제주인의 언어 환경	20
2.1. 이론적 배경	20
2.1.1. 사회언어학적 접근	20
2.1.2. 언어 접촉의 개념	21
2.1.3. 언어 접촉 현상	24
2.2. 오사카 지역 재일제주인의 언어 환경	31
2.2.1. 제주방언권의 형성 배경	31
2.2.2. 재일제주인의 언어 접촉 현상	35
2.2.3. 제주방언 사용 실태	37
III. 제주방언의 유지와 변화	43
3.1. 제주방언의 유지	45
3.1.1. 음운	45
3.1.2. 어휘	52
3.1.3. 문법 형태	54
3.2. 제주방언의 변화	66
3.2.1. 음운	66
3.2.2. 어휘	68
3.2.3. 문법 형태	70

IV. 언어 혼용과 언어 전환	77
4.1. 언어 혼용	81
4.1.1. 차용에 의한 혼용	81
4.1.2. 제주방언 ‘-허다’와 일본어 ‘-する’의 혼용	91
4.1.3. 제주방언 ‘-게’와 일본어 ‘-な’의 혼용	98
4.2. 언어 전환	106
4.2.1. 문장 간 언어 전환	106
4.2.2. 언어 선택	108
V. 결론	117
참고 문헌	122
영문 요약	130
부록 1. 담화 전사 자료	134
부록 2. 인터뷰 전사 자료	155
부록 3.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질문지	195



표 목차

<표 1> 설문 조사 응답자(세대, 연령대별)	15
<표 2> 면접 조사 제보자 정보	17
<표 3> 세대별 제주방언 구사 능력	37
<표 4> 일본어 종조사 '-나'의 결합 형태	103

그림 목차

<그림 1> 일본 오사카시 지도	11
<그림 2> 언어 접촉의 유형	22
<그림 3> 이민 집단의 언어 전환 과정	30
<그림 4> 제주와 오사카	32
<그림 5> 세대별 제주방언 구사 능력	39
<그림 6> 세대별 한국어 구사 능력	39
<그림 7> 제주방언의 필요성	41
<그림 8> 상황별 언어 선택	110
<그림 9> 가정에서의 언어 - 1세	112
<그림 10> 가정에서의 언어 - 2세 이후	112
<그림 11>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 과정	11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서론

1.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일본 오사카 지역 제일제주인¹⁾을 대상으로 이민 집단의 언어가 이 민국의 언어로 전환되는 언어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일제주인은 이민 초기부터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며 제주방언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구사하는 제주방언은 상당 부분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어 본적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한 채 이민 후세로 가면서 일본어로 교체되고 있다. 본고는 이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언어 변화 과정에서 제일제주인 언어의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언어의 변화는 때로는 언어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도 한다. 언어도 생태계의 다른 유기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며 지역 간의 접촉이 드물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의 이동이 늘고 사람들 간의 접촉도 빈번해졌다. 사람들의 접촉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접촉을 의미한다.

언어의 접촉은 개인의 언어 변화만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의 언어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접촉하여 한 지역에 공존할 경우 상호 영향을 받아 언어적 요소가 융합되거나 심지어는 강한 언어가 약한 언어를 몰아내고 한 언어가 소실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는 현재 지역 방언들이 사회 변화의 급류를 타고 표준어로 단일화 되어가는 현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표

1) '제주 출신 제일한국인'을 이 글에서는 '제일제주인'으로 칭한다. '제일제주인'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처음에는 '제주도 출신 제일한국인(또는 제일조선인)'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제일 제주인'이라는 표현(이문웅(1988), 「제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제주도연구』 제5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제일제주인'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창후(1995), '제일제주인과 동아통향조합운동', 『제주도사연구』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2010), 『제일제주인 애향백년』, 제주특별자치도 등). 그 외에 '제일제주교포(신행철(1982), 제일제주교: 그 소수집단으로서의 성격과 계층 구조, 탐라문화.)', '제일 제주도 출신자(고정자(2010), 해방 직후 제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 연구 현황과 과제, 4.3과 역사.)'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

준어 화자 집단과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어떤 지역 방언은 세력을 잃는 반면에 표준어는 점점 그 영역을 넓히게 되어 결국에는 그 지역의 방언이 사라지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현상이 제주방언에서 이미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방언의 변화 양상에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 유네스코의 지적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2년 12월 제주방언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하여 발표했다.²⁾ 제주방언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주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제주방언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어휘의 50%가 넘는 어휘를 20% 미만의 학생들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강영봉 외, 2010),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인지도는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영봉 외, 2008). 결국 현재의 제주방언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중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는 결국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유네스코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에도 ‘세대 간 언어 전승 정도’,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수’,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의 비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언어로 표현하는 문화가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방언은 다른 지역 방언들과는 다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주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이기에 언어생활에서 유지되며

2) 유네스코(UNESCO)는 인류의 살아 있는 유산의 핵심으로 언어를 규정하고 사라져 가는 소수언어와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에는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구해야 한다는 문제를 절실하게 제기하면서 관련활동 지침을 제시했다. 유네스코의 세계 위기 언어 지도(Atlas of the World's Languages in Danger, 이하 유네스코)에서는 언어의 지속가능성과 위기의 정도에 따라, 어린이들이 사용하지만 사용영역이 제한된 언어인 1단계 ‘취약한 언어(Vulnerable language)’, 어린이가 사용하지만 사용 영역이 가정으로 제한된 언어인 2단계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definitely endangered language)’, 어린이가 배우지 않고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3단계 ‘중태에 빠진 언어(severely endangered language)’, 노인 세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4단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1950년대 이후 소멸된 언어인 5단계 ‘소멸한 언어(extinct language)’로 구분하고 있다.

3) 그 외에 항목으로 ‘현재 소멸위기의 언어를 사용하는 범위와 분야의 정도’, ‘새로운 영역 혹은 미디어에 반응 정도’,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와 읽기 자료의 이용 정도’, ‘정부의 언어 정책’, ‘지역 사회가 해당 언어에 대해 갖는 태도’, ‘언어 자료화의 양과 질의 문제’를 들고 있다.

후대에 전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주방언을 제주를 벗어난 해외의 이민 사회에서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오사카 지역에 현재 제주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주방언의 모습이 반세기 전에 일본으로 이주해간 제주방언 화자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강정희, 2002). 해외 이민 사회에서 특정 지역 방언이 유지되며 통용되고 있는 것은 드문 경우다. 물론 모국어가 유지되는 예로 중국 조선족 언어가 언급되지만 조선족의 언어는 어느 특정 한 지역의 방언이 아니라 함경도방언을 중심으로 평안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방언이 혼재되어 있다.⁴⁾ 하지만 일본 오사카(大阪) 이쿠노쿠(生野区) 지역은 많은 제주 출신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까닭에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주민으로 구성된 재일제주인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여 왔다. 2011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 수는 86,231명으로 전체 재일한국인 수 545,401명의 16%를 차지한다. 이 중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은 48,023명이다.⁵⁾ 제주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1900년대 초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현재 길게는 이민 5세대까지 이어오고 있다.

고향에서 언어를 습득하여 일본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인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이중언어 화자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고국과 떨어진 곳에서 모여 살며 어린 시절 고향에서 습득한 제주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사용하는 제주방언은 본적지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제주방언의 모습은 언어 내적인 변화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언어(일본어)와 접촉이라는 외적 요

4) 조선족 언어 중에도 길림성, 흑룡강성의 일부 지역에 지역 방언이 유지되고 있다. 박경래(2005)에 의하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에 위치한 정암촌(亭岩村)에 충청북도 출신 이주민들에 의해 충청도 방언이 남아 있다.

5) 2011년도 일본 법무성 통계 자료다.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재일한국인 총 수	재일제주인 수
일본 전체	541,401명	86,231명
오사카 지역	124,167명	48,023명

한편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말 현재 재일한국인 총수는 508,561명이고 이 중 오사카에 는 116,182명이 있다(일본 법무성 누리집, <http://www.moj.go.jp/>). 이는 재일한국인 전체 수로 출신지별 수는 알 수 없다. 출신지별 통계는 2011년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각 출신지별로는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재일제주인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건에 의한 변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두 언어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두 언어가 접촉하여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인 현상들은 언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연구는 재일제주인 언어의 현상(現狀)을 고찰하여 이민 사회의 소수 집단의 언어 변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현재 재일제주인 언어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사회언어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민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유지되고, 언어 접촉에 의해 두 언어가 혼용되고 이민 사회의 주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재일제주인의 언어가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고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재일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재외동포로까지 폭을 넓혀 소수 이민 집단의 언어 문제를 살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1.2. 선행 연구 검토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강정희(2002)가 있다. 강정희는 제주방언의 고유한 형태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일제주인의 경우 제주방언의 보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재일제주인 1세들의 제주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조사에서 재일제주인 1세들이 이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방언의 변이형을 통해, 제주방언의 변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인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강정희는 재일제주인 1세들이 구사하는 ‘·’음에 의한 방언 차는 ‘이주 시기’와 ‘나이’가 적용될 때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60대 이하 집단에서 이주 시기가 변수가 되는 이유는, 이들 집단이 제주도 현지에 있었던 언어습득 완성 시기인 1950~1960년에 제주가 외부와의 급격한 접촉에 의해 외부 언어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라 보고, 지금부터 60여 년 이전부터 사용하던 이 지역의 방언형이 현재 오사카 거주 재일제주인 1세 언어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방언의 큰 변화가 사회적인 요인, 즉 외지인의 제주 유입으로 인한 언어 접촉에 의해서임을,

그리고 ‘·’의 소실이 1950년대 이후임을 밝히고 있다.

고영림(2009)은 재일제주인 고령화자의 구어 담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녹음한 음성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방언 화자들의 억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재일제주인이 제주방언의 보수형 보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연구는 제주방언 화자들의 자연 담화에서의 억양 패턴을 제시하는데 그쳤을 뿐 이들의 억양이 제주방언의 보수형에서 나타나는 억양인지에 대한 비교 논의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재일제주인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재일한국인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제주 출신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정자(1994, 2002), 金美善(1998, 2001, 2003) 등이 있다.⁶⁾ 이들은 재일한국인 언어의 특징을 살펴면서 오사카 이쿠노쿠(生野区)를 중심으로 하여 인접한 히가시나리쿠(東成区)까지 조사 지역으로 삼았다. 오사카 이쿠노쿠는 재일한국인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일한국인 관련 조사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는 재일한국인 언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정자, 金美善 등은 오사카 이쿠노쿠의 재일한국인 1세를 대상으로 한 언어 접촉 연구에서 재일제주인 1세들의 언어에서 보이는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정자(1994)는 한국어와 일본어 병용화자인 재일한국인 1세들의 코드 전환(Code-Switching)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국어의 ‘어간+-아/어’에 일본어 ‘-する’가 연결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제주방언과 일본어 ‘-する’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주 출신 1세들이 이야기할 때에 화자나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 존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상대 존대의 선어말 어미가 생략되면서 제주도 방언의 관용적인 표현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어휘의 개념 부분의 어근이 행하는 것을 보충하는 역할로 ‘-하다’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する’를 대치함으로써 이 ‘-する’의 차용으로 코드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김정자(2002)에서는 재일한국인 1세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혼용 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두 언어의 격조사가 서로 다른 언어에 통합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각각의 용언에 접미사처럼 한국어 ‘하다’와 일본어 ‘する’

6) 재일한국인의 언어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보향(2014a) 참조.

가 결합하는 현상, 셋째 어휘와 관용적인 어구가 다른 언어에 삽입되는 형태다. 이들의 언어는 일반적인 화법 기술로서 코드 전환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이면서 습관적으로 코드전환을 일으키며 그 언어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피진의 속성을 보이는 재일한국인 1세들의 독특한 언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金美善(1998)에서는 오사카 이쿠노쿠 주변 지역의 1세를 중심으로 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대부분은 정식 기관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경험이 없이 오로지 청각적인 정보에 의해 음성으로 일본어를 습득하였는데 정착 초기부터 이미 형성된 같은 모어 화자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의 언어를 언어 습득의 모델로 삼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 출신 재일한국인이 밀집해 있는 오사카 이쿠노쿠에서 1세들의 면접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제주방언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라 보았다. 김미선은 제주 출신 1세들의 일본어 발화를 살펴보면 문말에 일본어도 아니며 한국어 표준어에도 없는 제주방언 ‘-게’가 눈에 띄게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게’는 문말에 연결되어 강조를 하는 수의적인 성분으로 전달 의도가 화자의 심경이나 상대에 대한 기분을 장면과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 기능을 파생한다. 이 표현의 사용에 대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일본어 형식이나 표현용법이 모어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심리적 부담을 ‘-게’를 사용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즉 1세에게 ‘-게’는 심리적 부담과 습득상의 부담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필수적인 문말 형식이라고 보았다.

金美善(2001)은 이쿠노쿠 주변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 1세의 언어에서 ‘これだれが 만들어した?’와 같은 형식을 빈번히 사용하는 언어적 요인을 Azuma의 ‘Frame Content Hypothesis’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문장 내에서 두 언어 간의 전환 현상을 문장이 만들어지는 단계적 규칙으로 설명한다. 우선 기능어를 중심으로 프레임(frame)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그 안에 내용어(content)를 집어넣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金美善, 2001: 287~290 재인용). 어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처럼 의미를 가진 ‘내용어(content words)’와 접속사, 전치사, 관사, 조사 등의 문법적 기능을 가진 ‘기능어(function words)’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어의 ‘-하다’와 일본어의 ‘-する’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틀이 되고 다음 단계에 한국어 어휘와 일본어 어휘가 의미 내용을 담당하는 콘텐츠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기능어로서 ‘-하다’와 ‘-する’의 생산성은 재일한국인 1세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들 기능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중언어 화자의 발화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재일한국인 1세 발화에서 ‘-する’와 ‘-하다’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은 문법적 틀이 교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어느 한쪽 언어가 문법이 되고 다른 한쪽이 어휘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담화의 주된 언어를 기반어(base language)라고 할 수 있는데(김정자, 2002: 22), 재일제주인 1세의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합 언어의 발화에서는 기반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金美善(2003)에는 ‘밥을 국에 넣어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한 설문에 ‘조망’이라는 제주방언을 답한 사람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밥을 국에 말아먹는 행위를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40%가 넘는 가정에서 제주방언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쿠노쿠 지역에서 제주방언이 널리 쓰이고 있는 모습은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이 다른 지역 출신자들에 비해 특히 제주 출신자의 언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⁸⁾ 재일한국인 사회의 특수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제주인은 재일한국인 사회에서도 고루 섞여 일본 전역에 분포하지 못하고 이주 초기부터 같은 지역 출신자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생활해 왔다. 같은 지역 출신자들끼리 모여 산다는 것은 출신지의 문화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에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함께 언어가 잘 보존되어 왔기에 이들의 언어는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7) 본래는 제주방언 ‘좁다(말다)’에 연결어미 ‘-앙’이 결합한 형태인 ‘좁앙’이나 원 논문의 표기를 따랐다.

8) 다른 지역 출신자들의 언어(방언) 연구는,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부산 방언을 연구한 이수안(2009, 「이카 이노 이야기」를 통해서 본 오사카방언과 부산방언의 문말 표현 대조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과 경상도 출신 부모·조부모를 둔 2·3 세에게서 보이는 한국어(경상도방언)에 대한 연구인 金由美(2005, 「殘存韓國語語彙の樣相-ある在日2・3世の場合-」,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를 제외하면 찾아 볼 수 없었다.

1.3. 연구 방법

언어의 변화는 처음에는 유동적인 모습을 띤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당장 변화(chang)이기보다는 변이(variation)의 모습을 띤다. 처음에는 변이의 양상을 띤다가 그 중 어느 것이 세력을 얻어 확산되고 다른 한쪽이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면 비로소 변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세대 간에 일어나는 언어 변화는, 변화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진행 중에 있는 언어 변화(linguistic change in progress)>라고 해야 할 것이다(이익섭, 1994: 149).

전통적인 역사언어학에서는 언어의 변화는 그 결과밖에 볼 수 없다고 여겨 왔다. 즉 언어 변화가 일어난 후에야 알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에서는 한 시대의 언어 상태가 한결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것을 과거와 미래의 언어가 병존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강석우 외, 2008: 195).

본 연구는 현장시간 방법(apparent-time method)으로 재일제주인 사회의 제주 방언 변화의 진행 과정과 방향의 일면을 관찰할 것이다. 언어 변화의 과정과 방향을 연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시대를 비교하는 실제시간 연구(real-time method)에 의한 것이다. 이 방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진행 중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며 예전의 조사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에 많은 변수와 제약이 작용하고 연구자 자신의 나이나 능력 등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있다(방언연구회, 2001: 251). 그래서 사회언어학자들은 어느 한 시기의 다른 세대의 언어를 비교함으로써 언어변화의 과정과 방향을 포착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 현장시간 연구방법(apparent-time method)이다.

현장시간 연구란 진행 중에 있는 언어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조사방법의 하나로 특정 언어공동체에서 상이한 연령 집단이 보이는 언어 행위의 차이를 언어 변화의 결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시적 자료를 토대로 언어 변화의 진행 과정과 방향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이 방법에 의해 연구를 하면 어떤 진

행 중인 언어 변화를 포착하고자 할 때 오랜 기간을 기다려 동일한 조사를 다시 행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세대 간에 드러나는 뚜렷한 개신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언어 변화의 기제와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20년 동안의 언어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시간 방법이 사용될 경우 60세의 제보자가 20년 전의 40세 때의 언어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방언연구회, 2001: 405).

일본 사회에서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은 소수 집단의 언어다. 재일제주인은 일본어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일본어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방언을 습득하고 일본어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들의 언어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접촉상황에 놓여 있다. 제주방언만을 사용하던 단일 언어 화자가 일본어 생활권에 들어가면서 일본어를 습득하여 이중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이들 이중언어 화자는 장면이나 담화 상대에 따라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여 두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후세대로 넘어가면서 사회의 주류 언어인 일본어로 교체된다.

본 연구는 이민 사회에서 소수 집단 언어인 제주방언이 다른 언어와의 접촉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재일제주인의 세대별 언어 실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을 수행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언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제보자를 선정하여 개별 면접 조사에서 그들의 발화를 채록하여 재일제주인의 언어에서 보이는 특징을 심층적으로 살피는 데에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재일제주인 발화 중에서 제주방언을 ‘기반어’로 하는 발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사전에 준비한 생활사 면접 조사 질문지에 의거하여 이주 시기와 상황, 이주 이후의 생활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구술 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재일제주인 간의 모임에도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 녹음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자료로 삼았다.

연구자는 재일제주인 사회가 이민 사회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민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언어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원용할 것이다.

1.4. 조사 개요와 논의의 구성

1) 조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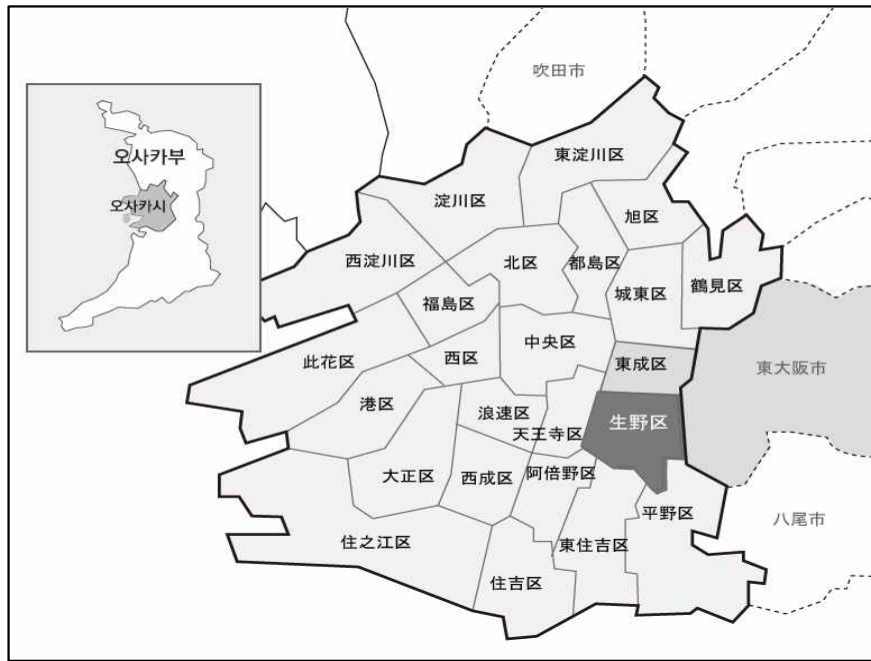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언어 접촉에 의한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재일제주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오사카에는 2011년 현재 약 4만 8천여 명의 재일제주인이 거주하고 있다(일본 법무성 통계 자료). 총 8만 6천여 명의 재일제주인 중에서 반 이상이 오사카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사카의 동쪽 위치한 이쿠노쿠(生野区)는 전체 주민의 약 20%가 재일한국인인 지역이다.⁹⁾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제주 출신인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¹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하고 있는 히가시나리쿠(東成区),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에 제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조사는 이쿠노쿠(生野区)와 히가시나리쿠(東成区)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9) 이쿠노쿠 전체 인구는 129,472명인데, 이중 외국인이 27,995명이고 재일한국인 수는 25,499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쿠노구청 누리집, <http://www.city.osaka.lg.jp/ikuno/page/0000000434.html> 참조, 2014. 10. 25. 검색.

10) 이쿠노쿠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 수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 재일한국대사관, 이쿠노 구청 등에 문의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1> 일본 오사카시 지도

2) 조사 기간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1년부터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의 전시 자료 및 재일제주인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오사카를 왕래하였다. 제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쿠노쿠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혼용되어 쓰이는 양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전시 자료 수집을 위해 재일제주인 1세와 면담을 할 기회가 많았고, 또한 재일제주인센터 전시실 관람을 위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부나 또는 재일제주도민회를 통해 제주대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을 안내하면서 일본 이주 시기, 제주방언의 구사 정도를 확인하며 제보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예비 조사 1차: 2013년 8월 14일 ~ 8월 25일
2차: 2014년 1월 7일 ~ 1월 12일
- ② 본 조사 1차: 2014년 4월 18일 ~ 4월 25일

2차: 2014년 4월 26일 ~ 5월 14일

3차: 2014년 7월 6일 ~ 7월 16일

예비 조사 기간 동안 조사지를 방문하여 재일제주인의 언어 모습을 관찰하고 본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 본 조사 기간 동안에는 세대별 언어 실태를 관찰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언어 양상을 살피기 위한 인터뷰 조사를 2, 3차 본 조사 기간에 실시하였다.

3) 조사 방법

언어 공동체의 언어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참여 관찰, 설문 조사, 면접 조사 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러한 종합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본 연구자는 재일제주인 관련 자료 수집과 생활사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조사지를 방문하였고 얼마간 체류도 할 수 있었다. 체류 기간 동안 재일제주인이 많이 모이는 찻집, 공원, 친목 식사 모임,¹¹⁾ 노인 개호(介護) 시설¹²⁾ 등을 수시로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과 안면을 익히고 언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참여 관찰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신뢰 관계(rapport)가 형성되어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다.

방언 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자료를 모으는 직접 방법(direct method)과 우편으로 자료를 모으는 간접 방법(indirect method)이 있다. 본 연구는 직접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재일제주인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 언어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언어 사용 집단을 참여 관찰하며 인터뷰 조사도 병행하였다.

먼저 1차 본 조사 기간 동안 재일제주인의 언어 실태를 설문 조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2, 3차의 본 조사 기간에 제주방언을 유지하고 혼용 언어를 구사하는 1,

11) 재일한국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매주 1회 또는 3회)인 식사 모임이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연구자가 방문한 곳은 삼존사(參尊寺)와 놀이방(성공회)으로 참가자들은 제주도 출신자가 대부분이다.

12) 이쿠노쿠에 위치한 '고향의 집(故郷の家)', '사랑방(サランバン)', '삼보람(サンボラム)'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재일한국인인데 특히 '사랑방'과 '삼보람'에는 제주도 출신자가 많다.

2세의 구체적인 언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 조사

재일제주인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 수집은 질문지를 가지고 설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가 임의적인 응답 결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1세, 2세 경우 면담은 대부분 제주방언으로 이루어졌고 3세 이후는 일본어로 진행하였다. 고령의 제보자는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연구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3세 이하 제보자에게는 질문지를 주어 제보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제보자의 대부분을 연구자가 직접 면접 조사하였고 일부 3세 이하는 1, 2세를 통해서 그 자녀나 손자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면접 조사한 1, 2세의 질문지는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오사카가 아닌 자와 복수의 답변을 한 1세의 질문지 1부와 2세의 3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세 이후는 일부 부모나 조부를 통해 질문지를 전달하여 조사한 경우 회수가 안 된 것이 있어서 회수율은 82%였다.

질문지는 세대별 언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 능력, 언어 태도, 일상생활어에 대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언어 능력은 말하기와 듣고 이해하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언어 태도는 제주방언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일상생활어에 대한 조사는 제주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방언 화자 간의 접촉 상황이므로, 가정과 같은 지역 출신자 간의 교류 상황으로 제한하였다. 가정에서는 1세와 2세 이후로 구분하여 배우자, 자녀, 형제 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인터뷰 조사

인터뷰 조사는 개별 면접으로 개인 생활사를 조사하였다. 참여 관찰 방법으로 재일제주인 간의 담화에 참여하여 그들의 일상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기는 SONY ICD-AX412F를 이용하였다.

제보자들은 모두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다. 연

구자 역시 일본어와 제주방언을 모두 구사할 수 있으나 제보자들의 제주방언을 끌어내기 위해 인터뷰의 질문은 대부분 제주방언으로 하였다.

재일제주인 간의 대화는 재일제주인이 많이 모이는 친목 식사 모임, 노인 개호 시설, 공원 등을 방문하여 그들이 이야기 나누는 내용을 채록하였다. 이 글에서 이용한 대화 자료는 이쿠노쿠 조선시장에 있는 한 공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화가 이루어진 공원은 주변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이 운동을 겸하여 산책 나와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장소다. 연구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다섯 명이 약 한 시간 동안 나누는 이야기로, 주변 사람들의 건강, 식사, 뉴스 보도 내용 등에 관한 대화다.

개별 인터뷰 조사의 조사 내용은 도일 시기와 배경, 일본에서의 정착 과정, 자녀들의 출생과 성장, 경제 활동, 사회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짧게는 2,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2, 3회에 걸쳐 조사하기도 하였다.

4) 제보자

전통방언학에서 방언 제보자는 그 지역의 토박이로 대체로 3, 4대는 한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교육을 받은 자도 적절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수되는 조건으로 외지에 너무 오래 나가 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젊었을 때 3, 4년의 외지 생활은 언어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대상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이익섭, 1984: 69). 그런데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언어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사회언어학에서는 화자 개개인이 보여주는 언어 사용의 차이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대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언중이면 누구나 제보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변화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취하여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이민 사회에서의 소수 집단의 언어 변화로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유지되는 모습과 이민국 언어와의 접촉으로 어떠한 언어의 변화를 보이는가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 조사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세대별 언어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1세(일부 2세)를 중심으로 인터뷰 조사하였다. 그들의 언어를 채록하여 이민 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제주방언의 모습과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재일제주인의 언어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는 세대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세가 31명이고 2세 27명, 3세 이후 25명으로 총 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35명, 여성 48명이다. 1세의 경우 이주 시기별로 보면 해방 이전에 이주한 사람이 9명, 1945년~1964년 이주자가 14명, 1965년~1988년 6명, 1989년 이후 2명으로,¹³⁾ 일본과의 수교가 없었던 시기에도 꾸준히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주한 경우는 ‘밀항’을 통해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단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이민 1세				1	4	9	13	4	31
이민 2세	1		2	6	8	5	5		27
이민 3세 이후	5	9	9						25
계	6	9	11	9	12	14	18	4	83

<표 1> 설문 조사 응답자(세대, 연령별)

학력은 무학이 16명, 소학교(중퇴자 포함) 10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1명, 전문학교 이상자가 31명이다. 1세인 경우 무학이 많았으나 2세 이후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가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무직자였고 은퇴 이전에는 단순노무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다.

사회언어학의 연구에서 나이, 성별, 학력, 직업 등의 사회적인 요인은 언어 변이와 변화의 요인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본 논의는 이주 세대에 따른 언어 능력과 언어 태도, 장면별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13) 이주 시기는 한국인의 도일(渡日) 형태에 변화를 보이는 해방(1945년), 한일국교정상화(1965년), 해외여행자유화(1989년) 시점을 분기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기에 성별이나 학력, 직업 등의 변인에 의한 차이는 분석하지 않았다.

언어 변화는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고립된 곳일수록 그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흔히 이민 사회에서의 언어 변화가 본바닥에서의 그것보다 느리다고 한다(이익섭, 1994: 170).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비교적 제주방언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은 이주 1세대와 해방 전 혹은 해방 직후 제주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2세들로 한정되어 있다.¹⁴⁾ 이들은 이주 당시의 방언형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 외에는 제주방언을 안다 하더라도 조부모나 부모의 영향으로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거나 약간의 어휘나 활용어미를 구사할 수 있는 정도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방언 화자로 1세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2세를 포함하였다.

그런데 이주 1세(혹은 일부 2세)라 하더라도 이주 시기, 이주 시기의 나이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제주방언은 다른 모습을 띤다. 강정희(1988)는 1950년을 전환기로 하여 제주방언의 특수성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⁵⁾ 그 이유로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과의 접촉, 학교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한 표준어의 전파 등을 들고 있다. 즉 사회적 접촉에 인한 것으로, 현재 이러한 현상은 제주방언뿐만 아니라 각 지역 방언이 표준어로 단일어화 되고 있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방언의 변화 시기를 강정희(2002)는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들을 통해 밝혔는데, 195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이주한 화자와 그 이후의 화자들 사이에 상당한 방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면접 조사는 1950년대 중반 이전에 이주한 1세와 제주방언을 잘 구사하는 2세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4) 해방 전 제주와 일본의 왕래는 빈번하였는데, 2세들 중에는 부모가 경제 활동으로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어린 시절 고향으로 돌아와 조부모와 제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15) 제주방언의 역사적 발전 시기를 강정희(1988: 7)는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고려 말 몽고 지배 이전 시기, 몽고지배로부터 일본 식민지시대 이전, 식민지시대부터 6·25 이전, 마지막으로 6·25이후부터 지금까지다.

이름	출생 년도	성별	출신지	학력	세대	거주지	비고
MM	1940	여	성산	무학	1세	이쿠노쿠	2세(1942년) 도일(渡日)
DY	1931	여	도두	무학	1세	이쿠노쿠	8세(1939년) 도일
SG	1928	여	하귀	소학교 졸업	1세	이쿠노쿠	12세(1940년) 도일
SS	1921	여	함덕	무학	1세	이쿠노쿠	14세(1935년) 도일
SB	1931	여	신촌	무학	1세	이쿠노쿠	19세(1950년) 도일
WJ	1937	남	신촌	국민학 교졸업	1세	이쿠노쿠	18세(1955년) 도일
MO	1934	남	조천	중학교 졸업	2세	이쿠노쿠	오사카 출생, 11세 귀향 18세(1952년) 도일
JJ	1944	여	대정	소학교 졸업	2세	이쿠노쿠	대마도 출생, 18세 오사카로 이주
YO	1928	여	보성	무학	2세	이쿠노쿠	도쿄 출생, 4세 귀향, 11세 도일, 17세 귀향, 18세(1946년) 재도일
KS	1931	여	삼양	소학교 졸업	2세	이쿠노쿠	오사카 출생, 10세 귀향, 13세 도일, 14세 귀향, 20세(1951년) 재도일

<표 2> 면접 조사 제보자 정보

5) 자료 전사

이 글의 예문은 재일제주인의 면접조사와 재일제주인 간의 대화를 채록한 음성 자료를 전사하여 제시하였다. 채록 내용의 전사는, 제주방언은 형태 음소로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여 ‘제주어 표기법’¹⁶⁾에 따라 표기하였다.

일본어 발화는 히라가나 표기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차용의 경우(4장의 4.1.1)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일본어를 표기하였다. 재일제주인의 일본어 발화는 유·무성음과 장·단음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¹⁷⁾ 이러한 경우 발음대로 히라가나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히라가나로 표기된 일본어는 실제 발음된 대로 표기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일본어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물론 이러한 경

16)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현평호 외, 2009)에 실린 <부록-제주어표기법>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일부 단어의 경우 발음을 살려 표기하였다. (예, ‘허다’)

17) 이러한 경우 모어의 간섭 등에 의한 일본어 발음의 오류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우 바른 표현을 괄호 안에 다시 표기하였다.¹⁸⁾

예) とこすり(とこずれ) 헤노난.

문어의 기본 단위인 문장은 마침표라는 문장부호로 인해 단위의 설정이 용이하나 구어는 종결어미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말이 연속으로 이어지므로 단위를 나누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구술 발화를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그 문장이 종결어미로 끝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로 마무리하였다.

본문 예문의 제주방언과 일본어는 한국어 표준어 대역을 넣었다.

6) 논의의 구성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조사 방법 등을 밝혔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개념이 되는 언어 접촉의 개념과 현상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일본 오사카 지역에 제주 방언권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들의 언어 접촉 상황과 제주방언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2장의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 사용 실태를 근거로 하여 3장과 4장에서는 재일제주인의 구체적인 언어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3장에서는 이민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유지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다른 지역어와는 다른 형태를 갖는, 제주방언의 특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음운, 어휘, 문법 형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

18) 부록의 전사 자료는 의미 전달을 위해 한자와 히라가나를 병기하였고 발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히라가나로 발음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바르게 일본어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민 후세로 넘어가면서 이민 집단의 언어가 이민국의 주 언어로 전환되고 있음을 이민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일상생활어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하였다. 이민 사회의 언어 전환과정이 어휘 차용 단계에서 시작하여 이중언어 화자의 언어 혼용 단계를 거쳐 일본어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보이는 언어의 구체적 양상을 1, 2세의 발화 자료와 세대별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5장은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재일제주인의 언어 환경

‘이민’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초래한다. 재일제주인 언어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이민 사회의 이중언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어 변화 현상들을 중심으로 언어 접촉 이론과 재일제주인의 언어 환경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다.

2.1. 이론적 배경

2.1.1.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은 기존 언어학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회와 언어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학문이다. 사회언어학은 언어의 참모습을 밝히기 위해 공략하는 여러 갈래의 길 중 하나로, 특히 언어를 그 사회적 문맥(social context)에서 관찰하는 분야다. 언어를 사회와 유리된 모습, 일종의 추상적인 체계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회 속에서의 언어 사용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이익섭, 1994: 14). 따라서 사회언어학자들에게 언어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언어는 주고받는 데서 발달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언어학에서 언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찾는 것은 그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칙에 대한 증거다. 그 증거들은 발화상의 변이일 수 있는데, 그 변이는 화자의 연령이나 교육의 정도, 출생지, 주거지 등에서 오는 변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대화 장소, 대화 주제, 대화자들 간의 사회적 역할 관계에서 오는 대화의 정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관심을 갖는다.

언어는 사회성을 가지고 기능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진정

례, 2005: 8). 언어의 변화는 사회 변화의 한 결과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사회 언어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하고 발전해 왔다. 언어 변화 연구에서는 언어들이 접촉할 때 언어구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핀다. 음운의 변화는 물론, 어휘나 문법의 변화가 있는지, 다른 언어로부터는 규칙을 차용하는가 아니면 언어 접촉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언어들이 출현하는가 등에 관심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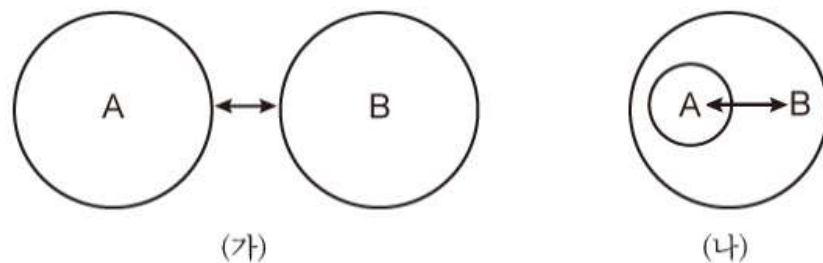
언어학 자체로 살펴보면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 연구는 전체적으로 사회언어학의 이론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언어의 이동과 접촉, 변화의 연구는 사회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학문 분야에서 사회언어학은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다양성의 연구는 다양성의 분명한 예가 되는 다언어 상용에 초점을 둔다((김남국 역, 2009:18). 단일 언어 사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의 모든 요인들은 다언어 사회의 언어, 또한 그에 동반되는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의 연구에서는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2.1.2. 언어 접촉의 개념



언어 접촉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를 내린 학자는 Thomason(2001)이다. 그는 ‘언어 접촉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Thomason, 2001: 1~3). 지역 간,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현실점에서 이러한 정의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세 접할 수 있다. 인도나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다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언어(異言語) 사용자가 원래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도 있고, 여행이나 무역의 수단으로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국제결혼이나 이민 등 사람의 이동에 의하여 언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한다. 언어 접촉은 다른 언어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권 안에서 분화된 언어 형태인 방언간의 접촉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그림 2> 언어 접촉의 유형

<그림 2>의 언어 접촉 유형에서 (가)는 서로 다른 두 언어가 만났을 때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 지역에서의 언어 접촉 상황이다. 이때는 A, B 두 언어 모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긴밀하게 접촉하게 될 때, 두 언어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148). (나)는 국제결혼이나 이민 등에 의한 언어 접촉으로 이러한 경우의 언어 변화는 B의 언어 변화는 거의 없고 A 집단의 언어만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언어 접촉은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언어 집단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 접촉의 경우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들어가는 A 집단은 원래 사용하는 자신의 언어와 새로운 집단의 언어라는 이중언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 사람들의 언어 접촉이지만 이중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상황에서 A 집단의 언어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언어 접촉의 연구가 학문분야로 확립된 것은 Weinreich(1953)에 의해서다. 그의 저서 『Language in Contact』는 언어 접촉의 선구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로, 이중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한 간섭의 양상과 간섭의 예측 가능성, 연구 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화자 개인의 심리언어학적인 문제, 민족과 언어 접촉과의 관계, 언어 접촉에서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같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언어 사용과 언어 접촉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이어 Haugen(1953)의 노르웨이의 이중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저작에 의해 이 분야의 연구가 발전했다.

최근에는 언어의 변화나 언어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언어 접촉 이론이 재인식되었다. 언어 접촉에 대한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은 비교언어학에서는 이미 계통 관계가 확립된 언어 간의 언어 변화의 설명, 이민 혹은 지리적인 상황에서의 제2언어 습득이나 이중언어 사회의 언어 접촉의 특수한 상황이나 현상의 해명, 혹은 피진이나 크레올 연구 등이다(宮下尚子, 2007: 50).

언어 접촉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언어 변화에 관여하는 역사언어학, 사회언어학의 분야이지만, 그 외에도 제2언어 습득, 외국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더욱이 대조 연구나 오용 분석 등을 통해 개별 사례에 대하여도 밀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주목하는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차용(borrowing)’, ‘간섭(interference)’, ‘코드 전환(code switching)’, ‘코드 혼용(code mixing)’ 등 언어 접촉에 부수되는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각각의 연구 영역, 혹은 연구자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용어가 쓰이고 있다.(宮下尚子, 2007: 50). 주목할 것은 언어 접촉 결과의 유형들이 얼핏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기실 그 과정은 동일하며 또한 동일한 원리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148).

언어 접촉이 흥미로운 것은 언어 접촉의 결과로서 언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언어 접촉은 필연적으로 이중언어 상용에 이르게 한다(김남국 역, 2009: 12). 언어 접촉이 언어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발생한 혹은 발생하고 있는 변화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어도 개인 이중언어 사용자에 대한 관찰을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걸쳐 집단 차원에서 확인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즉 그런 관찰을 통해서 개인차에 의한 언어 ‘변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언어 ‘변화’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어 접촉에 의한 언어 변화를 논하는 데에 접촉하는 이중언어의 힘 관계나 실제로 접촉하는 상황, 접촉에 이르는 배경이나 접촉의 정도나 시간적 길이, 이중언어 사용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언어 외적인 관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언어 접촉의 조건인 이중언어 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통상의

언어 사용과는 다른 특수한 사회적 요인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언어 접촉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宮下尚子, 2007: 51).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재일제주인의 언어 접촉 문제는 언어 자체의 변화보다는 언어 외적인 조건에 의한 변화라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2.1.3. 언어 접촉 현상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의 연구에서는 언어 접촉 상황과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언어 접촉의 상황에서 화자들은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서로 발화 양식을 조정해 타협점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언어가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순히 어휘를 빌려 쓰는 현상에서 새로운 언어의 생성에 이르기까지 제반 언어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화 정도는 달리 나타난다(Winford, 2003: 2). 그런데 언어 접촉 이론에서 다른 언어와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언어 변화의 기술·설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연구자들마다 다르다. 언어 접촉으로 인한 언어들 사이의 상호 영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에 대한 용어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대체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그 경계선을 분명히 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 이중언어 사용(bilingualism)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접촉은 언어의 변화를 가져온다. 언어 접촉에서 이중언어 사용은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Weinreich(1953)¹⁹⁾는 ‘두 언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이중언어 사용(bilingualism)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중언어 화자(bilingual)’라고 하였다(神鳥武彦, 1976: 1). 이중언어 사용에서 두 언어의 능력은 대등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쪽이 더 우세할 수도 있다(한국사회언어학, 2012: 181).

박영순(1990: 137~138)은 이중언어 화자를 능력에 따라 분류하였다. 두 언어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지식도 이중언어로 인정하는 최소론자(minimalist)

19) 神鳥武彦 訳(1976), 《言語間の接觸》, 岩波書店,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The Hague: Mouton.

에서부터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똑같이 통달한 경우만을 인정하는 최대론자(maximalist)가 있다. 박영순은 이중언어 화자의 능력에 따라 두 언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ambilingual), 두 언어를 대체로 정확하게 구사하는 사람(primary bilingual), 두 언어를 대체로 균형 있게 잘 알지만 양 언어에 방해 현상이 조금 일어나는 사람(equilingual), 쓰거나 말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나 주로 두 언어를 듣고 읽는 능력만을 가지는 경우로 어느 정도 이중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receptive bilingual), 두 언어에 결함이 많은 이중언어 화자(semilingual)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커민스가 이중언어 상태와 인지 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두 언어의 도달 정도를 바탕으로 이중언어 사용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이것은 ‘문지방설’이라고 부른다. 두 언어의 도달점에는 두 개의 문지방이 있는데 상위의 문지방을 넘으면 인지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하위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면 인지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두 언어 모두 상위의 문지방을 넘은 상태를 ‘고도 이중언어(proficient bilingualism)’, 한 언어만 상위의 문지방을 넘은 상태를 ‘부분적 이중언어(partial bilingualism)’, 두 언어 모두 하위의 문지방을 넘지 못한 상태를 ‘이중 제한적 이중언어(double-limited bilingualism)’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중 제한적 이중언어’는 ‘제한적 이중언어’라고도 불린다(이미숙 외 2012: 41 재인용).

이를 언어 접촉 상황의 이중언어 화자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고도 이중언어’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언어 운용에 도움을 주는 반면 ‘제한적 이중언어’는 한 쪽 언어의 간섭으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재일제주인의 경우도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이지만 각각의 언어 능력에 따라 언어 운용은 다르게 한다.

2) 간섭(interference)과 차용(borrowing)

언어 접촉의 결과 생기는 각각의 언어에서의 일탈 현상을 Weinreich(1953)는 ‘간섭(interference)’이라고 규정했다. 즉 음소체계, 형태소나 통사 구조 등에 이질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기존의 언어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간섭 현상은 이중언어 화자가 좀 더 익숙한 언어의 규범을 다른 언어에 적용시키면서 발

생한다고 볼 수 있다.

Weinreich는 ‘간섭’이라는 용어를 개인이나 집단의 구분 없이, 이언어가 접촉했을 때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 그가 말하는 ‘간섭’은 다음과 같다(神鳥武彦, 1976: 1).

가. 이중언어 화자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관계로 두 언어의 접촉 결과 발화시에 각각의 언어에서 일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섭현상이라 한다.

나. 간섭은 음운이나 형태, 어휘 등 고도로 구조화된 언어 영역에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제 양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Weinreich는 이중언어 사용자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전이과정에서 언어 규범에서 일탈이 어떠한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간섭’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神鳥武彦, 1976). Weinreich가 말하는 ‘간섭’은 이중언어 화자를 전제로 한 것으로 두 언어 간의 접촉에서 오는 ‘언어 간 간섭 현상(interlingual interference)’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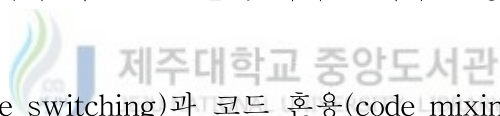
재일제주인은 제주방언(한국어)과 일본어의 이중언어 화자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교착어로 어순이나 어휘, 표현 등에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언어 접촉에서 두 언어 간에 유사할수록 간섭의 정도가 크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지만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언어 간의 유사성에서 오는 간섭은 각 언어의 음소 체계나 문법적 구조, 어휘의 의미 영역 등에서 유사하지만 각 언어마다 규칙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간섭’ 현상과 비교되는 현상으로 ‘차용(borrowing)’이 있다. Weinreich는 ‘차용’이라는 용어는 거의 ‘어휘 차용’에 한정하여 언급하고 있다. ‘어휘 차용’은 음성 혹은 문법적인 간섭에 비하여 이중언어 화자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점 언어와 목표 언어가 접촉했을 때 개인 차원에서의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중언어 화자가 아닌 집단 차원으로 확장된 랑그에 영향을 주는 단계를 차용이라 하였다.

Thomasson · Kaufman(1988: 72~76)은 차용의 범위와 정도는 접촉 강도, 시간,

이중언어 화자의 비중과 정치, 사회적 영향력, 접촉하는 언어 간 계통적 인접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먼저 비기초 어휘(non-basic vocabulary)가 문화적, 기능적 이유로 차용되기 시작해서 접촉 강도가 강해질수록 문법적, 구조적 차용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Thomasson · Kaufman(1988: 20~21)에서는 ‘차용(borrowing)’을 언어 접촉이 초래하는 요소의 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해서 ‘기층간섭(substratum interference)’이라는 용어를 대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차용’은 어떤 집단의 토착 언어에 그 화자에 의해 들어온 이질적인 요소로 토착 언어는 유지되지만 편입된 요소에 의해 변화한다. 또 항상 차용의 상황에서 차용되는 이질적인 요소는 단어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Thomasson · Kaufman(1988)은 차용과 간섭을 그 영향력의 강약에 의해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차용의 경우 수용 언어는 보존되지만 간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현행 언어에 어휘, 혹은 문법상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후의 그 언어가 보존될 수 있다거나 혹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3) 코드 전환(code switching)과 코드 혼용(code mixing)

이중언어 혹은 다중 언어 사회에서 쓰이는 하나의 언어 또는 한 언어의 변이형을 코드(code)라고도 지칭한다. 즉 코드(code)란 ‘언어, 방언, 스타일, 전문 용어’ 등을 포함하는 변이어(variety)를 뜻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한국어에서도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일종의 코드(code)로 본 것이다. Wardhaugh(1986)²⁰⁾는 코드란 두 명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체계라고 정의하였다(박의재 · 정미령, 1999: 131). 이는 이중언어 사회의 언어적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하위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만일 우리가 이중언어 혹은 다중 언어 사회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언제나 적당한 코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코드를 선택하게 되는 코드 선택(code choice)의 문제는 이중언어 사회와 다중 언어 사회에서 가장 명확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이중언어 사회의 언어 사용자들은

20) 박의재 · 정미령 역(1999), 《현대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Wardhaugh, R. (198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Blackwell.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언어 자료를 혼합하는 기술인 코드 전환(code switching)과 코드 혼용(code mixing)이 발생하게 된다.

코드 전환은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 사회에서 대화 시에 언어(또는 언어 변이형)를 교체하는 현상이다. 교체되는 언어 단위는 개별 어휘, 형태소에서부터 연속적 발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의 발화와 다양한 언어 단위를 포함한다. 코드 전환이 발생하는 언어적 단위에 따라, 코드 전환이 문장 내에서 발생하면 ‘문장 내 코드 전환(intra-sentential code switching)’, 문장 간에 발생하면 ‘문장 간 코드 전환(inter-sentential code switching)’이라고 구분한다. 코드 혼용은 이 문장 내 코드 전환을 일컫는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216).

이익섭(1994)은 ‘code switching’과 ‘code mixing’을 각각 ‘코드 바꾸기’와 ‘코드 뒤섞기’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였다. 재일한국인 학생이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도 코드 전환이라 할 수 있고 재일한국인끼리 일본어를 사용해 이야기 나누던 중 일본어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것 역시 코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처럼 어느 한 언어를 주축으로 사용하면서 문장 내에서 다른 언어의 요소를 사이사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현상을 코드 혼용이라고 하여 따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코드 전환이다.

Gumperz(1982: 66)는 코드전환을 한 언어의 음운론 및 문법적인 자질이 다른 언어에 포함시키는 언어 차용(borrowing)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화자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두 개의 상이한 문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중언어 화자는 발화할 때 코드 선택을 의식적으로 의도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살피는 재일제주인의 코드 선택 상황은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선택 상황으로 두 언어가 섞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코드 전환과 코드 혼용을 포괄하여 ‘언어 혼용’이라 하겠다.

4) 언어 전환(language shift)

언어 전환(language shift)이란 어떤 언어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써 오던 언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이익섭, 1994: 301). 언어적으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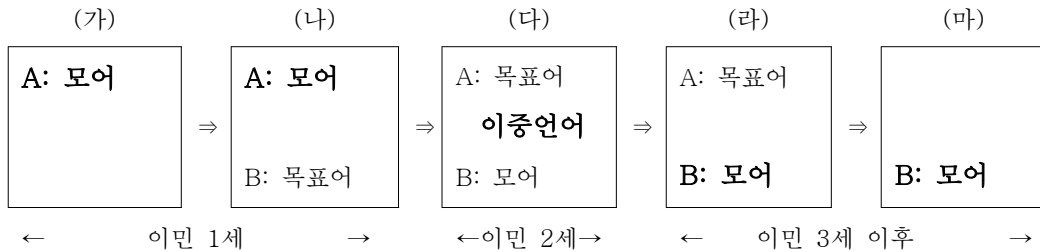
른 언어에 동화되는 것이다. 언어 전환이 일어나려면 그 사회가 이중언어 사회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일언어현상(monolingualism)이 계속된다면 언어 전환이 일어날 자리는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이중언어 사회도 언어 전환 없이 몇 세기든지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중언어 사회가 형성되어야 어느 한 언어를 선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써 다른 한 언어가 점차 약화되고 약화된 언어는 결국에는 쓰지 않게 되어 나머지 언어로의 언어전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이익섭, 1994: 312).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두 가지 이상이면 언어 사용에 사회적 차이가 생기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 유용한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가 생기게 된다. 이때 유용한 언어가 그 사용 영역을 다른 언어의 영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나가면서 조금씩 언어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언어 전환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일어나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류 사회 언어로 교체되고 교체된 언어는 결국 사용 영역을 잃게 된다. 보통 이민 사회에서의 언어 전환은 소수 민족 언어에서 차츰 이민국의 주류 언어로 진행된다. 이러한 언어 전환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언어의 전환은 언어 소멸의 또 다른 형태다(宮下尚子, 2007: 53). 목표 언어 습득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목표 언어로의 이행이라는 단계를 이룬다. 몇 세대에 걸쳐면서 완전한 언어 전환에 이르기까지 언어 변화를 동반한다. 그 사이에 해당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화자에서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화자까지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민 사회의 소수 집단은 대개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고 정치적으로 이민국에 부속되어 있는 처지다. 그래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민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업을 위해서라도 이민국의 언어를 필수적으로 습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모국어는 점차 상실되어 간다. 자연히 모국어에서 이민국의 언어로 언어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민 1세대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데 모국어 사용이 단연코 우세하다. 2세대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데 두 언어 중 어느 한쪽 언어의 사용이 우세하다. 3세대도 두 개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이민국의 주류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4세대는 오직 이민국의 주류 언어만을 구사하게 된다(김남국, 2009: 83).

이와 같은 이민 집단의 언어 전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이민 집단의 언어 전환 과정²¹⁾

이민 집단은 이민국의 언어를 습득하여 이중언어 사회를 이루고 이중언어 사회에서 이민국의 언어가 그 사용 영역을 확장하여 나가면서 조금씩 언어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때 이중언어 화자들은 무의식 중에 두 언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두 언어를 바꾸며 사용하기도 한다. 이중언어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모어’와 ‘제2언어’가 혼용되어 있다. <그림 3>의 (나)~(라)의 단계에서 이중언어 화자가 두 언어를 혼용하여 구사하는 것을 ‘언어 혼용’라 하고 (가)에서 (마)로 언어가 교체 되는 것을 ‘언어 전환’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언어 전환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일어나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류 사회 언어로 교체되고 교체된 언어는 결국 사용 영역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유형일 뿐이고 실제 특정 이민 집단에서 나타나는 언어 전환은 여러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21) 渋谷勝己(2010: 4)의 그림(이민 언어의 변용/교체 과정)을 수정, 보충하였다.

2.2. 오사카 지역 재일제주인 언어 환경

2.2.1. 제주방언권의 형성 배경²²⁾

1) 제주 사람들의 일본 이주

일제강점기 제주와 오사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은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하여 대기업에 의한 설비 투자나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었다. 당시 오사카는 신흥공업 도시로 화학·금속·기계·섬유 공업의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일본 내의 노동력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필요한 노동력을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항자로 보충하였다. 식민지 체제에서 살기 위한 방책으로 도항했던 많은 조선인은 중소기업, 오늘날 소위 '3D'로 불리는 업종에서 하층 노동자로 종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주 사람들도 1900년대 초부터 오사카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진출하였다. 이에는 일본 공장에서의 적극적인 직공 모집의 영향도 있었는데, 1911년 셋쓰(攝津) 방적 기즈가와(木津川) 공장, 1914년 도요(東洋) 방적 산켄카(三軒家) 공장에서 직공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제주를 방문했다. 직공 모집이 섬 전역이 아니라 제주성내(현재의 제주시)와 그 주변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거의 이 시기부터 근대 공업 노동자로서 제주 사람들의 일본 도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杉原達, 1998: 80). 이후 오사카와 규슈(九州)의 여러 공장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모집하였고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먼저 간 사람들의 권유로 제주도민의 일본 진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1923년부터 오사카와 제주 사이에 정기항로가 신설되면서 제주도민의 도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의 일본 진출은 늘어나 일본 내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공급과잉이 문제시되어 도항이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도일(渡日)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방 전 제주도를 답사하여 연구했던 지리학자 梶田一二(1986: 46)

²²⁾ 김보향(2014c)의 2장을 보충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는, ‘제주도 사람들은 본디가 근면, 검소, 성실한 데다가 노동쟁의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출가지에서 대단히 신용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도일 과정에는 행정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 1927년 5월 제주 공제회(濟州共濟會)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는데(제주도청, 1937: 44) 이는 제주읍에 본부를 오사카에 지부를 두어 오사카부에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도항 안내·직업 소개·인사 상담·구제사업·교화사업 등을 행하였다. 이러한 일본 기업의 수요와 제주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제주도민의 도일은 늘어갔다.



<그림 4> 제주와 오사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²³⁾ 제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등지로 나가 있던 제주 사람 약 6만 명이 귀환했다(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68).²⁴⁾ 그러나 해방이 곧 평화와

23) 해방 후 1946년 3월 일본 정부 후생성이 행한 등록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날로부터 겨우 6개월 간에 약 140만 명이 사태처럼 귀국하였고 귀국하지 못한 64만 6,943명 가운데 그 79%에 해당하는 51만 4,035명이 귀국을 희망하였다. 1946년 4월부터 귀국희망자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계획 수송이 시작되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귀국자는 8만 2,900명이었던 것이 47년에는 8,392명, 48년에는 2,882명, 49년에는 3,482명,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는 2,294명, 결국 1947년 이래 귀국자가 격감하고 있다(姜在彦, 1987: 46).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왕래는 이미 끊겨 있었기에 그들의 도일은 불법적인 ‘밀항’이라는 방법을 통한 수밖에 없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 정식 입국이 가능했지만 까다로운 수속 때문에 1980년대까지 밀항이 끊이지 않았다. 그 예로 1975년도 법무성 입국관리국 자료를 살펴보면 1970~1974년까지 한국인 불법 입국자 수가 740명인데 그 중 82.2%에 해당하는 608명이 제주도 출신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후지나가다케시, 2010: 163, 재인용).

밀항이 불법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주 사람들이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이주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주 사람들이 혈연·지연에 의지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밀항자에 대한 단속 통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경비망을 피해 밀항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도 인정하는 점이다(玄武岩, 2007: 170). 하지만 성공적으로 일본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입국자라는 신분으로 생활이 자유로울 리 없었기에 그들의 생활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단속의 눈을 피해 혈연·지연에 의지하여 지낼 수 있는 이 지역으로 제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2) 제주방언권의 형성

1920년대 일본에 조선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본인 사회와는 다른 재일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어 갔다. 이주 초창기에 건너간 사람들의 일본 체류가 장기화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조선인들은 고향의 친족과 지인들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거꾸로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 중에도 생활이 궁핍하여 돈을 벌기 위해 도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주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혈연과 지연에 의한 도일은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같은 지역 출신자들 중심으로 모여살면서 제주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2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귀환 인구에 대해 『東亞日報』 1946년 12월 21일자에는 ‘5만~6만 명’, 『濟州新報』 1947년 2월 10일자에는 ‘8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이카이노(猪飼野)²⁵⁾에 작은 제주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杉原達, 1998: 98). 이후 제주도민의 도일은 점점 증가하여 1934년 당시 제주도 인구가 약 18.8만 명이었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5만 명으로 전체 제주도 인구의 21%가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중 약 3.8만 명이 오사카에 거주하였는데(杉原達, 1998: 55, 84),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 전체 인구의 16%에 이르는 수치로, 오사카 지역에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제주 사람들이 한 지역에 집단 거주하게 된 요인은 초창기 제주 사람들의 일본 이주가 오사카 지역 공장들의 모집과 제주도청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정책적인 면도 있었지만 도일의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보다도 혈연·지연에 의한 권유와 지원이었음을(杉原達, 1998: 80)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사람들의 집단 거주는 상부상조를 가능케 했기에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이는 이주 초기부터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친목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해 취업의 기회가 적었던 제주 사람들에게 지역 내 동포가 경영하는 소규모 영세공장에 취업이 용이했다는 점도 집단 거주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해방 이후에 건너간 밀항자에게는 더욱 중요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일본에서의 생활에 제한이 있었던 제주 사람들은 그나마 노출이 적어 일본 정부의 단속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제주 사람들의 밀집 지역에서 선배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일본 사회에 적응해 갔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장(朝鮮市場)’에서는 한국의 식재료, 의복, 제사 도구 등의 구입이 용이하였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사카 이쿠노쿠에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다. 이에 이쿠노쿠에 ‘작은 제주’가 만들어져 제주 문화권이 형성될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와 있었지만 주위에는 고향에서 마주하던 이웃과 친척이 있었고 고향의 음식이 있었다. 또한 고향에서 쓰던 말이 통용되었다. 이 지역에 이주해 온 제주 사람들은 다른

25) 이카이노(猪飼野)는 오사카시 이쿠노쿠 이카이노쵸(猪飼野町)의 옛 지명이다. 고대 아스카(飛鳥) 시대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지명인데 1973년 행정구획 변경으로 쓰루하시(鶴橋)·모모다니(桃谷)·나카가와(中川)·다시마(田島)로 분할되면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국제고려학회, 2012: 304).

지역에 비해 일본어를 몰라도 생활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적었다.

같은 출신지 사람들의 집단 거주는 자문화 유지율을 높이며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 안에 독특한 ‘언어의 섬’인 제주방언권을 형성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단속, 일본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자들의 차별은 제주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형성하여 생활하게 하였고 정식적인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소통이 가능한 제주방언으로 언어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제주방언 화자의 유입은 제주방언권이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문웅(1998: 364)은 재일제주인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제주도가 섬이라는 사실은 빼 놓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섬은 기본적인 성격상 바깥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경계 구분이 분명하기에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섬 안으로 제한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은 훨씬 약화되기는 했지만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오랜 세월이 걸쳐서 굳어진 제주도의 전통문화 요소들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언어, 생활관습, 정서 등의 측면에서 ‘육지 사람’과는 구분되는 ‘우리 제주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독특한 일체감이 오늘의 제주도에서 보다는 오히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재일제주인은 ‘육지 사람’과 구별되는 ‘제주 사람들’만의 독특한 일체감으로 이민 사회에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였고 언어 생활에서도 하나의 제주방언권을 형성하였다. 이주 초기부터 혈연·지연을 중심으로 한 집단 거주로 일본 안에 작은 제주가 만들어졌고, 끊이지 않고 밀항으로 건너온 제주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지금까지도 제주방언이 유지될 수 있었다.

2.2.2. 재일제주인의 언어 접촉 현상

재일제주인의 집단 거주는 언어생활에 영향을 주어 일본 오사카 지역에 제주방언이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본어 생활권에서 재일제주인은 항상 일본어에 노출되어 있다. 제주방언을 모어로 하는 1세대인 경우에 일본어와의 접촉 상황에 놓여 있고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2세 이후는 부모나 주변의 제주방

언(혹은 한국어) 화자들과의 언어 접촉 상황에 놓여 있다.

오사카는 일본 서부방언(西部方言)²⁶⁾ 중에서 긴키(近畿) 방언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공통어와는 다른 방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대중매체나 교육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언어는 공통어이지만 오사카 지역 재일제주인이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오사카 방언이다.

오사카 방언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법면에서는 단정의 ‘いい天気や(좋은 날씨다)’에서와 같이 ‘や’를 사용하고 부정에는 ‘ん/N’를 사용하는 특징을 갖는다(中井精一, 2005: 52). 실제로 채록한 재일제주인의 발화 자료를 보더라도 그들이 구사한 일본어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 ‘や’와 ‘ん’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형태와 결합한 형태(‘~やんか’, ‘~やで’, ‘~へん’ 등)로 많이 실현되고 있었다. 이를 보더라도 오사카 지역 재일제주인의 언어는 오사카방언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오사카 지역은 제주 출신자들이 우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경상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의 재일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²⁷⁾ 이들과도 접촉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89년 여행자유화 이후 한국인의 일본 왕래가 잦아지고 재일한국인들도 어렵지 않게 한국에 오고 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방송을 일본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한국어 표준어와 접촉하고 있다. 이러한 접촉 상황에서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에 한국어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6) 일본의 방언은 크게 본토방언(本土方言)과 류큐방언(琉球方言)으로 나눌 수 있다. 본토방언은 다시 크게 동부방언(東部方言), 서부방언(西部方言), 규슈방언(九州方言)으로 나눈다(東條操(1954)의 분류, 中井精一(2005: 50~52 참조).

27)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을 출신지별(상위 5개 지역)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124,167명	48,023명	26,051명	18,006명	10,290명	6,751명

2011년 법무성 통계자료(일본 법무성 누리집, <http://www.moj.go.jp/>).

2.2.3. 제주방언 사용 실태

1) 세대별 제주방언 구사 능력

언어 능력의 경우 모국어에 대한 구사 능력을 제주방언과 한국어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한국어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제주방언 외의 다른 지역 방언도 포함한다. 크게 제주방언과 표준어로 구분하지 못한 이유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조선학교 출신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 방언이 섞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일일이 구분하거나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주방언 구사 능력의 조사에 앞서 제주방언과 한국어를 듣고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대부분(84.3%)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세에서 3명, 3세 이후 10명이 구분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제주방언 구사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기’와 ‘듣고 이해하기’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²⁸⁾

단위: 명(%)

제주방언 능력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1세	2세	3세 이후	1세	2세	3세 이후
매우 잘한다	19(61.3)	5(18.5)	0(0)	17(54.8)	6(22.2)	0(0)
잘한다	6(19.4)	8(29.6)	0(0)	10(32.3)	5(18.5)	0(0)
조금 한다	6(19.4)	11(40.8)	4(16.0)	4(12.9)	14(51.9)	8(32.0)
못한다	0(0)	3(11.1)	21(84.0)	0	2(7.4)	17(68.0)
계	31(100)	27(100)	25(100)	31(100)	27(100)	25(100)

<표 3> 세대별 제주방언 구사 능력

<표 3>을 보면 1세의 경우 제주방언은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부분에서 ‘매우 잘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이고 ‘잘한다’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이 스스로

28) 해방 이전에 이주한 재일제주인 1세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의 언어 구사 능력이 있더라도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제주방언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그림 6>)는 두 영역 모두에서 ‘잘한다’나 ‘조금 한다’의 응답이 우세하였다. 1세대 스스로가 자신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제주방언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왜 제주방언을 잘 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뉴스를 볼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일본어 자막을 보고서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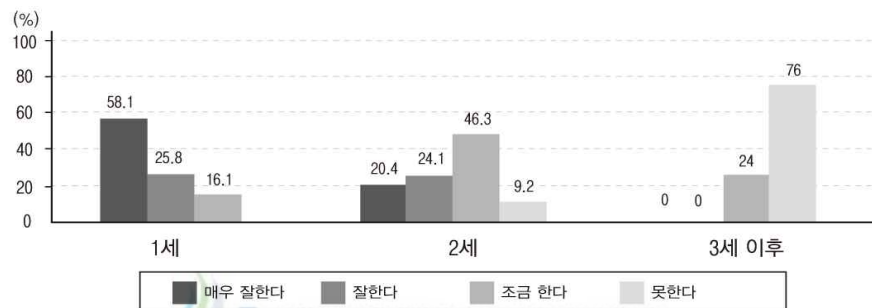
1세대 중에서 제주방언 구사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영·유아기에 부모와 같이 일본에 온 이들도 모두 1세에 포함했기 때문이다.²⁹⁾ 본 조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제보자가 4명으로 한 살에서 네 살 사이에 이주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제주방언으로 질문했을 때 잘 알아듣고 이해하여 답변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일본어로 하였고 가끔 제주방언을 섞어서 말하기도 하였다. 제주방언을 들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언 화자 간의 대화에서 어려움 없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세 중에서도 제주방언을 ‘아주 잘한다’는 응답이 눈에 띄는데 이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해방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내다 이후 밀항으로 다시 일본에 왔다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⁰⁾ 면접 조사 때 당연히 1세라고 생각했을 만큼 제주방언을 유창하게 구사하였다. <표 3>에서 보면 2세는 제주방언을 ‘매우 잘한다’, ‘잘한다’의 답변이 ‘말하기’는 48.1%, ‘듣고 이해하기’는 40.7%이고, ‘못한다’는 ‘말하기’와 ‘듣고 이해하기’에 대한 답변이 각각 11.1%, 7.4%로 나타났다. 반면에 3세 이후에서는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에서 모두 ‘잘한다’는 답변은 없고, ‘말하기’와 ‘듣고 이해하기’를 ‘못한다’가 84%, 68%를 차지한다. 이는 제일제주인의 방언 구사 능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2세, 3세로 갈수록 ‘말하기’나 ‘듣고 이해하기’ 두 영역 모두에서 확연하게 제주방언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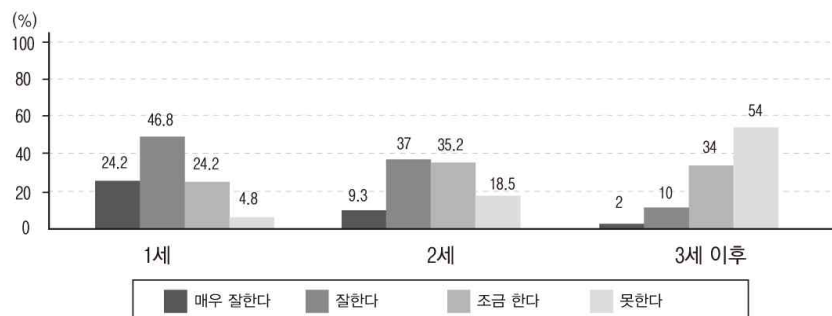
29) 이러한 경우는 1.5세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30) 이 연구에서는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이주 세대를 구분하였는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왔다가 다시 일본에 건너간 경우 모두 2세로 분류하였다.

재일제주인 2세 이후의 세대는 일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일본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인과 다름없는 정확한 일본어를 구사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세들은 1세들이 구사하는 제주방언을 알아듣는다. 일본어와 제주방언의 혼합 언어 또한 일상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3세대는 제주방언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이는 1세들이 자신의 손자·손녀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조사한 金美善(2001)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³¹⁾ 3세대는 다만 1세, 2세 사이에서 습득한 제주방언의 몇몇 어휘들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 5> 세대별 제주방언 구사 능력



<그림 6> 세대별 한국어 구사 능력

31) 金美善(2001: 282)은 이쿠노쿠 지역 재일한국인 혼용어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1세의 언어 코드를 한국어, 일본어, 혼용어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모든 대상자에게 일본어 발화가 우세하다. 같은 방언 화자 1세 간의 대화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22.4%(일본어 56.7%, 혼용어 21%)로 나타나는 반면 2세인 자녀나 3세인 손자들과의 대화에는 주로 일본어를 기본(2세에게 84%, 3세에게 91%)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능력을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나타내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6>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세대를 더해감에 따라 제주방언 구사 능력이 확연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1세와 2세인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보다는 제주방언을 잘한다는 평가가 우세하였으나 3세 이후에선 제주방언보다는 오히려 한국어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1세는 모국에서 언어를 습득하였기에 출신 지역의 방언 능력이 우세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2세의 경우는 모국어를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 자연 습득하였다. 평소 부모나 주위에서 제주방언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방언에 익숙한 것이라면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3세의 경우는 지역 방언이 아니라 한국어의 ‘표준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제주방언 구사 능력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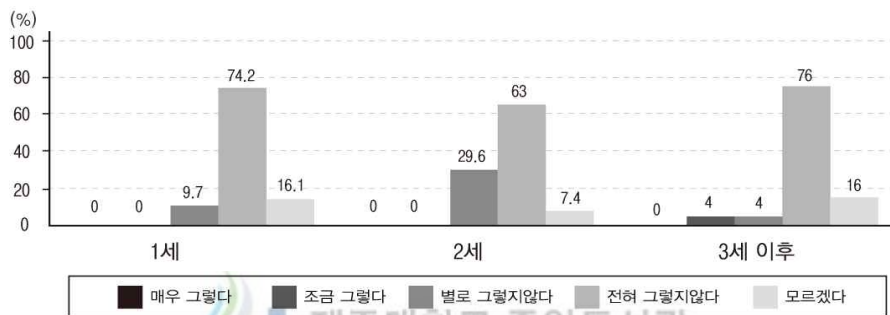
2) 제주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

Thomason(2001: 21~22)은 언어 접촉으로 인한 언어 변화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인은 구조적 유사성과 같은 언어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라고 말한다. 즉 화자가 언어를 민족의 상징으로 보는지,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 충성도를 보이는지 등이 언어 유지나 언어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의 언어행위를 유발하는 태도라는 것이 확실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화자의 태도와 언어 변화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언어태도(language attitude)는 ‘언어 사용자인 화자가 그 언어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언어의 많은 현상은 사람들의 언어 태도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언어가 존속되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쇠퇴하고 멸망하느냐 하는 것도 언어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 공동체의 형성에서도, 언어 태도가 같은 사람끼리 한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언어 태도와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이익섭, 1994: 276~277).

이중언어 사회에서 소수 이민자 집단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언어 선택이 달라진다. 자기 언어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언어를 계속 유지하고 사용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강력한 지배 언어인 일본어로 전

환될 수도 있다. 가령 모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언어가 유지(language maintenance) 되는데 반해 모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른 언어로의 언어 전환(language shift)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제일 제주인의 제주방언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제일제주인 사회에서 언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를 선택하는 주체는 화자이며, 그 화자의 심리 상태가 언어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이민사회에 통합되어 그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의 주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림 7> 제주방언의 필요성

<그림 7>에서 보듯이 동포 사회에서 후세들에게 “제주방언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 세대를 불문하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절대적이었고 ‘그렇다’는 답변은 전혀 없었다. 부정적인 언어 태도는 언어 사용 영역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다음 세대로의 전승도 어렵다. 제주방언 화자에게서조차 제주방언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해외 이민 사회에서 특정 지역 방언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주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를 보더라도 제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의 유지가 어렵다는 알 수 있다. 한국어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제주방언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답변이 1세에서는 61.3%, 2세 29.6%, 3세 24%로 나타나는데, 세대를 더해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역 방언인 제주방언뿐만 아니라 한국어 또한 제일제주인(제일 동포) 사회에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는 소수 민족의 언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민을 받아들인 사회가 지배 집단이 되고 이민 사회는 종속 집단이 되기 때문에 종속 집단의 고유 언어는 공용어나 교육어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박경래, 2002a: 127). 교육어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하물며 소수민족의 공통어가 아닌 지역 방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일본 사회에서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은 다음 세대로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세(일부 2세)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에 대한 바람이 일본 사회의 편입으로 이끌었고 언어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제주방언의 유지와 변화

재일제주인 1세들은 대부분 이중언어 화자로 어린 시절 습득한 제주방언과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습득한 일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 대부분의 1세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주 이후에 습득한 일본어도 학습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이 아니라 선배나 주위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수동적으로 습득하였다. 때문에 이중언어 화자라고는 하지만 두 언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생활이 모국에서의 생활보다 시간적으로 네다섯 배에 이르는 경우에도 이들이 사용하는 일본어에는 독특한 악센트의 음적 특징을 비롯해 문법·어휘 표현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특징이 관찰된다.³²⁾ 반대로 한국어의 경우에는 표준어가 보급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습득한 지역 방언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일제주인 1세의 제주방언 연구가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 것은 제주방언의 옛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습득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민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의 유지 조건에 대하여 Holmes(1992: 71~73)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들고 있다.

첫 번째로 이민 집단이 밀집하여 살면서 서로 자주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경우에 언어 유지가 잘 된다. 그 예로 뉴질랜드 Wellington의 회랍인 구역, 미국의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모국어의 접촉이 빈번한 경우다. 모국에서 새 이민들이 계속 합류하고 또 모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잦으면 그만큼 언어 유지가 잘 된다. 세 번째로 소수족의 언어 유지에 교회와 학교의 역할이다. 캐나다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 고유 언어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에서 이들 지역의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언어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32) 이는 재일제주인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 1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이 구사하는 일본어의 발음적 특징으로 어중 무성의 유성화, 어두 유성음의 무성화를 들 수 있으며, 문법·어휘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혼용 등을 들 수 있다.

Holmes(1992)가 밝힌 언어의 유지 조건을 재일제주인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해진다. 우선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은 이주 초기부터 집단을 이루어 일본에서 정착하였다.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된 이주가 혈연과 지연에 의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주 후에도 제주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였다.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의 지리적 분포는 일반적으로 언어 유지와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 소수 집단은 자기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다.

또한 해방과 동시에 정식적인 도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도 ‘밀항’이라는 방법을 통해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정식적인 체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에 의지하여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의 집단 거주 지역에 지속적으로 제주 사람들이 합류하였다. 또한 제주 사람들 간의 결혼도 집단 생활이나 언어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비록 제주방언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었지만, 이주 초기부터 형성된 마을 친목회나 종교 모임 등이 제주방언을 유지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다. 이민 생활의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 이주 초기부터 출신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친목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³³⁾ 이 시기 친목회는 단순한 사람들 간의 ‘친목’을 떠나 경제 활동 공동체 역할뿐만 아니라 서로 집안의 경조사를 함께하며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여기에서 모국어인 제주방언은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만은 아니다. 언어는 집단을 구분하며 그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은 제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며 제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이민 사회의 소수 집단은 대개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고 정치적으로 이민국에 부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민국의 언어 습득은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모국어는

33) 재일제주인 사회는 많은 친목회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데 마을 단위로 한 친목회는 이주 초기부터 결성되어 활동해 왔다. 예를 들어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서귀포시 법환리 마을 친목회인 ‘재일오사카제법건친회(在日大阪濟法建親會)’는 1929년에 조직된 ‘제법청년회(濟法靑年會)’가 근간이 되어 1936년에 창립되었다. 이 친목회는 회원 수는 많이 줄었지만 2세가 뒤를 이어 활동하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점차 사용할 기회를 잃고 모국어를 잊게 된다. 자연히 모국어에서 이민국의 언어로 언어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익섭, 1994: 331). 제일제주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주방언을 잃고 일본어로 바뀌고 있다. 제주방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민 1세나 일부 2세의 경우다. 3세 이후에서는 대부분 언어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민 1세기 동안 앞서 살펴본 배경에 의해 제주방언은 유지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다른 지역어와 구별되는 제주방언의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 오사카 지역 제일제주인에게서 제주 방언이 유지되는 양상과 일본어와의 접촉에 의한 언어 변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

3.1. 제주방언의 유지

3.1.1. 음운



1) ‘·’

중세국어의 ‘·’는 일반적으로 어두 음절에서는 ‘ㅏ’, 비어두 음절에서 ‘ㅓ’로 변화를 거쳤다. 제주방언도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제주방언 ‘·’는 중앙어 또는 다른 방언들의 변화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어두 음절의 ‘·’는 ‘ㅏ’ 또는 ‘ㅓ’로 비어두 음절에서는 ‘ㅓ’, ‘ㅓ’의 변화를 보인다.³⁴⁾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제주방언 노인층 화자들에게 아직도 ‘·’ 모음이 남아 있다. 이는 일본으로 이주한 방언 화자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ㄱ. 허난 우리 시집가젠 허난 새서방 그심[ㄱ심]이 엇인 거라마썸.[145]³⁵⁾

34) 제주방언 ‘·’는 분포 위치에 따라 변화 속도와 변화 방향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방언의 어두 음절 ‘·’는 語幹末 위치에서 먼저 동요가 일어나 ‘· > ㅏ’의 변화를 보이던 중 어떤 이유에 의하여 그 변화 방향이 바뀌어 모든 위치에서 ‘· > ㅓ’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정승철, 1995: 25~26). 비어두 음절에서는 대부분 ‘· > ㅓ’의 변화를 겪었지만 소수의 형태들은 그 변화의 조류에서 처지게 되어 후에 일어난 다른 방향의 변화, ‘· > ㅓ’의 변화를 겪었다(정승철, 1995: 49).

35) 부록의 예문 번호.

(그러니까 우리 시집가려고 하니까 새서방감이 없었어요.)

ㄴ. 아기 보름도 아니 된 거 그냥 드라와 불어서.[99]

(아기 보름도 안 된 거 그냥 데려와 버려서.)

ㄷ. 손으로 몬 빨젠 허난 아이구, 그런.[101]

(손으로 전부 빨려고 하니까 아이구, 그런.)

ㄹ. 경 뽕지도 안 현 맨디 영 문틈으로 영 헨 보니까.[133]

(그렇게 뽕지도 않은 때인데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재일제주인 1세의 발화를 들어 보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ㄴ심, 드라오다, 몬, 빨다, 브디다’ 등에서 ‘·’가 나타난다. 제주의 노인층 방언화자들과 마찬가지로 재일제주인 1세들에게도 여전히 ‘·’가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강정희(2002)에 의하면 재일제주인 1세 노인층이라 하더라도 이주 시기에 따라 ‘·’의 발화 비율이 달라진다. 같은 70대 이상이지만 1950년대 이전에 이주한 70대 이상 집단과 1960년대 이후에 이주한 70대 이상 집단의 ‘·’는 발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어두 음절 ‘·’의 유지 비율이 1950년대 이전에 이주한 60대 화자들이 1960년대 이주한 70대 화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더 많지만 이주 시기가 늦은 70대 화자에게서 ‘·’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재일제주인 1세 집단의 방언 변화가 현재 제주 지역의 방언 변화 속도보다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일제주인 1세의 ‘·’는 어두 음절뿐만 아니라 비어두 음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2) 우리 퀘당 할마님 오라방이, 아덜이 제국시대 순스로 잇어근에.[259]

(우리 친척 할머니 오라버니가, 아들이 제국시대 순사로 있어서.)

(3) ㄱ. 그 바로 즈긱디 항 잇주게.[134]

(그 바로 옆에 항 있지.)

ㄴ. 이쪽도 저쪽도 막 므스와.[106]

(이쪽도 저쪽도 아주 무서워.)

ㄷ. 경해근에 들들이 벤리 물어 허민게.[222]

(그렇게 해서 다달이 변리 물면.)

- ㄹ. 한두 해 되어 가난 그 곧는 의 밀 알 아 전. 흐 쓸 옥 아 가 난. [137]
 (한두 해 되어 가니까 그 말하는 의밀 알게 됐어. 조금 커가니까.)
- (4) ㄱ. 우리가 딸이 니 성제, 내가 셋 딸 이 주 게. [94]
 (우리가 딸이 네 자매, 내가 둘째딸이지.)
- ㄴ. 배가 이레착 저 레 착 허 난 영 히 영 덜 축 브 름 에 부 떠 십 디 다. [29]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서들 벽에 붙어십디다.)
- ㄷ. 사 탕 가 루 배 급 으 로 나 온 거 아 니 먹 으 영. [186]
 (사탕가루 배급으로 나온 거 안 먹어서.)
- ㄹ. 넌 은 들 에 도 경 골 안 오 란 보 난 아 무 도 엇 으 게. [35]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해서 와서 보니 아무도 없었어.)
- (5) ㄱ. 즈 물 양 온 거 모 살 판 에 몬 즈 근 즈 근 넌 어 주 곡. [169]
 (채취해 온 거 모래판에 모두 차곡차곡 넣어주고.)
- ㄴ. 그 마 을 사 람 몰 르 게 시 리 술 짜 술 짜 스 상 으 로 운 동 해 연 허 난. [258]
 (그 마을 사람 모르게 살쩍살쩍 사상으로 운동해서 하니까.)

(2)~(5)는 비어두 음절에서 ‘·’를 보여준다. (3)은 어두 음절이 ‘·’인 경우 비어두 음절의 ‘·’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는 복합어인 경우로 ‘·’음을 가진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면서도 비어두 자리에서 ‘·’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5)는 ‘즈근즈근’, ‘술쩍술쩍’과 같이 형태소가 겹쳐 나타나는 반복 합성어의 경우에도 비어두 음절에 ‘·’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고령의 재일제주인의 경우 어두 음절뿐만 아니라 비어두 음절에서도 ‘·’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가 아닌 위치에서까지 ‘·’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6) ㄱ. 경헌디 밀항으로 갔다운 사름덜은 즈 수 헨 등 록 멘 들 아 노 난. [267]
 (그런데 밀항으로 갔다운 사람들은 자수해서 등록 만들어 놓으니까.)
- ㄴ. 즈 동 차 도 현 대 토 카 대 우 토 카 해 근 에. [270]
 (자동차도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해서.)

(6)의 ‘즈수’, ‘즈동차’는 중앙어의 ‘자수(自首)’, ‘자동차’에 해당하는 명사로 어원

적으로 ‘·’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 어휘는 현재 제주 지역 고령의 방언 화자들에게서도 ‘·’로 발음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문헌에서 ‘·’가 아닌 위치에 ‘·’가 나타나는 경우는 김완진(195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완진에 의하면 일본어 차용어인 경우 ‘ㅏ’ 자리에 ‘·’가 나타나기도 한다.³⁶⁾ 이를 보면 제주방언에서는 어원적으로 ‘·’가 아닌 위치에서 ‘·’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제일제주인이 (6)의 ‘즈수’, ‘즈동차’를 어린 시절 제주에서 습득했는지 아니면 일본 이주 후에 습득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제주방언 화자들 사이에 ‘·’를 ‘ㅏ’ 위치에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두 음절 ‘·’가 ‘ㅏ’로 바뀌는 변화에서 제주방언에서 ‘ㅏ’는 모두 ‘·’일 것이라고 유추하여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i/나 /j/에 선행하는 비구개자음이 전설 고모음성을 가진 /i/나 /j/의 영향으로 구개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ㄷ-구개음화가 현대 국어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비해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는 방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준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방언에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는 어두 음절에서 실현된다.

(7) ㄱ. 걸어아자근에 어떻헐 그 먼 질을 가, 땡겨するの.[231]

(걸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다니느냐.)

ㄴ. 그냥 막 배고프고 열고 그냥 질도 낭 허민 얼음 돼 불어, 추워근에.[278]

(그냥 아주 배고프고 춥고 그냥 김도 나면 얼음 돼 버려, 추워서.)

ㄷ. 그디서 속숨허영 직허시민 좋은디 지침이 난에게, 지침허여 부난.[282]

(거기서 입을 다물고 지켰으면 좋는데 기침이 나서, 기침해 버려서.)

ㄹ. 츠루하신 질치가 빛나덴.[55]

(츠루하신 김치가 비싸다고.)

(8) ㄱ. 양 질황 허민이 거 벵작 받아근에 새끼 낭 허민 새끼 두 개 받는 쟁이라.[210]

36) 김완진(1957: 118)은 제주 방언 화자들에게 통용되는 일본어 차용 어휘를 조사하였다. 제주 지역에서 조사한 일본어 차용어 중에 ‘·’가 나타나는 예로 ‘nawʒio’ ‘nərebi-həndea’를 제시하고 있다. (김완진은 ‘·’를 [w]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河野六郎(1945)의 『朝鮮方言學試放』에서의 ‘·’ 표기를 따른 듯하다.)

- (양 키워서 하면 거 병작 받아서 새끼 낳으면 새끼 두 개 받는 모양이야.)
- ㄴ. 다이아몬드 반지영 찌고질 해도 이넉크로 사지는 못 허주게.[229]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싶어도 자기대로 사지는 못 하지.)
- ㄷ. 거기 뱃사공 각시가 막 좋은 사람이곡 막 도워 주난 지빠이 생각해연.[164]
(거기 뱃사공 부인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잘 도와 주니까 기쁘게 생각했어.)
- ㄹ. 경 지픈 말은 못 곶아도.[265]
(그렇게 깊은 말은 못 해도.)
- (9) 검질 메레나 땡기고 지들커 허레나 땡기고 아이고, 못 전더, 못 전더.[185]
(잡초 매러 다니고 장작 하러나 다니고 아이고, 못 견더, 못 견더.)
- (10) ㄱ. 경 메뉴리 술 보진 안헤시난이.[248]
(그렇게 머느리 흥 보지는 았았으니까.)
- ㄴ. 세 담은 거엔 헨 나 말은 상대 안 해연.[207]
(혀 담은 거라고 해서 나 말은 상대 안 했어.)
- ㄷ. 경허난 딸덜 성제양 지네 오래비가 웨아덜이고.[21]
(그러니까 딸들 형제제 자기 오라비가 외아들이고.)

위에서 (7)~(9)는 ㄱ-구개음화 (10)은 ㅎ-구개음화를 보여주는 예다. (7)의 ‘질, 짐, 지침, 짐치’는 ‘길, 김, 기침, 김치’의 제주방언형으로 /i/모음 앞에서 ‘ㄱ’이 ‘ㄷ’으로 구개음화한 예이다. (8)의 ‘기르다, 끼다, 기쁘다, 깊다’에 해당하는 용언 ‘질루다, 찌다, 지쁘다, 지프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j/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를 보여준다. (9)의 ‘전디다’는 이중모음 /j/ 앞에서 ‘ㄱ’이 ‘ㄷ’으로 구개음화한 예다.

(10)은 /j/ 앞에서 ‘ㅎ’이 ‘ㅅ’으로 구개음화한 것이다. (10ㄴ)의 ‘세’는 ‘혀>세’로 구개음화와 함께 이중모음의 변화가 있다.³⁷⁾ (10ㄷ)의 ‘성제’는 ‘형제>성제>성제’로 구개음화를 거친 후에 /j/음이 탈락하였다.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는 타 지역 방언에서도 발견되는 음운현상으로서 제주방언에서도 역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개음화가 재일제주인의 발화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37) 이중모음 ‘키’가 ‘케’로 단모음화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고동호(1991: 44~45)에서 지금까지의 견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3) ‘ㄹ’ 첨가

(11) ㄱ. 옛날로부터 몇 백년 전이부터 몰레 뜸허는 약 웨는 몰레판이 잇주게.[203]

(옛날로부터 몇 백년 전부터 모래 뜸하는 약 되는 모래판이 있어.)

ㄴ. 문 밋밋 누워근에 혼 일웨 걸리주게.[284]

(모두 누워서 한 이레 걸리지.)

ㄷ. 겐디 난 그것보단도 그 마농 빨리 그냥.[50]

(그런데 난 그것보단도 그 마늘 뿌리 그냥.)

ㄹ. 그 일름만 뱀젠 해도 어려와.[116]

(그 이름만 배우려고 해도 어려워.)

(12) ㄱ. 또 그 저 전복 거튼 것도 젓 담은 거 문 갈르고 경허는 생입디다게.[155]

(또 그 저 전복 같은 것도 젓 담은 거 모두 가르고 그러하는 모양입니다.)

ㄴ. 뜨신 물은 그 한테키에서게, 불 살를 때.[250]

(따뜻한 물은 그 풍로에서 불 사를 때.)

ㄷ. 어무니가 일본말 몰르고 우리 아버지가 キビしいね.[254]

(어머니가 일본말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엄했어.)

ㄹ. 늙 휘는 거 보난 이제 막 블러완에 이제 월사금 물언에 힘 배완.[236]

(남 수영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막 부러워서 이제 월사금 물어서 수영하는 거 배웠어.)

(11)에서 ‘몰레(모래)’, ‘일웨(이레)’, ‘빨리(뿌리)’, ‘일름(이름)’처럼 ‘ㄹ’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³⁸⁾ (11)은 체언의 경우이고 (12)는 용언의 경우다. 용언인 ‘갈르다(가르다)’, ‘살르다(사르다)’, ‘몰르다(모르다)’는 모두 현대 국어의 ‘ㄹ’ 변칙용언에 해당한다. 이들 용언의 경우 ‘ㄹ’음이 첨가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강정희, 1988: 12) 제주방언에서는 이 둘(갈르-/가르-)을 모두 어간으로 인정한다. (15ㄹ)의 ‘블러판다(부러판다)’의 경우도 ‘ㄹ’이 첨가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방언에서는 체언과 용언 중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다음에 ‘ㄹ’로 시작되는 음절과 결합될 때 ‘ㄹ’이 첨가되어 ‘ㄹㄹ’이 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11), (12)에서와 같이 재일제

38) ‘몰레, 일웨’는 중세국어의 ‘몰애, 일웨’에 기원하는데, 이때 /ㄹ/과 모음 사이의 /ㅇ/은 자음적 요소를 지니는 후두유성음 [ɦ]로 제주방언에 남아있다(강영봉, 2007: 19~21). 이때 [ɦ]가 탈락했을 때 선행하는 /ㄹ/이 후행하는 음절에 첨가되었다. ‘빨리, 일름’은 각각 ‘블휘, 일흠’에서 /ㄹ/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고 /ㄹ/이 첨가되었다.

주인의 발화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4) ‘ㅂ’ 첨가

- (13) ㄱ. 놈 훤는 거 보난 이제 막 불러완에 이제 월사금 물언에 훤 배완.[236]
(남 수영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막 부러워서 이제 월사금 물어서 수영 배웠어.)
ㄴ. 경 훤는 것도 어렵는 거라.[234]
(그렇게 헤엄치는 것도 어려운 거라.)
- (14) ㄱ. 게난 어떻 어떻 아이덜 키우고 허연.[102]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아이들 키우고 했어.)
ㄴ. 저 다심, 놈 난 애기 키웁지 안 허고.[221]
(저 의붓, 놈 난 애기 키우지 않고.)
- (15) ㄱ. 그 굴류는 거 그 감저 도둑질 현 아이덜 불렁.[283]
(그 고르는 거 그 고구마 도둑질 한 아이들 불러서.)
ㄴ. 그 어린 나이에 허는 일이 잇어난 쟁이라. 독 터럭 굴류는 일.[182]
(그 어린 나이에 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라. 닭 털 고르는 일.)

(13)~(15)는 ‘훤다(헤엄치다), 키우다, 굴류다(고르다)’의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면서 ‘ㅂ’이 첨가되고 있다. (13)~(15)에서 ‘훤--+는, 훤--+는’, ‘키우--+는, 키웁--+는’, ‘굴류--+는, 굴류--+는’으로 ‘ㅂ’이 첨가되지 않은 어간 (ㄱ)과 ‘ㅂ’ 첨가된 (ㄴ)이 같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ㅂ’ 첨가는 특정한 규칙에 의해 일어나는 일률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휘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6) ㄱ. 미싱 불루는 쇼くに^ん덜이 췌가 나빠근에이.[199]
(재봉틀 밟는 직공들이 습관이 나빠서.)
ㄴ. 모터 미싱이 나왕 모터로 블류게 웨언.[206]
(모터 재봉틀이 나와서 모터로 밟게 되었어.)
- (17) ㄱ. 너랑 일본말 배우지 말라, 한국말만 쓰라.[85]
(너랑 일본말 배우지 말라, 한국말만 쓰라.)
ㄴ. 경허고 난 한글 배웁지 못헤여 노난이 한글은 몰르지이.[264]
(그리고 난 한글 배우지 못하니까 한글은 모르지.)

- ㄷ. 우린 어느 신문을 보카, 역사도 뵤도 못 허고 허난에 게난 분시 몰랑.[260]
 (우린 어느 신문을 볼까, 역사도 배우지도 못 하고 해서 그러니 분수 몰라서.)
- (18) ㄱ. 집도 케우고 사름도 죽고 막 피해가 만했지.[108]
 (집도 태우고 사름도 죽고 막 피해가 많았어.)
- ㄴ. 해방 전이부떠 전장, 싸움으로 먹을 것이 귀허고 폭탄 맞아네 몬작 케웁고.[147]
 (해방 전부터 전쟁, 싸움으로 먹을 것이 귀하고 폭탄 맞아서 모두 태우고.)
- ㄷ. 이불자리도 몬작 켜고 일 년 농서헌 것도 몬 테웁고.[148]
 (이부자리도 모두 타고 일 년 농사한 것도 모두 태우고.)

한편 (16)~(18)에서도 ‘ㅂ’이 첨가된 형태의 어간과 그렇지 않은 동사 어간이 같이 나타나는데 제주방언의 ‘우’ 말음으로 끝나는 다음절(多音節) 어간 중에서 (16)의 ‘불루다’와 같이 자음을 음절 두음으로 가지는 ‘우’ 말음 어간들은 ‘불루지(불루--+지), 불롭게(불롭--+게)’에서처럼 쌍형(雙形)어간을, (17), (18)과 같이 자음을 음절 두음으로 가지지 않는 ‘우’ 말음 어간들은 ‘베우지(베우--+지), 베웁지(베웁--+지), 뵤도(뵤--+도), ‘케우고(케우--+고), 케웁고(케웁--+고), 켜고(켄--+고)’ 등에서처럼 삼형(三形)어간을 갖는다(정승철, 1995: 129). 이처럼 제일제 주인 언어에서 다음절(多音節)의 ‘우’ 말음 용언의 경우 ‘ㅂ’이 첨가되기도 한다.

3.1.2. 어휘

제주방언이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어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일 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자연 발화 자료의 어휘 측면을 보면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 (19) ㄱ. 바당도 쉼곡 으남도 팍 저불고나.[33]
 (바다도 세고 안개도 끼서.)
- ㄴ. 찜, 사름 하나토 잇고 곶새만 잇고.[157]
 (찜, 사람 하나도 없고 갈매기만 있고.)
- ㄷ. 경허난게 꼳 싯곡 허난, 꼳이나 시꾸와근에.[242]

- (그러니까 꽃 있고 하니 꽃이나 꿈에 나타나서.)
- ㄹ. 그때 들은 건 이제 다 튼나젓주게. [136]
(그때 들은 건 이제 다 생각나지.)
- ㅁ. 그때 성제 간에 따시, 나가 앞이 눅따서, 나가 불 맞앙 거시기 허니까. [142]
(그때 형제 간에 또, 나가 앞에 날뛰며, 나가 불 맞아서 거시기 하니까.)
- (20) ㄱ. 막 돈만 멤젠, 돈만 멤젠. [96]
(막 돈만 모으려고, 돈만 모으려고.)
- ㄴ. 그자 혼 뻘에 머구리거치 돈을 버슬젠 해도 버슬어 できへんで. [13]
(그저 한 번에 마구잡이처럼 돈을 벌려고 해도 벌 수 없어.)
- ㄷ. 경 메역해연 오랑허민 거 도웨여근에 문 넣어내곡. [162]
(그렇게 미역해서 오면 거 도와서 모두 넣고.)
- ㄹ. 도중에 갖다온 사름 자격이 뜨나주게. [268]
(도중에 갖다온 사람 자격이 다르지.)
- ㅁ. 츠루하신 김치가 빚나덴. [55]
(츠루하신 김치가 비싸다고.)
- (21) ㄱ. 우리 성님네 씨퀸당이 저 전장 전이부떠 돈이 하난에. [189]
(우리 형님네 시가족 친척이 저 전쟁 전부터 돈이 많아서.)
- ㄴ. 느네 할망, 성할망은. [71]
(너네 할머니, 친할머니는.)
- ㄷ. 우리 시아방이나 우리 친정어멍이나 みんな. [70]
(우리 시아버지나 우리 친정어머니나 모두.)
- ㄹ. 우리 말젯아바지가 둘레 가난. [159]
(우리 셋째 아버지가 테리러 가니까.)
- ㅁ. 우리 큰 성님 으텨 설이고 셋성님은 놔 두곡 해연에. [181]
(우리 큰 형님 여덟 살이고 둘째 형님은 놔 두고 해서.)

(19)의 ‘으남, 곰새, 시꾸다. 튼나다, 눅뜨다’는 각각 표준어 ‘안개, 갈매기, 꿈에 보이다, 생각나다, 날뛰다’의 제주방언형이다. 강영봉 외(2008)에 의하면 (19ㄱ)의 ‘으남’은 현재 제주 지역에서도 점점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60대 이상에서 15.0%, 40대에서 1.3%만이 사용하고 있다.³⁹⁾ 나머지 어휘들도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

39) 어휘 사용 정도를 60대 이상, 40대, 20대로 나누어 ‘사용, 이해, 예전 사용, 이해 못함, 모름’ 항목으로

는 어휘이다.

(20)의 ‘맵다(메우다), 버슬다, 도웨다, 뜨나다, 빗나다’는 용언으로 각각 표준어 ‘모으다, 벌다, 돕다, 다르다, 비싸다’에 대응하는 제주방언형이다. 이들 어휘도 표준어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25ㄱ)의 밑줄 친 ‘맵젠’은 앞서 3.1장의 음운 첨가에서 살펴본 ‘케우다’처럼 ‘-우-’를 어간으로 갖는 多音節 용언이 ‘케우고(케우--고), 케웁고(케웁--고), 켓고(켓--고)’의 삼형(三形)어간을 갖는 경우다.

(21)은 친족에 관련된 명사다. ‘씨퀘당, 할망, 시아방, 친정어멍’은 각각 표준어의 ‘시가 친척, 할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에 해당한다. (21ㄱ)에서 ‘씨퀘당’의 ‘퀘당’은 ‘권당(眷黨)’이라는 한자어에서 왔다. (21ㄴ)의 ‘말젯아바지’는 아버지의 형제가 넷일 때 그중 셋째를 말한다. ‘말젯’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말 앞에 붙어서 ‘셋째의’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다. 한편, 첫째는 ‘큰-’, 둘째는 ‘셋-’, 막내는 ‘죽은-’이 붙는다(강영봉 외, 2010: 162). (21ㄹ)의 ‘셋성님’도 둘째 형님을 뜻한다.

(21)의 ‘할망, 아방, 어멍’에서와 같이 제주방언에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 중에는 ‘ㅇ’으로 끝나는 어휘들이 많다. 이 외에도 ‘하르방, 오라방, 아지방, 아지방’ 등이 있다.⁴⁰⁾

3.1.2. 문법 형태

1) 조사

제주방언의 조사는 다른 지역 방언과 같은 형태를 갖기도 하지만 제주방언만의 독특한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격조사의 부사격 조사에서 제주 방언 특유의 형태소들을 볼 수 있다.

제주방언의 부사격 조사 중 처격 조사로 ‘-이, -디, -에, -레’가 있다. 이들 조사는 선행 명사에 따라 선택되는 특징이 있다.

조사하였다. 60대 이상에서 35.0%, 40대 78.8%, 20대 91.3%가 모른다는 결과였다.

40) 친족 어휘 외에도 제주방언에는 ‘ㅇ’이 첨가된 형태의 어휘가 많다. 이는 ‘ㅇ’이 포함된 접사를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 ‘강이, 갱이’, ‘생이’, ‘주녕이, 지녕이’는 ‘-ㅇ이’, ‘마농’, ‘바농’은 ‘-옹’, ‘빨경ㅎ다’, ‘경ㅎ다’의 ‘-양/영’ 등의 접사에 ‘ㅇ’이 들어 있다(정승철, 1998: 136~137).

(22) 가. 문 열고 그 앞이 쓰러전.[83]

(문 열고 그 앞에 쓰러졌어.)

나. 경허난 열흔 설부터 놈의 집이, 일본집이 일 멧것주게.[139]

(그러니까 열한 살부터 남의 집에, 일본집에 일 다녔지.)

다. 며 놀음이나 허고 밧디도 아니 가고.[151]

(뭐 놀음이나 하고 밧에도 안 가고.)

르. 아덜은 바깸디서만 사는 거라.[176]

(아들은 바깸에서만 사는 거라.)

ㅁ. 마을에 한문 가르치는 한문 서당이 셋주게.[135]

(마을에 한문 가르치는 한문 서당이 있었지.)

ㅂ. 도립병원에 강 흐룻밤 잔.[143]

(도립병원에 가서 흐룻밤 자.)

ㅅ. 흐르레 열 아홉 자릴 헛주게. 흐르레 열 아홉 자리.[103]

(하루에 열 아홉 자릴 했지. 하루에 열 아홉 자리.)

(22)에서 명사 ‘앞, 집’에는 ‘-이’가 결합하고 ‘밧, 바깸’에는 ‘-디’, ‘마을, 병원’에는 ‘-에’, ‘이, 흐르’에는 ‘-레’가 결합하고 있다. 제주방언 처격 조사에서 ‘-디’와 ‘-레’의 특이 형태가 보이는데, ‘-디’는 선행 명사의 발음이 /t/였던 명사⁴¹⁾(강정희, 1980: 78), 즉 ‘끗(끝), 못(물), 밧(밭), 솟(술), 배겻(바깸)’ 등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ㅌ’ 발음을 가졌던 일부 체언에 결합하고(정승철, 1995: 198), ‘레’는 ‘흐르(하루), ㄱ루(가루), 마리(마루), 시리(시루)’ 등(이승녕, 1978: 36~40) 등에서와 같이 중앙어의 ‘우’(또는 ‘오’) 발음 어간에 대응하는 일부 체언 어간에 결합한다. 정승철(1998: 957)은 ‘-디’와 ‘-레’의 초성 ‘ㄷ’과 ‘ㄹ’을 선행하는 어간의 발음으로 보았다. 이들 ‘ㄷ’과 ‘ㄹ’이 선행 어간의 발음이기 때문에 제주방언의 처격 조사 ‘-에’와 ‘-레’는 중앙어의 처격 ‘-에’와 관계가 있고, ‘-이’와 ‘-디’는 중앙어의 ‘-의(/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방언의 향격 조사에는 ‘-더레, -레’가 있다.

41) 통시적으로 발음이 /h/였던 일부 어휘 뒤에서는 ‘-티’로 실현된다. 예) 낭우티 앓안 놀암수게. (강정희, 1980: 76)

(23) ㄱ. 산터레 올르라 헨 올르난.[130]

(산으로 오르라 해서 오르니까.)

ㄴ. 불 살라근에 이제 그 우터레 이제 솟 놔근에 이제 국도 깔리고.[251]

(불 살려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솟 놓아서 이제 국도 깔이고.)

ㄷ. 글로 저짜더레 에키[eki]레 가가난 중간에 김치야가 できてるわ. [53]

(거기서 저쪽에 역으로 가니 중간에 김치 가게가 생겼어.)

ㄹ. 그 제주도 섬 안에서만 안 해연에 저 육지레 나가난.[167]

(그 제주도 섬 안에서만 안 해서 저 육지로 나가니까.)

ㅁ. 우리 동네선 あんまり 경 정의⁴²⁾러렌 알아주지도 안 허주게.[124]

(우리 동네서 그다지 그렇게 정의로는 알아주지도 않지.)

향격조사 ‘-더레’는 선행명사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결합하고 ‘-레’는 모음 뒤에 결합한다. ‘ㄹ’로 끝나거나 일부 모음 뒤에서는 (23ㅁ)에서와 같이 ‘-러레’가 결합하고, (23ㄴ)에서와 같이 ‘ㅎ’말음을 가졌던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터레’가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박용후, 1988: 62, 정승철, 1998: 959). 즉, 향격 조사 역시 선행명사 말음의 음운적 자질에 따라 이형태가 선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방언 조사 선택이 제약은 (23ㄷ)에서와 같이 일본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명사의 말음에 따라 조사가 선택되는 특징이 재일제주인에게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방언의 공동격 조사로 ‘-광, -이영’이 있고, 여격 조사로 ‘-신디, -안티, -ㄴ라’ 등이 있다.

(24) ㄱ. 영 살아가민 동네 사름광 아는 사름이 잇주게.[214]

(이렇게 살아가면 동네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어.)

ㄴ. 서귀포영 우리 고단광 ㄴ 틀리지어.[123]

(서귀포와 우리 고장과 모두 다르지.)

(25) ㄱ. 어머님네영 나영 김질 높이영 빌어근에.[230]

(어머님네와 나와 김매는 인부와 빌어서.)

ㄴ. 어린 아이덜이영 그 식구덜. 게난 우리 삼양⁴³⁾엔 아주 그냥 그 희생자가 만헛

42) 조선시대 때 제주도를 삼현으로 나누었을 때 한 현의 이름으로 지금의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과 ‘서귀포시’가 포함된다.

수다.[146]

(어린 아이들과 그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 삼양엔 아주 그냥 그 희생자가 많 습니다.)

- (26) ㄱ. 늙의 집이 신용 좋은 어른신디나 삼만 원짜리 한 다섯 구지쯤 들어놔주 게.[224]

(남의 집이 신용 좋은 어른에게 삼만 원짜리 한 다섯 개쯤 들었었지.)

- ㄴ. 큰딸신디 골앗자 아니 가쿠다.[95]

(큰딸에게 말해도 안 가겠어요.)

- (27) ㄱ. 경허명양 タクシー代 구백 원 들어렌 나안티 전화허연.[44]

(그렇게 하면서 택시비 구백 원 들었다고 나에게 전화했어.)

- ㄴ. 늙안티나 옛말이나 곧고 경 험젠.[263]

(남에게 옛말이나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 (28) ㄱ. 날ㄴ라 경 골아도 난 이제 잘 안 돼지.[129]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 해도 난 이제 잘 안 되지.)

- ㄴ. 우리 아버지ㄴ라 증언해 줍센 허연.[209]

(우리 아버지에게 증언해 달라고 해서.)

- ㄷ. 나 아으덜ㄴ라 言うの.[73]

(나 아이들에게 말해.)

제주방언의 공동격 조사 ‘-광’과 ‘-영’ 또한 중앙어나 다른 지역 방언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조사다. ‘-광’은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어의 ‘-와/과’가 선행 명사 말음의 음운적 자질에 따라 달리 선택되는 반면 음운론적 환경과 관계 없이 ‘-광’ 하나로 실현된다. 반면 ‘-영’은 선행 명사 말음의 음운적 자질에 따라 ‘-영’과 ‘-이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4ㄴ)에서처럼 ‘-영’과 ‘-광’이 같이 나타나 기도 한다.

제주방언 ‘-신디, -안티, -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결합하는 여격 조사로 중앙어의 ‘-에게’에 해당한다. 특히 ‘ㄴ다’ 동사에서 문법화한 조사 ‘-ㄴ라’는 ‘말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와 같이 쓰이는 특징을 갖는다(강근보, 1978: 71, 강영봉, 1981: 11, 강정희: 1988: 83). (28ㄴ)에서 ‘ㄴ라’는 ‘ㄴ다’와 ‘허다’와 같이

43) 제주시 삼양동을 말한다.

쓰이고 있다.⁴⁴⁾ 이러한 ‘-ㄱ라’의 문법적 호응 제약은 (28ㄷ)과 같이 일본어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28ㄷ)의 일본어 ‘言う’는 한국어의 ‘말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다. 일본어와 혼용하는 경우에도 여격 조사 ‘-ㄱ라’는 동사 선택에 제약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결어미

제주방언의 연결어미 또한 중앙어나 다른 지역 방언과는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연결어미란 일반적으로 중문이나 복문에서 선행절의 말미에 붙어 그것을 후행절에 연결시켜 주는 구실을 담당한다. 문의 의미 관계 기준을 바탕으로 연결어미를 분류하면, 후행절에 대한 선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가, 종속적인가에 따라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로 나눌 수 있다.

(29) ㄱ. 경 메역해연 오랑 허민 거 도웨여근에 문 널어내곡, 이제 아기 신 집이난 아이덜 똥 지성기도 빨아주곡 허멍.[163]

(그렇게 미역해서 오면 거 도와서 모두 널고 이제 아기 있는 집이니까 아이들 똥 기저귀도 빨아주고 하면서.)

ㄴ. 아이덜 밥 멕이곡 옷도 이제 갈아입지곡 목욕도 시키곡 물 테와근에. [165]

(아이들 밥 먹이고 옷도 이제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물 테워서.)

(30) ㄱ. 우리 애기 웨딸이난 안앙 댕기멍 우리 딸 한국말 잘 굴암저. [86]

(우리 아기 외딸이니까 안아서 다니면서 우리 딸 한국말 잘 한다.)

ㄴ. 내 젓으멍 들어갓주게 대마도에. 궤기 나끄멍. [172]

(내 젓으면서 들어갓지 대마도에. 고기 낚으면서.)

(29)의 ‘-곡’과 ‘-멍’은 제주방언의 대등적 연결어미다. ‘-곡’은 중앙어의 ‘-고’의 의미로, 전형적인 통사 구성은 (29ㄱ, 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 -곡 허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30)의 ‘-멍’은 ‘-면서’의 의미로 동시 진행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44) (30ㄴ)에서 ‘허다’는 ‘말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방언 ‘허다’는 대동사 성격을 갖고 있는데, ‘허다’의 대동사로 쓰임은 구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31) ㄱ. 우리 간 때는 막 파도가 높앙 파도가 높앙 종선이 못 나오란.[132]
 (우리 간 때는 막 파도가 높아서 파도가 높아서 종선이 못 나왔어.)
 ㄴ. 머린 좋은디 돈 엇얼 공부 못 허난.[166]
 (머린 좋은데 돈 없어서 공부 못 하니까.)
 ㄷ. 경혜근에 그거 먹언 난 매날 설사해 매날.[134-1]
 (그래서 그거 먹어서 난 매일 설사해 매일.)
 ㄹ. 예순 나사 이디 プール에 간 휘여 봤주.[232]
 (예순 되어야 여기 풀에 가서 수영해 봤어.)
- (32) ㄱ. 돈 목직허당 죽은 사람도 하고.[152]
 (모두 길목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ㄴ. 에이구, 죽는 날까지 약 먹달 죽주.[37]
 (아이고, 죽는 날까지 약 먹다가 죽지.)
 ㄷ. 우리 어머니네 물질허단 돌아갔주만은.[28]
 (우리 어머니네 물질하다가 돌아갔지만.)
 ㄹ. 우리 어머니 딸신디 돈 닐태레 오랏단 걸렸주게.[195]
 (우리 어머니 딸에게 돈 얻으러 왔다가 걸렸지.)
- (33) ㄱ. 영 간 보난 집이 들어간 보난 우리 제춧사람 집이야.[131]
 (이렇게 가서 보니 집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 제춧사람 집이야.)
 ㄴ. 이 무렵 아프난 プール에 강 걸으민 똥똥 허난.[235]
 (이 무렵 아파서 풀장에 가서 걸으면 된다고 해서.)
- (34) ㄱ. 병원에사 텅겸주만은 아프민 먹어져게.[23]
 (병원에서 다니고 있지만 아프면 먹을 수 있어?)
 ㄴ. 경해도 나가나 공부 더 허고퍼시문 다시 육 흑년 졸업혜영.[98]
 (그래도 내가 공부 더 하고 싶었으면 다시 육 학년 졸업해서.)
- (35) ㄱ. 돈 떨어져사 일허레 오주게.[200]
 (돈 떨어져야 일하러 오지.)
 ㄴ. 우리 시어머님은나 늙어근에 몸이 건강혜사 산텐 혜근에.[247]
 (우리 시어머님은 늙어서 몸이 건강해야 산다고 해서.)

제주방언의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앙(영)/-안(언)’, ‘-당 /-단’, ‘-난’, ‘-민’, ‘-아사’ 등이 있다. (31)은 중앙어의 ‘-아서(어서)’에 해당하는

연결어미로 ‘-양(영)’과 ‘-안(언)’으로 형태로 나타난다. (32)는 중앙어의 ‘-다가’로 ‘-당’과 ‘-단’의 이형태를 갖는다. 이들 연결어미는 ‘-양(영)’과 ‘-안(언)’, ‘-당’과 ‘-단’의 이형태를 갖는데, 여기에서 보듯 제주방언의 연결어미는 ‘-ㅇ’계와 ‘-ㄴ’계로 대립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ㅇ’계는 주로 현재나 미래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서술하며, ‘-ㄴ’계는 과거의 상태를 말하거나 서술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대립은 제주방언에 접속절의 시제를 나타내는 독립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국어 문법 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매우 특기할 만한 현상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다소 혼란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담화에서는 더욱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33)의 ‘-난’은 중앙어의 ‘-니까’의 의미로 (33ㄱ)에서와 같이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33ㄴ)과 같이 이유·원인을 나타내기도 한다. (34)의 ‘-민’은 ‘-면’의 의미로 가정을 나타낸다. (34ㄴ)과 같이 ‘-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35)의 ‘-사’는 ‘-야’에 대응하는 것으로, 당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강조를 나타내는 중앙어에서 ‘-야’와 같은 형태는 제주방언에서 모두 ‘-사’로 나타난다(성낙수, 1984: 37).



3) 종결어미

제주방언의 종결어미 또한 중앙어나 다른 지역 방언과는 다른 특이 형태소가 많다. 종결어미에는 문장이 어떤 종류의 문인지가 드러나고, 상대경어법의 등급이 나타난다.

(36) ㄱ. 땅에 녹아지렌 멩지숨에 썬에 그자 노난 녹아 불어실 거우다. [76]

(땅에 녹으라고 명주숨에 싸서 그저 봤으니 녹아버렸을 거예요.)

かつ 허는 사람 싯수게. [64]

(이기는 사람 있어요.)

먹고정 현 거 먹으렌 헙디다. [25]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헙디다.)

ㄴ. 아덜덜은 철을 몰른 거라. [216]

(아들들은 철을 모른 거라.)

しんぱい 엇인 사름 엇주.[2]

(걱정 없는 사람 없지.)

오늘 이디 절간이서 まつり엔 누게 말이 전화 와선게.[34]

(오늘 여기 절간에서 축제라고 누구 말이 전화 왔던데.)

ㄷ. 지금 이디 몸이 차갑는 때문에 아니 다넘서.[233]

(지금 여기 몸이 차갑기 때문에 안 다니고 있어.)

자기 자유로 먹지도 못 허여.[92]

(자기 자유로 먹지도 못해.)

(37) ㄱ. 본 사름이 잇수꽈?[11]

(본 사람이 있습니까?)

ㄴ. 저 할아버지 어느제 강 반 왕 정 꼴암신고?[138]

(저 할아버지 언제 가서 보고 와서 저렇게 말하지?)

오단 해신가 가단 해신가?[30]

(오다가 했나 가다가 했나?)

ㄷ. 너네만 일본 사름이냐?[90]

(너네만 일본 사람이냐?)

마농지시 이녁 냥으로 답안?[49]/ 오닐도 선생 올 거?[48]

(마늘장아찌 이녁대로 답았어?/ 오늘도 선생 올 거?)

(38) ㄱ. 우리 집이 오랑 경 선전허지 맏서.[256]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선전하지 마세요.)

ㄴ. 제주 하르방덜 하영 시난 그디 강도 들어.[84]

(제주 할아버지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들어.)

ㄷ. 이레 앓으라.[1]

(여기 앓아라.)

(36)은 평서형, (37)은 의문형, (38)은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예로,⁴⁵⁾ 각각의 (ㄱ)은 ‘흡서체’, (ㄴ)은 ‘허여체’, (ㄷ)은 ‘허라체’의 종결어미이다.⁴⁶⁾

45) 이 글의 예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두 제일제주인의 자연발화에서 가져왔다. 자연발화는 제일제주인과 연구자가 인터뷰하는 상황과 제일제주인 간의 담화 상황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한 자료에서는 청유문의 종결어미를 얻지 못했다.

46) 강영봉(2007: 70)과 정승철(2013: 179)을 바탕으로 제주방언의 종결어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	의문	명령	청유
흡서체	-다	-파~-까~-광~	-읍서	-읍주

(36ㄱ)은 상대존대 선어말어미 ‘-우-, -수-’에 종결어미 ‘-다, -게’가 결합하고 있고 (36ㄴ)에서는 ‘-라, -주, -ㄴ게’, (36ㄷ)은 ‘-서, -여’가 결합하고 있다. (37ㄱ)은 상대존대 선어말어미 ‘-수-’에 의문형 종결어미 ‘-파’가 결합하고 있고 (37ㄴ)에서는 ‘-은고’와 ‘-은가’가 결합하여 의문문임을 나타내고 있다. (37ㄷ)에서는 ‘-안, -어’가 결합하고 있다. (38)에서도 각각 ‘-읍서, -어, -으라’가 결합하여 명령문임을 나타내고 있다.

4) 사동과 피동

사동(使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의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다. 제주방언에는 이 외에 사동접미사 ‘-지-’가 쓰인다.

(39) ㄱ. 우리 한국 사람덜은 므물초배기 행 아정 강 맥이주게. [243]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메밀 수제비 해서 가져가서 먹이지.)

ㄴ. 쌀 씻어근에 밥도 허곡 국도 깔리고 반찬도 지지곡. [252]

(쌀 씻으면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지지고.)

ㄷ. 경혜네 몬 뺏기멍, 중간 사름덜 몬 빼멍 풀아 먹으멍 허연에. [196]

(그렇게 해서 모두 뺏기면서 중간 사람들 모두 빼면서 팔아먹으면서 해서.)

ㄹ. 그건 물 꿰와근에이. [239]

(그건 물 끓여서.)

(40) ㄱ. 경혜근에 마늘 썰어 뇌근에 떡와근에 먹주게. [253]

(그렇게 해서 마늘 썰어서 떡워서 먹지.)

ㄴ. 그 사랑도 원 현 섬에서 배 띄왕, 배 띄우난 이젠 대마도에 들어가젠 허

	-래~, -게	-과~-가~-광~-강		
혀여체	-어/라 -주 -안/언 -은게	-엔 -주 -안/언 -어/라 -은고/-은가	-어 -심	-주
혀라체	-저/여/라 -나/ㄴ다 -으네	-고/-가 -으니/-으냐 -으이/-으야 -디/-디아	-으라	-게 -자

난.[156]

(그 사랑도라고 하는 섬에서 배 띄워서, 배 띄우니까 이젠 대마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ㄷ. 주소 들린에 그 じんりきしゃ안티 영 뵈우난, 그 주소대로 집 앞이꺼지 태와완.[286]

(주소 들고 그 인력거한테 이렇게 보이니까 그 주소대로 집 앞에까지 태워서 왔어.)

ㄹ. 볼락, 그런 거 사근에 물류와근에 지속 쓰주게.[238]

(볼락, 그런 거 사서 말려서 제물로 쓰지.)

(41) ㄱ. 밥 혜영 맥이곡 딱신 국 데우멍 맥이곡 옷도 갈아입지곡 경허난 아이덜도 막 할머니, 할머니허멍 정들언게.[168]

(밥 해서 먹이고 따뜻한 국 데우면서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정이 들었어.)

ㄴ. 돈 신 집이 기부 많이 헌 집이 아기덜은 총 우등생을 주곡, 성적 나빠도, 또 아이덜토 우 얏져주곡.[257]

(돈 있는 집에 기부 많이 헌 집의 아기들은 총 우등생을 주고 성적 나빠도, 또 아이들도 위에 얏혀주고.)

ㄷ. 막 사름 굶지명도 훈련 시키멍 경허는디 한국은 그게 아니엔.[262]

(아주 사람 굶기면서도 훈련 시키면서 그러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고.)

ㄹ. どこすり(とこずれ)になるね. じっと 눅전 내 불민.[16]

(욕창에 걸린다. 계속 눕혀서 나뉘 버리면.)

(42) 경허민 오만 원 받아 노민 たのもし 들어 뵈. 깡 그거 구투알 시집가게 뵈민.[225]

(그러면 오만 원 받으면 계 들어 뵈어. 그래서 그거 모아서 시집 가게 되면.)

(39)~(42)의 밑줄 친 부분은 제주방언 사동사의 예다. (39)는 ‘떡--+이--+주’, ‘끌르--+리--+고’, ‘뵈--+기--+멍’, ‘뵈--+오--+아근에’로 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리-, -기-, -오/우-’가 결합하고 있다. (40)에서는 사동접미사가 중첩되고 있는데 (40ㄱ~ㄷ)의 ‘띄와근에’, ‘띄왕’, ‘뵈우난’은 각각 ‘트--+이--+오--+아근에’, ‘뜨--+이--+우--+앙’, ‘보--+이--+우--+난’이고, (40ㄹ)의 ‘물류와근에’는 ‘물리--+오--+아근에’로 사동 접미사(혹은 사동의 의미를 갖는 동사) 뒤에 사동 접미사 ‘-오/우-’가 결합한 형태로도 나타난 것이다.⁴⁷⁾

(41)은 ‘-지-’가,⁴⁸⁾ (42)는 ‘-후-’가 결합된 형태다.⁴⁹⁾ 이때 사동접미사 ‘-지-’, ‘-후-’는 제주방언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로 중앙어의 사동접미사 ‘-히-, -기-’에 해당한다.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아입다’, ‘얏다’, ‘굶다’, ‘눅다’의 동사 어간에 ‘-지-’가 결합하고 있다. (42)의 ‘구투양’은 ‘굳--+후--+양’의 결합으로 ‘굳후다’와 ‘구투다’(송상조, 2007: 74~75)의 형태로 쓰인다.

피동(被動)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난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행위를 말한다(남기심·고영근, 2009: 295). 보통 중앙어에서는 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하거나 ‘-아/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제주방언의 피동접미사도 형태상으로는 중앙어와 별반 다르지 않다.

(43) ㄱ. 이디저디서 사람이 모이난. [171]

(여기저기서 사람이 모이니까.)

ㄴ. 발동 소리 허민 잡히카부텐. [173]

(발동 소리 나면 잡힐까 봐서.)

ㄷ. 시모노세키서 걸런에, 오단 걸런. [194]

(시모노세키에서 걸려서, 오다가 걸렸어.)

ㄹ. 우리 어머님 딸신디 돈 는태레 오랏단 걸렛주게. [195]

(우리 어머니 딸에게 돈 얻으러 왔다가 걸렸지.)

(44) ㄱ. 우리 고모님 곁는 말 들으민 막 배설이 그차지게 웃어지주게. [280]

(우리 고모님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배설이 끊어지게 웃게 되지.)

ㄴ. 부에 똥싸지난 열 달 살앙 따시 난 이디 오라 불엇주게. [144]

(아주 화가 나서 열 달 살고 다시 난 여기 와 버렸지.)

ㄷ. 문 그거 아니헤 들이민이 문 썩어근에 털어지곡. [191]

(모두 그거 안 해서 들이면 모두 썩어서 떨어지고.)

47) 사동접미사가 중첩하여 쓰이는 것은 중앙에서 다른 지역 방언에서도 접할 수 있다. 특히 ‘-이우-’의 경우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김옥영, 2013: 163). 예로 ‘재우다(자+ 이+ 우+ 다)’와 같이 사동접미사 ‘-이-’, ‘-우-’가 중첩하여 쓰인 것이다.

48) 정승철(1995:66)은 사동의 접미사 ‘-지-’는 ‘-기-’에서 ㄱ-구개음화를 겪은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김광웅은 구개음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제주방언의 특이한 형태인 피동접미사에 명령형이 연결된 ‘-지라’형의 사역형 형태의 일종이라고 보았다(이승녕, 1978: 125; 김광웅, 2001: 143).

49) 강영봉(2007: 91)은 제주방언의 특유의 사동접미사로 ‘-지-’ 외에도 ‘-후-’가 있다고 하였다. ‘굳다’의 사동형 ‘굳후다(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으다)’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굳후다’ 외에 사동접미사 ‘-후-’가 결합하는 어휘의 예로는 ‘똥후다(똥다), 받후다(받다), 곧후다(곧다)’ 등이 있다(송상조, 1991: 109~111).

ㄹ. 아이 차시민 느려지나 어떻 헛주게.[5]

(안 찾으면 떨어지거나 어떻게 했지.)

(45) ㄱ. 그때 우리 아버지네광 흔디 간 어른이 고향에 흔 번 오라 보지 못헤연. 그냥
질 막아전게. [279]

(그때 우리 아버지네와 같이 간 어른이 고향에 한 번 와 보지 못했어. 그냥
길 막혀서.)

ㄴ. 경허난 이디 꺼꺼지난, 영 사름이 트라진 거 아니.[8]

(그러니까 여기 꺾여서 이렇게 사람이 비뚤어진 거 아니.)

ㄷ. 경허민 막 일본말로 케기 많이 나까점시넨 허멍 인사덜 허멍.[174]

(그러면 일본말로 고기 많이 낚이냐고 하면서 인사들 하면서.)

ㄹ. けっかんが 끈어지는 거 아니.[81]

(혈관이 끊어지는 거 아니.)

(43)의 ‘모이난, 잡히카부덴, 걸려네, 걸럿주게’는 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가 결합한 형태다. (44)의 ‘그차지게, 웨싸지난, 털어지곡, 느려지나’와 (67)의 ‘막아전게, 꺼꺼지난, 나까점시넨, 끈어지는’는 동사에 ‘-아/어지다’가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 특이한 점은 (43)과 같은 피동 접미사에 의한 피동형은 생산성이 매우 낮고 (44), (45)의 ‘-아/어지다’형 피동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강정희, 2001: 3~5). 즉 피동접미사가 결합된 형태의 피동형은 잘 쓰이지 않는 반면, ‘-아/어지다’형이 널리 사용된다. 사실 (45)의 경우도 중앙어에서라면 ‘막히다, 꺾이다, 낚이다, 끊기다’의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이들 피동사가 모두 ‘-아/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이렇듯 사동과 피동문에서 볼 수 있는 제주방언의 특징 또한 제일제주인 제주방언 화자들 사이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제일제주인은 일본어 생활권에 놓여 있지만 모국어인 제주방언을 유지하고 있다. 음운에서는 제주 지역 노인층 방언 화자들에게만 남아 있는 ‘·’ 모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개음화, 음운 첨가 등의 음운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제주방언 어휘는 물론 문법 형태 부분에서도 선행 명사의 말음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는 처격 조사나, 상대경어법이 체계가 지켜지는 종결어미, 사동·피동문 등에서 제주방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2. 제주방언의 변화

3.2.1. 음운

1) ‘·’

제주 지역 화자들 사이에서 ‘·’가 다른 모음으로 변화하여 나타나듯 제일제주인 화자들에게서도 다른 모음으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46) ㄱ. 친정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을에서 유메이(유우메이)야.[150]

(친정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을에서 유명해.)

ㄴ. 계란 배 임제가 대마도에서 비단 거튼 거 많이 시견에.[158]

(그러니 배 임자가 대마도에서 비단 같은 거 많이 실어서.)

ㄷ. 침, 사람 하나도 엇고 곱새만 엇고.[157]/ 아기덜 한 사람양?[17]/ 사람이 악하지 못헤연.[218]

(침, 사람 하나도 없고 갈매기만 있고./ 아기들 많은 사람이죠?/ 사람이 악하지 못해.)

ㄹ. 아들덜은 몬 죽어 불고 딸 성체.[179]/ 우리 메누리 아덜 못 나근에 헛젠 헛 그런 말은 안 허연.[220]

(아들들은 모두 죽어 버리고 딸 형제./ 우리 며느리 아들 못 낳았다는 그런 말은 안 했어.)

(47) ㄱ. 물질허고.[87]/ 아이덜도 몬 귀화허젠 허민.[269]/ 가난헛 조센진덜 한국서 살지 못 허난이.[272]/ 나 아기 낳고 헛디.[100]

(물질하고./ 아이들도 모두 귀화하려고 하면./ 가난해서 조선인들 한국서 살지 못 하니까./ 나 아기 낳고 했는데.)

ㄴ. 경허난게 오래비라도 흐끔 잘 맥이주.[44]/ 경허고 성산포⁵⁰⁾ 델 때도 잇고 아니 델 때도 잇고.[285]

(그러니까 오래비라도 조금 잘 먹이지./ 그러고 성산포 델 때도 있고 안 델 때도 있고.)

(46ㄱ, ㄴ)에서 ‘마을’, ‘거튼’은 ‘ㅁ을’, ‘ㄱ튼’의 어두 음절 ‘·’가 ‘ㅏ’, ‘ㅑ’로 변환

50) 제주시 성산읍 성산리의 성산포항을 말한다.

것이다. 이 경우, ‘마을, ㅁ을’, ‘거튼, ㄱ튼’이 모두 나타났다. (46ㄷ)의 ‘사람(人)’은 ‘사뵤’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었고, ‘사람’, ‘사뵤’으로 나타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뵤’형으로 실현되었다. (46ㄷ)의 ‘아들(子)’도 ‘아뵤’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아들’, ‘아뵤’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화자들 사이에서 ‘ㅎ다’ 또는 ‘허다’로 실현되는 ‘하다(爲)’는 재일제주인의 경우는 ‘ㅎ다’로 실현되는 형태는 찾을 수 없고 대부분 (47)에서와 같이 모두 ‘허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 다른 모음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제주 지역 방언 화자들에게서 보이는 변화인 어두 음절의 ‘·’는 ‘ㅏ’ 또는 ‘ㅑ’로 비어두 음절에서는 ‘ㅡ’, ‘ㅣ’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구개음화

제주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구개음화 실현 정도를 조사한 조성문(2013: 137)의 연구에 의하면, 40대 이하와 50대 이후 방언 화자 간의 구개음화 실현 정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10대에서는 0%, 20대 3%, 30대 10%, 40대 20%, 50대 87%, 60대 93%, 70대에서는 100%로 나타나는데,⁵¹⁾ 현재 제주의 50대 이상의 방언 화자에게는 대부분 구개음화한 어형이 나타나는 반면 40대 이하의 세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재일제주인의 경우는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지만 모두 구개음화한 어형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48) ㄱ. 아이고, 김치뵤 잘도 먹어이.[54]

(아이고, 김치들 잘도 먹어.)

ㄴ. 도중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작은고모님은 이제 직허는다.[281]

(도중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작은고모님은 이제 지키는데.)

ㄷ. 경허난 두린 때부떠양 우리 형제 간들은 먼 제주도 사투리말 씩니다.[255]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형제 간들은 모두 제주도 사투리말 씩니다.)

동일 화자의 발화에서도 앞의 예 (7)~(10)에서처럼 구개음화가 나타나기도 하

51) 조성문(2013)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를 각 세대별로 30명씩 210명을 선정하여 통신 조사하였다.

지만 다음의 (48)에서처럼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즉 제주 지역 70대 이상 방언 화자들이 모두 구개음화를 실현하는데 비해 재일제주인 70대 이상의 화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표준어의 간섭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재일제주인의 ‘·’나 구개음화에서 보이는 음운 변화는 제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변화로 일본어와의 접촉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재일제주인은 일본어와의 접촉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표준어와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1.2. 어휘

한편 언어 접촉에 의한 제주방언의 변화는 음운이나 형태적인 변화가 있기보다는 해당 어휘가 접촉하는 어휘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하다.

- (49) ㄱ. 난 아빠 산 때부터 우린 慕 불 사름도 엇고. [72]
 (난 아빠 산 때부터 우린 산소 불 사람도 없고.)
 ㄴ. 우리 집인 우이 오빠도 엇고. [105]
 (우리 집엔 위에 오빠도 없고.)
 ㄷ. 우리 셋 언니가 나 똑 똑 헌 언니 난 저 일 안 시 경 입 학 시 켜 분 거 라. [184]
 (우리 둘 째 언니가 똑 똑 한 언니 니 까 저 일 안 시 키 고 입 학 시 킨 거 야.)
- (50) ㄱ. おっさん 어디 머 청 놔 두 난. [3]
 (남편 어디 맡 겨 놔 두 니 까.)
 ㄴ. しゅじん은이 중 진, 중 진 애 비가 잇 어 근 에 이 중 진 혜 취 근 에. [213]
 (남편은 중 신, 중 신 아 비가 잇 어 서 중 신 해 줘 서.)
 ㄷ. 아 밤 걱 정 이 랑 허 지 말 앙 おかあちゃん 이 く ど こ だ け い っ て. [40]
 (아버지 걱 정 이 랑 하 지 말 고 어 머 니 갈 곳 만 가.)
 ㄹ. ねえさん 돈은 하 도, 게 도 아 덜 돈 하 도 메 누 리 가 딱 심 어 노 난 양. [79]
 (언니 돈은 많 아 도 아 들 이 돈이 많 아 도 머 느 리 가 딱 잡 고 잇 으 니 까.)
- (51) ㄱ. 계속 잇 어 시 민 もう ける 허 주 게. [266]
 (계속 잇 었 으 면 돈 벌 지.)

ㄴ. 그거 てつだい만 허믄 그거 허영.[114]

(그거 돕기만 하면서 그거 해서.)

ㄷ. 경해도 어멍 신 것과 엇인 건 ちがう.[41]

(그래도 어머니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다.)

ㄹ. 김치고 뭐고 なんでもたかい.[56]

(김치고 뭐고 뭐든지 비싸다.)

(49)는 친족명이 표준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49ㄷ)에서 ‘셋언니’는 제주방언형과 표준어형이 결합하고 있다. (50)에서는 일본어로 대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친족명은 일상생활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이다.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 자주 사용되면서, 제주방언형 그대로 나타나지만 일본어로 교체도 빨리 이루어진다. (50ㄱ)의 ‘おっさん’은 ‘おじさん(아저씨)’의 오사카 방언형이다. 여기서는 (50ㄴ) ‘しゅじん(남편)’과 같이 ‘자기 남편’을 지칭하고 있다. (50ㄷ, ㄹ)에서는 한 문장 안에 일본어 ‘おかあちゃん(어머니), ねえさん(언니)’가 제주방언 친족명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51ㄱ)의 ‘もうける, てつだう’는 ‘(돈을) 벌다, 돕다’의 뜻으로 앞서 살펴본 (3.1.2.) (20ㄱ~ㄷ)의 제주방언 ‘뻬다(메우다), 버슬다, 도웨다’ 동사를 대치하여 사용되고 있다. (51ㄷ, ㄹ)의 ‘ちがう(다르다), たかい(비싸다)’도 (20ㄷ, ㄹ)의 제주방언 형용사 ‘뜨나다, 빗나다’를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이 옛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차츰 일본어로 대치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치되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영향으로 표준어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재일제주인은 일본 사회에서 일본와의 접촉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앞서 2장(2.2.2)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지역 출신자나 본국으로의 왕래 한국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한국어도 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표준어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접촉하는 어휘의 전환 과정에서 본다면 언어의 유지에서 다른 언어로의 전환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들에서부터 대치되어 사용되면서 점차 문장 전체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어휘의 대치에서 시작하여 여러 문법 형태소로 확장하면서 두 언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3.2.3. 문법 형태

1) 조사

제주방언 조사가 일본어 명사와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 (52) ㄱ. あとみこみが 신 일이라고 초담 경 돈 하영 안 쥘.[115]
(나중에 전망이 있는 일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돈 많이 안 쥘어.)
ㄴ. ミシン 불르는 しょくにん털이 くせ가 나빠근에이.[194]
(재봉틀 밟는 직공들이 습관이 나빠서.)
ㄷ. おっさん이 꺼꺼전?[4]
(남편이 꺾어졌어?)
ㄹ. 그뻐 しもん의 아녀고 저 반도장.[160]
(그뻐 지문이 아니고 저 반도장.)
ㄱ. 이녀이 쓰고프민 가근에 おや신디 강 곧주게.[223]
(자기가 쓰고 싶으면 가서 계주(契主)에게 가서 말하지.)
(53) ㄱ. 막 성신디 もんく만 들어가난 이디 살고 싶은 생각이 었어.[127]
(막 언니에게 불평만 들으니까 여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ㄴ. まごど やすみ난에 혼디 들안 백화점 간.[125]
(손자도 쉬는 날이니까 같이 데려서 백화점 갔어.)
ㄷ. 늬의 집이 すみこみ로 들어가민 그 집이 일 잘 해 쥐사.[121]
(남에 집에 입주 도우미로 들어가면 그 집 일을 잘 해 쥐야.)

(52)는 일본어 명사 ‘みこみ, くせ, おっさん, しもん, おや’에 제주방언 조사가 결합하고 있다. 일본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앞서 예문 (23ㄷ)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명사의 자질에 따라 조사가 선택되는 제약 조건이 지켜지고 있다. (52ㄱ~ㄷ)에서는 선행명사 ‘みこみ[mikomi], くせ[kuse], おっさん[ossaN], しもん[simoN]’의 음운적 자질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가 선택되고 있다. (52ㄱ)의 ‘-신디’는 여격 조사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데 일본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고 있다. 이는 선행 명사인 일본어를 제주

방언의 체계 안에 받아들여 제주방언의 문법 규칙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3)에서도 일본어 명사 ‘もんく, まご, すみこみ’ 뒤에 ‘-만, -도, -로’가 결합하고 있다.

한편 조사가 일본어로 대치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54) ㄱ. 경헨 일본서 공부헨에 일본 사람と 일체야.[215]

(그래서 일본서 공부해서 일본 사람과 일체야.)

ㄴ. 우리 동네は 2 동이야나, 감수동⁵²⁾이야.[180]

(우리 동네는 2동이야, 감수동이야.)

ㄷ. 그디 마농지も 맛있는.[59]

(거기 마늘장아찌도 맛있어.)

ㄹ. 경허난 즈동차도 현대とか 대우とか 해근에.[270]

(그러니까 자동차도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해서.)

ㅁ. 케에さつ 병원에 간 혼 들ぐらい 입원해연.[82]

(경찰 병원에 가서 한 달 정도 입원했어.)

(54)는 제주방언 명사 ‘사람, 동네, 마농지, 현대, 달’에 일본어 조사 ‘-と, -は, -も, -とか, -ぐらい’가 결합하고 있다. 제주방언을 기반어로 문장에서 일부 조사만 일본어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문장의 구조가 유사한 두 언어는 문장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어휘가 교체되는 형태로 결합하고 있다. 이때 두 언어의 교차는 실질형태소와 의존형태소의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언어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언어 화자인 재일제주인이 이 두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인지하지 않고 혼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두 언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 보면 더욱 확실하다.

(55) ㄱ. 오とうと노 고등학교까지 나오고.[110]

(남동생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ㄴ. 단지 채 담으면 이ける. 호ね노 녹진 안 허주만은.[75]

(단지 채 담으면 할 수 있어. 빼는 녹진 않지만은.)

52) 제주시 삼양동의 한 마을 이름.

ㄷ. 계도 うまくな だいたいちょっとしても当たる 허난.[62]

(그래도 말은 대개 조금만 해도 당침되니까.)

ㄹ. 젓 맥이레 오란 허난 막 ごども(ごども)ㄴ 젓 먹젠 해도 난 아광 막.[126]

(젓 먹이러 오니까 아인 젓 먹으려고 해도 난 아파서.)

(56) おとなしいㄴ 허주계계. 우리 사람들은 ‘와와’ 허주만은.[93]

(얌전은 하지. 우리 사람들은 ‘와와’ 하지만은.)

(55)에서 일본어 명사 ‘弟(남동생), 骨(뼈), 馬(말), 子供(아이)’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고 있다. 보조사 ‘-은/는’은 체언의 격을 표시하는 격조사와는 달리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구어에서 쓰일 때는 선행하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축약된 형태인 ‘-ㄴ’으로 실현되는데 (55)에서와 같이 일본어 선행 명사와 결합하여 축약된 형태인 ‘弟ㄴ(otouton), 骨ㄴ(honen), 馬ㄴ(uman), 子供ㄴ(kodomon)’으로 실현되고 있다. (56)에서는 일본어 형용사와 결합하고 있는데 형용사의 기본형에 형태 변화 없이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おとなしい(얌전하다)’에 ‘-ㄴ’이 결합하여 ‘おとなしいㄴ(otonasi:n)’으로 실현된다. 일본어 체언(또는 용언) 뒤에 제주방언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는 것으로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형태소 경계에서 결합하면서 음운 축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형태소 경계에서 결합하면서 음운 축약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57) 아니 그 마린 원 재수가 なかつテン, 바당도 세곡 으남도 팍 저불고나. あの 그 마리엔 막 わるかつテン. [33]

(아니 그 지경에 원 재수가 없었다고 바다도 세고 안개도 팍 끼고. 그 지경에 아주 안 좋았다고.)

(57)의 밑줄 친 ‘なかつ텐’, ‘わるかつ텐’은 일본어 형용사 ‘ない(없다)’, ‘わるい(나쁘다)’의 과거형 ‘なかつた’, ‘わるかつた’에 제주방언 인용어미 ‘-엔’이 결합한 형태다. 이 경우 제주방언의 과거형에 인용어미가 결합하듯이 일본어 형용사의 과거형에 제주방언 연결어미 ‘-엔’이 결합다. 즉 ‘먹었다 + -엔 → 먹엇텐’과 같이

‘なかつた(nakatta) + -엔 → なかつテン(nakatten)’, ‘わるかつた(warukatta) + -엔 → わるかつテン(warukatten)’의 형태로 결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두 형태소가 결합하면서 음운의 축약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합되는 형태소 간의 긴밀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로 유사한 두 언어 간의 간섭으로 결합하는 두 형태소가 서로 다른 언어라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2) 연결어미

(58) ㄱ. へび민 かぞえよんや.[42]

(뱀이면 세는 나이로 넷이야.)

ㄴ. おとうと난 おとこ 하나로 영 키우난.[46]

(그러니 옛날로부터 남동생이니까 남자 하나로 이렇게 키우니까.)

ㄷ. まご도 やすみ난에 혼디 들안 백화점 간.[125]

(손자도 쉬는 날이니까 같이 데려서 백화점에 갔어.)

(59) ㄱ. 으라 가지 あるけどね 난 이디저디 막 수술해도 끈어 불민 낫는 병.[22]

(여러 가지 있지만 난 여기저기 수술해도 끊어 버리면 낫는 병.)

ㄴ. 옛날 きず(きず)あったら 사람 아프지 안 험니까?[9]

(옛날 상처 있으면 사람 아프지 않습니까?)

제주방언 연결어미는 (58)에서와 같이 일본어 명사 뒤에 결합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58)에서 연결어미 ‘-민, -난’은 일본어 명사 ‘へび(뱀), おとうと(남동생), やすみ(쉬는 날)’에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형태소에 차이가 있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연결어미가, 일본어는 접속조사가 그 역할을 한다. (58)의 경우는 연결어미에 선행하는 선행어(명사)만 일본어로 대체된 반면, (59)는 용언에 접속조사가 일본어로 대체되고 있다. (59ㄱ)에서는 일본어 동사 ‘ある(있다)’에 접속조사 ‘-けど’가 결합한 형태이고 (59ㄴ)은 ‘ある(있다)’에 ‘-たら’가 결합한 형태이다. 문법 형태소의 분류는 다르지만 문장을 연결하는 표현도 일본어로 대체되어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혼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일본어로 대체되는 단위는 어휘나 문법 형태소의 단일 요소가 아니라 용언에 접속조사가 결합한 형

태로까지 확대된다.

3) 종결어미

(60) ㄱ. 땅에 가는 건 おほか주만은.[69]

(땅에 가는 건 산소이지만은.)

ㄴ. 일본 전장은 まし라. 위로 오랑 떨어져 부난.[107]

(일본 전쟁은 나아. 위로 와서 떨어져 버리니까.)

ㄷ. 아이고, 그냥 병으로 죽는 사람은 しあわせ여개.[38]

(아이고, 그냥 병으로 죽는 사람은 행복하지.)

앞서 살펴본 조사나 연결어미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명사에 제주방언이 종결어미의 결합 또한 접할 수 있다. (60)은 ‘おほか(묘), しあわせ(행복), まし(더 나음)’의 일본어 명사 (혹은 명사형)에 평서형의 ‘ㅎ여체’(60ㄱ), ‘ㅎ라체’(60ㄴ, ㄷ) 제주방언 종결어미가 결합하고 있다. 이는 제주방언의 문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어휘에서 일본어로 대치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61) ㄱ. 이녁이 완 살아 보난 ちがう. [119]

(자기가 와서 살아 보니까 달라.)

ㄴ. 그것도 앓아 불민 さびしい. [67]

(그것도 치위 버리면 외로워.)

(62) ㄱ. 겨고양 사람 멧 엇인 디 회사도 여섯 개나 들어가 노난 정신이 ないね. [12]

(그리고 사람 멧 없는데 회사도 여섯 개나 들어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

ㄴ. まだ 묻어진 사람 おるや. [32]

(아직 묻힌 사람 있어.)

ㄷ. 일본 사람덜이 자유로 못 탕기는 바당이 あるのよ. [31]

(일본 사람들이 자유로 못 다니는 바다가 있어.)

ㄹ. 집에서 죽는 사람은 しあわせ야나. [66]

(집에서 죽는 사람은 행복하지.)

(63) ㄱ. 아무도 본 사람이 おれへん. [6]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ㄴ. 대정이라도 두 번 갔다오난 일로 도난 わからへん. [27]

(대정이라도 두 번 갔다왔는데 이쪽으로 도니까 몰라.)

(64) ㄱ. 독방이난게 돈 십이만 원やんか게. [7]

(독방이니까 돈 십이만 원이지 않냐.)

ㄴ. 경 おっさん도 푸더저도, 경 푸더질 망じゃないね. [10]

(그렇게 남편도 넘어저도 그렇게 넘어질 방이 아니야.)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장 종결 형태가 다르다. 한국어가 문장의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어는 조동사나 종조사로 문장이 끝난다. 일본어의 조동사는 용언의 활용형에 결합하는데 외국어로 일본어를 구사하는 입장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을 익혀서 제대로 구사하기는 지 않다. 그래서 제일제주인 1세의 경우도 일본어 어휘를 차용할 때 용언의 경우 활용을 하지 않고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활용을 하더라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용형⁵³⁾ 정도의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에서 문장의 연결은 용언의 연용형에 접속조사나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문장의 종결은 연용형에 조동사나 종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어가 ‘선행어+종결어미’로 문장을 종결하고 일본어는 ‘선행어+조동사(또는 종조사)’로 문장을 마친다. 이때 선행어는 한국어에서는 용언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가 되고 일본어는 동사의 활용형이 된다. 한국어 조사는 그 의미와 형태면에서 일본어 조사와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는 반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는 일본어의 접속조사나 조동사(또는 종조사)로 대치되지 않고 선행어와 결합된 형태로 대체된다.

(61)은 일본어 용언의 종지형인 ‘ちがう(다르다), さびしい(외롭다)’ 문장을 종결하고 있고 (62ㄱ~ㄷ)에서는 용언에 종조사, (62ㄴ)은 조동사 뒤에 다시 종조사가 결합되어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63)은 동사의 활용형에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へ)ん’이 결합하고 있다. 이때 ‘-(へ)ん’은 오사카 방언에서 특징적인 표현이다. 제일제주인 1세들에게 선행하는 동사는 활용을 했다기보다는 동사에 결합한 형태를 하나의 어휘로 습득하여 사용한다.

53) 용언에 연결되는 형태로 뒤에 조사나 조동사가 결합한다.

4) 사동

(65) だれが 공부 させてくれるの.[120]

(누가 공부 시켜 줘?)

한편 재일제주인 발화에서 사동의 표현이 일본어로 대치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예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재일제주인 1세들의 일본어로 전환은 주로 어휘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사의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사의 활용형에 조동사를 결합시켜 사동이나 피동을 표현하기가 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어의 사동과 피동은 동사의 활용형에 각각 사동의 조동사 ‘-(さ)せる’와 피동의 조동사 ‘-(ら)れる’가 결합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정식적인 교육을 통해 일본어를 습득한 것이 아닌 이민 1세들에게 이러한 동사의 활용은 지 않다.

제주방언 특유의 형태를 갖는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사동·수동 등 문법 체계가 재일제주인에게서도 잘 유지되고 있다. 이들 문법 형태가 일본어와의 접촉에 인한 변화는 문법 형태소의 형태적 변화보다는 문법 형태소가 일본어로 대치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어와의 접촉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어휘 단위로 일본어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일본어로의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은 일본어와 혼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 접촉에 의해 언어 전환으로 가는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이 일본어와의 접촉에 의한 언어 변화는 주로 제주방언의 음운적, 형태적인 변화라기보다 어휘의 대치에서 오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IV. 언어 혼용과 언어 전환

언어 접촉에서 언어 변화는 어떤 한 언어가 이질적 요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한다. 언어 접촉으로 이중언어 상황에 놓이면 언어의 변화는 어떤 한 언어 영역에 다른 언어의 사용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일어난다. 두 언어의 접촉 상황에서 하나의 언어는 다른 언어로 바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언어를 유지하지만 조금씩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두 언어를 혼용하게 된다.

(66) 가1: あなたもびょうきが 으라 가지 あるけどげんきや.

(너도 병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건강하구나.)

나1: 으라 가지 あるけどね 난 이디저디 막 수술해도 끈어 불민 낫는 병. 낫아신디 안 낫아신디 わからへんけど. あたまもな, のうこうそくはね, にじゅうよじかん 넘으면 みんな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어するね.

(여러 가지 있어도 난 여기저기 막 수술해도 끊어버리면 낫는 병.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도. 머리도 뇌경색은 24시간이 넘으면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어.)

다1: 게도 げんきや.がんばってる이.

(그래도 건강한 걸. 열심히 하네.)

나2: うちだけ, 먹으난마썸.

(입만, 먹으니까요.)

가2: 병원에서 탕점주만은, 아프민 먹어져게.

(병원에야 다니고 있지만 아프면 먹을 수 없어.)

나3: 아이구, 요번인양 밥만 봐 가민 역테기 올라완게 이제 ㅎ뽀 어떻게 어떻게 먹어접수다. 경혈땀양, やせて 기운이 엇영 이레착저레착する えよう(えいよう)がないから게.

(아이고, 요번에는 밥만 보면 욕지기가 올라오더니 이제 조금 어떡어떡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살이 빠져서 기운이 없어서 휘청휘청해요. 영양이 없으니까.)

가3: や, うちもそのときあったわ. 넘은해에. 원 밥 봐 가민 먹기 실평게.

(야, 나도 그럴 때 있었어. 지난해에. 원 밥 봐 가면 먹기 싫어서.)

나4: そうやから 병원에서 굶습디다. あのごはんはたべへんでも, やさいでもじぶん すきな(野菜でも自分好きな)もんたべなさいと, あの 옛날 사름덜은 이것 먹으 민 あかん, 저거 먹어, 뭐 흐루라도 살젠 허민 すきなもん, 먹고정 현 거 먹으 렌 험디다. 우리 집이 おっさん 돈도 아무것도 엇어도양 병원에 자꾸 가가난, 이디꺼지 오젠 허민 タクシーだいもったいないな, 굶아가민 おれのこときつ かわずしっかりたべて, おかねのこさんでもええよ(お金の残さんでもええよ)と いうから, おかねどこにあるのよ. 저 먹을 것도 막 しまつ 허멍 돈 じぶんのた ために 에끼지 말렌. 아이구 경 굶양 웃엇주게.[26]

(그러니까 병원에서 말합디다.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험디다. 우리 집이 남편 돈도 아무것도 없어도 병원에 자꾸 가니까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택시비 아깝 고, 하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먹어라, 돈 남기지 않아도 좋으니 하고 말하 기에, 돈이 어디 있어. 저 먹을 것도 막 절약하면서 돈 자기 위해서 아끼지 말 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해서 웃엇어요.)

위 (66)은 제일제주인 간의 대화이다.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섞어 사용하고 있 다. 실제 대화를 들었을 때 두 언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두 언어 사이에는 주저함이나 휴지(休止)는 찾아볼 수 없었다. 두 개의 언어가 아니라 마 치 하나의 언어를 운용하는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1)은 일본어로 구성된 문장에 제주방언 부사가 삽입되어 있다. (나1)은 절 단위로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교체된다. 그리고 ‘죽어 するね’처럼 제주방언 어간에 일본어가 결합되 어 동사구를 이루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결합은 (나3)의 ‘이레착저레착 する’, (나4)의 ‘しまつ 허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1) 에서는 일본어 문장에 제주방언 접속사와 간투 표현이 결합하고 있다.

위 대화는 제주방언을 모어로 하는 화자도,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도 어느 한 쪽 언어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은 이중언어 화자로 두 언어를 바꿔가면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코드 전환(code switching) 에서 다루고 있는 담화 단위의 코드 전환(conversational code switching)이나 상 황적 코드 전환(situational code switching)과는 달라서 발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언어를 바꾸는 코드 전환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또한 흔히 접촉 언어

에서 다루는 피진(pidgin)⁵⁴이나 크레올(creole)⁵⁵과도 다르다.

위와 같은 재일한국인의 혼용 언어를 피진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는 있었다. 구마타니아키야스(1988: 224)는 재일한국인 1세들이 한국어 동사·형용사 어간에 일본어 ‘する’를 결합하는 언어 현상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결합형을 문법적 형태로 묶어서 일본어 속에 전이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의 피진(pidgin)의 특징적인 간략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김정자(2002:20~21)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혼용을 피진으로 정의하는 데에 논란이 있을지라도, 피진 형성의 한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재일한국인 1세들의 혼용 양상은 이중언어 화자가 상황에 따라 의식적으로 코드를 전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정하게 단순화되고 혼합된 양상을 보이며, 조어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피진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두 언어의 혼용 사용이 재일한국인 1세들 간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상호 통용되는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진은 교류를 목적으로 갑작스런 접촉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피진은 음운·문법·어휘의 모든 면에서 구조가 단순하고 문법 구조의 틀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하다. 이때 언어 접촉은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는 그룹 간의 접촉으로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의사소통을 위해 생겨난 언어이다. 그래서 재일한국인 간에 통용되는 언어를 피진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일제주인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66)은 일본어 화자와 제주방언 화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일제주인 간의 대화이다. 즉 피진이 이언어(異言語)를 사용하는 두 그룹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생겨난 언어인 반면 (66)과 같은 재일제주인의 언어는 이중언어 사회에서 생겨난 것으로 같은 집단 내부에서의 교류에 쓰이기에 피진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언어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민 집단의 언어 혼용

54) 피진(pidgin)은 사회적으로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새로이 생겨난 언어의 총칭이다(宮下尙子, 2007: 52). 피진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 피진은 대개 식민지 지역 또는 무역이나 노동이 관련된 상황에서 외부인들과 현지인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231).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언어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건을 팔고 사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인 만큼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55) 크레올(creole)은 이 피진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모어로서 피진을 배우게 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크레올은 피진에 비해 그 기능과 영역의 폭이 넓어져 제1언어로서의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시장, 회사, 교회 등의 영역을 거쳐 가정 및 학교의 영역에서까지 자유롭게 쓰이게 되며 문학 창작이나 번역에서도 쓰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크레올은 그 구조도 피진처럼 단순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정상적인 수준까지 발전한다(이익섭, 1994: 271).

현상이다.

위 (66)의 대화 참가자들은 의식적으로 상황이나 담화 상대에 맞게 언어를 바꾸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두 언어를 혼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두 언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제주방언이나 일본어의 문법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문법 체계가 크게 간략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두 언어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것으로 두 언어 간의 코드 혼용(code mixing)에 의해 불완전한 언어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럼 재일제주인이 위 (66)과 같이 불완전한 형태로 두 언어를 혼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들은 ‘제한적 이중언어’ 화자로 언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언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지만 어느 쪽의 언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두 언어에 모두 의지하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사회 집단에서 연관되어 발달하면서 두 언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두 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언어 능력의 부족은 언어 습득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Thomason & Kaufman(1988: 47)은 언어 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언어 변화는 모국어(초기의 언어, substratum)의 간접 형태가 집단의 불완전한 습득(imperfect group learning)에 의해 모방되어 주위에 전파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일제주인의 언어 습득 모델은 자신보다 먼저 일본에 정착한 같은 지역 출신자들이었다. 많은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일본어는 물론 모국어도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모국어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불가능하고 일본어도 오로지 청각적인 정보에 의해 습득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생활이 60년 이상인 되는 경우에도 일본어의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먼저 정착한 선배들의 언어를 청각에 의지하여 습득하면서 불완전한 형태의 언어가 생성되었고 그 언어는 걸러지는 단계를 거치지 못한 채 다시 전달되며 언어 공동체 내에서 불편 없이 통용되었다.

불완전한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도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원인이 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교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문법 구조나 어휘 체계에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이

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각각의 언어를 구사할 때 다른 언어를 적용하여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한국어의 언어 체계 안에 있는 제주방언 역시 그러하다. 두 언어의 유사성은 서로의 언어에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동일한 언어로 인지하게 하여 두 언어를 혼용하는 것이다.

제주방언과 일본어 두 언어 간의 간섭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형태가 굳어져 개인의 언어 체계 안에 자리 잡게 된다.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 사용하다 보면 언어 공동체 내에서 그대로 정형화하게 된다. 이렇게 굳어진 형태로 원래의 두 언어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 이중언어 화자에게서 일어나는 간섭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좀 더 익숙한 언어의 규범을 그렇지 못한 언어에 적용시키려 하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재일제주인 1세는 이중언어 화자이다. 그래서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따라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일본인이나 손녀(또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는 일본어로, 고향에서 방문한 친척들과 이야기할 때는 제주방언을 사용한다. 또한 남편이나 같은 지역 출신 이웃이나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제주방언을 사용한다. 즉 담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언어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와 제주방언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일제주인 1세들 간의 담화에서 어휘는 물론 통사체계에 이르기까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1. 언어 혼용

4.1.1. 차용에 의한 혼용

언어 접촉에 의한 변화는 언어 외적인 요인의 결과다. 언어 접촉의 결과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어휘의 차용이다. 차용(borrowing)은 다른 언어의 단어들을 받아들여 자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⁵⁶⁾

“국어사는 한편으로는 차용의 역사이기도 하다.”(이익섭, 2000: 311)라고 할 만큼 우리말 안에는 많은 차용어가 있다. 일찍부터 중국과의 접촉으로 중국으로부터 차용된 한자어가 한국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서양 문물이 전해지면서 많은 서구 외래어가 한국어 안에 자리하게 됨은 말할 것도 없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일본어 어휘가 우리말에 차용되어 쓰이고 있다.⁵⁷⁾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적인 접촉은 조선시대에 시작되어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같고 문법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이는 두 언어 간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어에는 많은 일본어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두 언어는 양자의 구조적 특질들로 말미암아 한국어와 일본어가 만나게 될 경우 특히 한국어 사용자 쪽에서 일본어를 수용하는 일이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김광해, 1995: 4). 그 이유는 주로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말소리나 문법 부문에서 훨씬 복잡하다는 데 있다. 가령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많은 말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조사나 어미의 개수도 한국어 쪽이 현저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그 수효가 많다. 이 같은 음소나 문법 요소들의 차이는 결국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뜻한다(김광해, 1995: 4~5). 지속적인 우리말 순화 운동을 통해 현재는 일본어 어휘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일본어가 남아 있다. 이들 중 일부의 경우는 일본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⁵⁸⁾

(67) ㄱ. 쇼부(勝負), 곤로(焜爐), 와리바시(割りばし), 카레(カレー, curry)

ㄴ. 대출(貸出), 추월(追越), 조립(組立)

ㄷ. 떠오르다(浮き上がる), 만들어내다(作り出す), 꽃다발(花束)

56) 차용은 이웃 언어권에서 먼저 개발되거나 전문적으로 분화된 개념들이 그 형태 및 의미와 함께 수입되어 내국어의 음성규칙에 맞게 변형되어 어휘 목록에 수록된 후 문법규칙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접촉과정에서 어휘 차원뿐만 아니라 음성, 문법 분야에서도 언어 차용이 나타난다(권명식, 2011: 154).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휘의 차용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57) 일본어 차용어는 일제시대에 일본인 기술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분야인 토목, 건축, 양복, 일식 요리, 미용 등의 업종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강신향, 1991).

58) 일본어가 우리말 속에 쉽게 자리 잡은 이유에 대해, 김광해(1995)는 언어 체계의 유사성과 한자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원인, 선진 문물에 대한 갈구라는 문화적 원인,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정치적 원인을 들고 있다.

일본어 차용어는 위 (67)에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67ㄱ)처럼 일본어 발음이 그대로 사용되는 직접 차용이다. 이 중에는 원어가 한자어, 고유 일본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어휘가 가장 많지만, 서구어인 것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67ㄴ)과 같이 한자를 통한 간접 차용 방식으로, ‘貸し出し(kashidashi)→대출’, ‘追い越し(oikoshi)→추월’, ‘組み立て(kumitate)→조립’과 같은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식으로 음독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67ㄷ)처럼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 차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용어 중에서 (67ㄴ)과 같은 한자를 통한 간접 차용어인 경우와 (67ㄷ)과 같은 번역 차용어는 일본어인 줄 모르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⁵⁹⁾ 하지만 (67ㄱ)과 같이 일본어 발음이 그대로 사용되어 일본어의 냄새가 짙은 어휘들은 국어 순화 운동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어에 잔존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제주방언에는 이러한 음운 차용한 일본어 어휘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들 일본어 차용어가 재일제주인 1세의 제주방언 발화에도 그대로 나타난다.⁶⁰⁾



(68) ㄱ. 한국 강 보난 자리물회에나 다마네기(玉ねぎ) 놔서렌.[104]

(한국에 가서 보니까 자리물회에 양파 넣었다고.)

ㄴ. 느럽게 돼민, 새 달에쭈 이녀이 쓰고프민 가근에, 오야(おや)신디 강 곧주게.[223]

(내리게 되면 새 달에쭈 자기이 쓰고 싶으면 가서, 계주(契主)에게 가서 말하지.)

ㄷ. 옛날 기스(きず) あったら 사람 아프지 안 험니까?[9]

(옛날 상처 있으면 사람 아프지 않습니까?)

59) 이들은 일본 한자음과 관계없이 한국 한자음을 통하여 한국어에 들어 왔으므로 일본어 차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말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들이 일본어 차용어라는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한자로 조어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자란 일본어 조어에서도 그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전통적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라는 의식을 주지 않을 만큼 토착화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어휘의 차용에는 별다른 저항이 개입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 범주에 속하는 차용은 일본어 발음을 통한 직접 차용이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백안시 당하는 경향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송민, 1979: 46).

60) 이 글의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에 포함된 일본어 차용은 첫 번째 유형인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에 한한다.

- (69) ㄱ. 경허난 미싱(ミシン) 양복 그뎨 막 양복이 세월난이 일이 바빠낫주게.[203]
 (그러니까 재봉 일 양복 그뎨 막 양복이 세월나서 일이 바빴었지.)
- ㄴ. 노무자로 불려간 덴 큰 도라무깡(ドラムかん) 허고 석유통 석유 기름 노는 깡
 (かん), 그거 만드는 디.[141]
 (노무자로 불려 간 덴 큰 드럼통하고 석유통 석유 기름 놓는 통, 그거 만드
 는 데.)
- ㄷ. 아이덜 입는 코르텐 쓰붕(ズボン) 줍는 거.[149]
 (아이들 입는 코르텐 바지 주는 거.)

(68)의 ‘다마네기(玉ねぎ), 오야(おや), 기스(きず)’는 각각 ‘양파, 계주(契主), 상처’에 해당하는 일본어다. (69)의 ‘미싱(ミシン), 도라무깡(ドラムかん), 쓰붕(ズボン)’은 ‘재봉틀, 드럼통, 바지’에 해당하는 일본어다. ‘미싱(ミシン)’은 ‘sewing machine’의 축약어이고, ‘도라무깡(ドラムかん)’은 영어의 ‘drum’과 영어의 ‘can’에서 음을 빌린 ‘缶(깡통)’의 합성어이다. ‘쓰붕’은 프랑스어 ‘jupon’이 일본어 안에 들어온 경우다. 이들은 모두 순화해야 할 일본어 목록에(박용찬, 2005 참조) 올라 있는 어휘들로 현지 제주 지역 언중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재일제주인 발화에서도 게 들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배경에 의해 한국어에는 많은 일본어 차용어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하여 일본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완진(1957: 114~115)은 그 이유로 제주도 사람들이 해방 전 일본과의 왕래가 잦았음을 들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력이 강했던 여성들이 일본으로 나가 일본어를 습득하였고, 제주에 돌아와서도 그 어휘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본어가 제주방언 안에 스며들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문화 정도가 낮았었다는 것과 함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언어상의 식민지가 되기에 적합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68), (69)의 일본어 차용어는 제주 지역에서도 제주방언에 포함되어 통용되는 어휘들로 재일제주인 1세대들이 이들 어휘를 일본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이미 습득했는지, 일본 이주 이후에 습득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재일제주인 사이에서 이들 일본어가 제주방언에 흡수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다. 이러한 예들은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70) ㄱ. 겐 물, 아기 낳 허민 다라이(たらい)에 저 물 아기 목욕시키기 좋게시리.[240]
(그래서 물, 아기 낳아서 하면 큰 대야에 저 물 아기 목욕시키기 좋게.)
ㄴ. 이제 소카이(そかい) 허라 소카이(そかい) 허라 허난.[190]
(이제 소개(疏開) 해라 소개(疏開) 해라 하니까.)
ㄷ. 우리 나라비(ならび)에 아방이 일본 회사에 다니난 보험 잇어낫주게.[88]
(우리 같은 줄에 있는 집에 아버지가 일본 회사에 다녀서 보험 있었지.)
ㄹ. 신호허민 이젠 다다미(たたみ) 걷으민 그 굴 쏘곶에 들어강.[177]
(신호하면 이젠 일본식 돛자리를 걷으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 (71) ㄱ. 경헤근에 그자 다팡(たくあん)이나 떡곡 아침밥은.[275]
(그러해서 그저 단무지나 먹고 아침밥은.)
ㄴ. 점심 벤또(べんとう), 점심 쌍 가주게.[273]
(점심 도시락, 점심 싸서 가지.)
ㄷ. 그거 뇌근에 칸테기(かんてき)에 뇌듬서 거기서 반찬도 지지고 고기도 곱곡.[249]
(그거 놓아서 풍로에 놓아 두고 거기서 반찬도 지지고 고기도 곱고.)
ㄹ. 그 양 키웁는 디 그 기슨새 현 거 미깡(みかん) 맞디 걸름이 잘 웨는 생이라.[211]
(그 양 키우는 데 그 지봉에 덮었던 묵은 띠 한 거 감귤 밭에 거름이 잘 되는 모양이라.)

일본어 차용의 경우 (70)과 같이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71)에서와 같이 일본어를 한국어 음절 구조에 맞추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⁶¹⁾ 일본어는 개음절어로 모든 음절이 모음으로 끝난다. 특수음소인 ‘발음/N’,

61) 한편 일본에 들어온 서양어가 일본어의 음절 구조에 맞추어 차용되고 그 차용어가 다시 한국어로 유입된 경우가 있다.

- (1) ㄱ. 뽕끼(ペンキ): pek(네덜란드어) / 페인트(paint, 영어)
ㄴ. 고편(コップ): kop(네덜란드어) / 컵(cup, 영어)
ㄷ. 도라꾸(トラック): 트럭(truck, 영어)
- (2) ㄱ. 텔레비(テレビ): 텔레비전(television, 영어)
ㄴ. 쓰레빠(スリッパ): 슬리퍼(slipper, 영어)
ㄷ. 뽕구(パンク): 펑크(puncture, 영어)

‘축음/Q/’, ‘장음/R/’은 음절의 구실을 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음절과 동등한 박(拍, mora)를 가지고 있다.⁶²⁾ (73ㄱ) 일본어 ‘たくあん’은 3음절(4박)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2음절로 축약되고 있다. (73ㄴ~ㄷ)의 ‘べんとう, かんてき, みかん’는 발음 ‘ん’이 ‘-ㄴ, -ㅇ’으로 앞 음절과 결합하여 박(拍)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 (74ㄴ)의 ‘べんとう’에서 장음 ‘う’는 생략되었고 (74ㄷ)의 ‘かんてき’는 어종의 무성음인 ‘て’와 ‘키’가 모두 유성음화하고 있다.⁶³⁾

위 (1)과 (2)의 ‘ペンキ, コップ, トラック, テレビ, スリッパ, パンク’는 원래 서양어를 일본어로 차용한 것이다. 일본어 음절 구조에 맞추어 있어서 본래의 발음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어 음절 구조에 맞추어졌다는 것은 우선 서양어의 개음절 표기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의 ‘pek, kop, truck’이 일본어에 차용될 때에는 모음 ‘i’나 ‘u’가 음절 말에 첨가되어 ‘peNki, gopu, toraku’이 된다. 한국어의 ‘뽕끼, 고뿌, 도라꾸’는 일본어 ‘ペンキ, コップ, トラック’를 차용한 것이다. (2)의 ‘텔레비, 쓰레빠, 빵구’도 일본어 ‘テレビ, スリッパ, パンク’를 차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는 이들 ‘뽕끼, 고뿌, 도라꾸, 텔레비, 쓰레빠, 빵구’가 서양어를 직접 차용한 ‘페인트, 컵, 트럭, 텔레비전, 슬리퍼, 핑크’로 대체되었지만 제주방언 언중들 사이에는 이들 일본어 차용어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이는 제일제주인 1세 사이에서는 더욱 고착화되어 있다.

- (3) ㄱ. 면 짜는 거, 세타(セータ) 같은 거.
 (면 짜는 거, 스웨터 같은 거.)
 ㄴ. 혼두 해 지낭 모다(モーター) 미싱(ミシン)이 나왔.
 (한두 해 지나서 모터 재봉틀이 나와서.)
 ㄷ. 예순 나사 이디 뿌루(プール)에 간 휘여 봤주.
 (예순 되어야 여기 풀에 가서 헤엄쳐 봤어.)
 ㄹ. 난 요새 일도 안 하고 비데오(ビデオ) 보긴 디가 혼 거자 십 년 뒤편주만은.
 (난 요새 일도 안 하고 비디오 본 지가 한 거의 십년 뒤편지만은.)
 ㄹ. 계난 산지서 이젠 물くるま 탄에 그뎨 빠스(パス)도 었고 그 시절엔.
 (그러니 산지향에서 이젠 말수레 타서 그뎨 버스도 없고 그 시절엔.)

(3)의 ‘세타(セータ)’는 ‘sweater’, ‘모다(モーター)’는 ‘motor’, ‘뿌루(プール)’는 ‘pool’, ‘비데오(ビデオ)’는 ‘video’의 일본어 차용어다. 한국어 어휘에도 이에 해당하는 외래어 ‘스웨터, 모터, 풀, 비디오, 버스’가 있지만, 일본어 차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2) 일본어의 경우 음절(音節)과 박(拍)이 일치하지 않는다. 음절은 모음을 중심으로 한 단위지만 박 혹은 모라(mora)는 음의 길이를 세는 단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음절 구조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는 拍(mora)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는 음성적 음절의 하위 단위로 길이의 단위인 拍이 존재하나 한국어의 음절에는 拍이라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김승한, 1984: 367).

63) 김경호(2002: 173~184)는 일본어 차용어에서 나타난 음운 변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① 무성음의 경음화: 가께우동, 신뽕, 꼬붕
- ② 무성음의 격음화: 카도집, 카부라
- ③ 유성음의 경음화: 도끼다시
- ④ 음절축약화: 다팍
- ⑤ 장음의 단음화: 마호병, 무테뽕, 뽕또
- ⑥ 후두음의 경구개음화: 시네루
- ⑦ 파찰음의 마찰음화: 쓰메끼리
- ⑧ 유성치경파열음의 유성치경비음화: 노가다

1) 직업 어휘의 차용

(72) ㄱ. 계민 우린 이 그거 시따바리(したばり) 허주게.[201]

(그러면 우린 그거 보조 하지.)

ㄴ. 성제가 일허민 혼 삼십 원 이상 돈 집이 들어오고 어무닌 마도메(まどめ) 허고.[277]

(형제가 일하면 한 삼십 원 이상 돈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 재봉 마무리 손질 일 하고.)

ㄷ. 겐디 우리 성님은 십팔 원쫘 손 재난. 우께도리(うけとり)로 허연애.[276]

(그런데 우리 형님은 십팔 원쫘 손 재니까. 하청 받아서 일 해서.)

(73) ㄱ. 그거 허당 마리(まり)도 부찌레 땡겨 보고, 신발도 부찌레 땡겨 보고.[117]

(그거 하다가 공 붙이러 다녀 보고 신발도 붙이러 다녀 보고.)

ㄴ. 우리 동네 사람이 세비로(せびろ) 멘드는 디난.[113]

(우리 동네 사람이 양복 만드는 데니까.)

ㄷ. 그 후제는 가사(かさ) 공장, 우산.[140]

(그 후에는 우산 공장, 우산.)

(72), (73)의 일본어는 직업과 관련된 어휘이다. (72)의 ‘したばり’는 ‘보조일’, ‘まどめ’는 ‘옷이나 가방을 만들 때 재봉질 작업이 끝난 후 실밥 등을 정리하는 일’, ‘うけとり’는 ‘하청을 받아 하는 일’로 일의 종류를 말한다. (73)의 ‘まり, せびろ, かさ’는 각각 ‘공, 양복, 우산’으로 수공을 통해 만들어 낸 물건이다. 이와 같은 직업 관련 용어는 1세대들이 일본 이주 이후에 습득한 어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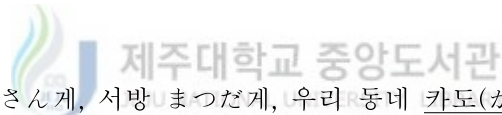
재일제주인 1세대 대부분은 처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어도 모른 채 공장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다. 현지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는 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일본어를 습득하기 전에 일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먼저 기억해 두어야 했다. 이러한 용어들은 한국어로 전환 없이 일본어 코드로 그대로 각인되었다. 그래서 제주방언을 발화하는 경우에도 이들 용어들은 각인된 대로 발화되는 것으로(김보향, 2014b: 7) 일본어 어휘를 차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두 언어가 혼용한다.⁶⁴⁾

언어 접촉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언어 사용자 혹은 언어 공동체 사이의 교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문화 간 접촉을 수반한다. 이러한 경우 정치, 역사,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접촉 문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 평가가 따르게 된다. 접촉한 타문화가 자문화보다 특권적으로 생각되는 경우 그 문화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차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다. 물론 문화의 가치 평가와는 무관하게 지시적 필요성에 의한 언어 차용의 경우도 많다.

재일제주인의 경우 언어 차용은 일본 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습득하게 되는 어휘들에서부터 시작된다. (72), (73)의 직업과 관련된 어휘뿐만 아니라 (70), (71)의 어휘들도 일본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로 자문화(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형태적으로 다른 사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그대로 차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차용은 문화 접촉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복합어

일본어 차용어가 제주방언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기도 한다.



(74) ㄱ. 아니 おっさん게, 서방 まつだ게, 우리 동네 카도(かど)집이.[15]

(아니 남편, 서방 마즈다. 우리 동네 모퉁이 집에.)

ㄴ. 계남 산지⁶⁵서 이젠 몰-구루마(くるま) 탄에. 그땐 パス도 엇고 그 시절엔.[193]

(그러니까 산지향에서 이젠 말수레 타서. 그땐 버스도 없고 그 시절엔.)

ㄷ. 그 시절에 발-미싱(ミシン)으로 불루멍 하루 백 장은 주윳주게.[204]

(그 시절에 발재봉틀로 밟으면서 하루 백 장은 주윳지.)

64) 이런 경우의 언어 혼용은 코드 전환으로 보기도 한다. 차용과 코드 전환을 구분할 때 얼마만큼 받아들이는 언어의 음운구조를 따르고 있는지에 의하기도 한다. 예로 이익섭(1994:304)은, 가령 '나 커피 한 잔 줘'라고 했을 때 '커피'의 '키'의 'ㄱ'을 [ɔ]로 발음하고 '프'의 'ㅍ'를 [f]로 발음한 것이 아니라면 코드혼용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차용과 코드 전환의 구분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하기도 한다. 우선 차용은 단일 언어 화자, 코드 전환은 이중 언어나 다언어 화자에게서 나타난다고 본다. 코드 전환을 하려면 양 언어에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차용은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다. 차용은 언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면 코드 전환은 개인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차용은 수용 언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규칙에 맞추어 변화가 있지만, 코드 전환은 원래 언어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차용의 방법이든 코드 전환은 모두 제1언어의 기본적인 형태 안에서 의사 전달을 위해, 그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외래적인 요소를 삽입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65) '산지향'으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향구. 제주향의 옛 이름.

(74)에서는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이루고 있다. (74ㄱ)의 ‘카도칩’은 ‘모퉁이’를 의미하는 일본어 ‘かど’와 ‘집’이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가 유기음화하고 있다.⁶⁶⁾ (74ㄴ)의 ‘물구루마’는 제주방언 ‘물’에 일본어 ‘くるま’가 결합한 형태로 ‘마차’를 의미한다. (74ㄷ)의 ‘발미싱’은 ‘발’과 ‘ミシン’이 결합한 합성어로 ‘발로 움직여 작동하는 재봉틀’을 말한다.

한편 이렇게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결합으로 합성어를 만들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룬다.

(75) ㄱ. 글로 저쪽더레 えき레 가가난 중간에 짐치-야(や)가 できてるわ.[53]

(거기로 저쪽에 역으로 가다 보니 중간에 김치 가게가 생겼어.)

ㄴ. 짐세도 물어야지 전기-다이(だい), 가스-다이(だい) 그런 것도 다 물어야지.[111]

(짐세도 물어야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런 것도 다 물어야지.)

ㄷ. 메역도 경허민 다 공출 바쳐야 헤이파이(へいたい)덜 먹을 거. 군대에 다 공출이야.[109]

(미역도 그러하면 다 공출 바쳐야, 군인들 먹을 거. 군대에 다 공출이야.)

(75)은 명사에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다. (75ㄱ)의 일본어 ‘야’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물건을 파는 가게’를 의미하는데 ‘짐치’와 결합하여 ‘김치 가게’를 나타낸다. (75ㄴ)의 ‘다이’는 ‘~의 요금’을 의미하는 접미사다. ‘전기’나 ‘가스’와 결합하여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의 의미로 쓰인다. (75ㄷ)은 일본어 명사 ‘へいたい’에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덜’이 결합하여 ‘군인들’의 의미로 쓰인다. 일본어와 제주방언이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은 새로운 어휘 조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6) 복합어를 형성할 때 ‘처가칩(처가+칩), 먹을커(먹을+거)’ 등에서와 같이 후행어의 두음에 /h/음이 더해져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이승녕, 1978: 20~21). 조사와 결합할 때(아이덜+도>아이덜도)도 조사의 두음에 /h/음이 더해지기도 한다.(예: 경허난이 일본 아이덜도, 일본 사름덜도 그뻐 가난허난이./ 선생덜도 みんな変わってしまったて.)

3) 어휘 차용에 의한 강조

다음과 같이 강조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 일본어로 반복하여 말할 때도 어휘의 차용이 있다.

(76) ㄱ. 된장만 띄와근에 쟁혜근에 파나 네기(ねぎ)나 썰어 뇌근에 먹곡.[274]

(된장만 넣어서 그렇게 파나, 파나 썰어 넣어서 먹고.)

ㄴ. 그 종선 오야(おや)가, 그 사장, 그 종선 주인이, 주인 각시가 그거 돈 까근에 게웃이엔 헨 짓 담아.[154]

(그 종선 주인이, 그 사장, 그 종선 주인이, 주인 아내가 그거 모두 까서 ‘게웃’⁶⁷⁾이라고 해서 짓 담아.)

ㄷ. 경허난 멩질날, 쇼가쓰(しょうがつ), 멩질날도나 지성귀 빨지 안허민 지성귀가 엇주게.[245]

(그러니까 멩질날, 정월 멩질, 멩질날도 기저귀 빨지 않으면 기저귀가 없지.)

ㄹ. 츠루하시엔양 어젠가 그지젠가 가보난 야마네기(やまねぎ)あるやん, 꿩마농. 그걸로 막 담안덜 풀암십디다. - 꿩마농 아니라 꿩마농, 야마네기(야마네기). [52]

(츠루하시엔 어젠가 그지젠가 가보니까 산에 나는 파 있잖아요, 파. 그걸로 막 담아서들 팔고 있습니다. - 산달래 아니라 산달래, 산에 나는 파.)

(76)에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일본어로 되풀이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반복하는 것은 전달 의미를 강조하거나 상대방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은 일본어 어휘를 차용하여 사용하는 단계에서 일본어 습득으로 이중언어 화자가 되면서는 형태소를 경계로 하여 두 언어를 혼용하는 것은 물론 문장 단위로 발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 두 언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언어가 접촉한 상황에서 본래의 고유성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의 차용 등의 변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층위에서보다 어휘의 변화는 빠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67) 전복의 내장이나 창자.

4.1.2. 제주방언 ‘-허다’와 일본어 ‘-する’의 혼용

한국어와 일본어의 혼용에서 두드러진 것은 한국어 ‘하다’와 일본어 ‘する’의 쓰임이다. 한국어 ‘하다’와 일본어 ‘する’는 각각 명사(또는 동사의 명사형)와 결합하여 동사를 만드는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각각 다른 언어의 명사와 결합하여 혼용하여 나타난다.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어 명사, 동사의 활용형 뒤에 ‘허다’가 제주방언 명사나 동사의 활용형 뒤에 ‘-する’가 결합되어 발화된다.

1) 제주방언의 명사, 부사어, 목적어 + ‘-する’

(77) ㄱ. 그거 공치사するの. 계난 가지 말주.[45]

(그거 공치사하는 거. 그러니 가지 말지.)

ㄴ. 경혈 팽양, やせて 기운이 엇엉 이레착저레착する. えよう(えいよう)がないから
계[24]

(그럴 때는 살이 빠져서 기운이 없어서 휘청휘청해요. 영양이 없으니까.)

ㄷ. 시계 찌고정은 するね.[228]

(시계 끼고 싶기는 하다.)

ㄹ. 생활비도 해야지, 어뎡헨 そんなして 공불 できるの.[112]

(생활비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불 할 수 있겠어.)

(77ㄱ)은 명사 ‘공치사’ 뒤에, (77ㄴ)은 부사 ‘이레착저레착’ 뒤에 ‘する’가 결합하고 있다. (77ㄷ)의 ‘する’는 ‘찌고정은(끼고 싶기는)’이라는 제주방언형 서술어가 명사화된 명사구와도 결합하고 있으며, (77ㄹ)에서는 ‘공부+를’의 목적어에 ‘する’의 가능형 ‘できる(할 수 있다)’가 결합하고 있다. 이처럼 ‘허다’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する’는 제주방언의 명사, 부사와 같이 단어 단위에서부터 구, 절의 단위까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형태소와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2) 제주방언 동사, 형용사의 ‘어간 + 아/어’ + ‘-する’

(78) ㄱ. 경허난 지금은 차 타근에 막 먼먼헌 목장에덜 들어감주만은 우린이 걸어야자 근에 어떻헨 그 먼 질을 가, 땡겨するの.[231]

(그러니까 지금은 차 타서 아주 먼 목장에들 들어가지만은 우린 걸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가, 다니느냐.)

ㄴ. 그날 벌엉 그날 어떻헨 넙겨するの.[122]

(그날 벌어서 그날 어떻게 넘기느냐.)

ㄷ. 짱나 그거 그냥 장물에 양념헨 답아する.[51]

(까서 그거 그냥 간장에 양념해서 담는다.)

ㄹ. 사람이 즈들젠 허민이 아기도 버릇 긱어するね.[244]

(사람이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매우 근심하려고 하면 아기도 버릇 긱지.)

(79) ㄱ. 경헤도 제주도 가고정 헌 므음은 안 나したな.[128]

(그래도 제주도 가고 싶은 마음은 안 났어.)

ㄴ. 개 귀에 들어진 로렉스의 시계 한 번 찌어 보지 못 헤してるね.[227]

(개 귀에 들어진 로렉스 시계 한 번 껴 보지 못했어.)

ㄷ. 집이 돌아와관へん. 옛날은이 집에서 죽어산덴 죽어가가민 집이 돌아오주 게.[20]

(집에 데려오지 않아. 옛날은 집에서 죽어야 한다고 죽어가면 집에 데려오지.)

ㄹ. 그자 한 뻘에 머구리거치 돈을 버슬젠 헤도 버슬어できへんで.[13]

(그저 한 번에 마구잡이처럼 돈을 벌려고 해도 벌 수 없어.)

(78ㄱ~ㄷ)은 동사 ‘땡기다, 놀다, 답다’ 동사에, (78ㄹ)은 형용사 ‘긱다’의 ‘어간+아/어’에 ‘する’가 결합하고 있다. (79)는 동사의 ‘어간+아/어’에 결합한 ‘する’ 동사가 활용한 것으로 ‘버슬다, 돌아오다, 못허다, 나다’의 ‘어간+아/어’에 결합하고 있다. 이때 제주방언 뒤에 결합한 ‘する’가 활용한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79ㄱ)은 ‘する’의 연용형에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た’가 결합하였고 (79ㄴ)은 ‘する’의 연용형에 상(相)을 나타내는 ‘-ている’, (79ㄷ)은 부정조동사, (79ㄹ)은 ‘する’의 가능형 동사가 다시 부정 조동사와 결합하고 있다. (79)에서 보면 제주방언 동사

에 결합한 ‘する’는 자체의 의미 역할은 하지 않지만 문장의 시제나 상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일본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것은 재일제주인 1세 집단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일본어 명사·동사와 ‘하다’, 한국어 명사·동사와 ‘する’가 혼용되는 양상을 집단별로 비교한 곽은심(2013)에 의하면⁶⁸⁾ 이러한 형태의 혼용은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재일한국인 1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재일제주인 1세는 이중언어 화자이지만 ‘제한적 이중언어 화자’다. 제주방언이 모어지만, 동사의 활용이나 선어말어미, 보조 용언 등을 결합하여 상이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 역할은 알고 있는 다양한 제주방언으로 하고 상이나 시제 등은 일본어 기본 동사인 ‘する’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어 동사의 활용도 쉬운 것은 아니나 ‘する’ 동사는 가장 쉽게 접하면서 자주 사용하여 익숙해져 있다. 동사마다 각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する’의 활용형을 통해 문장의 상이나 시제 표현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다.



3) 일본어 명사(명사형) + ‘-하다’

(80) ㄱ. 이거 ろくおん행 가근에 이제 제주도 사름덜 들엉 웃시카부다.[226]

(이거 녹음해서 가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 들어서 웃을까 보다.)

ㄴ. たのもし도 서로 せわ해 주멍이, 돈도 서로 벤리 엇인 돈나 꾸멍 씨곡.[246]

(계도 서도 돌봐 주면서 돈도 서로 변리 없는 돈 꾸면서 쓰고.)

ㄷ. 저 먹을 것도 막 しまつ허멍 돈 じぶんのために 애끼지 말렌. 아이구, 경 곶양 웃엇주게.[26]

(저 먹을 것도 아주 절약하면서 돈 자기를 위해서 아끼지 말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해서 웃었지.)

ㄹ. 흐뎀 젊을 때 こづかい도 주곡 だいじ허주 늣영 죽어갈 때사.[43]

(조금 젊을 때 용돈도 주고 소중한 하지 늣어 죽어갈 때야.)

(81) ㄱ. 경허고 물건 たち현 거 문 내치는 것도 수정 세멍 아무 집이 뱃 장 간 거 문

68) 곽은심(2013)은 귀국 자녀, 유학생, 재일한국인 1세로 분류하여 ‘일본어 명사·동사+하다’, ‘한국어 명사·동사+する’ 표현의 사용 여부를 비교하고 있다.

きろく 헨 나두지 않으민 안 돼주게.[193]

(그리고 물건 완성한 거 모두 내치는 것도 수 세면서 아무 집에 몇 장 간 거 모두 기록해 놔두지 않으면 안 되지.)

ㄴ. 그건 저, こつ로 그냥 사 먹는 사람 ならび 헨주만양.[58]

(그건 저, 소매로 그냥 사 먹는 사람 줄 서지만.)

ㄷ. 응, あの 밀항으로서 대마도 완 거기에 とまり 허고 여기서 물질덜 간 사람덜.[91]

(응, 저 밀항으로서 대마도 와서 거기에 머물고 여기서 물질들 간 사람덜.)

ㄹ. アイロン かけ 허명 몬 꺼끄명 ミシン 일 허기 좋게시리.[202]

(모두 다림질 하면서 모두 꺾으면서 재봉 일 하기 좋게.)

(80)은 일본어 명사에 제주방언 ‘허다’가 결합한 형태로, 이러한 용례들은 ‘하다’가 한국어에서 명사 뒤에 접미사로 연결되어 파생동사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어 명사에 결합하여 쓰인 것이다. 일본어 명사 ‘ろくおん(녹음), せわ(도와 줌), しまつ(절약), だいじ(소중)’ 뒤에 제주방언 ‘허다’가 결합하고 있다. (74ㄱ)의 ‘きろく 헨’도 ‘きろく(기록)’ 뒤에 ‘허다’가 결합한 형태다. (81)에서는 일본어 동사 ‘たつ(완성하다), ならぶ(줄을 서다), とまる(머물다), (アイロンを)かける((다림질을) 하다)’의 명사형인 ‘たち, ならび, とまり, かけ’에 ‘허다’가 결합하고 있다.

일본어에 한국어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는 형태는 김미선(1998)과 김정자(2002)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 1세의 코드 혼용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제주방언 화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흔히 일본어 명사 또는 동사의 명사형에 ‘허다’가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동사 ‘하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일본어 ‘する’는 보통 명사와의 결합에서 동작성을 갖는 명사와 결합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명사와의 결합에서 동작성을 갖는 명사가 아닌 경우에도 일본어 명사 뒤에 제주방언 ‘허다’가 결합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82) ㄱ. 경허난 종선 하나에 그 해녀가 열 사람 くみ 헤근에 간에 허민.[153]

(그러니까 종선 하나에 그 해녀가 열 사람 조를 만들어서 가서 하면.)

ㄴ. 겨고 やき にく 허는 디덜은 담지 안 허영.[57]

(그리고 불고기 하는 데들은 담지 않아서.)

ㄷ. 어 여름 뉘민 전복, さざえ헤당 くみあい로 풀고 자기 자유로 먹지도 못하여.[92]

(어 여름 되면 전복, 소라 잡아다가 조합으로 팔고 자기 자유로 먹지 못해.)

(82)에서 ‘허다’는 일본어 명사 ‘くみ(조), やきにく(불고기), さざえ(소라)’ 뒤에 결합하고 있다. 이들 명사는 동작성이 없는 명사들로서 ‘する’가 연결되어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명사 뒤에 ‘する’에 해당하는 ‘허다’가 결합하여 실현되고 있다. 즉 일본어의 문법 규칙을 어기고 한국어의 ‘하다’가 통합하는 문법 규칙을 적용한, 이른바 이중언어 화자들의 발화에서 모어 간섭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중 언어 화자들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유추에 의한 ‘규칙의 과잉 적용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⁶⁹⁾

한국어 동사 ‘하다’는 그 자체가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의 기능으로도 쓰이지만 다른 동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⁷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을 한잔 한다’는 문장에서 ‘하다’는 ‘마시다’ 동사를 대신한다. 이는 제주방언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예 (83ㄱ)에서 ‘조기 해근에’의 ‘허다’는 ‘장만하다, 마련하다, 준비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다음의 (83ㄴ)에서 ‘문서 허영’의 ‘허다’는 ‘만들다, 작성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83) ㄱ. 생선은 저 지숙이, 불락 ㄹ튼 거 그자 옛날은. 지금은 조기 해근에 올리주만은.[237]

(생선은 저 제상에 올리는 생선류, 불락 같은 거 그제 옛날은. 지금은 조기 장만해서 올리지만은.)

ㄴ. 그것도 ㄴ 수정 세여근에이 이만이 들어오랏젠 헌 문서 허영 봐 두지 안허민안 뉘주게.[197]

(그것도 모두 수 세여서 이만큼 들어왔다고 해서 문서 만들어서 봐 두지 않으

69) 김정자(2002: 88~91)는 (75)의 예에서와 같이 비동작성 일본어 명사 뒤에 ‘하다’가 쓰이는 것을 ‘하다’의 ‘과잉 조어 현상’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조어’라고 할 수 없다.

70) ‘하다’의 이러한 역할은 ‘代動詞’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대동사란 특정한 동사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동사를 말한다. 한국어 ‘하다’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する’도 실제적으로는 대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一緒にお茶する.’에서 ‘お茶する’의 ‘する’는 ‘마시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する’는 문맥이나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추상적인 동사로 특정 동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면 안 되지.)

이러한 다른 동사를 대신하는 ‘하다’의 기능은 문어에서보다는 구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재일제주인의 발화에서는 (83)에서와 같이 다른 동사를 대신하는 ‘허다’도 일본어 명사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4) 일본어 동사와 형용사 + ‘-허다’

(84) ㄱ. 거 あたる허는 사람이 あたる허주 경 아무상 옛이 あたる힙니까?[63]

(거 당침되는 사람이 당침되지 그렇게 이유 없이 당침 됩니까?)

ㄴ. 물질허고 우리 어무닌허고, 아부진 밀항 はこぶ허고.[87]

(물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밀항 나르고.)

ㄷ. かんぞう わるい헤근에 けいさつびょういんに 자꾸 보여도.[80]

(간장 나빠서 경찰 병원에 자꾸 보여도.)

ㄹ. 이만에도 씨여지고 주소 씨여지고 영 이젠 알아지고, むずかしい헨 거 몰라도.[97]

(이만큼도 쓸 수 있고 주소 쓸 수 있고 이렇게 이젠 알 수 있고 어려운 거 몰라도.)

(85) ㄱ. 늣으민 집도 いらん헤.[78]

(늣으면 집도 필요 없어.)

ㄴ. 바당더레 いらん헨 거 픽픽 데껴봄이라도 팔아 주진 안허여.[89]

(바다로 필요 없는 거 픽픽 던져버리더라도 팔아 주진 않아.)

(84ㄱ, ㄴ)은 동사의 기본형 ‘あたる(들어맞다), はこぶ(운반하다)’ 뒤에, (84ㄷ, ㄹ)은 형용사의 기본형 ‘わるい(나쁘다), むずかしい(어렵다)’ 뒤에 ‘허다’가 결합하고 있다. (85)에서는 ‘いる(필요하다)’의 부정형, 즉 부정의 조동사 ‘ん’에 ‘허다’가 결합하여 실현되고 있다. 이때 ‘いらん(필요없다)’은 ‘いる(필요하다)’가 활용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휘로 쓰였다. ‘허다’는 동사(혹은 동사 파생 동사화 접미사)로서 그 앞에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이 오는 것은 분명한 한국어나 일본어의 문법 규칙에서 벗어난다.⁷¹⁾ 그런데 재일제주인 1세 발화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뒤에 ‘する’가 결합하여 쓰이는 이유에 대해 김정자(2002: 95)는 “아직 일본어 동사 활용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어 문장을 구사한 것이거나, 잊혀졌거나 떨어진 한국어 어휘보다는 가까운 언어 환경인 일본어 어휘를 어근으로 차용하여 문장을 구사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일본어의 기본 동사나 형용사를 먼저 습득하여, 일본어를 할 수 있음을 과시한다거나 활용이 복잡한 형용사, 동사의 용언 뒤에 ‘허다’를 결합함으로써 선행하는 일본어의 형용사, 동사는 의미 기능을 하고 ‘허다’를 통해 문장 구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와서 시제, 양태, 서법 등의 다양한 문법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어에서는 동사, 형용사의 활용형에 조동사나 종조사가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 기능을 수행한다. 복잡한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을 ‘허다’ 동사의 활용을 통해 간략화하고 있다.⁷²⁾

이상 1)~4)의 자료에서 제일제주인 화자들이 제주방언 ‘-허다’와 일본어 ‘-する’를 발화에서 혼용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들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71) 한국어 문법에 ‘조동사’는 없지만, 일본어 동사 ‘する’가 조동사 뒤에 결합하는 것도 문법 규칙에서 벗어난다.

72) 일본어 선행어에 제주방언 ‘허다’가 결합하는 형태의 표현이 제일제주인 사이에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김완진(1957)이 제주방언의 일본어 어사를 조사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1957년 제주도 현지 조사를 통해 제주 방언 언중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본어 어휘 240여 개를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된 항목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ㄱ. adaru-hōnda アダル허다
- ㄴ. tomaru hōten 止る헛텐
- ㄷ. arappoi-hōda あらっぽい허다
- ㄹ. pariparihōda 파리파리허다
- ㄹ. ahōrasi-hōda 아호らし허다
- ㅂ. odonat'ōge(<odonasihōge) 大人し허게
- ㅅ. tomehōnda 止め허다
- ㅇ. kawari hebonan 替り해부난
- ㅈ. jasime hōnda 休め허다

위의 예들을 보면, 일본어 용언에 제주 방언 ‘허다’가 결합하는 형태는 제주 언중들 사이에서도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을 오고 갔던 화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 왕래했던 사람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제일제주인 사회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고향에 와서도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10여 년이 지난 시점(1957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이들 일본어 혼용 어휘들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제일제주인 사회에서 일본어 용언에 제주방언 ‘허다’가 결합된 형태의 어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규칙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1)~4)의 자료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제일제주인 화자들은 한국어 문법 규칙과 일본어 문법 규칙의 공통성, 즉 동사 파생 접미사 기능의 ‘하다’와 ‘する’가 선행요소에 결합하여 선행요소인 단어, 문장 성분을 어간으로 재구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어간 재구조화 규칙’을 양쪽 언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어와 목표어의 공통적인 문법 규칙을 양쪽 언어에 두루 적용하는 발화 전략의 일종이다.

4.1.3. 제주방언 ‘-게’와 일본어 ‘-な’의 혼용

1) 제주방언 ‘-게’의 분포와 기능

제주방언과 일본어 혼용은 문중, 문말의 첨사에서도 나타난다. 보통 제주방언의 첨사, 일본어 종조사⁷³⁾는 각각 제주방언과 일본어 형태소 뒤에 결합하여 어떠한 사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여 말하거나 문장 중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등 문 구성의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

(86) 가. 집이 싯주게./ 집이 싯수다게.

(집에 있어./ 집에 있어요.)

나. 돈이 경 셔게?/ 돈이 경 싯과게?

(돈이 그렇게 있어?/ 돈이 그렇게 있어요?)

다. 조고마니 정 가라게./ 조고마니 정 갑서게.

(조금만 지어서 가라./ 조금만 지어서 가세요.)

르. 이거 갈랑 ㄹ치 먹게게./ 이거 갈랑 ㄹ치 먹읍주게.

(이거 갈라서 같이 먹자./ 이거 갈라서 같이 먹어요.)

(87) 가. 저디 누게과?/ 감나무칩이 아덜게, 서울 사는 셋아덜이주게게.

73) 일본어 문법에서는 조사를 格助詞, 提題助詞, 取立助詞, 接續助詞, 終助詞로 분류하고 있다(益岡隆志·田窪行則, 1992: 49~53).

종조사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山田孝雄(1936)은 종조사를 문말에 연결되어 진술문의 명령, 희망, 감동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문장을 종결시키는 조사로 보았다. 이에 비해 그 위치가 자유로워 이를 제거해도 문장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사를 간투조사라 하여 종조사와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時枝誠紀(1950)은 ‘종조사는 문말에 오는 의문, 영탄, 금지, 바람을 나타내는 조사를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한정을 나타내는 조사와 구별이 없으며 한정을 나타내는 조사는 문말조사로 감동을 나타낸다’고 하여 종조사의 위치나 기능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며, 종조사와 간투조사를 일괄하여 취급하고 있다. 益岡隆志·田窪行則(1992)에서도 간투조사는 별개 항목으로 보지 않고 ‘종조사 간투적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伊豆原英子, 2010 참조).

(저기 누구예요?/ 감나무집이 아들이야. 서울 사는 둘째 아들이지.)

ㄴ. 무사게 언치낙 집이 와난 사름 잊지 안허냐?

(왜 어젯저녁 집에 왔던 사름 잊지 않느냐?)

ㄷ. 아이고게 손지 언제 영 컷수과?

(아이고 손자 언제 이렇게 컷나요?)

ㄹ. 흔꺼번이 경 하영 먹으난게 배 아프주.

(흔꺼번에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배 아프지.)

ㅁ. 성은게 셔도 일본 살아 부난 얼굴 봐점서?

(형은 있어도 일본 살아서 얼굴 볼 수 있어?)

(86)에서 ‘-게’는 종결어미에 결합하고 있다. (86ㄱ)은 평서형, (86ㄴ)은 의문형, (86ㄷ)은 명령형, (86ㄹ)은 청유형의 ‘하’체(또는 ‘하라’체)와 ‘흡서’체의 종결어미 뒤에 결합하고 있다. 평서형 연결어미 뒤에 결합하고 있는 (87ㄱ)은 ‘집에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87ㄴ)은 의문형 종결어미에 접속하여 ‘돈이 그렇게 없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명령형 종결어미 뒤에 결합하고 있는 (87ㄷ, ㄹ) 또한 더욱 강한 어조의 명령, 청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86ㄹ)에서처럼 청유형 종결어미 ‘-게’ 뒤에 다시 ‘-게’가 중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예문에서 ‘-게’는 종결어미 뒤에 통합되어 문장의 의미를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을 분명하게 단언,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는 (86)의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87)에서와 같이 문장 중간에 자유로이 위치한다. (87ㄱ)에서는 ‘-게’와 ‘아덜’이라는 명사에 결합하고 있다. 또 종결어미 ‘-주’ 뒤에 결합한 ‘-게’는 뒤에 다시 중첩하여 나타나고 있다. (87ㄴ)에서는 ‘무사’라는 부사, (87ㄷ)에서는 ‘아이고’라는 감탄사 뒤에 결합하고 있다. 또한 (87ㄹ)처럼 연결어미나 (87ㅁ)의 보조사 뒤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이때 ‘-게’는 문장을 강조하거나 문장의 중간에서 할 말을 고르거나 주저하는 역할을 한다.

(86), (87)에서 보듯이 ‘-게’는 문장 안에서 자유로이 위치하며, 삭제하더라도 문장의 명제적 사실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문장 안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화자의 생각을 단언하고 강조하거나, 발화시 숨을 고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일본어 ‘-な’의 분포와 기능

일본어 종조사 ‘-な’도 문장의 부가적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한다. 문말에 연결되어 화자의 감동이나 바람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화자의 가벼운 단정이나 주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 (88) ㄱ. とてもまいな. (아주 맛있네.)
ㄴ. きれいな曲だな. (아름다운 곡이네.)
ㄷ. 早く来ないかな. (빨리 오지 않나?)
ㄹ. これでいいな. (이거면 됐지.)
ㅁ. わたしはそう思わないな.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 (89) ㄱ. 二度としないな.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거지.)
ㄴ. よく降りますな. (잘 내리네요.)
- (90) ㄱ. 實はな, うそなんだよ. (사실은 거짓말이야.)
ㄴ. そうだな, どれがいいだろう. (그런가, 어느 게 좋을까?)
ㄷ. しかしな, それで決定したわけではない. (그런데 그것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88ㄱ)에서 ‘-な’는 형용사의 기본형(보통체 종결형) 뒤에 접속하여 ‘맛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감동을 나타내고 있다. (88ㄴ)에서는 명사 뒤에 보통체 종결 조동사 ‘-だ’가 오고 그 뒤에 ‘-な’가 결합하여 화자의 감동을 나타낸다. (88ㄷ)은 의문의 종조사 ‘-か’ 뒤에 결합하는데 부정의문문에서 ‘빨리 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な’는 ‘-なあ’로 나타나기도 한다. (88ㄹ), (88ㅁ)은 형용사나 보조형용사 ‘ない’에 결합하여 ‘이거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단정하고 있다.

또한 ‘-な’는 (89)에서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대답을 유도하기도 한다.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상정하고 상대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자와의 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에 (89ㄴ)에서처럼 정중체 종결형과 결합하기도 한다.

한편, ‘-な’는 문말뿐만 아니라 문중에도 나타난다. (90ㄱ)은 보조사 뒤에, (90ㄴ)은 조동사 뒤에, (90ㄷ)에서는 접속사 뒤에 결합하고 있다. 이처럼 ‘-な’는 문

장 중간에 와서 화자의 감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발화시 다음 발화 내용을 고르는 등의 숨고르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방언 ‘-게’처럼 그 분포 영역이 넓지는 않지만 ‘-な’ 역시 문장 중간의 어절 말에 자유로이 통합된다.

3) 일본어 형태소 + ‘-게’

그런데 재일제주인의 발화에서 ‘-게’와 ‘-な’가 각각 일본어와 제주방언 형태소에 결합하여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91) ㄱ. 그 오빠아침도 병원에 입원했수과? - 아니 오빠께, 서방 まつ다게, 우리 동네 かど집이.[15]

(그 할머니도 병원에 입원했어요? - 아니 남편. 서방 마즈다 우리 동네 모퉁이 집에.)

ㄴ. だから, おはか게.[68]

(그러니까 산소.)

ㄷ. 이백만 원 あたる 현 사람 おる게.[61]

(이백만 원 당첨된 사람 있어.)

(92) ㄱ. 독방이난게, 돈 십이만 원 やんか게.[7]

(독방이니까, 돈 십이만 원이지 않느냐.)

ㄴ. 경 오란 술술 돈 벌업신가 생각허른 まちが이 や게.[118]

(그렇게 와서 술술 돈 벌고 있구나 생각하면 잘못이야.)

ㄷ. 기운이 엇엉 いれ착 じ레착 する, えよう(えいよう)がない から게.[24]

(기운이 없어서 휘청휘청한다. 영양이 없으니까.)

제주방언 ‘-게’는 (91ㄱ. ㄴ)에서와 같이 일본어 명사 ‘おっさん(아저씨), おはか(산소)’ 뒤에 결합하고 있다. (91ㄷ)에서는 ‘おる(있다)’ 동사의 기본형(보통체 종결형)에 결합하고 있다. (92ㄱ)에서는 제주방언 연결어미와 일본어 의문의 종조사 ‘か’⁷⁴⁾에 결합한 형태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나타나고 있고 (92ㄴ)은 일본어 종조사 ‘や’와 결합하고 있다. (92ㄷ)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 조사 ‘から’ 뒤에 실현되고 있다.

74) ‘やんか’는 오사카 방언으로 ‘-じゃないか’의 의미로 쓰인다.

김미선(1998: 80)은 재일한국인 1세의 일본어 발화에 제주방언 ‘-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모어의 표현 용법이 완전히 몸에 배여 있고 일본어로는 감정적 전달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감정적 표현을 ‘-게’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혼용은 의미 전달 기능 보다는 표현 기능을 목적으로 한 심리적 요인에 관계되는 언어 운용 전략으로써 이해에 지장이 없는 대상과의 사이에 양 언어의 형식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섬세하고도 풍부한 감정 표현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4) 제주방언 형태소 + ‘-나’

(93) ㄱ. 비 오는 거 닢다. - 으 빗살나. [47]

(비 오는 거 닢다. - 으 빗살.)

ㄴ. 계난 이っしんじ(一心寺)⁷⁵⁾가 깨끗하고 좋아. 앞으로 아이덜나 하카まいり 가젠 허민 원. [77]

(그러니 一心寺가 깨끗하고 좋아. 앞으로 아이들 성묘 가려고 하면 원.)

ㄷ. 이거 びょういんせいかつばかり야, 이거나 たいぶながいきしてな. [14]
(이거 병원 생활뿐이야, 이거 너무 오래 살아서.)

ㄹ. 경허민 그거나 이제 연락선 떠나게 돼민 시경. [170]

(그러면 그거 이제 연락선 떠나게 되면 실어서.)

(94) ㄱ. 그 대마도에 사람이나 어떻사 잘 멘들아 놔신디사. [161]

(그 대마도에 사람이 어떻게 잘 만들어 놔는지.)

ㄴ. 우리 셋언니가나 똑똑헌 언니난 저 일 안 시경 입학시켜 분 거라. [184]

(우리 둘째 언니가 똑똑한 언니여서 저 일 안 시켜서 입학시켜 버린 거라.)

ㄷ. 계난 부산도 흐룻밤 장 허민 그때 돈으로나 오천 원이야. [175]

(그러니 부산도 하룻밤 자서 하면 그때 돈으로 오천 원이야.)

ㄹ. 이녀 집이 들어온 이상은나 손님이난 잘 행 보내산덴. [212]

(자기 집에 들어온 이상은 손님이니까 잘 해서 보내야 한다고.)

(95) ㄱ. 나보다 먼저 죽으면 ええのにな 현디나, 저추록 웨난 풀쌍허텐 허난. [39]

(나보다 먼저 죽으면 좋은데 그런데 저렇게 되니 불쌍하다고 하니까.)

75) 오사카시 덴노지쿠(天王寺区)에 있는 절이다.

ㄴ. 경해도나 일 아니 시키민 못 살 거난. [183]

(그래도 일 안 시키면 못 살 거니까.)

(93)에서 ‘-나’는 제주방언 명사, 대명사와 결합하고 있다. (94)는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고, (95)는 부사 뒤에 결합하는 경우다. 그런데 제주방언 ‘-게’가 자유롭게 명사에 결합하여 쓰이는 것과는 달리 일본어 문법에서 종조사 ‘-な’는 결합에 제약이 있다. 野田(2002)에 의하면 일본어 종조사 ‘-な’가 결합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雨です	雨だ	雨	高い	行く	行って	行こう	だろう	らしい
나의 결합 가능 여부	△	○	×	○	○	×	○	○	○

<표 4> 일본어 종조사 ‘-な’의 결합 형태(野田, 2002: 281)



<표 4>를 보면 ‘-な’는 명사에는 바로 결합하지 못하고 보통체 종결 조동사 ‘-だ’나 정중체 종결 조동사인 ‘-です’ 뒤에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일제주인의 발화에서는 앞의 예문 (93)에서와 같이 명사, 대명사 뒤에 결합하는 형태를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에 결합하는 경우도 (93ㄷ)의 ‘たいぶ長生きしてな’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野田(2002)에서는 결합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동사의 연용형에도 결합하고 있다.⁷⁶⁾ 다음의 (96)에서는 제주방언 연결어미 뒤에 ‘-나’가 결합하고 있는데 이때 연결어미를 일본어로 바꾸면 동사의 연용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주방언과 일본어 ‘-な’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96) ㄱ. 바당도 썰곡 으남도 팍 썩 불고나, あの 그 マリン엔. [33]

76) 일본어 종조사 ‘な’의 의미기능은 ‘명제적 기능’과 ‘부가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명제적 기능’은 ‘行きな(가라)’와 같이 명령의 의미인 경우, 동사의 연용형(テ형, マス형)에 ‘-な’의 결합이 가능하다(牧野有紀子, 2009. 참조).

(바다도 세고 안개도 짝 껴 버리고 저 그 지경엔.)

ㄴ. だからな, このよはな 애기덜 한한해도나 이녀 살기가 바빠노난.[18]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기들 많아도 자기 살기가 바쁘니.)

ㄷ. あのきただねえちゃんのどこはな, きれいにする、느물도 한 서너 네 번씩 씻으명나.[60]

(저 기타다 언니 가게는 깨끗하게 한다. 나물도 한 서너 네 번씩 씻으면서.)

ㄹ. 밤이덜은 みずしょうばい 행나.[65]

(밤에는 물 장사 해서.)

오사카 제일제주인들은 일본어 문법에서는 분포하지 않는 위치에까지 ‘-な’를 결합하여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⁷⁷⁾ ‘-な’는 제일제주인의 발화에서 문중, 문말의 어절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용 빈도 또한 높다.

앞서 ‘-게’가 일본어 문장에서, 미흡한 일본어 능력으로는 감정 상태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을 친숙한 침사를 통해 감정적 표현을 보충한 것이라면 ‘-な’는 게 습득할 수 있었던 일본어를 문중에 포함함으로써 자신이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감동사나 간투 표현 등은 먼저 습득되고 발화된다. 일본어의 경우 말을 꺼내거나 발화 중 휴지(休止)가 필요할 때 쓰는 감동사 ‘あの’,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 등의 확인을 하는 종조사 ‘-ね’가 빨리 습득되어 쓰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는 제일

77) 오사카 지역 제일제주인 발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な’는 사실 오사카 지역 방언의 범주에서 그 특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제일제주인 1세대들은 대부분 정식적인 학습을 통해서 제2언어인 일본어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익혔기 때문에 그들이 구사하는 일본어는 ‘공통어’가 아니라 오사카 방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들이 구사하는 일본어는 억양은 물론 어휘에 있어서도 오사카 방언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종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사카 방언에서 ‘-な’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오사카 이카이노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이카이노 이야기(猪飼野物語)』의 오사카 방언 문말 표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체 534개 문말 표현 중 종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198회였고 그 중 ‘-な’가 52회(이수안, 2009: 24)로 나타났다. 전체 문말 표현에서 종조사 ‘-な’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인 것을 보더라도 ‘나’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도쿄방언, 센다이방언, 오사카방언의 설명 상황에서 담화표지를 비교한 琴鍾愛(2005)에서는 도쿄방언, 센다이 방언에서는 간투조사로 ‘-ね’, ‘-さ’가 나타나지만 오사카 방언에서는 이외에도 ‘-な’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채록한 제일제주인 간의 담화 자료를 분석해 보더라도 ‘-나’의 실현이 두드러졌다. 일본어 종조사 중에서 담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よ’, ‘-さ’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さ’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화가 주로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종조사 ‘-さ’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ね’의 경우도 ‘-나’의 출현 빈도에 비하면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일본어 ‘-나’의 분포와 기능은 일본어 ‘공통어’가 아닌 오사카 방언 종조사의 범주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오사카 방언에 대한 직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사카 방언(넓게는 킨키방언)의 종조사(또는 간투조사)의 기능의 연구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종조사의 부가적 의미 기능이 공통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제주인 발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일제주인의 발화에서 보이는 제주방언 ‘-게’와 일본어 ‘-나’의 혼용은 그 분포나 기능상의 유의에서 오는 간섭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 간섭 현상은 두 언어의 접촉 상황에서 모국어 화자가 그의 모국어의 언어 체계와 언어 관습의 영향을 받아 목표어를 잘못 사용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간섭 현상은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에서 발생되는데 이것은 서로 차이점의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즉 동질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재일제주인의 발화에서 보이는 침사의 혼용 현상은 그 분포나 기능상의 유의에서 오는 간섭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사상, 의미상의 유사성이 서로 다른 언어인 ‘-게’와 ‘-나’를 서로 다른 언어로 인지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앞의 예 (89)에서와 같이 일본어 문법에서 분포하지 않은 형태에 ‘-나’가 접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방언 ‘-게’와 일본어 ‘-나’의 구별 없이 분포상에서도 서로 대입시켜 사용하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⁷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 제주방언 화자들이 구사하는 제주방언에는 상당 부분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이때의 언어 혼용은 어휘의 차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문화(異文化) 접촉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차이를 언어 차용을 통해 해결한다. 이민 사회에서의 이러한 언어 운용은 모국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어 전환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재일제주인의 언어 혼용은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지만 ‘제한적 이중언어 화자’로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여 두 언어를 혼용하는 것이다. 또한 두 언어의 구조적 유사성이 언어 간에 간섭 현상을 초래하였다. 독특한 언어 형태는 개인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언어 공동체로 전달되어 새로운 언어 체계로 이어져 왔다. 재일제주인의 언어 혼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78) ‘-게’와 ‘-나’가 각각 일본어와 제주방언 형태소와 결합하여 혼용되는 경우는 모두 문장의 부가적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문장의 통사 기능에 관여하는 제주방언의 종결어미나, 일본어의 종조사 쓰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통사 기능에 관여하는 제주방언 ‘-게’의 쓰임으로는 ‘그치 공부허게./ 동카름 삼춘은 밧더래 감선게./ 거느려 가난 완수게.’에서와 같이 종결어미가 있다. 일본어 ‘나’는 ‘行<나(가지마)/ 行<나(가라).’에서와 같이 금지, 명령의 의미를 갖는 종조사의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는 ‘-게’와 ‘-나’가 각각 일본어와 제주방언과 혼용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허다’와 ‘-する’, ‘-게’와 ‘-な’의 혼용은 각각의 언어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형태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 언어에도 적용시켜 발화하기 때문이다.

4.2. 언어 전환

재일제주인의 언어 혼용은 차용에 의한 혼용이나 ‘-하다’와 ‘-する’, ‘-게’와 ‘-나’의 혼용에서 보이는 어휘 단위의 혼용뿐만 아니라 앞서 예 (66)에서 살펴보았듯이 구, 문장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 혼용은 재일제주인의 언어가 이민 사회의 주 언어로 전환 과정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언어 전환은 화자의 무의식 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원활한 의사 전달을 위한 언어 운용 방책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의 언어 혼용은 어휘 단위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2.1. 문장 간 언어 전환



문장 내에서의 언어 전환이 언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두 언어의 코드를 혼용한 경우가 많은 반면 문장 간 언어 전환은 발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의도적으로 두 언어를 구분하여 코드 전환(code switching)하는 것이다. 즉 청자와 화자의 언어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또는 언어 공동체만의 정보 공유를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성이 더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97) 우리 아버지도 경, 저 양반 쌍것만 구별허단 보난 우리나라 여우 님은 일본 아이
털안티 나라 빼겏젠. 양반 쌍것만 골리고 그냥 담뱃대 흥겏치단 보난이. 경허난 여
우 님은나 일본 놈덜 들어오란에 나라 빼겏젠, 게난 일본 나란 여우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저 양반 상것만 구별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여우 님은 일
본 아이들에게 나라 빼겏다고. 양반 상것만 고르고 그냥 담뱃대 혼들다 보니. 그러
니까 여우 님은 일본 놈들 들어와서 나라 빼겏다고, 그러니 일본 나란 여우야.)

<전화벨 소리> もしもし, はい, げんきだけどきのうありがとうな.(여보세요, 응, 건강해, 어제 고마워.) <전화 끊고> 큰 뜰. 어제 어버이날이난 돈 보내언게.[261]

(98) ㄱ. 그 촌에 가근에 농부 집이 가근에 그 사탕ㄴ루 선물허명 ‘こめわけて’ 허명 곶으민나.[187]

(그 촌에 가서 농부 집에 가서 그 사탕가루 선물하면서 ‘쌀 나눠서’ 하면서 말하면.)

ㄴ. 선생신디 가근에이 이제 金さん안티 맞고렌 허민 선생이 나 불러다 뇌근에이 무사 뚜드런딘 해근에 이유를 듣주게. 경허민, ‘ちょうせんニンニクくさいいうからたたきました’ 헨 곶으민이, 경 곶으민 아니 뉘텐. 생도ㄴ라 ‘そんないったらあかんで’[271]

(선생에게 가서 이제 김한테 맞았다고 하면 선생이 나 불러다 놓고 왜 때렸냐고 해서 이유를 듣지. 그러면 ‘조선인 마늘 냄새 지독해 라고 말해서 때렸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도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ㄷ. 말 곶는 거 보난 막 정신 좋아서. 나도 전화로 저 아이덜, 손지덜 전화헤영 말 곶으민 ‘おばあちゃんものすごくげんきやな.’ 으, 말만, 말만.[35]

(말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정신이 좋아. 나도 전화로 저 아이들, 손자들 전화해서 말하면 ‘할머니 아주 건강하네요.’으 말만 말만.)

(97)은 가장 전형적인 문장 간 언어 전환의 예로 대화 상대의 언어 능력에 따라 언어를 바꾸어 말하고 있다. (97)은 인터뷰 조사 중에 연구자에게 제주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일본어로 바꾸어 말한 경우의 예다. 제보자의 자녀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통화를 끝내고 나서는 다시 연구자에게 제주방언으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보자의 자녀들은 일본어 화자로서 제주방언이나 한국어는 전혀 모르며 가정 내에서 담화는 일본어로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화자들이 상대방에 따라 그에 맞는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98)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면서 최초 발화자의 코드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98ㄱ)은 시골에서 쌀을 사다 파는 일을 하면서 쌀을 사러 갔을 때 일본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일본어로 표현하였다. (98ㄴ)은 학생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인 학생과의 다툼에 중재에 나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일본 학생의 답변과 그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을 원 발화

자의 코드인 일본어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98ㄷ)도 손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손자가 말을 그대로 일본어로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면서 발화자가 말한 언어로 전환하여 전달함으로써 발화 내용의 사실적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장 간의 언어 전환은 이중언어 화자들이 가지는 일종의 언어능력 내지는 언어기술에 근거를 두는 언어운용(言語運用, skilled performance)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 언어를 바꾸어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한 이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것, 앞서 말한 항목을 다시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것은 이중언어 화자가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언어 운용의 한 가지 방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중언어 화자는 단일 언어 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언어 자원을 활용하며 상황에 맞게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4.2.2. 언어 선택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제주시기의 나이와 이후 일본에서의 생활 기간에 따라 언어 능력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주방언을 모어로 하여 제2 언어로 일본어를 습득하였다. 물론 2세 이후인 경우는 일본어를 모어로 습득한다. 당연히 일본 사회에서 일본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우세한 언어임에 틀림없다. 재일제주인의 언어가 일본어로 전환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상 생활어에 대한 언어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민 세대별로 조사를 하였다.⁷⁹⁾

“일상생활에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한가?”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 83명 중의 6명만이 ‘제주방언’이 가장 편하다는 답변이었고 나머지 77명(92.8%)은 ‘일본어’라고 답하였다. 일본에서 태어난 2세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성인이 된 이후에 일본에 건너간 1세대도 일상생활어로 일본어가 편하다는 것이다. 이 지역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정희(2005: 278~280)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세 전체(33명)의 64%가 일본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

79) 재일제주인의 ‘일상생활어’에 대한 조사는 2장의 ‘언어 실태 조사’와 같이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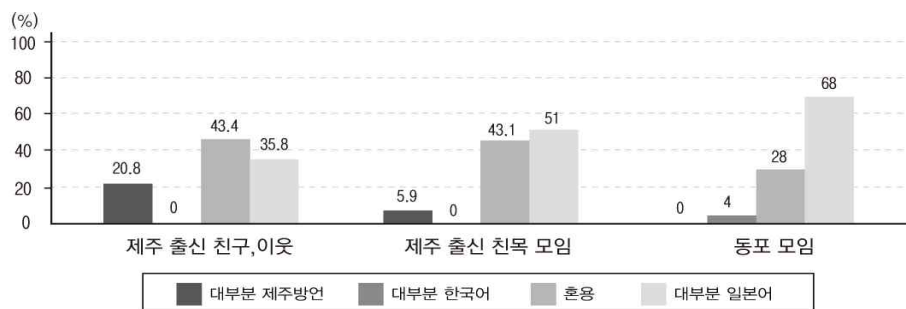
하다는 답변이었고 36%가 한국어라는 답변이었다. 한국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하다고 답변한 이들 중에는 50대 중년층이 많았다. 강정희(2005)에서는 고령층이나 40대 중년층보다 50대 중년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주 시기와 정규교육을 통한 학습의 관련성을 들고 있다. 즉 이주 시기의 나이와 이민 사회에서 정규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이민자들의 언어 선택과 목표어로서의 언어 전환 속도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에서 더욱 확실해졌다. 1세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 기간보다 일본에서의 생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어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답변이었다. ‘제주방언’이 편하다고 답변한 이들은, 40~50대의 나이에, 1980년대 후반에 건너간 1세대들이다. 중년에 접어든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서 30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화자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이 일본에서의 거주 기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세들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에서 태어난 2세, 3세의 경우 일상생활어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生越直樹(1983: 33)는 재일한국인 사회가 이중언어 사회에서 점차 일본어로 단일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일상생활어로 한국어가 자리 잡지 못한 이유로 일본 사회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강한 편견과 차별, 민족학교에 대한 차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부모들이 민족어 유지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족어인 한국어가 밀려나는 상황에서 지역 방언인 제주방언이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두 개의 이언어 집단이 가까이 놓이게 될 때, 그 중 한 언어는 침략자 내지는 사회적 상위층에 자리하게 되고 또 다른 언어는 억압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위세나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층(superstratum)’ 집단에 속하는 언어는 ‘상위 언어’로서 기능하고 ‘하층(substratum)’ 집단에 속하는 언어는 ‘하위 언어’로서 기능하게 된다(박순함, 1998: 5). 재일제주인은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나 사회적 진출 등의 이유로 상위 언어인 일본어를 배우고 또 사용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제주방언은 다만 가정이나 제주 출신 지인들 사이에서만 사용한다. 그렇다 보니 제주방언 사용은 점점 소홀하게 되는 반면 일본어 구사능력은 점점 더 확대·발

전해 가게 된다.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일본어 구사능력이 제주방언 구사능력보다 더 좋아질수록 일본어를 더 사용하게 되는 반면에 제주방언 구사능력은 낮아지고 일본어만이 유일한 의사소통의 방편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재일제주인의 언어가 제주방언에서 일본어로 ‘언어 전환(language shift)’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제주방언을 구사할 수 있으나 현재 일상생활에서 일본어가 사용하기 편하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언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언어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제각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그 장면에 가장 적합한 말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어떠한 장면에 있는지는 언어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된다. 장면에 따른 언어의 선택은 동일 언어나 동일 방언 화자라면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어떤 특정 장면에서는 어떤 특정한 말의 사용이 규칙화되어 사회적으로 관습화되어 간다(강석우 외, 2008: 48). 공식적인 자리일수록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식어를 사용하게 된다. 즉, 이민 사회에서 모국어는 사용 영역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 방언의 사용 영역은 모국어의 표준어보다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역 방언의 발화 상황은 방언을 아는 사람과의 접촉 상황이고 발화 상대자는 같은 지역 출신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장면을 같은 지역 출신자들 간의 모임과 가정 내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림 8> 상황별 언어 선택

같은 지역 출신자 간의 모임(동포 모임 포함)에서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제주 출신 친구나 이웃과의 대화에서는 제주방언과 일본어, 한국어를 섞어 사용한다는 응답(43.4%)이 가장 많았고⁸⁰⁾ 그 다음으로 일본어를 쓴다는 응답(35.8%)과 제주방언을 쓴다는 응답(20.8%) 순이었다. ‘대부분 한국어’라는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일대 다수의 만남인 ‘친목 모임’에서는 제주방언을 쓴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일본어를 쓴다는 응답(51%)이 많았다.⁸¹⁾ 그리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과 함께 하는 ‘동포 모임’에서는 대부분 일본어로 한다(68%)와 섞어서 사용한다(28%)는 응답순이었다. 같은 제주 출신 방언 화자들끼리의 발화 상황에서는 제주 방언을 구사하지만, 다른 지역 출신과의 대화 상황에서는 한국어(표준어)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방언 화자가 아닌 경우 일본어로의 교체가 두드러짐을 보여 준다. 이는 제주방언 화자가 다른 지역 출신자들과의 접촉에서 자신의 방언으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 한국어(표준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로 전환하여 발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일제주인 제주방언 화자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이중언어 화자로 다른 지역 출신자들과의 발화 상황에서는 언어 선택이 일본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⁸²⁾ 이는 언어 능력에서도 확인한 바지만, 이들은 자신의 언어가 다른 지역 출신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 동포와의 접촉 상황에서의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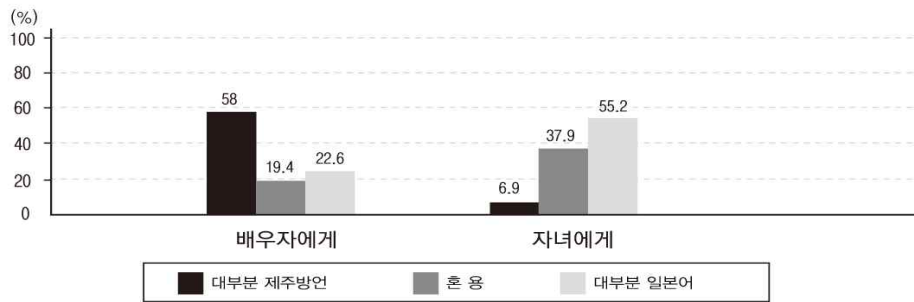
80) ‘혼용’은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섞여 쓰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쓰이는 상황도 포함하였는데 제주 출신자들과의 대화에서의 ‘혼용’과 다른 지역 출신자와의 대화에서 ‘혼용’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제주 출신자들과의 대화에서의 ‘혼용’은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이고 다른 지역 출신자와의 대화에서 혼용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혼용으로 나타난다. 설문 조사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81) 김보향(2014c)와 비교했을 때 2세, 3세 이후의 조사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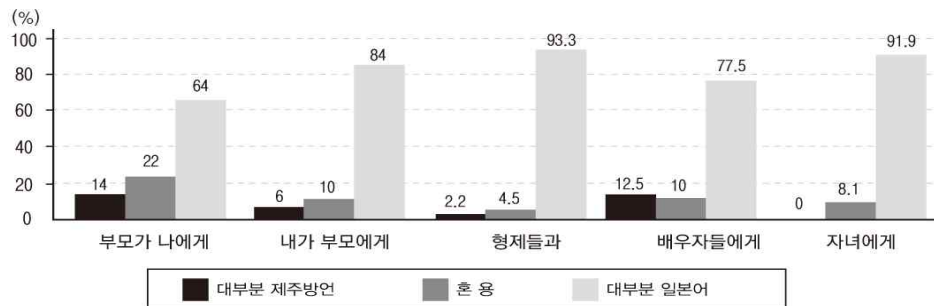
82) 김정자(2002: 11)에서는 제주 방언 화자인 1세들의 경우 일본어 화자와는 일본어로 제주방언 화자와는 제주방언으로 서울 방언 화자와는 서울 방언으로 코드 전환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해방 이전에 이주한 1세의 경우는 표준어를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60년대 이후에 이주한 화자는 표준어로 코드전환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전환되었다. 한국어로 발화한다는 답변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어로 전환하는 이들은 한국어 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한국의 왕래 빈도가 많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화자들이었다.

83) ‘표준어’와의 접촉 상황에서 제주 사람들의 코드 전환을 연구한 강윤희(1994)는 제주방언의 사용 영역은 ‘제주 사람’으로 대표되는 ‘우리 집단(we-group)’과의 상호 작용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주방언은 ‘우리’끼리, 즉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과 연대성을 표현하는 ‘친밀한 말(intimacy dialect)’이라는 기본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코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주 사회뿐만 아니라 제일제주인 사회를 비롯한 다른 이민 사회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언어 선택은 어떠할까? 가정에서의 발화는 1세와 2세 이후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분석하였다. 가족은 대개 동질성이 높고, 가정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자리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가족 내에서 구성원들은 동질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족 외의 환경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9> 가정에서의 언어 - 1세



<그림 10> 가정에서의 언어 - 2세 이후

<그림 9>와 <그림 10>에서 보듯이 가정에서도 상대방에 따라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사용되는 정도가 달리 나타났다. 1세인 경우 배우자와 말할 때 58% 정도가 제주방언을 구사하고 있으나 자녀에게는 약 7%로 거의 대부분 일본어(55.2%)

나 섞어서 사용(37.9%)하고 있다.⁸⁴⁾ 배우자에게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비율과 비교한다면 자녀에게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제주방언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일한국인 사회 전체에 비추어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재일한국인 사회가 이중언어 사회에서 점차 일본어로 단일화되고 있다는 生越直樹(1983: 33)의 지적이나 재일한국인이 한국어를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이익섭(1994: 301)의 주장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일한국인 사회의 언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 재외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재중 동포의 경우 청년층에서 일상생활어에서는 ‘조선말’과 ‘한족말’을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가정에서는 청년층에서도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박경래 외, 2012: 189~190).⁸⁵⁾

<그림 10>에서와 같이 2세 이후에는 일본어 사용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세 이후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제주방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제주방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주방언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2장(2.2.3.)에서 살펴본 제주방언의 능력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37면)을 보면 3세 이후인 경우 제주방언을 못한다는 응답(말하기 84%, 듣고 이해하기 68%)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를 확인시켜 주는 예이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고 제주방언 어휘를 사용한다. 때문에 한국어나 제주방언을 모른다고 답변한 2세 이후 세대들도 ‘ㄱ세, 독새기, 즈배기, 수에, 상빠’⁸⁶⁾ 등의 어휘를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4) 이주민 가정에서의 언어는 이주 시기와 이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주 시기가 최근일수록 그리고 이주목적이 일본에서의 ‘정주’가 아니라 일시간의 ‘체류’라면 가정 내에서의 한국어나 제주방언 사용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본 조사에서의 대상자들은 ‘정주’를 목적(처음 이주 시기에는 정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음)으로 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에 이주한 조사 대상자인 경우는 결혼 이후 자녀들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건너온 경우가 많았다.

85) 여기에서는 재중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조선말, 한족말, 한국말)를 연령별(노년층, 중년층, 청년층)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86) 실제로 이들의 발음은 ‘·’가 아니라 ‘ㅛ’로 여겨지나 여기에서는 원음으로 표기한다.

그런데 현재의 가족의 구성을 살펴보면 1세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들이 독립하여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2세의 경우는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으며, 형제·자매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따로 생활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제주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배우자, 부모, 형제였으나 이들을 떠나보낸 상황에서는 가정에서의 제주방언 사용 정도는 <그림 9>와 <그림 10>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제주방언은 같은 지역 출신의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이나 제주 출신자들 간의 모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방언의 사용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어의 사용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면서 점점 제주방언은 집단의 정체성을 미미하게 드러내는 소수의 언어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한 언어로만 사용될 뿐이다.

언어의 교체는 단지 언어학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사회적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일본어는 학업 성취나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일본어의 사용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제주방언의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 언어가 특정 공동체에서 사용 영역을 잃게 된다는 것은 그 언어에 대한 화자들의 능숙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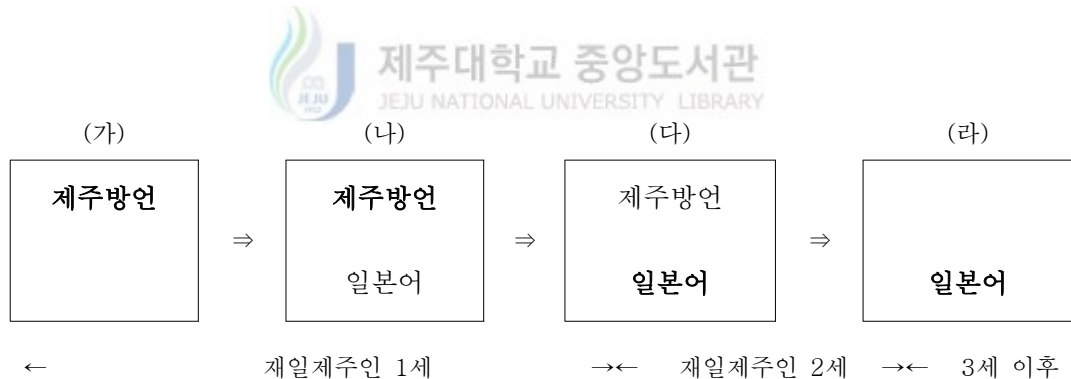
자신의 모어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집단이 이민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 들어가면서 언어 접촉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민 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해 그 사회의 주류 언어를 습득하면서 이중언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민 사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상황에 놓인다면 당연히 모국어보다는 이민 사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국어를 버리고 이민국의 언어만을 사용하게 된다. 사용되지 않는 모국어는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몇 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 사용 실태와 일상생활어를 살펴본 결과,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 과정은 일반 이민 사회에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민 사회의 언어 전환은 일반적으로 앞의 <그림 3>에서 보았듯이 이민 1세에서는 모국어 사용이 우세한 이중언어 사용, 2, 3세대의 이중언어 사용 시기를 거쳐 오직

주류 언어만을 사용하는 단계를 거치지만, 재일제주인 사회에서는 이 이중언어의 사용 단계를 짧게 거치고 2세, 3세대부터 이민 사회의 주류 언어인 일본어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본의 이민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은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일괄적으로 ‘동화’ 정책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의 언어를 통한 교육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일제주인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사용하는 등 자신들의 모국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자녀들이 일본 사회에 잘 적응하여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본 학교 교육에 열성적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재일제주인 사회의 제주방언은 빠르게 일본어로 전환되었다.

이상 재일제주인의 언어 선택에서 보면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 과정은 일반 이민 사회의 언어 전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2장의 제주방언 사용 실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바이다. 이를 정리하여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 과정을 간략화 하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 과정

이민 사회의 언어 전환이 일반적으로 이민 1세에서는 모국어 사용이 우세한 이중언어 사용, 2세와 3세대의 이중언어 사용 시기를 거쳐 오직 주류 언어만을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만 재일제주인 사회에서는 이 이중언어의 사용 단계를 짧게 거치고 2세와 3세대부터 이민 사회의 주류 언어인 일본어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11>에서 이민 초기 재일제주인 1세들은 제주방언만을 구사하는 (가)의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습득한 일부 일본어 어휘를 차용해서 사용한다. 차츰 일본어를 습득하여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이중언어 화자가 되는데 (나)의 단계에서는 당연히 제주방언이 우세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본어 능력이 향상되어 (다)와 같이 일본어가 우세하게 된다. 2세들도 고향에서의 체제 경험, 가정 내의 언어 환경에 따라 제주방언 능력이 다르지만 (다)와 같이 이중언어 화자로 일본어가 우세하다. 3세 이후는 (라)의 단계로 완전히 이민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교체된다. 제주방언에서 일본어로 ‘언어 전환(language shift)’된 것이다.



VI. 결론

이 연구는 이민 사회의 소수 집단인 재일제주인의 언어가 이민국 언어와의 접촉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을 대상으로 이민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유지되는 모습, 이중언어 화자로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혼용하는 양상, 이민 세대를 더해감에 따라 이민 사회의 주류 언어인 일본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재일제주인 언어 공동체의 모국어인 제주방언과 목포어인 일본어를 혼용하는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민 집단의 언어가 언어 접촉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전반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재일제주인의 언어에 대한 선행 연구가 혼용 양상을 살피는 데 그치고 있고, 재일한국인의 언어의 선행 연구도 코드 전환(code swiching)나 언어 실태 조사의 어느 한 부분만을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는 언어 사용 실태를 근거로 하여 이민 집단의 언어가 이민국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언어적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 이론에서는 언어 접촉의 원인과 상황, 그 결과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언어 접촉 상황에서 화자들은 서로의 소통 장벽을 허물기 위해 서로 발화 양식의 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게 된다. 그 결과 언어가 변화한다. 단순히 어휘를 차용하는 현상에서 새로운 언어의 생성, 이민국의 언어로 교체되기까지 변화의 정도는 언어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원용하여 현장 시간 방법으로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의 진행 과정과 방향의 일면을 관찰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조사 방법 등을 밝혔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언어 접촉의 개념과 현상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언어 접촉 이론에서 다른 언어와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언어

변화를 기술·설명할 때 ‘이중언어 사용(bilingualism)’, ‘차용(borrowing)’, ‘간섭(interference)’, ‘코드 전환(code switching)’, ‘코드 혼용(code mixing)’ 등 여러 용어가 상용되는데 대체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그 경계선을 분명히 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언어 접촉 현상을 이민국의 언어로 ‘언어 전환(language shift)’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민 집단의 언어적 특징을 뒷받침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2장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일본 오사카 지역에 제주 방언권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현 시점에서 제일제주인 사회의 언어 실태가 어떠한지를 세대별 제주방언 능력과 언어 태도를 살펴보았다. 제주방언 능력에서 1세는 대부분 제주방언 구사 능력이 뛰어나나 3세는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방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대를 불문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제주방언이 유지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령의 제주방언 화자의 발화를 중심으로 음운, 어휘, 문법 형태 분야로 나누어 제주방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민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유지되는 양상을 중앙어나 다른 지역어와는 구분되는, 제주방언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음운에서는 제주 지역 노인층 방언 화자들에게만 남아 있는 ‘·’ 모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개음화, 음운 첨가 등의 음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문법 형태 부분에서도 선행 명사의 말음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는 처격 조사나, 상대경어법이 체계가 지켜지는 종결어미, 사동·피동문 등에서 제주방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주방언의 변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언어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 않은 일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일제주인의 언어의 변화는 제주방언의 음운이나 형태적인 변화보다는 어휘나 문법형태소가 일본어로 대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문장 구성 요소의 일부가 일본어로 대체되어 두 언어가 혼용하는 경우에도 제주방언의 문법적 제약은 지켜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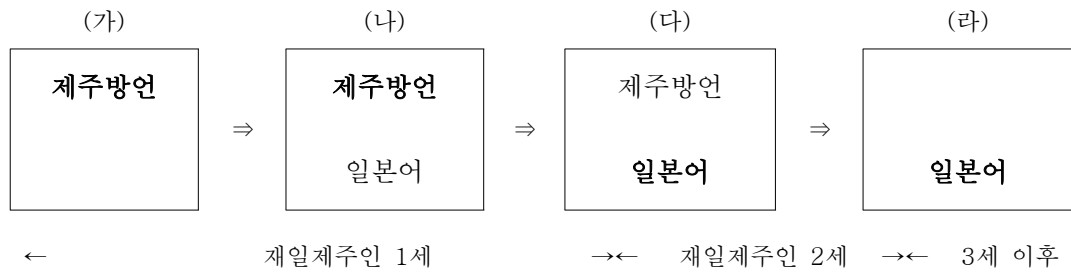
4장에서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 양상과 세대별 일상생활어를 살펴보았다. 언어 접촉에 의한 언어 변화는 어휘의 차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본어 차용어에

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에 의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이는 제주 방언 화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문화(異文化) 접촉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차이를 언어 차용을 통해 해결한다. 이민 사회에서의 이러한 언어 운용은 모국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어 전환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재일제주인 제주방언 화자들이 구사하는 제주방언에는 상당 부분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이 혼용어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이중언어 화자인 재일제주인 1세대들이 공유하는 ‘제3의 언어’다. 이러한 언어 혼용은 이중언어 화자의 발화 전략으로 발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른 언어선택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언어 구사 능력과 문법 구조가 유사한 두 언어 간의 간섭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재일제주인 1세는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지만 ‘제한적 이중언어 화자’로 두 언어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여 두 언어를 혼용하는 것이다. 또한 두 언어의 구조적 유사성이 언어 간에 간섭 현상을 초래하였다. 독특한 언어 형태는 개인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언어 공동체로 전달되어 새로운 언어 체계로 발전해 온 것이다. 재일제주인의 언어 혼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허다’와 ‘-수르’, ‘-게’와 ‘-나’의 혼용은 각각의 언어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형태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 언어에도 적용시켜 발화하기 때문이다.

재일제주인의 언어가 세대를 더해감에 따라 언어가 이민국의 주 언어인 일본어로 전환되는 것을 세대별 일상생활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2세 이후는 일상생활어로 거의 대부분 일본어로 전환되었다. 1세의 경우에도 이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상생활어가 일본어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 사용 장면에서 1세의 경우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또는 제주 출신 친구나 이웃과의 모임에서 제주방언을 사용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본어 사용이 우세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2세 이후에서는 일본어 사용이 절대적이었다.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 사용 실태와 일상생활어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 과정은 일반 이민 사회의 언어 전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민 사회의 언어 전환이 일반적으로 이민 1세에서는 모국어 사용이 우세한 이중언어 사용, 2세와 3세대의 이중언어 사용 시기를 거쳐 오직 주류 언어만을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만 재일제주인 사회에서는 이 이중언어의 사용 단계를 짧게 거치고 2세와 3세대부터 이민 사회의 주류 언어인 일본어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일한국인이 일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수 집단으로 자기 언어를 고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제주방언과 같은 지역 방언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우선 정식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일본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세대 간에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가 일본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잘 적응하기를 바라고 모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일본 학교로의 진학, 모국어 교육의 부재 등은 자녀 세대에서의 언어 전환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은 세대를 더해갈수록 더욱 강해지며 언어 선택에 대한 고민조차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일본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자연히 일본어가 모어가 되고 한국어나 제주방언은 외국어로, 학습에 의해 선택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언어가 전환된다는 것은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재일제주인 사회는 더 이상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이중언어 사회가 아니라 일본어의 단일어 사회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재일제주인의 언어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이민 사회의 소수 집단의 언어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소수 집단이 이민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언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하지만 여러 사회적 변인에 따라 변화의 모습이나 속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이민 집단의 언어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해 가는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 등 언어 변화 현상과 언어 전환 과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지역 이민자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민 집단의 안고 있는 언어 문제를 밝혀 이들에 대한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들 재일제주인들이 언어 혼용 현상에 숨어있는 대화 전략 등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근보(1977), <제주방언의 접미사 연구: 특히 '-true'를 중심으로>, 《제주대학 논문집》, 12~33.
- 강근보(1978), <제주방언의 곡용에 대하여>, 《제주대학 논문집》, 55~83.
- 강석우 · 김미정 · 이길용 역(2008), 《사회언어학의 전망》, 제이앤씨, 真田信治 編(2006), 《社会言語学の展望》, くろしお出版.
- 강신향(1991), 《현대국어 어휘 사용의 양상》, 태학사.
- 강영봉(1981), <제주도 방언의 후치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 1, 도서출판 제주문화.
-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 2, 도서출판 제주문화.
- 강영봉(2007), 《제주어》, 국립민속박물관.
- 강영봉(2013), <제주 사회 통합과 제주어>, 《탐라문화》 43, 39~65.
- 강영봉 · 김동윤 · 김순자,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2010.
- 강영봉 외(2008),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강영봉 외(2010),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강윤희(1994),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제주도 연구》 11, 83~146.
- 강정희(1980), <제주방언 처격 '-디'에 관한 일고찰>,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5~92.
-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강정희(2001), <제주방언의 '-아/-어지다' 구문연구>, 《한남어문학》 25, 1~20.
- 강정희(2002), <언어접촉과 언어변화: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 사회의 방언 보존에 대한 조사>, 《국어학》 40, 국어학회, 139~170.
-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5.
- 고동호(1991),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제13호,

33~49.

고동호(1996), <제주 방언의 유기음과 경음의 형성 과정>, 《한글》 234, 163~189.

고동호(2008), <제주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제65집, 55~74.

고영림(2009), <재일제주인 제주방언화자의 억양에 대한 연구: 오사카 지역의 고령화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407~429.

고재환(2011a), 《제주어개론》 상, 도서출판 보고사.

고재환(2011b), 《제주어개론》 하, 도서출판 보고사.

곽은심(2013), <韓日バイリンガルのコード・スイッチングに関する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곽충구(2000), <재외동포의 언어 연구>, 《언어학》 제69집, 한국어문학회, 1~41.

구마타니아키야스(1988), <한국어 속의 일본어계 차용어 연구에 관한 고찰>, 《이중언어학회지》 4, 203~234.

권명식(2011), 《아프리카 사회언어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권미소(2011), <제주도방언의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호(2002), <일본어 음성차용어의 음운변화에 대한 추론>, 《일본어문학》 13, 167~185.

김광웅(2001), 《제주 지역어의 음운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김광해(1995),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3~26.

김남국 역(2009), 《언어접촉과 2개 언어 상용》, 도서출판 동인, Appel, R. · Muysken, P.(1987), *Languages in Contact Bilingualism*, Amsterdam University Press.

김미진(1998), <제주도방언 ‘ㅎ다’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향(2013), <이주민의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 《영주어문》 제26집, 41~60.

- 김보향(2014a), <재일한국인 언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일한국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323~353.
- 김보향(2014b),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과 일본어 혼용 양상 고찰>, 《언어학 연구》 제19권 2호, 1~19.
- 김보향(2014c),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영주어문》 제28집, 111~136.
- 김순자(2010),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환(1984), <한일 양국어의 음절 대조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4, 347~372.
- 김승환(1986), <‘한자어-する’ 동사와 ‘한자어-되다’ 동사의 대응 관계 고찰>, 《논문집》 22-1, 제주대학교, 405~421.
- 김옥영(2013), <강릉 방언의 이중 피·사동 접사 연구>,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161~189.
- 김완진(1957), <제주도방언의 일본어어사 차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통권 18호, 112~131.
- 김정자(1994), <일본 내의 한·일 2언어 병용화자(한국인)의 code-switching에 대하여, 국제화시대의 이언어교육>, 《이중언어학회지》 제11호, 이중언어학회, 71~96.
- 김정자(2002), 《재일한국인 1세의 한국어·일본어 혼용 실태에 대한 연구: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태학사.
- 김지홍(1982),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곤(1980), <제주도 방언 모음체계의 음향분석>, 《현평호 박사 회갑기념논총》, 289~297.
- 남광우(2009), 《고어사전》, 교학사.
- 남기심·고영근(2009),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도은진(2000), <日本語-韓国語バイリンガルのコード切り替えについて: 在日コリアン3世を通じて>, 《일본학보》 45, 한국일본학회, 19~32.
- 도은진(2001), <事例研究: 日本語-韓国語混合文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のコード切り替え>, 《일본문화학보》 10, 한국일본문화학회, 7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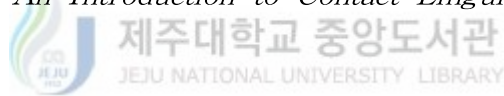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2003.
- 문순덕(2005), <제주 방언의 간투 표현>, 《한글》 269, 2005.
- 박경래(2002a), <중국 연변 조선족의 모국어 사용 실태>, 《사회언어학》 10-1, 한국사회언어학회, 113~145.
- 박경래(2002b), <중국 연변 조선족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한국사회언어학회, 59~86.
- 박경래(2005), <충북출신 중국 연변 조선족 언어집단의 경어법 혼합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사회언어학》 13-1, 53~81.
- 박경래 외(2012),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박영순(1990), <이중언어 이론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6, 이중언어학회, 135~167.
-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 고찰편, 민족문화연구소.
- 박의재 · 정미령 역(1999), 《현대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Wardhaugh, R. (198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Blackwell.
- 박준언(2010), <우리나라 광고문들의 이중언어사용 분석>, 《이중언어학》 43, 이중언어학회, 131~162.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2001.
- 배영환(2005), <‘ㅎ’-말음 체언과 관련 음운 현상>, 《언어학연구》 9, 한국중원언어학회, 2005. 41~76.
- 배영환(2011), 《‘ㅎ’-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지식산업사, 2011.
- 송상조(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법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송민(1979), <언어의 접촉과 간섭유형에 대하여: 현대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제10집, 29~62.
- 성낙수(1984),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정음사.
- 스즈키준 · 박문성 역(2001), 《재미있는 사회언어학》, 보고서.
- 신승행(1984), <제주방언에서의 일본어계 외래어 연구>, 《국어교육》 48, 153~174.

- 양창용·김원보(2013), <제주어 ‘게’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제59집, 143~163.
- 왕한석·백경숙·이진성·김혜숙 역(2009),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한국문화사, Saville-Troike, M. (2003),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 이문웅(1989), <在日 濟州人 사회에서의 巫俗>, 《제주도연구》 6, 79~87.
- 이문웅(1998), <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355~378.
- 이미숙·조선영·장근수 역(2012), 《이중 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한글파크, 2012.
- 이수안(2009), <이카이노 이야기를 통해서 본 오사카방언과 부산방언의 문말 표현 대조 연구>, 부산외국어대학 석사논문.
- 이승녕(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익섭(1996), <중국 연변 조선족의 모국어 선택>,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신구문화사, 599~621.
-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개정판, 학연사.
- 이준식(2002), <일제 강점기 제주도민의 오사카 이주>, 《한일민족문제연구》 3, 5~32.
- 임영철(1995), 《해외한국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임영철 외(2011), 《국의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형재(2006), <중국 조선족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형 코드전환>,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123~143.
- 전혜숙(2008),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정소현(2013), <한국어·영어 코드 스위칭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 정승철(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 20집, 67~107.
- 정승철(1998a),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 생활》 8-4, 133~152.
- 정승철(1998b), <제주방언>, 《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955~984.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승철·김보향(2013), <제주방언의 설명의문과 판정의문: 어미의 중화 현상을 중심으로>, 《방언학》 제17호, 79~103.
- 제주도청(1937), 《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조성문(2013), <산포이론에 의한 제주방언의 구개음화 분석>, 《인문과학연구》 제20집, 동덕여자대학교, 133~144.
- 진정례(2005), 《언어변화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역(2012), 《재일코리안사전》, 도서출판 선인.
- 한국사회언어학회 역(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Bonvillain, N.(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Prentice Hall.
-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 한영균 외(2013),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현우종(1988), <제주도 방언의 ‘·’ 음가 고찰>, 《우리말 음운 연구》, 한말연구회편, 208~240.
-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 연구》 제1집 자료편, 정연사.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 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현평효 외(2009), 《제주어사전》 개정증보, 제주특별자치도.
- 홍종립(197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8, 150~221.
- 홍종립(1999), <현대 의문법 체계 고찰(1):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청주교대 논문집》 36, 85~116.

- 후지나가다케시(2010), <재일 제주인과 ‘밀항’: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 《4.3과 역사》 10, 153~176.
- 宮下尚子(2007), 《言語接触と中国朝鮮語の成立》, 九州大学出版会.
- 琴鍾愛(2005), 《日本語方言における談話展開の方法》, 東北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 金美善(1998), <在日コリアン一世の日本語: 大阪市生野区に居住する一世の事例>, 《日本学報》 17, 大阪大学文学部日本語学研究室, 71~83.
- 金美善(2001), <在日コリアンの混用コードについて: 大板市生野区周辺における言語接触の観点から>, 《青丘学術論集》 第19集, 財団法人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273~299.
- 金美善(2003), <混じりあう言葉－在日コリアン一世の混用コードについて>, 《言語》, 2003年 6月号, 大修館書店, 46~52.
- ロング・ダニエル(2012), <<小笠原混合言語>は本当に<言語>なのか>, 《日本言語文化研究会論集》, 2012年 8号.
- 牧野有紀子(2009), <<阪方言の命令形>に後接する終助詞や・ナ>, 《阪大日本語研究》 21, 79~108.
- 牧村史陽 編(2012), 《大阪ことば事典》, 講談社学術文庫.
- 杉原達(1998), 《越境する民》, 新幹社.
- 渋谷勝己(2010), <移民言語研究の潮流: 日系人日本語変種の言語生態論的研究に向けて>, 《待兼山論叢》 第44号 文化動態論篇, 1~23.
- 生越直樹(1983), <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 《言語生活》, 376号, 5~24.
- 栞田一二(1986), <济州島の地理学的研究>, 《地域社会の発展とまちづくり》, シード・プランニング, 25~158.
- 神鳥武彦 譯(1976), 《言語間の接触》, 岩波書店,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The Hague: Mouton.
- 野田春美(2002), <終助詞の機能>, 《新日本語文法選書 4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 伊豆原英子(2010), <間投助詞は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てきたか>, 《愛知学院大学 教養部紀要》 第58巻 第3号, 1~12.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 中井精一(2005), 《社会言語学のしくみ》, 研究社, 2005.

- 真田信治・生越直樹・任栄哲 編(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 包聯群(2011), 《言語接触と言語変異: 中国黒竜江省ドルブットモンゴル族コミュニティー言語を事例として》, 現代図書.
- 玄武岩(2007), <密航・大村収容所・濟州島: 大阪と濟州島をむす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 《現代思想》 2007年 6月号, 158~173.
- 黄鎮杰(1994), <在日韓国人の言語行動: コード切り替えにみられる言語体系と言語運用>, 《日本学報》 13, 大阪大学文学部日本学研究室, 45~62.
- Gumperz, J.(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mes, J.(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Longman.
- Thomason, S. G. and Kaufman, T.(1988), *Language Contact, Creolization and Genetic Linguis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homason, S. G.(2001), *Language Contact: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Winford, D.(2003), *An Introduction to Contact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참고 누리집>

일본 법무성 누리집 <http://www.moj.go.jp/>

오사카 이쿠노 구청 누리집 <http://www.city.osaka.lg.jp/ikuno/>

Abstract

A Study on Process of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Shift Found in Jeju Immigrant Society in Japan

Kim Bo-Hya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rehend how the language of the Jeju immigrant society in Japan, an ethnic minority, changed with the simultaneous use of the Jeju dialect and Japanese. It particularly examined how those Jeju people residing in Osaka, Japan, retained the Jeju dialect in their community, mixed it with Japanese as bilingual speakers, and experienced language shift to the mainstream Japanese, over multiple generations. The research gave an overall insight into what changes the language of an immigrant society could undergo with language contact.

Chapter 2 discussed the notion and phenomena of language contact, the theory that the study was based on. Examples of language contact were focused on those theories that can explain the linguistic features shown in the process of language shift of the immigrants to that of the country they immigrated to. In the review of language usage, Chapter 2 introduced the aspect where those immigrants in the first generation were mostly fluent in the Jeju dialect while those others in the third generation were generally incapable of speaking it. It also showed that the Jeju people turned out to find it unnecessary to speak the Jeju dialect.

Chapter 3 displayed how the immigrants in Japan retained the Jeju dialect. A phonolog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y still use ‘· (arae a)’, which is one of the vowels spoken only by the group of elderly locals in Jeju Province. It

also showed that there still exists palatalization and phonemic addition in the immigrant society. In terms of grammar, the features of the Jeju dialect remained unchanged in such cases as using different forms of adessive postpositions depending on the final consonant of the preceding noun or selecting appropriate final endings according to the hearer-honorific system.

Furthermore Chapter 3 introduced examples of the changes that the Jeju dialect experienced in the immigrant society. It especially explained that the linguistic change made by the immigrant speakers was more apparent in the replacement of lexicons or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Jeju dialect with those of Japanese than in the phonological or morphological replacements. However the speakers retained grammatical restrictions even when using both the languages in one sentence by replacing some elements of the sentence in the Jeju dialect with those others in Japanese.

Chapter 4 discussed the mixed use of the two languages as well as the use of colloquial Jeju dialect by different generations. The Jeju dialect speakers in Japan first borrowed Japanese words and then began mixing the two languages. Code mixing, a strategy of bilingual speakers, takes place because they select either language depending on speech situations or listeners. However it also occurs when they fail to set clear boundaries between the two languages. In particular code mixing without clear linguistic boundaries can be a result of their imperfect linguistic ability and language interference between the two languages with similar grammatical structures. The first generation Jeju immigrants in Japan are bilingual speakers that use both the Jeju dialect and Japanese, but at the same time, they use mixed languages as they failed to distinguish them clearly. In addition the similarities in the languages led to the language interference. Their personal unique pattern of language usage were eventually disseminated throughout the community, developing a new language system. A frequent mixing of ‘-허다(*heoda*)’ and ‘-する(*suru*)’, both of which mean ‘to do something’ in the Jeju dialect and

in Japanese, respectively, is due to the application of grammatical phonemes serving a certain function in either of the two languages to those with the same function in the other language in conversation.

The second or later generations of the Jeju people residing in Japan have seen most of their colloquial language shifted to that of Japanese. It was also significant that even the first generation with a prolonged residence in Japan also underwent a colloquial language shift. In terms of usage, Japanese was confirmed to be superior to the Jeju dialect among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although they spoke in the Jeju dialect with their spouses at home or with their friends and neighbors from Jeju. It was especially significant that the absolute majority of those of the second or later generations used Japanese. The study also found that language shift of the Jeju people took place at a faster pace than that of the other Korean immigrant societies in Japan. In general,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become bilinguals that put superiority on their mother tongue than the language of the country they immigrated to, while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become fluent in both the languages at a similar level. The immigrants eventually use only the mainstream language in later generations, which is the final stage of language shift. On the other hand, the bilingual period of the Jeju immigrants in Japan last relatively shorter than that of other immigrants. That is,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not their descendents, experienced the last stage of language shift, becoming speakers who use only the mainstream language, Japanese.

As an ethnic minority surrounded by the Japanese locals within the national boundaries, it must be very difficult for Korean Japanese to adhere to their own native language, not to mention those who speak regional dialects such as the Jeju dialect. In order to have access to formal education or job opportunities in Japan, it is essential to be a Japanese speaker. The Jeju dialect was not inherited by younger generations in the Jeju immigrant

society because the parents had high hopes that their children would be more fluent in Japanese than in their mother tongue so as not to be discriminated in the Japanese society. Attending Japanese schools and having no education regarding their native language affected language shift in younger generations. The said impact becomes even more powerful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nd eventually, they do not even have to bother themselves any more by selecting one language depending on the situations. Those born in Japan naturally consider Japanese as their native language while accepting the Jeju dialect as a foreign language which they selectively acquire through learning. Language shift found in the Jeju immigrant society in Japan has the same meaning that its members do not retain their native language any longer. In other words it is now being transformed into a Japanese monolingual society from a bilingual society of the Jeju dialect and Japanese.



부록 1. 담화 전사 자료

◇ 담화 일시: 2014년 4월 20일

◇ 장 소: 이쿠노쿠(生野区) 조선시장(朝鮮市場) 내 공원

◇ 참 가 자

가	DY	1931년생	여	도두	1세	8세(1939년) 독일
나	JJ	1944년생	여	대정	2세	대마도 출생, 18세 오사카 이주
다	SS	1921년생	여	함덕	1세	14세(1935년) 독일
라	MM	1940년생	여	성산	1세	2세(1942년) 독일
마	연구자					

◇ 담화 내용

가: 이레 앗으라.[1]

마: 예.

라: 어디 강 딸가 하나 봉가완?

마: 하하하

라: 어디 강 딸 하나 봉가다 낱 이레 앓으라, 저레 앓으라.

마: 하하, 제주도 딸이우다.

라: 아아, 제주도서 왔어요?

마: 예, 하하하.

가: これだれの.

마: 아침부터 이십디다.



나: 아는 사람덜 おるから.

마: 안녕하세요.

나: こんにちは.

가: 久しぶりだな.

나: ほんまや.

가: なにしてた?

나: 家でじっとしとた.

가: じっと マ만이 앓안, 오몽 안 허영?

나: 아이고 말 많서. 心配が.

가: 何の心配や?

나: 날마치 心配ある人.

가: 아이고 心配 다 ㅅ주마는 何の心配や?

다: 心配 엇인 사람 엇주.[2]

나: おっさん 어디 머청 봐 두난.[3]

가: 어!

라: 돌아나 불엇구나.

나: 무시거! おっさんは 발로 차렌 허고 그딴 사름덜은 아니 허ㄴ렌 허고 이디 꺼꺼전.

가: 오っさんが 꺼꺼전?[4]

나: 응.

가: 거 누게 차부난?

나: 차불엇젠 おっさんは 걷는다, おっさんは 경 완전이 노망 안 허주게. ちよっとだけ 노망기 あるけど.

가: 아이 차시민 느려지나 어떻 헛주게.[5]

나: 경허난 걷건 들읍서게. 쩌끄만헌 방이주만은 침대 가져 강 픽허게 땡끼명 발로 차분 생이라. 경허난에.

가: 何人部屋やの?

나: ひとり. 게난 아무도 본 사름이 おれへん.[6] 겨고 일허는 사름덜이 晩なったらおれへんね. 사름덜이 죽아서. 경허난 허귀렌 험니까? 현 아이 돌아당 곪으난 호끔 날ㄴ치 병신. しりません, しりません.

가: 짓도 거기 입원헌 사람?

나: 양?

가: 입원헌 사람, 그 사람도?

나: 아니

마: 일허는 사람.

나: 그디 일허는 사름.

가: 아, 일허는 사람.

나: 경허난 죽은 디난, 아이고 ねえさん 영 곪으민 해도 죽은 디 이쿠노 違うで, 아맹헤도 큰 디가 めが届く.

라: 큰 디 가사.

나: 예, 경허난에.

가: 아, 독방이라?

나: 독방이난게, 돈 십이만 원やんか게.[7]

가: 아, 흔 들에 십이만 원씩 내 뉘구나.

나: 경허난 이디 꺼꺼지난, 영 사름이 트라진 거 아니.[8] 겐디 저디선 내부떠전 경 헛젠 해도, 日にちがたったら 이디가 막 붓언. 게난 저디 사름덜은 古い 기스카 이제사 헌 건가 わからへんいうでも, 옛날 키스(키즈) あったら 사람 아프지 안 험니까?[9] 경헨 병원에 가난 경 곪으난 누게가 경 곪안엔 허명 지넨 返事ができへんって. 경헨 수술헤영 ねえさん 스무날しか おいてくれへんね. 그디 가도 寝たきりになつたまま 난 이녁 냥으로 갈 디 못 갈 디 치료헤 봐사. 겨고 糖尿病あるでしょう. 骨がい.

가: そうや.

나: 겨난 かるく 영헤도게 꺼꺼질 場合もあるやん. 경 おっさん도 푸더져도, 경 푸더질 망じゃないね.[10] 쩌끄만 헤네, 침대 하나 놓고 荷物いっぱいあるから. こけても頭打つか 이디 꺼꺼지나 허주. 겨난 그디서 걷는 말은 ただと座って 꺼꺼졌저, 옆으로 네 부떠전 꺼꺼졌저. 본 사름이 잇수파?[11]

가: 証拠なかったら, できへんな.

나: 경허난게 그디 책임진 아이 불러단 우리 아덜 곶오난, 뜯 사람안티 いちにん ㅁㅁㅁ 매
껴부난 自分わからへん. あんたが寝せたやろう 헤도, 완전허지 날ㄴ치 허지 못허난 고개
만 영영 허멍 話ならん. 겨고양 죽은 디, 겨고양 사람 뱃 엇인 디 회사도 여섯 개나
들어가노난 정신이 ないね.[12] 介護保険でもなどれをどれかわからへん. 会社がよっ
けいあるのよ. --- 그자 혼 번에 머구리거치 돈을 버슬젠 헤도 버슬어できへん
で.[13]

가: 이거 病院生活ばかりや, 이거나 たいぶ長生きしてな.[14]

다: 우리 동네 松田よめさん도 매날 으듭 시 웨민 병원에 강, 付き添え야ってる. どこす
り(とこずれ)해 노난.

나: どこすり(とこずれ)も治れへんね. 그 おばあちゃん도 병원에 입원했수과?

다: 아니 おっさん게, 서방. 松田게, 우리 동네 角집이.[15]

나: 松田言ったら.

다: 저, 화북 사람.

나: 경 곶아도 모르쿠다.

다: あの, ---허는 디 となり.

나: どこすり(とこずれ)になるね. じっと 늑전 내 불민.[16]

다: 경허난 おっさん은 大きい야ろう. 嫁さん은.

나: 아아, 知ってる, 知ってる. 아기덜 한 사람양?[17]

다: 계난 요새나, 이거 지평 텅겅져.

나: 그 嫁さん, 風呂きてる야, 저디.

다: 매날 다님세.

나: 그 사람도 어디 다리 수술허귀렌 험디다.

다: 옛날 수술헌 거.

나: だからな, この世はな 아기덜 한한헤도나 이년 살기가 바빠노난.[18]

가: 아, 아기 하도 みんな 병원에야 죽어가도 병원에, 아팡헤도 병원에.

라: 그디도 메누리가 から다悪い.

가: 옛날은 죽어가민 집이 돌아오주만은.

라: 계난 서방이 面倒みてる.[19]

나: 이젠양 죽어가도 집이 돌아와 치릴 못힐 거난.

가: 집이 돌아와 せんへん. 옛날은 집이서 죽어산덴 죽어가가민 집이 돌아오주게.[20]

나: 아이고 거 옛날 말, 이젠.

가: 계 옛날게, 옛날. 지금은 경허는 사람 엇어.

나: 요새 아기 한한헤도 성이시민 성 보라, 누이 시민 누이 보라.

마: 다 떠말겨.

나: 우리 집인 웨아덜이난, お前가 長男이고 아덜이난 보라 허민, ねえちゃん은 우리보다
先うまれて 호끔 幸せ야^{から} ねえちゃん도 いっしょ에協力して.

가: 아, そんな言うの?

나: 우리, 우리 아기덜 우스게합니다.

가: 言うわな.

나: 나보다 흐뭇 먼저 나난 おかあさん幸せやとか. 우스게するね, 兄弟3人が仲いいから.

라: 三人시민 흐뭇.

나: 경허난 딸덜 성제양 지네 오래비가 웨아덜이고[21] 큰아덜이고 長男이고, おかあさん
네 너 난 때 막 영헨 키우난 너가 보렌.

마: 하하하

나: 우스게덜するね. 年がくっついてるから.

가: あなたも病気が 으라 가지 あるけど元気や.

나: 으라 가지 あるけど네. 난 이디저디 막 수술헤도 끈어 불민 낫는 병.[22] 낫아신디 안
낫아신디 わからんけど. 頭もな, 脳硬塞はね, 二十四時間 넘으면 みんな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어するね.

다: 게도 元気や. 頑張ってるい.

나: 口だけ, 먹으난마썸

가: 병원에서 땡겨주만은, 아프민 먹어져게.[23]

나: 아이구 요변인양 밥만 봐가민 역테기 올라완게 이제 흐뭇 어떻 어떻게영 먹어접수다.
경헨 땡양, 揺れるまでやせて기운이 엇영 이레착저레착する, 栄養がないから게.[24]

가: 야, うちもその時あったわ. 넘은해에. 윈 밥 봐가민 먹기 실핑게.

나: そうやから 병원에서 줄읍디다. あのごはんは食べへんでも野菜でも自分好きなもんだ
べなさいと, あの 옛날 사름덜은 이것 먹으면 あかん, 저거 먹어, 뭐 흐루라도 살젠
허민 すきなもん, 먹고정 헨 거 먹으랜 험디다.[25] 우리 집이 おっさん 돈도 아무것
도 엇어도양 병원에 자꾸 가가난, 이디꺼지 오젠 허민 タクシー代もったいないな
줄아가민, おれのこと気つかわずしっかり食べて, お金のこさんでもええよ言うから,
お金どこにあるのよ. 저 먹을 것도 막しまつ허명 돈 自分のために 애끼지 말렌. 아
이구, 경 줄양 웃엇주게.[26]

가: えらいわ, そうやけど. だんなさんしてから自分も体しっかりできるの. そうやけど, 糖尿
なおったなあんた?

나: わたしはこの病気でなおった.

마: 우와.

가: 어떻허난? うちはな.

나: 急激にやせたから. 누게꽈?

마: 딸마씨.

가, 다: 하하하하

나: 딸은 알아집니다. 게메 조켄가 누게, 한국말 아는 어른이네.

마: 붕가 온 딸이우다.

가: 붕근 딸게.

나: 이모かだれかな?

마: 아니.

나: 한국말 알아. この年 한국말 아는 사름 엇어.

다: 한국から来ているね.

가: 남펜네 입원허권데 막 오랬주게.

나: 아하 한국 사름.
 마: 제주도서 왔수다. 제주도.
 나: 제주도 어디파?
 마: 제주도 한동마썸.
 다: 한동, 한동.
 나: 한동이엔 곶아도 알아져게.
 마: 구좌면.
 나: ぜんぜん 그쪽은 わからん.
 마: 어디시파?
 나: 대정.
 마: 아, 대정, 반대쪽.
 나: 대정이라도 두 번 갖다오난, 일로 도난 わからん.[27]
 마: 반대쪽이라부난에, 대정이면.
 나: 우리 어머니넨 물질허단 돌아갓주만은[28], 아이고 今ねえさん, 배 곶라진 거 그 뉴스
ばかりね.
 가: 배 곶라전 바당에 영장だらけな.
 나: 아이고 경허주만은 그 배 탄 사름게, 지네만 돌아나지 말앙 돌아나렌 헐 거 아니파,
 경허민.
 가: 돌아나지 말앙 ㄴ만히 허렌 헤영 그냥.
 나: 겨난 아이덜 영허영게, 배가 이레착저레착허난 영허영덜 축브름에 부떠십디다.[29]
 가: 겨난 올라오젠 헤도 올라오지 못헐 그냥 배가 영허난.
 나: 경헌디 이제 캄캄해 부난 사름이 이신디 무시것사 신디 낭으로 막 데며져 노난 좃지
 못 허영.
 가: 낭으로 데며지고 거기 그냥 あぶら 막 그냥.
 다: 기구 あつたらなみんなしたらいいのに. あれもしてないね.
 나: いや, 器具はみんなつけた. つけてそのままこうしたのよ. 경헌디 낭에 막 걸어지민양
 사름 좃바로 올라오지 못허여.
 마: 못허여, 못허는 거.
 나: 우리 대마도서도 우리 아버지네 배 탈 때 보민, 뭐 신체덜이 막 감태영 무시거영 막
 감아정 잇넨 험디다.
 가: 그것덜 서이가 심어 갓지만은 심어가민 무시것 헤.
 나: 심어 가민 어떻험니까? 그 사름덜 징역 살주.
 가: 어, 그것덜만 ㄴ녀 돌아난.
 나: 징역 가근에 살주 무시거 험니까? 경헌디 校長先生, 교장선생은 목 돌아정 죽어 불엇
 수게.
 마: 교감선생님.
 나: 교감선생은 목 돌아정 죽어 불엇수게.
 가: 自殺したんや.
 나: 학생덜나 二百何十人 죽여 놓고 이녁만 살지 못허켄. 그게 本当やで. 本当やで.

가: 교장선생은 行ってないやろう.
나: 校長先生は行ってない.
가: 行ってないけれど, 학교에서 그냥.
다: 先生は何の罪もないのに 배 임제가 罪だけど.
가: 罪はないけれど.
나: 아이고 배 임제 罪だけど 그 하르방은.
가: 罪はないけれど, やっぱりいちおう責任やんか. 계난 그 회사의 사름덜 ものすごく罪
で, ま, 謝っとたんか.
나: 謝っても 어떻게니까. 경헌디 日本광 アメリカぜったい頼めへんやろう. 그 바당이양
마음대로 못 땡기는 바당인가봐.
가: 게 진도. 제주에 오당 경 헛젠. 오단 헤신가 가단 헤신가?[30]
나: 일본 사름덜이 자유로 못 땡기는 바당이 あるのよ.[31] うちら 대마도서 올 땡 玄海,
玄海灘이엔 헨 일로 영 끈어근에 일본 배 못 들어오게, 대마도 배 못 들어오게 허는
굽이 あるね.
다: 굽이 あるのよ.
나: 경허주만은 거 혼 사름 운으로 죽어신가양?
마: マ만이 잇이렌만 안 헛어도 다 옷 입영 잇이난 갑판에 나오면 뜨잖아예.
나: 경허난게 죽어도 뜨꼭게, 산 아인 살꼭 헛 거주만은, 막 범벅이라부난 이거 나오지도
못 허고.
마: 안에 잇어 부난.
가: 그 가운데 살안 나온 사름 よっぽど運のいい人だな.
나: 먼저 飛込んだから.
다: あれは上の人だ.
나: そうけど 죽은 사름도 よけいおるや. 三十何人.
가: 三十何人違うで, 죽은 사름이. 百…….
나: 아아, 죽은 사름 푼 건, 三十何人.
가: まだ 묻어진 사름 おるや.[32]
나: 아아, 묻어진 사름은 二百何十人.
가: そうやろう.
다: 二百六十.
나: そうやけど 그것도양 올라오는 사름, 아니 올라오는 사름するね. 이 바당에서 죽은
사름은.
다: 아이고, 어떻 아방덜은 올라오라 올라오라 막 그냥.
가: 다 건져 내주 못 허주.
나: 그 OOO가 悪いか.
가: 야, みんないってたよ, 일본서 応援 가그네, 応援 가주켄 해도 대답을 안 헨.
나: 계난 그 바당에 못 가는 디, アメリカ서도 오라 주켄, 特殊의 기술덜 신 사름덜 오켄
덜…….
가: 계난 막 せめとたやんか 어치낙에도 막 뉴스 보난 그냥 막.

나: 겐디 정부의 정분 何かあるみたい.

가: 몰덜 막 지치명, 이디 그 아베.

다: 경헌디 막 쎄도이 그 바당이 경 쎄지 안허난 막 쎄시민.

가: 아니 그 마린 윈 재수가 なかった, 바당도 쎄곡 으남도 팍 저불고나, あの 그 마린엔 막 悪かった.[33]

나: 그거보단 말허는 도중에 すいません. 오늘 이디 절간이서 祭り엔 누게 말이 전화 와 선게.[34]

가: 次の日曜日. 다음 공일.

마: 하하하.

가: まつり엔게.

나: まつり엔게.

가: 우리도 넙은돌에도 경 곶안 오란 보난 아무도 엇엔게.[35]

나: 게메게.

가: 넙은덜 27일. 이거.

라: まだまだや.

마: 27일이라, 27일?

가: 이번, 다음 공일날.

나: 경헌디 어떤 사름은 우리 동네서 저디 절간에서 祭り허는 디 가지 앓으쿠파? 나 일 해 똥, 흐뎡 무시거 문직아 똥 가쿠다 가십서 곶안.

가: 다음 공일날.

나: 아, 다음 공일날, 아아, 聞き間違いや.

가: 다음 공일날, 어디야.

나: 춥지 안허민. 오늘도 집안인 막 추윈 ストーブ たいた.

가: 응, 나도 아척이 흐뎡 불 썩.

나: 게고 흐뎡 冷える 헤 가민 다리도 으씩으씩 아파.

가: 게도 막 정신 좋앗져.

나: 어?

가: 말 곶는 거 보난 막 정신 좋아서. 나도 전화로 저 아이덜, 손지덜 전화헤영 말 곶으 민 ‘おばあちゃんものすごく元気やな.’ 으, 말만, 말만.[36]

나: そうから言っとた. たつみ 사름, 전화로 말허난 しっかりしゃべるけど、느 님은 병은 다 죽는디 어떻허난 느 살아전디 ゆってたけど.

가: 今度いつ行くの血糖の? うち今度の木曜日や.

나: うちは来月や.

가: 아, 来月. いつも会うやんか.

나: 違う. ニヶ月にいっぺん 허당 くすりが三ヶ月になったかな.

가: 아, 直ったからや.

나: なんかで, 二十五日は薬だけもらいに行くで、薬はニヶ月分しかくれへん. 선생덜토 みんな變わってしまって. 에이구 죽는 날꺼지 약 먹당 죽주.[37]

다: ほんまや.

가: 아이고 그냥 병으로 죽는 사람은 幸せ여개.[38]

나: 아이고 병원엔양 みんな 할강할강 肺炎덜 걸령 죽는 사람덜 おるけどやっぱ点滴だからすぐ 죽어せへん. 병원에 들어 가민 멧 덜은 살아야.

마: 폐렴 걸리면 합병증 오니까예.

다: 今ごろ肺炎が多いな.

나: 肺炎が多いけど年よりで力なかったらね.

가: 켜디 はしかが 막 하여 빗젠, 今はしか.

나: 켜디 옛날 혼 번 넘은 사람은 大丈夫だけどワクチン덜 안 헌 사람덜 多いやん. 예방 주서덜. 게도 오사간 오지 안헛수다. それは無視してもいいけど. 놔덜 죽어가민 다 죽주게. 우리 아기덜 마라 밥먹을 때, 아이구 느네 아방도나 저추록 안 헌 땀 제게 나₂くなって, 나보다 먼저 죽으민 ええのにな 현디나 저추록 뉘난 풀쌍허덴 허난,[39] おかちゃん 아방 걱정이랑 허지 말앙 ₂おかあちゃん行くどこだけ行って.[40] 어멍 갈디만 가주 걱정허지 말렌.

가: 게도 ありがとうや, 安心や 경 곶아 주민.

나: 경해도 어멍 신 것과 옛인 건 違う.[41]

다: いくつなってるかい.

나: 七十二, まだ若い.

다: へび, へび, へび.

가: へび?

나: 응. おっさんがへび.

가: 아, おっさんが.

다: へび민 かぞえよんや.[42]

나: 四?

다: 응, 우리 메누리도 蛇やけど.

나: 경헌디양, 오늘 시누이안티서 전화 왕양.

가: 74や、蛇.

나: 76になる人から 전화 완. 이거여 저거여 곶안게, 혼 번 병원이 간 テレビ 카드 두 장을 사 쥐십디다게 우리 딸네도 간 사주고. 날 마라 요새 병원에 갔다 완디, 나안티 욱 들젠 그거주게.

가: 아, 시누이가?

나: 예, 병원에 갔다 완디 허권데, 응 きのうも行ってきたけどなに, 言ったら, テレビカード2枚こおって来たけどあったかな. ねえさん 두 장 사 논 거 그 사람덜도 うちにゆっとたから 아기덜도 다 알압수다. 우리 동생 운동 안 허난 이디가 질락허연 막 줄어서렌 허권데, 아픈 사람 어멍허영 운동헙니까?

가: 건 テレビ 카드 두 장 사주 마렌 그거 막 곶음이로구나, 몰람시카부덴.

나: 경허난양, 허난에 다리가 흘랑흘랑 헨 運動不足や, 어멍허연 운동헙니까?

가: 걸 어멍허연, 병자 누운 사람이게, 다 경허주.

나: 게난 옛날부떠 筋肉がどれてるから, 糖尿でやせるやんか. やせるで, 병원에서. 경허난 이녁도 糖尿やで 遺伝性の糖尿があるから, 게난 이녁은 막 혼 시간씩 걸어 땡기 노

렌 허권데. 76ウサギ年だから, ねえさんは 기운이 잇이난 경 돌아 탱겨점수게, それは体弱いし, 걸젠 허민 앞더레 콕콕 박아지는 사름은 頭うってできへんで. 젊은 때부터 간세허지 말앙 운동허게 허주만은, 운동 경 簡単にできますか. 暇あったら 일허저, 경 허명 헨양 허난, 老人ホームの話が出た.

다: 糖尿かかった人は早くなくなってたと聞いた.

나: 게도 우리 시누이덜은, 큰시누인양.

가: 재기 죽어지지 안허쿠다, 나도 糖尿.

나: 八十四이라도 まだ元気ですわ. 경허난에 このごろは老人ホームも 집 이신 사름 집 주민 들어가전 잘 봐준덴 헨게, ねえさんは 집 잇이난 집 쥬 들어강, ほん 월에 20万円ぐらいやって 경허명 잘 봐주는데 잇덴 허권데, 그딘 어떻허영 ねえさん 申し込んで 받아줘야 그달 들어가주. 받아주지 안 허는데 우리냥으로 강 들이쳐집니까? 경허난 口ばかり出しててるから, 경허건 ねえさんが 돌아당 어디 頼んでみたら, なんてうちができるの? 못할 말이랑 곧지 말주게.

가: 아, 시누이가 게도 경 전화 오라, 오라방 생각헤연?

나: 오라방 第一やけど 흐끔 젊을 때 小遣い도 주곡 大事허주 늑영 죽어갈 때사.[43]

마: 하하하.

나: 경허지 안허파게. やきにく집 헨 잘 뒻수게. 경허난게 오래비라도 흐끔 잘 맥이주. 경 허명양 タクシー代 저, 구백 원 들어렌 나안티 전화허연.[44]

가: 겨난 길 어떻 내 노렌? 하하

나: 경허난 츠루하시 신 뎨 지네 점심 먹어근에, 츠루하시 本通り난 오란 弟の顔見て帰るからいいけど, 이젠 츠루하시 駅から中央病院まではワンメータでは行かれへんね, 팔백얼만가 구백 얼마 들언. 거 なんて. 경 タクシー代혈 거민 行かんときゃ.

다: そうや.

나: 경 쫄아 부난 속숨헉디다.

마: 하하하.

나: ワンメータでは行かれへん. 날마라. 当たり前やろう.

가: 천 원 아니라 이천 원을 들어도 그 소리 言うべきじゃないで.

나: 그거 공치사するの. 게난 가지 말주게.[45]

다: 게, 이녀 동생 보레 가는 거.

가: 시누이 何人おるの. 세 사람.

나: 세 사람 있었는데 하나 죽어 불언. 三人おるけど, 우리 집이 おっさんは 真ん中. 게난 옛날로부터 おとうと난 男 혼자로 영 키우난.[46]

다: 기여게, 男一人で育ったら甘い.

나: 키우난 甘い. 비 오는 거 닥다.

가: 으 빗살나.[47]

마: 빗방울 떨어점수다.

다: 男男ばかり言って.

나: 今は男男ばかり言う人おらん.

다: 응 그 年엔 みな 男男혜세.

나: 에에, 男고 女고. 男でも女でも 사름에.
 다: 時代がな.
 나: 빗방울 험수다. 오닐, 비 오쿠다.
 마: 洗濯してほしたのに?
 가: 오닐은 洗濯してほしたらあかん.
 나: このごろ天気がこうから, 体が 막 しんどいね.
 다: 帰る?
 라: 응.
 나: ねえさんは毎日来ているの?
 가: 어제도 안 오라 가고.
 나: 오닐도 선생 올 거?[48]
 가: 몰라 어떻게 헐티. 오닐 昼から 雨엔 허난 올 건가?
 다: 毎日来てる.
 나: 家の中はね, ひんやりする. 바깥디보다 집안에가 ひんやりする.

나: 밥 물에 즈양 그자.
 가: 밥 물에 즈양나, 마농지시 おいしいわ.
 나: 아, 마농지시 이녁 냥으로 답안?[49]
 가: 우리 딸 한국 간 많이 もろってきとったわ.
 나: 아, あれ, 생기리 いれて?
 가: 생기리 いれてな.
 마: 이파리 부분마씨? 뿌리 부분?
 나: 뿌리도 이제 연허난.
 가: 이파리, 영 진 거. 젠디 난 그것보단도 여기서 그 마농 빨리 그냥.[50]
 나: 둥글둥글헌 거.
 가: 깡나 그거 그냥 장물에 양념행 답아する[51] あれが好きや. 柔らかいし, 그것이 바삭 바삭 그자 하나씩 씹어 먹어.
 마: 시지 안헤마썸? すっぱい하게 안 헤영.
 나: 마농지 먹으면 냄새 아니 나? 병원에 땡기는다.
 가: 계난 金曜日の晩に食べるの, 土曜日 오늘.
 나: 아, 것도 考えながら.
 다, 마: 하하하.
 가: 土日曜日だから, 今日は食べない、あした病院行くから. 언치낙 土曜日やろう, 金曜日の晩, 土曜日 병원에 갈 땡 안 먹고. 안 갈 땡 금요일날 먹고 그자.
 나: 저 츠루하시엔양 어젠가 그지젠가 간보난 山ネギあるやん, 꿩마농. 그걸로 막 답안덜 풀암십디다.
 가: 꿩마농 아니라 꿩마농, 山ネギ.[52]
 다: 꿩마농이렌 허주.
 나: 한국 것과 일본 것과?

다: 이디서 간 해왓세. 奈良.

나: 어디 이디덜 간, 그거 막 体にえいよ言うけれどな, うちはあまりそれ嫌いや.

나: 그 츠루하시양 가난양, あのバス通りあるやろう, 글로 저쪽더레 駅레 가가난 중간에
집치屋ができてるわ.[53]

가: 아, 그巴斯 우엿질로 できてる.

나: 그まんじゅう덜 作る, 焼いて 作る 隣. 막 데며십디다.

가: 아이고 김치덜 잘도 먹어이.[54] 이디도 宅急便 보낸 것들이, 이디도 밋밋 김치집덜
그냥.

나: 軽便道 味があるところあるしなるところあるわ.

다: 츠루하신 집치가 밋나텐.[55]

가: 집치고 뭐고 なんでも高い.[56]

나: 겨고 焼き肉 허는 디덜은 담지 안허영[57] みんなおんなじ味で 문딱 주문덜 웁수게.

가: みんな 주문してるね. 옛날은 다 거기서 다 만들어.

나: 우리 이토코모 저 焼き肉허는디 味が変わったらあかんから. 그자 おんなじ 집이서 문
딱 부탁해연.

다: だけど 오늘 조선いちばん(조선 이찌바를 이찌방으로 소리냄)漬けもん屋暇やで, 막
ならび 허는디 少ないわ.

가: 그건 저, 小売리로 그냥 사 먹는 사름ならび웁주만양.[58]

다: じゃあ 그것도 少ないけん.

가: 宅急便が 何ものすごく忙しい.

마: 아, 여기서덜 다 주문해서.

나: 경헌디, 촌에서덜 焼き肉허는 디덜 다, 定期的にすっぱい허건 머 허건 다 보냄수게게.

마: あの, 北田のどこは四国までも.

나: そうや.

가: 前は沖縄までも注文あったの.

나: 그 도쿠일 멘들앗수게.

가: 아니, 이년크로 멘들지 안해도 경 온텐, 注文이 말 들으멍, 味みてからな.

나: ねえさんもそこの食べたことある?

가: どのの?

나: 北さんの.

가: じゃ, うち隣だから, しないそこの, しないが 아니고, そこのがおいしい.

나: 난 ほんんど 산 먹어나지 안허난. 宮本さんはどこで買うの?

라: うち安元.

가: 安元? 安元가 어디라?

나: 安田.

라: 安田.

가: あ, そこのもおいしいで. うち前, そこの食べた.

라: そこのばかりうちは.

나: おんなじどこばかり 먹어 나민 っん 디 거 못 먹어.

가: そこのもおいしい.

나: 그디 마농지도 おいしい. [59]

라: 흥 번이 천 원어치 사아장 먹으민.

다: 천 원어치 사오민 흥 댓세 먹어.

나: 경헌디 나뉜수러 그딘 맛있어.

가: 오백 원어치 사와도.

라: 아, 짐치 보끄젠 그거 사와근에.

가: 보끄젠 허민게.

나: 경헌디 그디 짐치 나뉜수러 おいしい.

가: 安田さんのどこの?

나: 調味料入ってないから.

다: 그딘이 昔から 허는 사름이.

가: あの北田ねえちゃんのどこはな, きれいにする, ㄴ물도 흥 서너네 번씩 셋으멍나. [60]

다: 安田どこもきれい.

라: 저 벌써 완신게.

가: 누게?

라: 거느려 가난 완수게.

일동: 하하하

라: 몰덜 사례 가 완구나.

다: 몰 사례 간 오는 거주.

나: 몰 사례 어디 가? 우리 아는 막 몰, 馬 사례 간텐 헨게.

가: 오늘 공일날이난.

다:きのうときょうはな.

나: あれ当たったら大きいかな.

라: 우리집 아방 이실 때, 当たった, 当たった. 何や?

마: 하하, 몰 사례 간다는 게 競馬のこと? 하하하.

라:なに当たった? 천 원짜리 当たる헛덴도 허고, 스천 원짜리 当たる헛덴도 허멍.

나: 스천 원 ㄴったら大きいで.

가:なに, 이백만 원 当たる헨 사름 おる게. [61]

다: 그것도 いろいろ 사사.

가: 이백만 원 当たる헛젠 허난, 야야 그 돈 다 먹어 베사주 지갑에 노민 あかんや.

나: 경헌디 그거 봐 두젠 안 허연 또 그거로 삼수게.

마: 예.

나: 파친코라도 가민게 막 따는 사름은 판덴 헛디다만은 뒷날 ㄴ만이 못 잇넨 헛디다. 강 씨 불어사주.

다: 경해도나, 馬はな, ましたな.

나: 아이고 경해도 パチンコ好きな人は困るで.

가: パチンコがもっと体に悪いじゃない.

나: あれ, 病気やな. 그자 원 가고장만 헨.

다: 여저でも多い, 病氣の人.
나: 예, 多い, 多い.
다: 계도 馬しな だいたいちょっとしても当たる허난.[62]
가: 当たらへんな.
라: 거 当たる허는 사람이 当たる허주 경 아무상 엇이 当たる 험니까?[63]
다: バチンコいっぺんで行ったらよくとられるから.
나: かつ 허는 사람 잇수께.[64]
다: 専門でやってる人ある.
가: 女の人ら 난 気づかない.
나: 女の人が多いで. 우리 집 앞으로도 넘어 가는 거 보민 한국서 온 사람덜 多い.
다: 몬 그것에 망헤젠 허여.
나: 밤이덜 일헤연 아척이들.
다: 밤이덜은 水商売행나.[65]
나: 짓도게 人生 사는 거난 예잇.
다: そうやけどな.
나: 잇건 가곡 엇이건 말곡 허주만은.
라: 경허난 곶앗주. 저 세상에 가거덜랑 나 오바도 사고 뭐라도 사곡 험센 헛주. 저디 강
うま도 사곡 허렌 나 막, 하르방신디.
나: 아아, えらいな.
다: 우리 아덜도 うま 好きや. 우리 아덜은 現場 가는 거 好きや. 그디 가민 막 (지수벗
음) いるやろう. 하하, 뭐 楽しみあるからな.
나: 人間なんでも楽しみ作ったらいいや. 저 세상에 가민 돈이고 무스거고 何にも要らん.
다: 일헛 댐 막, 옛날은 그때사덜 새백이 가곡.
라: ほんまや, 저 세상에 가민.
나: 何にも要らん.
다: 今は, それもやらないけど.
나: 계도 亨 번은 저 세상에 갈 거주만은 ほんまやで.
라: みな行く.
다: みな行かねあかんな.
나: 残して持っていけるんなら, 亨 亨나도 주지도 안 헛 거우다만은 何にも要らんない.
라: 감도 어려운 일이고.
다: 감도 難しいことや.
나: 계도 가는 사람은 すぐ行ったや. テレビ에 나오는 사람은 일주일만이 그자, 咽喉癌인
가 무시건가 확 죽어 불고, 六十八で, 오래 걸리는 사람은 오래 걸리고. なかなかや
で, それは.
다: 짓도 사람 운이야.
라: 우리 집이 아방은 집이서 樂になくなったや.
나: あ, 家で.
라: 응.

나: よかったな. 병원에도 안 간?

다: 텅기단, 게도 幸せや.

라: 병원에 가 보민 막 좋아완 허영, 이상허다, 아방 退院 시켜사켜 허명, 아이덜신디 곶
앗주게. 行ってみたらな, いつも眠ったい顔してるから.

나: 眠ったい注射とかするからな.

마: 응 藥.

라: そうから退院してまおうか 허난 家帰る 헨 것이 家오라네양.

다: 집이서 죽는 사람은 幸せな.[66]

나: 幸せ.

라: 겨난 집이서 なくなったんや. 게난 マ싸도 누게 봐지난, 나 봐지난에 --さん元氣か허
난 あの世行ってるわ 곶안, '옛'.

나: 아픈 사람 말은 안 듣고, うちもあつたらんなさんは元氣? 言うからうちが, 나가 죽
어지쿠다

라: 경허난에 저 무스거과, 元氣か허건데, あの世行ってますわ.ほんまに 허관데, 응ほん
ま.

나: 兄さんはいくつで行った.

라: 七十四, 蛇や.

가: 若いな.

라: 음.

나: 아이고 경허주만은 병들어근에 막 아파근에 막 머 허느니 行ったほうが樂.

라: そうそう. 막 말 못 곶고 막 무시겨 헤 가민.

나: そうそう. それは行った方がいい. かわいそうだけどな. 게난 혼 번 갈 디난게. 오진
못 허주만은. だけど, この世の人みな 혼 번은 갈 겨난양.

다: そうや.

라: 早いか遅いかでしょ.

다: 早い 간 사람이 좋다게.

나: 누게 우리 아는 삼춘은 에이구 병 걸려도 오래 걸리민양, 너 뵈이엔 곶얍디 저 세상
에 가도 일헐 사람은 드려 가도 일 못헐 사람은 안 드려 간다. 경 곶안 우습디다. 게
난 난 그 말이 무신 말인고 몰란. 것도 우스게야. 사람 보명 드려 가져? 저 세상에서
일 못 허는 사람은 안 드려 간텐.

라: 맞주. 일 학학 헐 사람이나 가주.

나: 人生もいろいろ. 男もいろいろ.

라: (노래)아이고 저 세상 가민.

다: 소리가 어떻사 맞인지.

가: 이거 무시겨 사신고?

라: 이거 쫓 사네 가정 왓인디.

나: 상에 올련? 상에 놀 거마썸?

라: 상에.

가: 아, 상 싱글 거?

나: 절간에? 이디 절간에 잇수과?

라: 이디 절간에, 무스것고, 절간에 あの 초이틀날 四十九日もう.

가: 절간에 잇어?

라: おいてる. 경허면은 ‘공원에 갔다왔어요’ 허멍 말 곧고. ‘밥 먹었습니까, 밥 먹을까요?’ 허멍 허고.

다: 그것도 앓아 불민 さびしい.[67]

라: 이젠 경허난 이젠, 초허루날 낭, 양력으로 초허룻날 헤 먹엉, 그날은 설릿단 이틀날은 四十九日허민 さようなら.

나: はかこおるの?

라: 응 墓こおった.

가: なんぼん?

라: え と百三十万圓.

가: 긴, 一生いれてくれるの?

라: 응

나: その場合 단지의まや. 땅에 묻진 안헌덴.

라: 응 땅에 묻지 안헤.

가: 절간에 가는 건 みんなそうやから.

나: だから, おはかが.[68]

가: 땅에 가는 건 お墓주만은.[69] あの 이젠 한국도 みんなそうやで, 한국도 다 절에 가는 건.

나: 우리 시아방이나 우리 친정어명이나 みんな.[70]

가: 땅에 묻엇단 우리 시아바님도 이제 이거 금년이 이거 구물어 가민.

나: 경헌디 돌아 오지도 못힐 거. うちらがお見舞いに行かれなかったら, 그 はか 오년 안 돼민.

라: ここも一緒や.

나: 中川寺が양 저번에 우리 이모 죽언에 간 보난에, 북송 간 사름, 신체덜 몬딱 내 불어 뿔 行ったやんか, 그런 신체덜이 혼 밧디 막 모연 이십디다. それのこと無縁仏いうでしよう.

가: 無縁仏.

나: 경허난 しぎ산, 절간에서도 掘ることできへんから 절간에 無縁仏のどこ行って埋めるんやって.

다: 땅에 マチ.

나: 땅에 강 신첼 물어사 저, 녹아진덴 험니게.

가: みんな四天王寺行く人多いやんか.

나: 四天王寺 누게가 돌아갑니까? 절간에 머쳐던덜 북송 간 사름덜, 임제덜 엇으난게.

가: 아니, 지금 지금 아들 딸 신 사름덜 다 四天王寺.

나: 아, 四天王寺ね. 나가 요번이 아들マ라ね, 느네 할망, 성할망은[71] --- 막 크게 헛수 다게. 시누이덜 육지 사름덜 돈 이시난 막 크게, 겨고 우린 친정은 나가 우리 이모님 즈긔디 헛수다만은, おとうさん이나 나나 죽으민, 느네 아방은 죽으민 부모덜 시난

墓에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난 一心時でいいわ. 何で夫婦でバラバラにするの.

마: 맞아.

가: うちもそんな言ってるのよ.

마: 같이 가셔야죠.

가: 나도이 아빤이 シギサン 갖주게. 난 아빠 산 때부터 우린 墓 볼 사람도 잊고,[72] 아
덜도 잊이메 一心時 가주게, 경허난 막 생각헨. 시아버님네가 그디 묻은 디 시난 그
울이 가켄 허권데, 아이구 누계가 봅니까 一心時 加주게 허난, お前まだ元気や.

나: そうや.

가: 나 아으덜 마라 言うの[73] 딸덜 마라, 날랑 죽결랑 一心時 보내라, 何でお父さんと別々
にするの.

나: そうよ, 우리 아기덜도 別々.

가: 겨난 お父さん도 단지 채 담으난 그거 행 一心時 아저 가지 못허카?[74]

나: 단지 채 담으민 いける. ほね 녹진 안허주만은.[75]

마: お父ちゃん 갈 때민 마치 치와 가주게.

나: 一心時 できると.

마: 잊인 사람이 그디 가주.

나: 아니, 경허디 우린양 땅에 가렌, 땅에 녹아지렌 멩지숨에 싹에 그자 노난 녹아 불어
실 겨우다.[76] 겨난 그디.

가: 한국서 같이 그냥 땅에 묻언?

나: 예, 일본서도 경 헤줍디다게. 땅에 묻언. 敷地が大きいから, 경허디 그디양 신체가 잊
어도 무시겨 頭 논 디 흑이라도 呑呑 가지민 一心時はいけるゆっとたわ. だれか言う
のみたら. けなん 一心時가 깨끗하고 좋아 앞으로 아이덜나 お参り 가켄 허민 원.[77]

가: 一心時人多いで.

마: 아까 말씀하실 때, 북송 갈 때 절간에 뿔덜 머쳐 뿔 갖수과?

나: 제사덜 내 불어 뿔 간, 옛날 귀국헨 때.

가: 계난 임제가 잊주게.

나: 임제가 잊주. 계난 막 中川 절간엔 옛날 막 한국 사람덜 막 여기 잇일 때난 그디가
절간 크고 허난 그디서덜 다 영장헨 사람덜이 多いね. 겨난 그디 문딱.

가: 가는 사람덜 다 내 불어 뿔 가신가?

나: 昔どれだけ 제주 사람덜이.

마: 내 배덩 가주.

다: 내 불어덩 가주, 북송 가는 사람이. 한국 가는 사람은 아정 가도.

나: 아이고 아정 가도. 요번이 저 鶴橋 吉田, 焼き肉집이 사람.

가: 吉田?

나: 吉田, 焼き肉のところ 막 有名なところある.

가: 有名や. 그디 각시 막 크고.

나: 으응 경허디 요번이 영장헨 때, テレビ 유명헨 사람 많이 와십디다.

가: 그디 누계 죽언?

나: おっさん계.

가: 吉田 죽었어?

나: 예, 五十七かな. 어명 살아서. 어명은 *いきてる*.

가: 어명은 그 죽은 사람 어명?

나: 예. 우리 동네 살았수게.

가: 각신?

나: 각신 이만이 현 사람.

가: 이만이 행 아팜 걷지도 못헤여, 가 보민 돈만 헨 ㄹ만이 앓양나.

나: 돈이 하도, 그디 딸이 하나예.

가: 아 그 각시가 딸이 하나?

나: 딸이 하나난 그 아이가 이녀네 집이 아르바이트현 스나이영 미청 한국 강 살았젠.

가: 메께라,

나: 계난 한국서 손지덜은 다 낳젠 험디다.

가: 계난 그거 어떻게 할 거라게?

나: 경허난 아방 죽으난, 사흘만이 신체로 가져 갔수게.

가: 한국을 가져 간?

나: 켜 한국 간.

가: 어명은 이디 잊고 계난, 할망은?

나: 어명은 이디 셔도 늬의 말 들영 간 사람이난. 경해도 큰 집 사 췌수다 어명안티 우리 동네.

가: 질 차음은 시어머니가 해난 디엔 헨게게.

나: 으?

가: 그 焼き肉屋.

나: 건 몰라.

가: 켜디나, 우리도 *だまに* 그디 들어가주게, 경허민 *あんたらしいなこんな旅行も行くし*, 영 먹으레도 오라주곡 *ありがたいけど*. 그 사람 안만 돈 하도 걷지 못허주게. 이만이 슬젠 그냥.

나: 건 메누리고 시어명은 팔십너인가 다섯, 살안 잇어도 치매 걸렸수다. 요번이도양 이 런거 멩 막 질레서 울명 걸어간게, 어디 감수과 허난. 아이구 나 췌 서방에 아덜이 吉田やって. 처음 걸론헌 디가. 켜 이녀 두 번째 걸론헌 디도 아덜 죽어 불엇젠. 계 난 아덜덜 문딱 가 불엇구나.

가: 계난 그 할망은 누게가 불 거라?

나: 딸 뵈수게게. 두 번째 걸론헌 딸.

가: 아, 딸이 잊구나.

나: 우리 동네, 막 저 큰 집 짓언에 육년만이 망헌디 집 큰 집 샅수다. 큰 집 사주민 어 멩험니까게.

다: 큰 집 사주민 무시거 헤.

가: 늬으민 집도 要らん해.[78] 버천.

다: 가젠?

라: 아니 가쿠다. 난 저디 가젠.



나: 어디 가젠.

라: 저디 술 먹으레 가는 디.

나: 어디 여저 잇수광?

다: 저디 저 거시기덜.

나: 아, 혼저 갑서. 경허난양 ねえさん 돈은 하도, 게고 아덜 돈 하도 메뉴리가 딱 심어
노난양[79] 겨고 돈 要らんや 늑으민, 어디 무시걸 허레.

다: 게, 옷도 산 옷도 다 못 입을 건디.

가: 게도 焼き肉屋 막 손님덜. 막 おいしい.

나: 有名やけど, 芸能人がよくきてるみたい.

가: 有名やけどな, 그 집이 큰 질로 엠에 막 크게 지언나. うちらよう行ってる.

나: 저 ケンガ橋もある.

가: ケンガ橋ある. 겐디 아기덜도 엇고, 경 돈 벌엉 무시거 허젠게.

나: 게메예. 경헌디 商売が当たる 헐 걸 어떻습니까?

마: 치워 불 수도 엇고예, 잘 돼는디.

가: 겐디 나 보민 막 気の毒やで, 경 돈은 하도이 막 솔져근예.

나: 그거 솔져주만은 서방도 이만이 솔져주만은 警察病院에 땡기는 거 보민, 肝臓悪い
근예 警察病院에 자꾸 보여도.[80]

가: 서방이 예순 뗏?

나: 五十七かな.

가: 五十何歳で 이제 죽언? 경 이 절간에서 헤염구나?

나: 절간에서 허엿수게.

가: 게난 그 각시도 五十代か?

나: おんなじような年じゃないかな.

나: 나 영 아픈 팬양, 꿈에 검은 옷 입은 사름덜 보연게. 저디선 막 오라오라 허는디 검은
옷 입은 사름이 막 --- 근디 우리 어명이 왕 이놈이 새끼 어디 가젠 험디 험게
눈 터전.

마: 와.

나: 그런게 세 가지로 험덴.

가: 경허난 오래 살 거라.

마: 예.

나: 오래 사나마나, 오래 살앙 어떻습니까게. 八十までは 죽어したらいいのに.

마: 근데, 혼자 정신 차려 119에 전화를 하셨던 거마썸?

나: 아침 다섯 시 반쯤 눈을 트난 일로 막 내쳐져. 이 병이 이거야. 경허연 내치고 어질
어질허는 게 이 병에 もとやね.

마: 으.

나: 경허연 허난 일로 뭔가 털어지는 게 けっかんが 끈어지는 거 아니?[81] 경헌디 난 이
디 수술도 헛주게. 十二センチ 겐디 흡치 続けてできへん. 警察病院에 간 흔 들그らい
입원혜연[82] 흐뎡 술이 너미 빠져 부난 흐뎡 体力つけないと あかんで. 뎡 병원에 간

リハビリ4ヶ月 허연 또 그 병원에 완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진찰 자꾸 오난 수술을 해야 헌덴 허영 수술 받았주게. 케난 이디가 혈관이 영영 헌 거 었어전. 경허난 이거 수술헌. 견디 나 병은 열 사름에 세 사름은 죽는 병. 세 사름은 障害が残る, 네 사름은 살아나더라도 정신이.

마: 저희 어머니 걸로 돌아가셨어요. 주위에 사름 었이니까.

나: 나도 사름 었엇주만은, 自分が.

마: 그러니까.

나: 自分が救急車呼んで, 救急車呼んで 문 열고 그 앞이 쓰러전.[83] 견디 아기덜안티도 연락 못 허연 같은 マンション, 상가에 살아도. 게도 병원에서가 けいたい 잇이난 다 전화헤연. ね, 姉さん, 죽어갈 땐 잠 잘 때까지 아무것도 몰랑 가주윈. 中土半端 이디 아광 저디 아광 허민. 경허주만은 나 수술 많이 했주게. 영 행 수술허고 정 행 수술 허고.

마: 여기는 무사마씨?

나: 갑상선.

마: 아, 갑상선. 갑상선은예 요즘 한국에서도 종합진단들 허난 많이 나타나예. 안해도 되 는디 많이 험니다.

나: 경허고 여자, 子宮, 子宮をとったら 그게 出てくるの.

가: 무시 거 出てくる?

마: 갑상선.

나: 갑상선. ホルモンのバランスが崩れてな.

마: 예.



나: 제주? 姉さん 아는 사람?

가: 야이 이디 자꾸 왓세게.

마: 제춧말 들으레 자꾸 왓수다.

나: 저 민단에도 멧 년 전인가 와 갓주.

마: 아, 예.

나: 저 다즈미 공원이도 제주 사름덜 이시매. 제주 하르방덜 하영 시난 그디 강도 들 어.[84]

가: 다즈미 공원이민 저 おえけばし(大池橋)? 거기도 제춧 사름덜 하?

마: 예.

나: 예, 하르방덜 그디 모영 장기 두는 생입니다. 우리 집이 おっさん도 텅기단……. あの な, 우리 삼춘양 이십 멧년 전이양, 느 거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거 무신 말이고? 아기덜 한국말 아느냐 듣퀸데, 우리 애기덜 하나토 몰릅니덴 허난, 이놈이 새끼 한국 사름이 한국말 베와 주지도 안헤영. 느 죽어 불민 아기덜 어떻게 거니 헤 연게. 게도 밧 멧 개 우리 어무니네가 사당 죽은디, 이제 다 잘 웨난. 난 가도 그디 가난 용돈을 백 만 원씩 두 번 줘에, それで終り.

가: 그 자꾸 가민 돈 もらい 헤지큰게.

나: 그 웨삼춘이, 주던 웨삼춘이 작년이 죽어 불엇수게.

가: 그 아기라도게.

나: 아기덜은 더 도렌 합니다.

가, 마: 하하.

나: 우리 어머니네가 대마도에서 나 난, 너랑 일본말 배우지 말라, 한국말만 쓰라.[85] 으
망지고 아깝고, 우리 애기 웨뜰이난 안앙 텅기멍 우리뜰 한국말 잘 곱압저.[86] 우리
어무니가 하나토 일본말 못 배왕 죽엇수다.

마: 제주도 분들, 대정 분들 그 대마도서 살아난마씨?

나: 대마도서 살안. 물질허고 우리 어무닌허고 아부진 밀항 運ぶ허고.[87]

마: 아고.

나: 대마도. 이디 대마도 사름덜 おるよ. 이디서 고생도 막 허고 등록도. 등록은 잇엇주만
은, 保険のこと何と云うの?

가: 보험.

나: 보험 안 줘 부난 우리 아기덜, 보험.

가: 우리도 그거, 보험 엇어 부난 병원 가민.

나: 경헌디 우리 아기덜, 우리 ならび에 저 아망이 일본 회사에 다니난 보험 잇어났주
게.[88] 계난 齒医者에 가나, 감기 걸령 병원에 가신디, 우리 혼 번 가민 돈이 많이
드난 ㅎ뎡 아프더라도 辛抱せ言うやん, 아이고 경허민 우리 애기덜 왜 우린 한국 사
름으로 낫어, 일본 사름 웨지 왜 한국 사람 난 싫어 싫어 허멍.

마: 아.

나: 경 보험 엇어 부난.

가: 옛날엔 보험 엇어 낫주게.

나: 차별, 차별 잇엇어.

가: 막 돈 엇이민 병원에 못가.

나: 경허난 아기덜 아픈 때영, 니 빠전 헤도 병원에 가민 스천 원 오천 원 반양, 아까완.

마: 아까완, 비싼 못 갖지예.

나: 보험이 엇어노난게. 겨고, 우리 대마도 산 땐, 우리 아기덜은 そこまでないけど. 우리
대마도 산 땐, 魚 사례 가민, ま, 朝鮮人に売るのあるか. お前らに売るのない. 바당더
레 要らん 현 거 꺾꺾 데껴봄이라도 폴아 주진 안 허여.[89] 경허난 우리 어린 땐,
너네만 일본 사름이냐?[90] 우리도 일본 사름이다 허멍 해낫주. 대마돈 すごいで.

가: 여기서 대마도 간 살단 온 사름 만허여.

마: 아, 疎開로 가근에 살단 온 거 마씨?

나: 아니 아니.

마: 원래 대마도예요.

나: 응, あの 밀항으로서 대만도 완 거기에 とまり 허고 여기서 물질덜 간 사름덜.[91] 경
헌디 이제 대마도 사름덜 엇어. 옛날 일덜 엇인 사름은 물질 헤난 사름은 대마도서
물질허주만은, 우리 어무니네가 잇으른, 九十一か二だからおれへん. その安田 김치
屋でも 대마도 살아낫주게. 그딘 말째사 대마도서 밀항으로 완. 아이고 옛날 살아난
생각허민, 어뎡 살아사 와져신디 몰라.

가: 아이고 옛날 살아난 생각허민, 일만, 일만, 일만 허멍. 일 너미 헤나부난 이 병에 다 그때 돌아진 병이여.

나: 우린 메역했수다. 이때 웨민 메역헤고.

가: 막 메역덜 허레 가오ㄴ렌 허연게.

나: 어, 여름 웨민, 전복 さざえ 해당 組合로 풀고 자기 자유로 먹지도 못허여.[92] 계난 우리 아버지넹게 스물 멧 설부떠 밀항 타난게. 물질덜 허멍 돈 몰앗다から 이디서 おはか도 멘들앗주게, 산소도 다 허고. 우리 시아버지네 대마도라도 炭屋.

가: 아, 대마도서.

나: 시아방넹 그런 일 헛주게.

마: 낭 상 슷 만들엉 폭는 거 아니예.

가: 낭 상 슷 만들앙게. 이녁이 슷 만들앙.

나: 경허난게 낭 끈어당게. 경헌디 대마도엔 헌디 제춧사름은 물질덜만 허멍 바당가에 살 곡, 육지사름덜은 산 우이에 슷 산만 허곡, 경허난 組みが分かれてる. 우리 おっさん도 어린 땐 낭 끈엉 산에서 픽픽 던지고렌 곱안게. 예구 예구 먹을 거가 못 먹어났수다게. 쏠도 풀지 안허고 바당 췌민 쏠, 육지 쏠이 들어오지 못허니까 아이구 보리 쏠만 밥헿 먹언.

가: 우리도 촌이 살멍 맨보리밥.

나: 경헌디 무사 경 대마도 사름은 한국 사름덜 경 독허여? 아이구, いや. 경헌디 우리 대마도 바당 야픈 디라도 영 들어강 보민, 해삼이 진진허게 느랏느랏. たこ, たこ, 한국말로 문어?

마: 예, 문어.

나: 문어가 いっぱい, イカ, イカ덜 막 나까왕 헿 땐 イカ덜 먹으렌 막 파닥파닥.

마: 계난 어무니도 물질 헤낫수과?

나: 물질은 안 헛주만은, 우리 어무니가 물질 헛주만은 난 꺾디서 잡아 주고.

마: 잡아 드리고. 우미도 좇어 나고, 떨어진 거?

나: 우미ㄴ튼 건 먹지 안허여, 대마돈.

마: 아, 우린 우미헿 물렁 풀안.

나: 그건 먹을 걸로 안허여. 대마돈 메역.

마: 아, 메역.

나: 메역허고.

마: 툷, 툷도 안헤나고?

나: 툷은 일본 사름덜 허가 엇이는 못허여.

가: 여기 누게가 툷이영 막 메역이영 해당 췌게.

나: 헤도 몰르게 헤사. 바당에서 빙허게 도는 사름 몰르게. 작년이 누게 해당 췌게 올힌.

가: 아이구 비 왁저, かさ 가정 완.

나: 예 이디 잇수다.

부록 2. 인터뷰 전사 자료

1. SG, 여, 1928년 생, 제주시 하귀 출신.

고향이 제주 어디마썸?

- 난 하귀.

아버님은? 남편, 남편?

- 도꼬내(도근내), 내도, 내도. 옛날은 도꼬내 도꼬내 해냇주게. 내도 ないで, 도꼬내, 도꼬내.

일본 오셔서 이디서만 계속 사셨수과?

- 오 이디서. 한국서 온 뎨 猪飼野, 경헌디 열다섯 살 돼가난 이쪽에 왓어. 이 小路에, 이젠 이디 小路엔 허주만은 옛날 大友주게 大友町 경허난. 이젠 小路주만은나. 게난 이디 완에만 칠십 뎨 년 살앗주게 이디 완게. 이 小路 왕.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으 이 스방에서 이레저레 이 스방에서만 이레저레 허멍.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만이로 팔십 다섯.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 あのな, あのな 일본서 사는 사름은 그늘에만 ほとんど 그늘에만 살지. 한국은 아멩해도 길거리도 遠くまで歩かなきゃ, 이딴 사름보다는 밧디도 たちに 가고 어디 친척에라도 걸영 당기는 것이 多い. 이디선 흐김 허민 自転車. 경 바깳디 나가지 안허여. 경허난 어떤 사름이 한국 가난, 어뎡허난 한국은 사름 질레 친지우짜. 일본은 사름이 질레 베꼈디 나가는 버릇이 엇지게. 일본 사름들은나 방안에서 이녁 방 안에서만 영헤영. 게도 우린, 우리 한국 사름은 경허도 할머니덜은 오랑 화투라도 허게 왕 밥을 먹읍서. 먹게 허주만 일본 사름은 ノー ぜんぜん せへん. つめたい 일본 사름은. 경흐고나 우리 사름 거트면 말은 なのに, 뎨 생각허는 거 서로 의논도 허고, 영도 곧고 허주 일본 사름은 ぜったいやんない. おとなしい나 허주게게. 우리 사름들은 와와 허주만은.[93] 일본 사름은 조용헤도. なにを思ってるか, ころ 허고 이디 허고 틀려 일본 사름은 대개 대개 틀려. 우리 사름덜은 와와와와, 이디꺼 다 털어놔. 그런 피가 우리가 이디서 늙어도 우린 이디 칠십 얼마, 이디서 늙엄주게.

어머니 집에서도 영 제주 사투리를 곱아놨수과?

- 난이 열 두술에 이디 완이, 뎨 일본 사름만 상대헤연 일본말만 곱나. 아버지 아덜 폴레 우리 오빠 폴레 제주 간 우리 아버지진 이디 싯곡 어머니는 한국 제주 셔난디 아덜이 폴게 웨연. 경허난 아버지가 간 이젠 아덜 폴안 이제 우리가 딸이 니 성제 나가 셋뎨이 주게.[94] 경헌디 이디 아버지 죽은 각시가나 가근에 어느 딸 저 오켄허건 돌아 읍서 하나 돌아다 줍서 딸겨추룩 허연 살쿠덴 허난 이젠 잔치 넘영 일본 오게 웨난, 큰뎨신디 곱앗자 아니 가쿠다.[95] 다른 것들 곱아도 아니 가쿠다. 난 줄락허게 나 가쿠다 헤연 나가 질 익 웨고. 이디 완 게도 일본 흑교도 텅기고, 등록도 이디 왕 등록도 멘들아네 허고 나가 질 행복, 딸 중에 いちばん 행복.

여기 어머니는 애기가 었어?

- 었어 었어. 경헌디 간 이제 성도 아니 가켜 일본 아니 가켜, 어멍 떼연 가젠 헤여게 난 즐락허게 나가 가켄 헨 완. 경헌디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가난 한국말 잘 몰라간. 경헌디 일후제 한국에서 어머니도 오고 저 우리 아시도 하나 오고 헤연 이 제주말 허는 것이 이제 사투리가 이만이 곧게 뒤엇주게.

그럼 남편하고도 제주도 말로 알아난마씨?

- 으으.

아이덜안티는?

- 아이덜안티는 아, 경헌디 질 차움에 이디 왕이 아이고 저디서 삼학년꺼장. 저디서 한국에서이 어린 때 삼학년꺼장 서당에 땡겨주게. 경허당 삼학년 중간이서 일본은 완, 일본 완 일본말도 몰르고 이디서 일본 글도 몰른디 소학교 3年生から 들어가렌 허난 들어간. 일본말도 몰르고 글도 몰르고 명칭이로이 그땐 경해도 흑교 들어주고이 나와전 육학년꺼장. 경해도 이젠 아니 간 것보단 낫아. 우리 나이에이 이디 와도 육학년까지 간 사름 었어.

그러니까 몇 살에 여기 오신 거마씨?

- 열 두술에게.

열 두술에 오민, 그거 몇 년도과?

- しらん, それは. 북목환 탄 왓주게게 아버지영.

고생 많이 하셨지예?

- 고생해도 우린 이추룩 좋은 때도 봐지고 이, 허지만은 아이구 옛날 사름들은 한국서나 언제나 가십 아파 그건. 초상, 예구 초상 밧 셔 산 셔 헨 것도 예구 초상은 그거 냄기젠. 그거 냄기젠 케기 요만이도 먹어 보지 아니헨 그거 다 냄겨. 초상 애기덜은 알카 그것이 알카. 우린 경해도 고생 헷당도 이런 좋은 시대도 봐지고, 좋은 것도 먹어지고 좋은 옷도 입어지고 그추룩헨 시대도 받. 옛날 할마니덜은 전깃불 못 받 죽은 사름덜이, 케기 요만이도 먹지 못 헨 돌아간 사름덜이 하다가. 흐뎡이라도 애경 막 돈만 뻘뻘 돈만 뻘뻘. [96]

그렇지예. 그 때 와서는 보통 무신 일 헤신가예?

- 난 그때이 오란, 열 두술에 오란, 저디서 저디서 あの 우리 듄복게서 애월꺼장 걸영 학교 땡겨주게게. 학교엔 헨 건, 삼학년꺼정 가도 그디 가근에 그자 뉘자당 와도, 공부 안 해도 뒤여. 그냥 영 뉘자당 왕. 가가거겨, 삼학년 뒤도 그자 가가거겨도 몰랑 이디 왓지이. 이디 왕 아버지영 이젠 일본 걸라 걸라 헨 아버지영 일본 온디, 오란 아버지가 아이구 야이 흑교 보내살 건디, 흑교에 가난 지렌 크지 열 두설이 열 세살 뒤디, 다른 아이들은 육학년인디 난 삼학년에 들어갓지. 일본 말을 어머니 아버지도 몰른 일본말도 몰른 그디 들어강 선생말도 무시켄샤 굴암신사. 경해도 아버지 흑교 가라 가라. 이젠 생각허민 고마와 고마와. 경해도 요만이도 영 써지난. 경헌디나, 이만이도 써여지고 주소 써여지고 영 이젠 알아지고, むずかしい헨 거 몰라도. [97] 아이구 아버지 덕택에. 육학년 졸업허여도 원 공부 흑교 간 것이 막 므스와. 아구 어멍 뒤민 육학년 뒤영 어른 뒤민 흑교 아니 갈 건디, 흑교 아니 가도 뒤 건디, 원 경허멍 언젠민 육학년이 뒤건고, 그추룩 허연 이젠 흑교 나완, 나완 허난 나온 후제가 공부가 더 알아전게. 그 공부

헐 땀, 학교 땀 땀 땀 몰랐당 나온 후제 어떻 어떻 기억이 나 간, 알아전게. 경허난 이, 어디 가근에이, 오닐은 무시거 때문에 어떻 허우다 씨어정, 씨어진 것도 알고 대개 이젠 알아져. 아니 간 것보다 낮아. 게도 우리 나이 사람 육학년⁷정 간 사름 엇어. 그 시대엔 엇어, 경해도 나가나 공부 더 허고퍼시든. 다시 육 혹은 졸업혜영[98] 그 다음엔 이젠 중학이주만은 그땐 あの二年あったんや. 이 저 저 소학교 육학년 卒業헌 후제 また, 行くとこあったんや. 게도 난 아니 가쿠텐 헨 말아 붙엿주게.

어머님은 공부도 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막 고생은 안 하셨다예?

- 아니 아니 안 헛어. 동생 중에 나가 젤 행복헛어. 게난 오래살암신가? 고생 덜 허난. 이젠 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막 오고라지고, 이젠.

그래도 일본에 와서 막 힘들었던 거 엇수과?

- 그거는 그거는 나가 열 아홉, 열 으듭살 뉘는 삼월에 시집을, 으듭 きょうだい 으듭, 아덜 일곱, 딸 하나신디 시집을 갖지. 그건 우리 아버지가 저디 시아버지 하고 친허난 서로 영헨 사둔허게 해연. 아이구 시집강 그것이 고생이주, 시집살이 허젠 허난 그것이 고생 이라 고생. 경허고 저 나 시집가기 전에 시아버지가 강 보난 집이 사무원허고 연엘헨 선계 아길 배영 아기 배난 큰어명 몰르게, 우리 시어머니 몰르게 어디 다른 데 방 빌 연에 그디서 아기 난, 난 허난 난 얘기 엇지 안적은 시집도 안 강 아기 엇지. 그디 강, 아기 보름도 아니 뉘 거 그냥 드라와 붙어서.[99] 아니 돌아오른 할르방 그디 멩긴덴, 강 돌아와 붙어서. 경허난 그거 이제 그거 수발. 옛날은 메누리엔 허민 중, 중 이상이 주게. 경허명 사는 거주게게. 경해도 이제 생각허민 아이구 어떻헨 그축헨 살아져신고 뽁뽁 돌아나 붙주게 어떻허난 경 살아져신고. 겨난 난 아기 엇고 그 아기 들앙 얼마 엇이난, 우리 시어머님이 마흔 일곱 뉘디 아길 배어서, 난 얘기 엇고 안적은. 열 아홉 살 난 아기 엇고.

- 겨난이 저 혼 술 므지(몹이)로 얘기나난이 그땐 우유도 엇고 おしめど, 이 샷빠 무시거 샷빠 똥싸는 그 무시거. 그거 줄바로 엇주게. 헌 옷 허여다근에 그거 헤여근에 빨곡 허 곡 헤낫주게 우유도 엇곡게 경헤노민 밥혜영 폴노리듯 노리왕 그디 사탕 낱 경 맥이멍 키완 그추룩 허명 이젠, 난 그추룩 허당 보난 나가 이제 아기 배영, 아기 날 들 뉘난 시어미니가 오꼳 돌아가불언게. あの 동티로 돌아가 부난. 그 시아주방덜 시누이덜 으 덜 가각가가. 나 아기 낱고 헌디,[100] 그 밥 허저 이제추룩 센타기도 엇고 헌 것이, 허 영 헌디 손으로 몬 빨젠 허난 아이구, 그런.[101] 아이구 그런. 경허건 잘 험젠 허주만 은 막 시아버지 욱질만 허명 잘 못험젠만 행. 어떻허면 졸 줄을 몰르고, 우리 어머님 내중에나 한국서 영 험저 시집살이 영 험저 정 험저 소문 들언에 내중에 완, 확 들어와 붙주게 무시거 그디 살명 그디 고생만 험저 헤여. 그 땀 어떻허민 좋을지 몰랑 살앗수 게 영 헨 사는 거주 헨 살앗수게 그추룩 허명.

남편은 장남이랏수과?

- 으 질 우이. 아덜 七人おるね, 七人.

어머님은 자제 분이?

- 난 아덜 으섯, 나가 아덜 으섯인디 우리 아덜덜 잘 사는 것도 잇고, 못 사는 것도 잇주 게. 잘 사는 건 소문나게 잘 사는 거 들 싣주게. 게난 어떻 어떻 아이덜 키우고 허 연.[102] 다음에도 어머님 고생헛덴 헨 아이덜 알아주난 땀 스나이덜이라도 몬 알아

줘. 경허고 메누리덜이 좋아.

그거 복 받은 거우다.

- 으, 나가이 나가 어린 때이. 아이구 이 말 곱젠 허민 울어지켜. 시집살이 허명 막 고 생혈 때 고생허여도 그뻐 분시 몰랑, 이녁은 부지런허는 채 해도, 막 잘 못 험젠만 이것도 정허라 저것도 영허라. 아이구 날랑 일후젠 메누리 허거덜랑 절대 이추록 메누리 안티 구박을 주지 말주. 경허단 보난 난 더 좋은 메누리 막 허연. 이디서 다른 사름은 메누리 타령해도 나신더레 어머니는 원 메누리 칭찬은 해도 나쁜 소리 안 헤여. 우리 메누리덜 다 그거라, 다 그거라.
- 살아온 생각허른 눈물 나, 눈물 나, 허지만은이. 살단 보난 이 나이가 뉘 불언.
- 우리 큰아덜이 혼 번은나, 어머니 산을 우리가 헤사쿠다 헤연. 아이구 난 그 생각도 엇고, 난 돈도 혼 푼 엇고 그뻐 애기들 오망오망 셔노난, 풀 애기도 싣고 헌디 그 생각은 안 헌디 야이가나, 장개간에 아이도 잇고 헌디, 혼 번은 산을 나 초상 산을 헤사쿠덴 헤영, 우리 아시 남편 그디 믿영, 우리 아이들은 그디 가근에 일본말로 몰르민 누게 상대 못허주게. 질 ㄱ라쳐 주지 아녀고 영 안허민 右も左も分からへんよ. 나도 가도 몰르는데 우리 아이덜은 더 몰르주게. 경헌디 혼 번은 그이 믿영, 그 친척 믿영, 우리 아시 본 남편이엔 헌디사, 각시 연영 살암주만은 이제 간 김에 산을 좇앙, 좇아근에 다, 육천평, 저 어디고 저 오래오래 곱지 아녀난 잇어 불엇저. 밧 나, 초상에서 물려 온 밧 싣주게. 경허난 그 밧더레 ㄱ째 우리 아시 남편, 우리 아덜이 족보 아저강 문딱 뵈왕 허난 이 사름이 문 비석허고 문 족보 보명 산 어디 신 거 어디 신 거 그디 친척이영 이디 산 저디 산 막 허영, 흐르레 열 아홉 자릴 헛주게. 흐르레 열 아홉 자리.[103] 그디 허난 돈만 내노난 막 좋아라 먹을 컷도 착착 주고 문딱, 문 산들 그 산에 문 順番으로 툽툽툽툽 앓단 문 영장덜 허고. 계난 우리 아덜 장사허명 잘뉘 가난이, 어머니 초상에서 덕 봐주는 거우다. 나가 경 곱아도 이젿 아이덜은 아이구 아니우다. 그것도 운 멩이주 그런 거 아니우다 허주만은 아들이나 야 초상이 덕 봐주는 생이우다. 경 곱으난 나만이 막 지껴정. 아이구 어멍, 아방 어신 아기, 어멍샤 싣주만은 なんの便りもならない力にならない. 우리 아덜이 초상 못헌 일을나, 右も左も 한국 가도 물론 아덜이 그디 강 큰 일을 흐르 열 아홉자릴 이 산 저산 강 문딱 허여당. 아이구 이제 매해 간다. 두 가시, 매해 간다. 아이덜 두 가시 매해 가주게 이번이 사우덜 문 들앙 갈 거. 저 월평, 산은 월평에 싣주게.
- 경헌디 우리 큰아덜 곱는 말이, 냉국이 경 좋아허주게. 음식 장시헤여 노난이 큰 메누리 숨씨가 좋주게. 경헌디 엇그지게도 야 닌 무시거 낵 냉국을 험디 허난, 아 유월덜부터 맨 낮이 냉국. キュウリ 낵, 한국 강 보난 자리물혜에나 玉ねぎ 봐서렌.[104] 경허난 玉ねぎ 촘촘히 썰어근에 물에 컷당 쭈허게 찹찌랑 キュウ리에 그거 뇌근에 풀ㄱ치 놓고 무시거 께 이파리 농곡 무시거 새우리 놓고 그추록헤영 먹는덴.

2. SB, 여, 1931년 생, 조천읍 신촌리 출신.

계난 한국에서 육이오 끝난 왓수과?

- 끝나신가? 험 때 와신가? 문 잇어 부난. 나가 열 아홉, 스무 설 때난 전쟁 때 아닌가?

사삼 때 제주 잇어구나예? 어떻게났수과?

- 그때도 막 곤란했지. 나가 としごろなん, 나가이 ちょうど 우리 とし에 남저덜이나 여저덜이나 활동 혈 때야. 활동 혈 때난 우리 집인 우이 오빠도 엇고[105] 親は年いってゐるし 나가 제일 こまる 해나서, 막 활동혈 때난. 부름씨 허렌 허민게, 산에서도 왕 부름씨허렌 허고게, 이디 민단(토벌대를 잘 못 말함)도 오랑 막 부름씨허렌 허멍, 이쪽도 저쪽도 막 므스와. [106] 우린 일본 전장도 한 번 보아나난, 일본 전장은 たら 우이로 오랑 털어져부난 [107] 이진 막 집이 오랑 오빠 어디 가시니, 누게 어디 가시니 막 내여 노렌. 밤이덜 총 아정 오라근에, 경허민 나가 제일 としごろ라 부난 나가 제일 므스와 낫지, 나가. 경 나오렌 허민 나가야지. 나강 낮이덜은 막 영 허고, 두 쪽이 셔 노난게.

피해는 엇엇수과?

- 아니지 집도 케우고 사름도 죽고 막 피해가 만했지. [108]

어머님네 집도?

- 아니 우리 집은 안 헛지만은.

- 밤에는 산에 사름덜, 산에 사름이엔 헛자 산에 사름이 다 인민이지게 인민의 아덜이지 이. 또 이젠 또 저 순경덜 오라근에, 낫인 순경덜 오라근에 막 그냥 닥달허연. 허여도 허여도 말 안 들으난 막 심어가고 뿌드리고 막 고생해서 うちら. 나도 살안 나오난나 허 난 허엿지. 일본 전장에 전장 때에 ちいちゃい時 공부도 못허고 그 ぐさとり고사리 꺾으 레 강 고사리 꺾엉 오고.

먹을 거?

- 공출, 강 톨 강 헤여 오렌 허민 톨헤여 오고, 메역도 경허민 다 공출 받쳐야 へいたい덜 먹을 거. 군대에 다 공출이야. [109] 메역 우리 먹는 거 영헨 아래 무시거 풀앙 널주만 은 공출 받치는 건 그냥 땅에 흙 땅에 넣어근에 막. 두껍게 넣어근에나 우린 어린 땀 경해서.

그래서 일본에 오신 거마씨? 일본에는 누가 잇엇수과?

- 우린 언니가 이디 시난나, 옛날부터 우리 언니 날 이레 돌아오젠 막 헛지. 언닌 일제시 절에 쪼끔만 혈 때 방직공장으로 방직공장으로. 아메도 제주 사는 것 보단 허난. 나만 오렌 경 나도 집이 시멍 어멍네 일허레 가불민 妹と二人おるだろう, 妹と弟二人おるから 그 거 みんな 집이 수발해 줘야지이, 곡석헤여 오민 곡석도 날레 넣어야지이, 세탁도 헤 줘야지이, 家でものすごいしたで. 그런 거 저런 거.

- 어무니 아부진 밧디 강 검질 메멍 막 어둑어서 오민, 이제도 검질, <さ見えるかな, 言って自分でな, おそい, おそいから.

아부지넌 경 늦게까지?

- 밤 될 때꺼지는 아니라도게 간다 온다 허는 거리도 싯고나. 간다 온다 허는 거리도 싯고 うちのおととが 그뻐나 아덜이 그때 우리 조선은 아덜만 막허지. 딸은 뭐 무시거. 우리 おとさん(おとうさん)은 더 현 おとさん(おとうさん)이야. 아덜만 아덜만. 딸은 멧 개 셔도 소 용엇텐 곱아.

- 아덜 낭 나가 업영 땡겨. 어멍 일허젠 허민 나가 업영 땡기지. 동네 사름들은 막 아덜, 아덜 경 어릴 때부터. 경허연 옥아도 고등학교꺼지 나왕 대학 못 가난 일본 오켄 허연, 지냥으로 튀언 이디 일본 오란. 이디 일본 오라도 막 공부만 허젠 허연나. 게난 머리뺍

만 시민な. 弟도 머리뺨이 시니까.

- 막 勉強がしたいでたまらんで, たまらんでも 누게가 일허영 집세 물어 주고, 먹어가고나. おとうとに 高等 학교꺼장 나오고.[110]

- 高等 학교만 헤져도 좋주, 공부 우린 소학교도 아니 나왔젠 곱아도 아니 들어. 막 공부만 허젠 허난. 경 ぐる(くろう) 허명도 공부해 두난 やっぱし違うで. 야간이라도 대학な, 近畿大学 짜 거시기. 아 침 ぐる(くろう)허여서. 공불 허고 싶으니까 나영 혼디 살곡 나영 혼디 살명 혼자만 살민 집세도 물어야지, 전기代 가스代 그런 것도 다 물어야지,[111] 생활비도 헤야지, 어떻게 そんなして 공불 できるの.[112]

어무니도 좀 보태 줘신게, 어무니도 학비영 도와 줘신게?

- 학비 못 헛지만, 그런 거 다 헛지. 집도 나가 빌어, 먹는 거나 쓰는 거나 다 나가. 우리 언니가 시니까, 언니 셋자 언닌 自分の生活 헤여 부난 自分の生活 헤여 부난 헤 줘도 ま, 언니도 엇인 것 보다는 やっぱしな. 우리 おや가 막 おとこ, おとこ 현 디난나. おや가나.

경 처음 일본 왔을 때 무슨 일 헛수과?

- 남저 せびろ 멘들엇어. 우리 동네 사름이 せびろ 멘드는 디난[113] 한국서 바농 심어나난. 이 바농은 심어나난 그거 헛주게. 바농질 아무 걸 헤도, 현 옷을 주어도 우리 클 때엔 현 옷을 쥬 입어도 바농질 심거든, 바농 심주게. 현 옷이라도 우린 뭘. ねちゃん(ねえちゃん)まだわからん. 우리 클 때꺼정은 현 옷덜도 주영 입엇거든. 게난 바농 심어나난 우리 동네 사름이 막 일만 오랜 오랜 현. せびろ 멘드는 집. 아는 사름이고 현 갖지. 그디서 막 오랜 헤연 간. 아척이광 밤 열시 열한 시꺼정 헤도 이백 원베끼 안 줘. 이백 원으로 どう生活するの. 우리 언니가 그 맨 혼자 살 때니까, 언니영 사니까 경 집세거튼 거, 무시거튼 거 경 아니 물엇지, 아니 드니까 어떻게 허명.

- 우린 한국 살아도 경 ぐる(くろう)나 안 헛지. おや도 그때, おや도 그때 노동 허믈. 우린 是だけが あるから, 自分の食べるもんがあるから 그거 手伝い만 허믈 그거 허영[114] 家で 半年 ぐらい 일허민 그걸 だだ로 먹엇주게. 이딘 오난 그날 그날, 혼들 혼들 사와야. 쓸도 혼들 혼들. 혼들 뉘민 가스代, 전기代 ㅁ 물어야, 집세 물어야. 어덜로 돈 나와. 우리 오난 하루에 이백 원베끼 안 쥬 밤 おそくまで 일헤도. 나 현 일은 あと見込み가 신 일이라고 초담 경 돈 하영 안 쥬.[115] 돈 하영 주는 딴 어디 추접현 일, 박현 일, 그런 건 가민 하영 주지.

양복 만드는 일 몇년 헛수과?

- 거 허여난게 으라해 헛지이, 하도 어렵고 돈도 얼마 안 줘 부난 원, 3년을 배와야 しょくにん 뉘텐 허난 원 원 그 あいだ 돈도 얼마 주지 안 허고 원 원. 게난 그거 허어나 부난 막 그 일만 헛주게. 이녁이 헤여 나부난.

- 막 어려워 양복. 일름 그 ぽげっと(ポケット) 일름만 곱렌 헤도 어려워.

아 ポケット 이름이 다 다르니까?

- 그 일름만 뵈젠 헤도 어려워.[116] 그 옷 일름. 게난 삼년을 배워야 しょくにん 뉘텐 허어도 삼년 배와도 かしい 현 사름베끼 원.

경 계속 그 일만 헛수과?

- 아니지 그건 돈도 안 뉘고 중간에 미싱도 허고 그거 허당 ㄹ도 부찌레 뎡겨 보고 신 발도 부찌레 뎡겨 보고.[117]

신발 부찌는 건 많이 받았수과?

- うけとり야. 초담 베울 땐 だだろ 돈 안 줘. 일본서 경 오란 술술 돈 벌업신가 생각허든 まちがいや계.[118]

- 우리도 언니가 이디 왕 살 때, 아 일본만 가른 돈을 벌업구나. 제주도보단야 낫긴 낫주만. 일본만 오른 돈을 벌업구나 헐디. 이녀이 완 살아보난 違う.[119] うちの姉さんおこるね, 일본만 가른 경 돈 버는 줄 알양 경. おや 못 살아도 おや 즈긔디 사는 사름은 호강이지. 나도 ぐろ(くろ)헛주만은 うちの 언니らは もっと ぐろ(くろ)헛주게. 전장, 전장 때난 일본 팡팡헐 전장 때야.

동생은 경 공부허고 어머니은?

- だれが 공부 させてくれるの.[120] 日本来て. 言葉もわからへんし, なにも分からないのに, だれが勉強 させてくれるの 우리 동네 사름덜도 ころこ(高校)만 そつぎよ(卒業) 저디서 헤오민 다 일헤 연덜 おやかた 뉘지. 다 おやかた 뉘 사람 하 우리 동넨.

- 경헤영 들어가도 이백 원베끼 안 줘. 二百円. 二百円で 어뎡헐 살아 するの, むかし. 에이 구 뉘뉘. いまだに弟신디. 중간에 나가 일 못허연, 子供生んだから弟がよくなにしてくれた. いまだにおとうとがな. その恩はわすれへん.

그건 다 어머니가 도와줬었으니까, 집에 같이 살게 하고.

- 놈의 집이 住み込み로 들어가민 그 집이 일 잘 해 줘사.[121]

결혼은 안 하시고?

- 살럼 살명 面倒見られへん. 이녀 살럼도 막 바쁘디 어디 동생나. 옛날은 막 이녀 살럼도 바쁘디. 그날 벌업 그날 어뎡헐 뉘겨 するの.[122] 아이구 몸서리 나_사 するで.

- 계난 저디영 이디영 뉘 틀러. 서귀포영 우리 고단광 뉘 틀리지이.[123] 우리집이 아방이 저 서귀포야. 중문리. 아이구 일본서 結婚したら, 난 저렌 아니만 허젠 헐디 경. 저 저 남쪽에, 우리 동네선 あんまり 경 정의러렌 알아주지도 안 허주게[124] 우리 동네선. 우린 모관이고 저디 정의. 정의엔 허민 옛날엔 알아주지 안해서. 이젠 경 안허지. 아이고 경허난 막 정의 모관 나무래야. 우리 동네도 ときとき 완 사는 사름 있지만. 옛날은 경 차별이 하어이. 옛날은 이젠 경 안허지만.

여긴 자주 오세요?

- 이딴 싸난 혼자만 영 허는 사람은 자주 오지. 매날 오는 사람은 매날 오꼭 또 아이덜 들양 오는 사름은 매날 오지만 우린 めったに, やっぱし 집이서 헤영 먹으는 것이 우린나.

- 아이구 반찬도 요새는 원. 입맛이 엇이니까 입맛이 원 엇이난, 겨난 이것도 좀 혼자라 부난. 어젠 むすめ가 이녀 생일이라고 해서 노니까 백화점 막 돌아네, うちのむすめ 백화점이가 제일 すきやね 먹는 것도 백화점에서 쪼끔 먹으니까, 계고 まご도 やすみ난에 흔디 들안 백화점 간[125] 백화점 간 막 돌아헛견에 거기서 무시겨 산 오란, うちの分もこおってくれて, 家きたらものすごい大雨が降って.

- 우리 집이 딸은 마흔 하난가, 쥐뉘난 쥐뉘, 나가 마흔에 낫어 마흔 하나 かぞえで 마흔 둘 첫 얘기. 난 다 몰라. 일본에서도 막 큰 병원으로만 멩기멍 경험허니까 얘기 못 난 데 헐 디가 있어. 못 난텐 나 아기 나기 전이 배 아팠 막 허난 배에 그름 앗이난 이겨 수술 끝 안허면 命あぶない 허덴 헐 수술해 낫지이. 경헐 수술해 나부난 아기 못 난텐, 멧 뵈디 가도 못 난텐 허난 나 막 울멍 돌아오멍 헐디, 아길 난.

막 이빠구나예 그 애기, 늦게 나난 더?

- 이빠도 なにも 늦게 나는 것도 배가 경 크고 수술이 나가 막 きれいだ 수술해영 나젠 허난 아이고, しまい 배가 막 컨. 큰 병원에 입원허난 먹으렌 현 건 다 먹고 허난 막 아인 건강헨 건강허연. 혼 며칠은 것 못 맥이당 것 맥이레 오란 허난 막 ことも じつ 맥젠 해도 난 아광 막.[126] 아광 것 맥일 생각이 었어. こともがしっかりと.
- 일본서 아맹해도 한국광, 그 땐 한국은 どんでもないところ. 일본은 초음파로 시작허른 아이가 어땡고 얼마 댜 거 다 알고. 소나인가 지집빠인가 알고.

그 시대에 그 시대에.

- 이젠 허주만은 그 시대엔나.
- 이젠 막 살기 존 때라 이젠. 질레에 걸어 땡겨 うちら来た時げた 신엇저. 성이영 혼디 걸민 우리 성은 雨降って道悪いときも後ろ 흐꿈도 안 튀여. 우린 後ろ 막 튀여. 後ろ 막 쓰봉에 막 튀여. 걸음도 영 자청 걸고 우린. 이녁은 경 안 해노렌 헤여도 저디 풍습으로. 막 성신디 もんく만 들어가난 이디 살고 싶은 생각이 었어.[127] 이것도 나빠 저것도 나빠 おやに、おやにこなして. 한국선 그런 거 었어지 이디서거치 경 안 허지. 촌이니까. 경해도 제주도 가고정 현 ㅁ음은 안 나したな.[128]
- 일본 사름 님아. 어린 때부떠 이디 오고 일본 사름이영만 살아 부니까 일본 사름이영 이디 오랑 그냥 교육을. 제국시절에 완 일본 사름, 일본 할망 그 일본 때에 시절에 왕 살아노니까 날라 일본 사름식으로만. 날라 경 곶아도 난 이제 잘 안 뉘주게.[129] 風呂 강 앓으민, 風呂 가도 꼭 끌렁만 앓으렌 허여. 끌렁만 앓으렌. 이젠 경허여 가달 딱 벌렁 앓앙 허는 사름이 잇지이 한국서 온 사름은 막 달라. 風呂 가사 잘 알아져. 질레 걸음 걷는 것도 알아지고 왕왕왕왕 声도 大きい 소리도 크고. 다 틀려, 国가 틀린 디게 틀리난에 다 틀리주게. 그땐 막 ねえさんあんまり文句言うなら、ねえさん만 悪い悪いしたけどな.

ねえさんは 몇 살 위예요?

- 四つうえ.

ねえさんは 그럼 제국시대부터?

- 으 그때부터 쭉.

제주도 안 들어가고 그냥?

- 갓당왓당 헛어. 그때도 증명있으니까 갓닥왓닥 허고. 제국 때엔, 일본 시절엔 그 메역을 금해엿단 우린 海の近いすみ 허니까 메역을 금해엿당 건이 건이 허민, 건이 허는 날은 아으덜도 가민 하영 허지게. 우리 경 물론 때난 우리 ねえさん은 가민 四つ 우이라도 메역 해영 오민 나가 강 평 허여당 널곡 문 해낫주게. 겨문 그 물에 강 허는 테왁 박세기 망사리가 죽아. 망사리 죽앙 막 경해연 おやに言ってもおや도 원, 망사리가 죽앙 테왁이 죽앙 어디 강 흐꿈 큰 걸 헤여당 망사리도 크곡 흐꿈 테왁도 크곡 현 걸 흐꿈. 록박이난게 なかなか 경 죽앙. ねえさん 물에서 나오민 퍼딩 나가 그거 연습허젠 가젠 연습허젠. 경허른 퍼딩 강 연습허연. 이 물에 입는 옷도 었지이 어땡 거 큰 거 문 고휘이젠나 うちの 시절엔게 그거 고휘 그냥 강 입영 성 나온 あいだ 불 초는 あいだ 들어강. うちら 제국 때에 경 헛어.

언니는 막 일 잘해낫구나예?

- 아이구 우린 공부도 안 시키고 그런 일 집엿일베끼. 다른 딘 다른 디 소나 허고 말 질 르는 딘 소 물 맥이레 가곡 출도 허곡 허젠 허민 더 허주만은 우린 그런 건 안 허니 까. 아버지 어무니 시난 맞을 갈젠 허른 빌영 허곡 그거 다 집이서 허는 아이털은 늘 시간 없어. 소 출덜 허레, 출 비레 가고 출 비레 안 가도 밥도 해야 허고 이제도 그렇지 안 해. 촌에서사 그거지 뭐.

3. WJ, 남, 1937년생, 조천읍 신촌리 출신.

밀항 올 때 어디로?

-부산으로 영도로, 대마도로 경헨 시모노세키 글로 헨 대판 왔지.

안 잡히고 왔어요?

-으 단번에 완, 단번에.

운 좋으셨다예. 대마도까지 얼마나 걸립디까?

-대마도까지 二時間もかからなかった. 배 타난 영도에서 배 타난 부산, 부산.

그럼 바로 오사카로.

-아니 거기 곱앗단, 보름, 보름.

-부산 나완 부산 서면이엔 헨 디, 부산 서면 거기서 열흘 쯤 살안. 이젠 영도, 영도 やま, 산더레 그레 오렌 헨, 거기서 배 탄 통통통통 제끌락헨 배. 二十何人が 탄 대마도 산에 오섯 시쯤 六時ぐらいや, 六時間ぐらい 통통통통 허는 배.

아, 통통배를 여섯 시간 정도 탄마씨?

- 내리라 허난 대마도 산에, 산에 올라 강 보난 제주, ちょうど 제춧사람 모양으로 막 짓은 디, 거 무스거라?

소리 잘 들어오라고 마이크.

- 거기서 막.

- 산더레 올르라 헨 올르난[130] 거기도 사름덜 막 십디다. 거기도 보난 막 감저줄덜 놓는 거 거기덜 강 다 이시렌 헨, 그디 강 앓아시난 따시 인술자가 오란 여기 ㄱ만이 이시렌 헨 산더레 올르렌 헨 올란 이시난 밤이 웨난 また 배가 통통통통 들어오란. 그 거 탕 허난 한 열 시간 이상. 배 탕 들어온 거 보난 제춧사람 하르방이야. 저 월정 하르방.

바로 또 일본으로?

- 그 대마도에서 보름 간 살았어. 아침 밥 먹영 산더레 올라가곡 경헨 보름간 살암시난 따시 따시 배가 들어오란. 다 타라 허난 탄 보난 三十二人이야, 서른 두 사람. 景 十六時間ぐらいかかった下関まで.

대마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열 여섯 시간?

- 어, 열 여섯 시간인가 열 여덟 시간 かって 거기 들어강 이젠 혼 밧디 내리고 다시 이디 강 내리곡 저리 강 내리곡 헤연. 내련 영 간 보난 집이 들어간 보난 우리 제춧사름 집이야.[131] 간 보난 きのう法事したって 곤떡을 줍디다게 곤떡. 그 곤떡 먹영 거기서 하루 자고, 뒷날 이디 대판에서 우리 친척 아이가 向い行って, 그뻐ん しんかんせんないから 기차 타 앓안 이쿠노쿠 오란 내련. 그 때부터 仕事야. 그 뻐ん 우린 오만 원 줘서 차비.

오만 원이던 별로 안 준 거 아니마씨?

- いやいや 그 때 오만 원이면 큰 돈이라.

오만 원?

- 엔, 엔.

가지예, 오만 엔이지예? 그럼 일본에 내령 돈을 줬수과?

- そうそう. 일본 오란. 쟁 오란 글로부떠 이젠 ずっと. サラリーマンやったことない. 집 이서 부모 허는 일 마치. あの 속옷, 그것만 ずっと 헨. えーと 스물 여섯에 大友町 집 상 오란, 큰 집 산 오란 스물 여섯에 결혼 허연, 子供五人うんで.

그럼 여기 누구 있어났수과?

- 아버지

아버진 여긴 있어난?

- 일본 살단 들어 간 스삼사건 광광 헤가난 아부진 또 일본더레 도망와 불언. 신촌더레 막 있어시민 죽을 거난 배 탄 나와 부난. 있어시민 죽엇주. 경 나도 아방 좇안.

아아. 경 열 여덟 살에 완 이디서 뭐 헛수과?

- 그거 난 그거베끼 안 헛어. 아버지가 그거 헤나난. ベンと(べんとう) 썬 늬의 집이 일 다니지 아녀서.

경 제주도서 학교 다녔수과?

- 학콘 뒤 줄바로 다녀서 광광허난. 우린 戦争中 国民학교 다니단 해방 쁜 따시 이젠 신 촌국민학교 뉘연에 갔다왔다 허당 일본 나와 불엇지. 줄바로 사삼 사건 낭 줄바로 공부 도 못 헤서.

@ 소학교는 다니 거 아니예?

- そうそう, 서당 다니단.

오자마자 여기 東成区에 사신 거?

- 아니 이쿠노쿠. 이디 이쿠노쿠. 지금은 大友町.

大友町는 무슨 구과?

- 이쿠노쿠, 이쿠노쿠 나까가와(中川).

그럼 처음부터 이쿠노쿠에서 계속 지내신 거다예?

- 으, 으. 지금 그 집이선 스십년 간을 살아서 결혼해서.

- 스물 여섯에 결혼 헤 자수헤연.

아, 결혼해서 자수했어요?

- 스물 여섯에 결혼 헨 관리청에 자수헨 子供できたから, よめさんも 등록 ないね. よめさん 들앙 간 자수헤연 よめさんは 등록 나오곡 겐 이젠 大友町에서 일헨 아이덜 다 대학 보내고.

아이덜은 몇 명이과?

- 다섯. 아덜 둘, 큰 아덜 대학 나왕 약과 나와네 --- 일본 그 ゆめい(ゆうめい)な会社 그디서 おちよ(おちょう)로 おるし. 二番目も 약과 出て 병원에서 おるし.

아이덜은 한국말 압니까? 몰라. 큰 자제분이 몇 살마씨?

- 今三十九年生まれだから何本なのかわからん. 五十近い.

집에서 자제분들 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국말 전혀 안 씩니까?

- 아니.

4. MO, 남, 1934년생, 조천면 출신, 오사카 출생.

몇 살에 여기 오셔수과?

- 여기서 낫주. 난 해방 당시에, 해방 되기 전에 제주 갖주게. 군대환이엔 해연 있어낫주 옛날. 짐도 실르고 사람도 실르고 허는 그런 배 탕 갖주게.

해방 됐난 가신 거?

- 아니 해방 된 간 거 아니고 해방 되기 전에 여기서 공습 막 받안. 갱헨 우리 어마님이 혼자서 우리 너 오누일 키웠주게. 우리 아버지가 그 벨 타 낫는디 벨 난 죽언. そわ(しよわ) 에 저 소화로 말헤근에 18년인가 그 당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난 우리 어머니 혼자 우리 너 오누일 키우멍 했는디 아맹해도 공습, 이 지방도 여기 다 논밭이랏 주게 여기 전부. 경헨 여기서 대포, 미국 비행계 왕 しょゆだん(しよいだん, 焼夷弾), しょゆだん(しよいだん) 일본말론 しょいだん이엔 허주마는 폭탄 그냥 떨어젓주게 저디.

- 여디서 대포 막 쏘우주게 광광. 겐디 하나도 안 맞아. 그 당시 무서우난 에 우리 어머니 나하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님이 계셨는데, 이, 삼년 전이 돌아가섯주만은 그 누님이 인솔헨 제주에 우릴 들앙 갖주게. 군대환, 君が代丸, 우리 연령 헨 사름은 대략 알메. 君が代丸엔 헨 군대환. 히로시마로 저 하관으로 헨 념영 제주를 가는데, 그 새에도 여러 가지 잇엇주게. 저 하관으로 헨 나가젠 허는디 일본 종군예선 나가지 말렌 저 미군 잠수함이 대마도 앞이서 막 그냥. 이디 왓당 저디 왓당 허난 위험허난 나가지 말렌 허난 우리 그 당시엔 하관에서 혼 일주일 살아실 거라. 겐 살안 제주를 갖주마는 제주선 난 조천인디 조천이 포구, 조천 포구엔 헤근에, 아가씨 때는 모르주만은 저 가면은 조천 대고 읍 지금은 우리 성내, 성내라고 제주시 거기 강 대고 계근에 목포로 들앙 오는디, 우리 간 때는 막 파도가 높앙 파도가 높앙 종선이 못 나오란.[132] 나오당 들어가불고 나오당 들어가불고 헨. 겐 뒷날은 우리 그 당시 선장 말허기는 그냥 목포로 헤그네 이제 그냥 일본에 갈런디 모르켄 말 우리가 어린 때 말을 들엇는디 그러지 안허고 우리 좀 잠시난 잔잔허연 게난 성산포, 그 당시 성산포서 내린디 좀 잔, 불아올 때 좀 잔 잇는디 이 저 망치 소리가 나 망치로 땅땅땅땅 허는 소리가 나. 경 불지도 안 현 땐디 영 문틈으로 영 헨 보니까[133] 성산포 아래 굴이가 잇주 굴 일본 병정놈들 굴 팡, 지금도 그거 잇더구만 보니까, 그래 그 굴 파고 있어. 왜냐허면 우리 글후제 들은 말인디 이 미군들이 거기 저 오면은 싸움허젠. 경허젠 그 굴을 팡젠 허는 말을 우리 들어낫주게. 게난 불이 반짝반짝 소리만, 그 망치 소리 들 깨는 소리, 난 그 건 환허게 알아져.

아, 배는 멀리 세웁 이신디 굴 파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렛수과?

- 어 성산포 성산포 향. 성산포향이주만은 이 성산포 일출봉 잇잖아게. 그 바로 즈긏디 향 잇주게.[134] 모살팓.

군대환이 그 향까지는 접근 못했지예?

- 못허지. 경헨 우리 내령, 그 당시 우리 큰어머니 조천서 이 저 쉼구루마, 물구루마가 아니지 쉼구루마를 동네서 빌영 경헨 오란, 우리 흐루 즈물앙 나가 저 쉼구루마 뒤에

서 벌벌벌 털멍 행 저 간 기억이 잊주게. 글후제 난 소학교 들어갓주만은 아메도 일본서 그 때 ㅁ, 지금은 모르지마는 그 당시는 일본서 낭 일본서 큰 아이덜은 막 용혜. 겹저가 강 보니까, 우리 소학교 나가 3학년 때 갓거든, 저기 강 입학 스월 4학년에 올라갈 때니까 뒷해에 해방 웬 뒷해에 들어갓주만은 나 막 어린 때 막 고생해서. 이 반쪽발이 반쪽발이 헨.

아이들이?

- 막 따라와.

그때 소학교 들어갈 때 여기서 나고 자라 부난 한국말 몰랐던 거마씨?

- 한국말도 몰르고 음식도 안 맞고 막 그냥. 그 이 저 서숙, 저기는 쌀이 엇거든. 쌀이 엇이난 감자나 조, 보리 경혜근에 그거 먹던 난 매날 설사혜 매날.[134-1] 겐디 것도 거지만은 이제 나가 으든 웨도 안 잊어 붙어져, 어린 적 그 당시에 반쪽발이 반쪽발이 헨 나헌티 뭐 현 아이, ㅁ튼 동창인디 말이여. 겐디 이제도 나 안 잊어 붙어져. 경현 그런 사름덜은 얼굴 보고장도 안 허고. 그런 사름이 지금 잘 웨었냐 허민 잘 웨지도 안허고. 게도 우리 먼 친척이주게 ㅁ튼 본이 ㅁ튼 본인디 말야. 게도 나 좋게 생각 안 헤지메. 게난 여기 오란, 나도 막등인디 ㅁ 우리 형님 저디 계시주게. 나 매해 한 번씩 가, 매해 한 번씩은 가.

제주도에 들어가신 게 45년도?

- 아니 44년, 아 45년도. 그래 가지고 간 혼 멧달인가 석달인가 웨니까 해방 뻬지.

그럼 거의 군대환 마지막쯤에 가신 거다예?

- 그렇지 갓단 오란 군대환 여기서 폭탄 맞안. 그 저 그 당시는 석탄으로 엔진헨 불을 돌리는 밴디 그 석탄헌 그 연통으로 불 봐지난 B29가 완 그것도 무신 배 그런 건 몰르고 폭탄덜 떨어지니까 폭발헨 대관항에서 불난.

45년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는?

- 밀항으로 왔주게 부산으로. ㅁ ㅁ 옥안 나왔주. 옥안. 여기 나온 연도는 확실히 말 못 허지. 여기서 입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게난 昭和30년 정도주 28년인가. 육이오 끝난 얼마 엇영.

그럼 사삼 사건 때 제주도예?

- 잇엇주게. 나가 기억이 많주게. 아침 봐난 사람 저녁 못 보고 저녁 봐난 사름은 뒷날 못 보고.

- 그 당시는 조천에 습격 들영 뭐 헛주만은 그 당시는 폭도덜이 다 산에 올라가사 험니덴 경 안 허민 다 죽읍니덴 선전헨 겐 나도 올라가낫주게. 경 산에 간 경 다 내려와서. 하룻밤에 다 내려왔지. 겐 이번에 멧년 전이 제주도 가 보니까 제주도 4.3 공원 잘 뻬터만. 이덕구씨 이덕구씨는 나가 조천 이신 때 어린 때 멧 번 봐 낫주. 그 사름은 신촌 사름이고 우린 조천인디 조천 지서 앞이 옛날 중학원이라고 중학교 뻬기 전이 중학교 허고 소학교허고, 문교부에서 허가 안 받은 데니까 허니까 중학원이라고 게난 그 당시 청년덜이 유명한 청년덜이 많이 잇엇주게. 학생으로. 그 당시 선생이 이덕구.

무슨 과목을 가르쳐 나신가예?

- 나 나중에 들으니까 무신거 역사가 여기서 입명관대학 나오지 안헤신가, 경현 일본 군대 장교도 가나고, 겐디 키가 크주게 얼굴은 박박 얼굴은. 안경, 검은 테현 안경 쓰고.

수업은 받아 보지 안 하고?

- 아니 아니 우린. 겨고 조천에서도 영향력이, 맨날 우에 사름이엇주게. 켜 그 사름덜이 다 산에 올라간 죽음도 허고. 군대 간 사름은 엇고, 군대 그 후제.

친척들 피해는?

- 시체 못 좇앗주게 우리 스춘 혼난. 나보다 하나 우엔디 잡혀 강. 스춘 아시도 제주 살 압주게. 제준 사삼 사건헨 살앗주마는. 예그 그 당시 생각허민 좋은 생각이 없어.

경 고생허명 일본 오고 싶으셨어요?

- 으 여기서 소학교 삼학년꺼지 삼학년꺼지 나가 텡겼으니까. 게난 일본은 그 당시 사나 안사나 백미 밥이고 반찬도게 이 저 그 당시는 전쟁 때니까 이 저 배급, 게민 딱딱 배급 받아 오든 먹는 건 걱정 엇엇주. 게난 가든 일본 생각 나주.

5. YO, 여, 1928년 생, 대정읍 보성리 출신, 도쿄 출생.

- 아무 밧디도 할마니 가는 딴 어디든지 뜨라앗주게. 보리 검질 메는 디도, 조 검질 메는 디도, 산디 검질 메는 디도 아니 가는 디가 엇주게.

- 므을에 한문 ㄹ르치는 한문 서당이 셋주게.[135] 그 사름이 따시, 여름에는 집이 안 앗 앙 할마니 조름에 뜨라 텡기니까 엇어주만은 겨울에는 어디 갈 디 엇고 할마닌 집이서 미녕 줍고 집이만 잇으니까 할마니 즈긋디만 ㄹ만이 앗앙, 집이 오민 저 본문이라고 ㄹ르쳐주커메 오라게 오라게, 켜 그 겨울 --에 텡기니까 ‘가갸겨겨’도, 그 때 배운 건 이제도 알아져. 이디서 밤 핵교 텡긴 건, 이른 념영 간 건 머리뺍에 안 들어와. 그 때 들은 건 이제 다 든나졌주게.[136]

할머님만 엇어났수과?

- 할아버지도 잇고. 게니까 동네에 노인 어른덜 다 모여정 노니까 노인 어른덜 말 곧는 거, 저 할아버지는 무시거엔 굴암신고, 저건 무신 말인고 허명. 혼 두 해까지는 의밀 잘 몰랐다가 두 해갸장은 즐바로 의밀 몰랐다가 혼두 해 웨어가난 그 곧는 의밀 알아 전. 혼솔 옥아가난.[137]

여기서 살 때는 일본말만 헤난 거라예?

- 응 여기서난 여기 말만 헛주게.

경허단 제주도 강 2년 살아지난 제주도 할아버지덜 뉘렌 곧는지 알아지고예?

- 어 게난 이년 살아가난 노인어른들 오랑 장난얘기도 허고 하간 세계에 말도 곧고, 전 할아버지 어느제 강 받 완 정 굴암신고?[138]

어머님 성함이?

- 강 편안 강, ○○.

몇 세? 87세?

- 으.

제주도 어디마씨?

- 제주도 대정읍 대정읍 보성리. 동경에서 다섯 살꺼지 거기서 낭 다섯 살꺼지 살아가지고 아버지는 대판 내려오고 어머니는 나허고, 난 우이 성이 잇고, 나 밑에 오라비 동성이 하나 잇어서. 아이 싯 들고 고향에 갓주게. 오월 단오에 간 켜 어머니가 팔월 추석

에 군대환 배가 오게 됐니까 그 배 타가지고 오는디 나는 할머니가 막 아껴주니까 난
훈디 안 강 난 할머니영 살아 할머니영 살아. 즈유로 떨어져 불언.

제주도에서 할머니랑 얼마나 살았어요?

- 열 설 넘영 열 혼설 나는 정월에 우리 큰아부지네 집이 사촌 오빠 장계 가는 디 아부
지가 여기서 갖주게. 여기서 간 허난 장계 간 끝에 아버지가 일본 오는 디, 이젠 나도
아버지영 훈디 일본 가.

그럼 제주도 가서 한 육년 사셨다예?

- 열한 설 정월에 오니까 ちようど 오년.

여기 와서 열한 살 때 뭐 하셨어요?

- 오란 보난 나 밑에 따시 동기간이 많이 잇엇지게. 우리가 아홉 동기간이라. 게난 할머니가 ----
혈 거난에 돌아가켄 험시나 우리 아버지 보고 저 뭐이라고 허니까 우리 아
바지 허는 말이 이번엔 돌아가근에 흑교 마당에나 보내 보카헨 돌아 가젠 험수다 허
난, 기여 경허영 돌아강 흑계 마당에 보내 주라게. 경헨 온디 오난 흑계 마당이랑 마랑
애기만 돌렌. 아기만 보렌 허난, 나 그 말 들은 줄 몰랏주게 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저
으쟁이 곶은 곶, 난 저 뜯 디 앓아뉘서 들으난, 그 방 안에 안헤연. 게난 나가 아버지
보고 어무니도 오곳허게 어린 때 거시기 허난 느랑 사진만 앓앙 매날 보난 사진 얼굴
허고 오곳 얼굴 틀러 불언 게난, 우리 어명산디 아니산디. 경허명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 할머니 보고 학교 마당에 보내켄 일본 돌아왕 어째서 이것이 학교 마당이우젠 난
애기 업는 것이 지일 싫어허다고. 어디 일허는 디 시민 일은 강 허주만은 저 애기 업
는 것이 질 싫어허다고 집이 때 부름씨 애기 업는 건 아버지보고 막 文句. 경허난 열
혼설부터 늙의 집이 일본집이 일 땡겼주게.[139]

어떤 일 했수과?

- 메리야스 공장 메리야스 샤스(シャツ) 멘드는 일.

메리야스 공장에서 열한 살 짜리 일 시켜 쥘?

- 그땐 어린 아이덜 먼 일 텡길 때난.

그럼 그 공장에서 어떤 일?

- したばりや. 밑에 일 게. 가져 가고 게여 놓고, 옷 멘들어 논 거 먼 게면서 はこ레.

비닐에 포장허고?

- 아니 그땐 ビニル 엇어난. 저 はこ레 먼 개명.

얼마나 일 하셨어요?

- 메리야스 공장에 2년 텡건. 이년 텡기는 새에 미싱일 배와 주켄헨 미싱허렌 헨 미싱
허단 낮이 점심 시간 노는 시간에 미싱 영 거시기헨 저 ねじ 풀언에 그디 ぞじ(ぞじ) 막
문지가 하영 들어가주게 구뎀 하영 들어가 메리야스난. 소게 먼지가 많이 들어가난 그
거 ぞじ(ぞじ) 허젠 허당 오곳허게 ねじ. 그 기계 트명에 소게 먼지가 막 들어강. 쥘 그
거 허단 보난 오곳허게 ねじ 풀영 문드려 불언 좇지 못 허연. 게난 좇지 못 헨 허난 대
신 사당 허젠 해도 푸는 디가 엇어. 게난 그디서 경 청소 안 해도 뉘 건디 무신 따문
에 그거 틀영 거시기 헤시닌 허명 옥 허난 그 옥 헨 것에.

안 간? 하하하.

- 스십 전 반양 일 텡기명.

사십 전이면.

- 아, 스십 전 아니 이십 오전.

25전이면 한 달에 25전.

- 하루. 하루 일곱 시로 저녁 오섯 시까지.

그때 쌀이 얼마였는지 기억 나세요?

- 그 때 그 때 まんじゅう回転焼き, 그 거 두 개에 1전. 혼 집 아래 살던 남저 어른덜이 25 전 오람구나, 25전 오람구나. 장난으로 날 막.

그 25전은 매일 줘니까, 모아 낱 줘니까?

- 모아 낱게 혼 돌에 혼 번 かんじょ(かんじょう). 노는 건 혼 돌에 두 번. 초하루하고 십육일 날하고

메리야스 공장에 나왕 그 후에는 무슨 일 해수과?

- 그 후제는 카즈 공장, 우산.[140] 일 아니 해 본 것이 엇주게.

거기선 얼마나?

- 그디선 마때엔 막 つゆ, 마때엔 막 바깥 거세기 허당 마 넘으민 ひま. 혼 두어덜 허당. 그 후젠 이젠 쉼 해영 영 트는 디. 영 돌랑 다다미 바농 다다미 영 찢르는 바농 그거 만드는 디. 양철 영 놔근에 툭툭. 게난 아니 해 본 일은. 그 후젠 전기줄 회사.

그럼 살기는 계속 동경 살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 동경이 아니고 대판. 오사카 오사카. 할망이영 살단 오란 그때부터 어머니네가 날 강 놔 된 온 후제부턴 대판 셋주게 동경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대판 오란 허난 이 대판에 저 동기간덜이 어머니 동기간들이 대판에 살아나난 그것에 그거. 경헨 살단 막 일본 전장이 막 거시기 헤가난, 나 아래 댕 셋주게. 게가난 촌더래 막 저 술개만 허 렌 허난, 촌에 물론 디 강 살아져 게건 저 고향에 가주게 헨 갱 아버지네 문딱. 게난 나 우이 형허고 나허고 둘만 떨어된 갓주게. 경 가분 후에 따시 난 노무자로 불린.

언제 노무자로 불린 거?

- 어무니네 가분 후에, 전장 거시기헨 때난. 게난 큰 회사에 들영 그냥 거시기 헤시민 허 주만은 그거 설러 된 이번은 신 멘드는 디 돈 하영 버는 디.

갱 신발 멘드는 디 돈 하영 주켄헨 가신디 하영 줘디까?

- 신발 멘드는 딘, 신발 혼베 만들민 얼마 うけとり(うけとり) 경헨 덩겨부난 노무자로 헨. 큰 회사에 시민 불르지 저 빼질 앓을 건디 경헌디 개인회사에 가부난. 개인 공장에.

아, 경헨 노무자로 불려 간, 전장 날 때, 경 노무자로 불려 가민 어떤 일을 헛수과?

- 노무자로 불려간 딘, 큰 ドラムカン 허고 섹유통. 섹유 지름 노는 かん, 그거 만드는 디.[141] 그건 군인 전장 쓸 거난.

그건 돈도 안 주고 일 시킵니까?

- 아니 아니 돈은 주주게. 돈은 주주만은 헐러주게.

아, 헐러게. 일은 힘들언마씨?

- 일은 뜰림엇이 힘들주게. 게도 일 잘 못 험젠, 혼 번 ㄱ르쳐 준 건 경 영 해영 잘 못 험전 현 말은 들어본테 엇주게. 게민 그디서 우이 사럼덜이 저거 저거 저 아이, 저 아이, 여저 지집빠인디 스나이 이상 쓰기 좋덴. 혼번 ㄱ르치민 뜰림엇이. 경 점점 고급 막 높은디 막 むずかしい헌더래만. 노무자로 허당 결혼허래 오렌 허난, 그디서 거시기

- 받안, 증명 받안 가네, 식 올린 오란, 스무날만이 전장. 대판. 삼월 열사흘날.
- 그럼 노무자로 일할 때 제주도에서. 여기서 보내 줘마씨?
- 간 식 올린 오란.어. 돈 보내 주주게. 저디서 전보 온 거 아정 가민. 식 올리레 돌아오
렌 허니까. 계난 증명 딱 내어쥬. 간 식 올린. 군대환이엔 현 배가 가야 올 거주게. 켜
그 배 가난 따시 오란. 이디오란 이십일 일허연 전장 しょゆだん(しよいだん, 焼夷弾) 대판.
그럼 결혼해서 와도 여기서 노무자로 일 헛수과?
 - 으. 그건 게 혼자 잇으난게. 이것도 저 거세기 규슈 간 일허는 사름. 계난 양편이 따로
 따로. 그 사름도 일본 왕 살단. 난 나대로 가고 그 사름은 그 사름냥으로 가고. 올 때
도 그 사름은 군인 연락으로 저 규슈레 올 거난. 난 대판더레 올 거난 군대환 아니민
안 웨여. 결혼헨 오란 이십일 일 허난 규슈 삼월 열사흘날 しょゆだん(しよいだん) 대판, 동
경 열흐룻날 열이튼날 허영 그 다음 대판 열사흘날 대판. 그때 경헨 몬작 케와 불언
나 다리도 케와 불고. 계난 まさか 집을 카지 안 헛지 행 와 보난 집도 카불언 아무것도
엇엇지 형제가 사는 집. 부모네 살단 집 그냥 살단 집 몬작 케불언. 그때 성제 간에 따
시, 나가 앞이 늑따서, 나가 불 맞앙 거시기 허니까.[142] 계난 살지 못 허난 따시 성보
고 나가 간 오란 오래지 안헤 부난 오사카 대판 역까지 나가 성허고 ㄹ찌 간 다리 케
운 거 보명 이만 저만 헨 거세기 하카다ㄹ장 보내 도렌. 돈도 엇언 돈도 엇주게. 무시
거 돈을 경 서게 일헤도 일헌 거 받지도 못헌 거. 그물어사 かんじょ(かんじょう)를 받을 건
디. 계난 성제가 하카다까지 그냥 기차 탄 간 글로 군인 연락 탄 목포꺼지. 목포서 따
시 군인 저 병원에 간 흐룻밤 잔 이거 치료 받안.
- 군인 연락은 타져수과?
- 이런 거 보이난게 대판서 돈 공습 당허연 이거 보이면서 갖주게. 경허난 공짜로. 계난
여수까지 강, 군인 연락이 여수주게. 계난 여수 간 군인 병원에 간 흐룻밤 재워 쥬. 거
기서 이거 치료 받안. 경헨 목포꺼지 따시 배로 간. 목포서 따시 제주꺼지 따시 연락
탄 간. 켜 제주시 강 느리난 따시 ええと 그 병환 일름 무시거 곧젠 허난 잊어벤 곧지
못허켜. 그 병환 아, 도립병원 제주도 옛날부터 신 도립병원에 강 흐룻밤 잔[143] 거기
서 치료 받앙 버스 탕 이녀 고향 갖주게. 계난 막 겁난 아적은 공습 당헨 영 헛젠 현
신문도 안 나고 연락이 아이 간 디 우리 형제가 가난. 얼마니나 겁 나시카부텐. 병원에
도 간 영 헨 공습당헨 영 헨 오고렌 허난 막. 이 말 줄아 본 데 엇인디 이것에 돈. 어
디 강 나중에 연설허젠. 허허.
 - 고향에 간 이거 막 끌어 멩기단 이거 흐썰 좋앙 걸어짐직 허난. 무시거 옷 하나도 헤
주젠 안 허고 몸빼 하나토 안 헤주고 일만 빌영 허젠 시집이도.
- 시집은 어디짜?
- 동일리 대정골 대정 동일리. 모실포 알아져? 모실포로 흐썰 서쪽더레 간 데.
 - 계난 어머니 옷 형제가 어머니 옷 갈라 입영 허난 부에 웨싸지난 열 달 살앙 따시 난
이디 오라 불엇주게.[144] 이거 좋난 부에 웨싸지난. 시집이선 옷도 몸빼도 하나 안 헤
주고 신도 현 배 안 사주고 일만, 일 헨 때 일만 오랑 헤도렌 헤가난. 친정에 간 살멍
거세기 허난. 경허난 막 부에 웨싸지난 밀항으로 오란. 그 땐 아무 거세기도 엇어났주
게.

6. KS, 여, 1931년 생, 제주시 삼양 출신, 오사카 출생.

- 여기 사름덜이 제주도 토배기야, 여기 사는 사름덜이. 경허난 우린 이제 공부도 못하고, 공부라도 헤시민 어느 정도 표준말 어느 정도 쓰주마는, 공부도 못허여 놓고, 그대로 제주도 사투리 말만 써 놓고, 신문 한 장 읽어 보지 못허고, 그런 왁왁헌 세상을 살 단 나오랏수게. 정말로. 제주도 스삼사건 일어나건 디가 저가 예일곱설인디, 그때에 그 시절에 이제 똑똑허고 씩씩헌 사름덜은 산에 활동자가 웨연 다 죽고, 으망지고 공부허고 똑똑헌 사름덜은, 또 죽당 남은 사름덜은 군인 나가 부난 우리 시집갈 때 새서방이 엇언마썸. 예으둑, 열아홉에. 다 군인 나가고 죽단 남은 사름덜은예, 저 군인 가고 육이 오 터져네. 경허난 우리 일본 오기 전이 육이오 터져시난, 나가 스물하나에. 허난 우리 시집가젠 허난 새서방 그심[근심]이 엇인 거라마썸.[145] 불쌍한 청춘이우다. 가련허고 불쌍허고, 공부도 못허고 학교도 못가고.

고향이 어디시과?

- 삼양. 삼양 저 그 신장로에 버스 대는 디가 우리 친정집 앞이. 경허난 삼양마썸 삼양 산에서 오란 문짝 불태와 부난 머 사름 많이 죽엇수다. 습격 오란에 저, 습격 오란에 사름 죽인 것이 마흔 다섯 사름. 산에서 오란 죽인 사름이. 경허고 또 그 두엔 이젠 또 도피자 가족, 산에 올라간 사름 식구덜 죽은 사름덜이 많이 죽엇수다. 어린 아이덜이영 그 식구덜. 게난 우리 삼양엔 아주 그냥 그 희생자가 만헛수다.[146]

- 열 일곱술에 스삼사건이 일어난에 불태와 불언, 집 안 밧거리 문착 태와 부난 뒤, 마당에 불이 훤히게 있어 노난 옷 하나 내지 못허고, 고향에 일년 동안 농서헌 거 문짝 타고 아무것도 엇이.

다치진 앓고마썸?

- 사름은 죽지 안헛주만은, 경허난 죽진 안 헛주마는 살아난에 살젠 허난 가난허고 동녕 바치 거지광 일체라마썸. 그렇게 고생허다가 일본 나와 가지고예, 일본도 오난, 그때 우리 일본 올 때 일본 나라도 가난허고 전장헌 지연 얼마 엇인 때난, 昭和 年 26년 정도, 일본 나라도 가난허고, 오란 보난에 보리밥 먹는 시대에 오랏수게.

일본도 그때 보리밥 먹엇수과?

- 예, 보리쌀에 쫄에, 경허난 문 배급이고, 경허난 일본 나라도양 경허난 전장헌 지난해 저 미국사름덜이 미국 정부에서가 저 밀가루, 그걸 많이 시꺼단에 그걸 배급해 주고, 일본나라도 참 해방 웨, 해방 전이부터 전장 싸움으로 먹을 것이 귀허고 폭탄 맞안에 문짝 케울고.[147] 저는 일본서 나근에 일본서 큰 사름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셨구나예, 2세인 거라예?

- 二世, 우리 아버지 대정시대에 왔다가, 경헤네 이제 일본서 살단에, 해방 전이 昭和 이 십년도 삼월에 ぞかい 행 가서예, 팔월에 해방 웨니까예 경 웨수다. 경헤네 제주도에 들어간에 뭐 물건, 집이 살림살이도 문 일본서 아정 간 거난 ふとん이고 뽀이고 살림살이도 좋아났는디, 그 폭도덜 오란에 집 태와 부난, 문짝 케와서 옷도 타고 이불자리도 문 짝 썬고 일년 간 농사헌 것도 문 테우고, 아이고 고생헌 생각허민.[148] 이젠 경헌 다음엔 성 싸렌 해근에, 매날 성 싸레 땡기곡 성 싸난, 이제 가시 싸렌 해근에, 가시 비레 땡기고. 그 삼양 학교 앞이 그 근처 문짝 성 썬. 경허난 막 일헌 때고 젊은 때고 허

난양, 정말로 사람 사는 게 아니라마썸. 먹을 것 없고 입을 거 없고 돈 없고. 그때 늙이 집이 강 일허는 사름덜은 이제 천허게 봐근에, 자기 밧디서 농서허는 디 일허는 건 허여도 늙이 집이 저 상업허는, 성안 시에서 상점 보는 디 일허레 강 허면은 쪼끔 천허게 봐. 그렇게 사름덜이 어둡은 시대야.

스물 두 살에 일본 오난 바로 결혼 해전마썸?

- 아니, 이디서 오란에, 이젠 언니네 집이서 살명 이제, 일본도 오란 보난 나라가 가난하고 일이 엇언마썸. 일이 엇언. 경허난 이제 우리 언니네가 장서 시작헨에. 아이덜 입는 코르텐 쓰봉(ズボン) 줄는 거[149] 우메다에서 おろし 허는 거, 그거 허연에 이젠 일허명 친정이 가난해 노난에, 흔 푼씩이라도 벌영허민 친정더레 돈 보낸.

돈 보낸. 언니덜도?

- 언니덜도 ㄹ지. 어 경허난 밧이영 몬 사낫주만은 몬썸 풀아먹영 한국에 재산 엇수다.

누게가 풀아 먹엇수과?

- 아버지, 친정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을에서 有名야.[150] 놀음쟁이데. 머 놀음이나 허고 밧디도 아니 가고[151] 경허고 허난 우리 성님네도 밧 사 놓고 우리도 돈 보내명나, 일본서 살명 그 좋은 시절에 그 돈 해근에 이디서 재산 사 놔시민 큰 부제가 될 건디, 부모 생각도, 형제간들 고생헌 생각, 그 먹을 거 엇영 막 배고파나난, 그 생각만 허명 종종이 돈 보내단 보난 이녁 앞이 돈 벌어논 건, 좋은 시절에 벌어논 돈은 엇어지고.

거난 넘어 오신 것은 육이오 끝낭 쇼와 뱃 년인가요?

- 이십 육년, 경허난 나 고향 잇는 때 육이오 시작헨. 경허난 군인덜 몬 죽당 남은 사름덜은 몬 군인가고, 계난 마을에 청년덜이 엇어서. 경허우다. 촌에 촌이난 더 나타나 근에 계난 죽다 남은 으망지고 이제 학교 농림학교나 다니고, 오현중학교 다니고 그런 사름덜은예, 몬 목직허당 죽은 사름도 하고[152] 또 산에 올라가근에 활동헌 사름덜도 하고, 경헨 죽은 사름이, 경해근에 이젠 죽고, 또 죽다 남은 사름덜은 이젠 또 육이오 시작헨에 군인덜 뽑아노난 장개도 못가네 죽은 사름 만허우다. 전장이 나간. 경허난 그 때에 우리 마을에서 밀항헨 나온 것이 나가 일, 첫짜로 나오라십주. いちばんで.

어디서 배를 타수과?

- 저 부산 밀항 헨 오논디 부산에서, 밀항 전문으로 허는 사름이 아는 사름이 시난, 이제 부산서 배가 떠나지 못헨, 육이오 터져 놓고 경비가 심해 노난 경허난 이젠 토영서 배 떠우켄 허네, 경허난 이젠 통영까지 가도 그디 몬 군인들 잇어 놓고 경비가 심헨에, 배가 떠나지 못허켄 해연, 경헌디 사랑도엔 헨 썸 알아지쿠과?

- 경허난 침 우리 제주도 사름 아니 가는 디가 엇언에양, 경해근에 우리 밀항으로 나오젠 헨 사름이 일곱 사름이라십주게. 경헌디 사랑도로 배가 뜨켄헨에 그 썸에 강 보난 물 막은 썸. 경허난 토영서 배질 종선으로 탄에, 배 영 것이명 헨에 세 시간 아니민 다섯 시간이라, 경허영 강 보난에 거기양 제주도 사름이 잇언에 줌수.

해녀?

- 해녀, 저 소섬서 간 사름덜.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 많이, 저 열 서림. 경허난 종선 하나에 그 해녀가 열 서림 <미 해근에 간에 허민[153] 그 종선에 사름이 그 메역 즈물아 논 거 몬 배에 시경 오민 곧 어둡어 가민 이젠 저

돈 널엉, 경혜영 것도 합동으로.

계민 거기 사는 게 아니고 메역 혈 때?

- 메역 혈 때, 생복, 전복ㄴ든 거, 구쟁기 ㄴ든 거 즈물앙.

아까 전복을 뭐렌 혜수과? 생복

- 생복. 경혜근에 그디서 경혜근에 하나씩 영 떼지민 육지서 비싸노난, 경허민 그 종선
おや가 그 사장, 그 종선 주인이, 주인 각시가, 그거 돈 까근에 게웃이엔 헨 젓 담
아.[154] 경혜근에 끝나민, 바당 썰여가고 추워가고 허민, 그거 아저근에 메역도 조합에
강 돈 풀앙 돈도 돈 하나 죽으나, 하영 허는 사람이곡 죽영 허는 사람이곡 공동으로
돈 갈라근에, 또 그 저 전복 거튼 것도 젓 담은 거 돈 갈르고 경허는 생입디다게.[155]
경혜네 우리 사랑도에서 혼 스무날 살앗수게.

- 일본 올 때 그 섬에양, 그 사랑도엔 현 섬에서 배 띄왕 배 띄우난 이젠 대마도에 들어
가젠 허난[156] 너미 날이 붉으민 위험허난, 이젠 저 그 たいげま엔, 침, 사름 하나토 엇
고 곱새만 잇고[157] 거제도에서 줌수덜 하간 거 즈물레 가십디다.

- 거제도에서 우리 제주도 사름덜. 경허난 거기 막 하간 것이 한 생입디다게. 경허난 이
젠 우리 거기 가네, 배에서 이제 기간장이 이디 올랑 잇다근에 날 저물어 가사 배 띄
우커메 쪼금 상륙헐헐 헨에, 경허네 그디강 올라 곧 올라오렌 허난 이제 사랑도 하나
토 엇고 곱새, 그 바당 かもめの 똥만 쳐 쌍 이신 디 멧 시간 잇단에, 이젠 어둑어 가난
대마도에 배 대영 오랏수게. 대마도에선 그 배 임제 연락쟁이가 잇언. 육지 사름덜은
우리 제주도 사름보다 똑똑허여 허는 것이. 게난 배 임제가 대마도에서 비단 거튼 거
많이 시꺼[158] 이제 사랑도에 현 섬에 강 아저 강 퍼 두어근에 이젠 모집현 밀항자
이제 시꺼 아전에, 이젠 그 섬에, 사랑도엔 현 섬에서 이젠 혼 삼십 명 탕어. 돈 각 처
도로 돈 모집현 사름이.

어머님네는 다섯 명이었는데, 다른 팀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여들어 삼십 명이 된 거라?

- 어 돈 모여들엉

- 경허여네 이젠 저 거세기 대마도에서 느런에 거기서 혼 댓세 살안에, 거기도 인솔허는
사름, 대마도서도 연락선 타사 하카다(はかた)에 오난, 경허난 대마도서도 하카다에 오
는 것이 막 우험혜근에, 등록 엇인 사름은 걸리주게 거기서. 경허주만은 난 그때 스물
하나인 때인디, 스물 두설이난 일본말도 알고 일본글도 알고, 경허난 등록도 이제 우리
언니 거, 우리 말젧아바지가 돌레 가난[159] 그 언니 거 아정 간에 사진 떼 뉘에 나 사
진 부편에 그뻘 じゅん이 아녀고 저 반도장.[160] 이디 돈 녹음헐헐신가? 아구, 부치러와.
경혜네 일본 오랏수게.

반도장이란게 어떤 거마썰?

- 그 게 등록에 지금은 영 헤그네 저 じゅん으로 허여주만은 그 우리 昭和 이십육 년도엔
일본 じゅん이 아니고 사진허고이, 등록에 허고 도장을 탁 찍으민 사진에 반허고 등록증
에 반. 경허난 그 반씩 뉘 것이냐, 그 대마도에 사름이냐, 어평사 잘 멘들아 놔신디사
[161] 그때 일본 돈으로 삼천 원 주난 나 우리 언니 사진 떼 뉘에, 나 사진 부편에 그
반도장 찍언에. 경허난 그때 삼천 원 돈이 막 큰 거라났수다.

사랑도에서 바로 대마도로?

- 아니 그때 혼 스무날 살앗수다. 사랑도에서도 일본서 밀항선이 가사 올 거주게. 경헌디

그 비단 시경 가는 밀향선이나, 경 빨리 오지 안혀여.

- 스무날, 경허난 줌수네 집이서 이제 주인 맺언에, 경 메역혜연 오랑 허민 거 도웨여근에 문 널어 내곡.[162] 이제 아기 신 집이난 아이덜 똥 지성기도 빨아 주곡 허멍[163] 혼 스무날 사는디, 거기 뱃사공 각시가 막 좋은 사름이곡 막 도웨 주난 지뻐이 생각혜연.[164] 밥 값이 아니 쥐도 줌수넨.

일헤 주난?

- 예, 도웨 주난. 경허난 거기서 이제 줌수덜이난 문 줌쌀, 허린 쭈쌀이여, 보리쌀이여 풋이여 문 각각이 아정 간, 아정 강 헤도 이제 거기서 쌀 받아네 문 서트멍, 경허민 해너덜 오게 웨민 우리가, 이젠 거 제주도 사름덜 혼 다섯이가 이젠 그 보리쌀 씻어근에 줌쌀 뇌근에 쏘이영 서텅 밥허곡 메역 혜여 온 거 헤긴 빨아다근에 테우처근에 채소영 내농곡, 아이덜 밥 맥이곡 옷도 이제 굴아입지곡 모욕도 시키곡 물 데와근에.[165] 경허난 경 뱃사공 각시가 막 그냥 아이고 생전 살아줘 불어시민 좋쿠넨. 경허난 소섬 사름. 경허난 줌수 한 사름은 이젠 서화리 사름인디 젊은 여자가 혼 스물 대여섯 술 똥 사름인디, 그 사름은 시집 가곡 현디, 그 우리 세계 닻지 안혀네 동춘엔 그런 모집이 있는 생입디다게. 줌수덜 모집. 경 육지레 가그네 그 메역철에 메역허고 하간 거, 저 툴이여 뗏이여, 우미여 허는 거. 경허난 그 여자가 젊은 사름인디 줌수허민게 머리도 노랑허고 얼굴도 시커멍허고, 고운 사름인디, 경허난 나가 들어십주게, 영 곱곡 현디 무신타문에 영 못전디게 육지꺼지 나오랑 줌수질 햄수과 헨 굴으난, 자기 시집간 남편네가 광주 이학 공부허레 갓젠.

신랑이?

- 신랑, 남편가. 경허난 가난헌 집이 신랑인디 머린 좋은디 돈 엇영 공부 못 허난[166] 자기가 이 물질허멍 남편신디 학비 보내노랜 허건데, 아이구 경허여근에 공부시키거든 이제 이학박사가 돼건 부인으로 맞이헤 줌근에 스랑헤 주민 좋주마는 우리 제주도 사름은 무책임으로 그런 인정 잇어 불어근에 이제 대학교 텅기멍 고운 새각시광 연애헤 여근에 이제 그런 사름광 장개들어 사랑허민 공부시킨 사름은나, 교양도 엇고 말도 잘 못허고 인사도 잘 못허고 경혜근에 나무령 아니 삽니넨. 경허난 제발 공부시키지 마셴. 경 굴으난 거기 줌수덜도 그 말 맞은 말이우다. 옛날로부떠나, 물질허멍 이제 육지 공부시키레 보낸 나두민나, 육지사름덜 대학생덜 고운 사름덜신디 장개 가근에 바린 책 아니헨 고생허는 사름 만히 잇수다. 동춘엔 그런 일이 많이 잇넨. 경허난 나가 경헨 굴으난나, 경해도 시작헌 일어난 곳갱이꺼지 공부시켜사쿠넨. 경허난 물질허난 그 돈은 잘 벌언게. 그 제주도 섬 안에서만 안 혜연에 저 육지레 나가난.[167]

거기 20일 살멍 해너들이영 정들어 불어신게?

- 정들언. 아이덜이영. 아이덜은 그 우리 엇일 땀게, 어멍 그 어린 것덜 내불어뎅 텅기민 밥도 호나 얻어 먹지 못허고 그자 돌아텅기다근에 밥 낭푼시민 그디서 영헨 줌앙 먹으멍 놀멍, 아이구 불쌍허게시리, 경해도 우리 이신 땀 가이네 헿 밥 혜영 맥이곡 딱신국 테우멍 맥이곡 옷도 굴아입지곡 경허난 아이덜도 막 할머니 할머니허멍 정들언게.[168] 게난 우리 경허난 뱃사공 각시도 줌일 혜연게 경 안 허민 그 줌수덜 문 밥헿 맥이곡.
- 경허난 올 현 때 웨가민 문 밥 헤그네 데령헿 뇌두곡. 먹음직이 혜근에나. 허곡 메역 빨앙 널어 주곡.

메역 빨앙 널어 주곡.

- 아니 메역 빨지 아니헨. 즈물앙 온 거 므살판에 든 즈근즈근 널어 주곡.[169]

경 몰람시민 뒤집엉 널기도 허고 뉘쌍널고예.

- 경헤근에 든 물론 거 즈근즈근 허여근에 뉘며근에, 방 허나에 숨빠허게 잇언게. 경허민 그거나 이제 연락선 떠나게 뉘민 시경[170] 경헤영 부산에 오란에 조합에서 푸는 생이 란게 흠치.

그 시기 다 끝나민 한꺼번에 정리를 헬구나.

- 경헌덴 나두 일본 오젠 허난 여러 가지 아니 본 세계도 보고.

경헨 경헨 그 사랑도에서 대마도까지 갈 때는 몇 명이 ㄴ치 배탄 거?

- 서른 명.

서른 명. 경 사랑도에도 여기저기서 사름들이 모인 거?

- 이디저디서 사름이 모이난,[171] 뱃사공이, 그 사랑도에서 밀항자 모집허는 사름이 잇 언. 경허민 배 대영 허민 그 물건들 든 퍼두영 허민 배에 이젠 든 고장난 거 조사허여 근에 지름 시끄고 기간장이 든 설비 든 조사허영 경허민 혼 이틀만이 떤게.

사랑도에서 대마도까지는 얼마 걸렸수과?

- 갈 때는 낮이 혼 열시 썸에 배 띄완에, 그 다께시마엔 현 섬꺼지 가는 디 저 혼 세시 오후 세시. 세시썸에 이딴에 거기서 혼 서너 시간 잇단, 경헤네 이젠 헤 지어가난에, 나가 그때 음력으로 스월에 스월 그름 소시에 경헤여네 허난 봄이난 헤도 질고 경이난 밤이난 혼 여섯 시 뉘어가난 헤 지어가난 배 탑센 헤네 경허난 그디서 이젠 발동기헤 네, 저 기계 안허연 뱃사공덜이 뱃놈덜이 기간장이 영헤근에 내 젓으멍 들어갓주게 대 마도에, 퀘기 나끄멍,[172] 발동 소리 허민 잡히카부덴.[173]

거의 대마도까지 가까이 왔을 때는 기계를 꺼 분 거라예.

- 기계 꺼 뉘에 영행 내 젓으멍, 퀘기 나끄멍. 경허난 일본 사름, 일본 배들도 퀘기 나끄 는 배가 많이 잇주게. 경허민 막 일본말로 퀘기 많이 나까점시넨 허멍 인서덜 허멍 [174] 경허멍 대마도에 들어갓주게. 서른 명 막 배에 골라앗을 정도로 사름 시꺼 낵, 백장 아래.

- 응 제주도에서 아전 부산꺼지. 일본 오젠 허난 돈을 단도리(だんどり) 혼 삼백 오십만 원정도로 빗전.

어 누게한티 빗전?

- 우리 켄당덜안티. 게난 부산도 흐룻밤 장허민 그때 돈으로나 오천 원이야.[175] 밥값이, 흐룻밤 자민. 저 영등섬에 저 밀항자 하숙침이가 잇주게, 저 전문으로 허는 디가. 경허 민 오천 원, 밥 딱 두 때 얻어 먹영. 경허난 혼 삼백오십만 원 가지지 안허민 못 오주 게. 연락선 타고 토영도 가민 방 빌영 자민 흐룻밤 오천 원, 게난 그런 건 싸. 경헌디 밥은 쓸 밥으로 맥여주는디 반찬은 마농지시. 폼데사니 썰어놔에 장물에 큰 거.

대마도는 어디서 묵엇던 것과?

- 대마도도 전문으로 허는 사름덜이 잇언. 경허난 경찰서 앞이야.

경찰서 앞이 그 집이 이서?

- 경찰서 앞이, 경허난 그 사름덜 밀항자덜 시꺼 땡기는 건 두으로 뒷문으로.

게도 경찰서 눈 감아 쉼신게. 와이로 먹영 눈 감아 쉼신게.

- 어명사 헌디사 경찰서 앞이야. 경허난 그 집 임자가 그 아기 오누이 신 집인디 딸은 밀항으로 간 사름 부름씨혜근에 밥도 혜근에 내 놓곡, 설탕도 혜근에 내 놓곡 허는디 아덜은 바깳디서만 사는 거라.[176] 집 앞이서만 경혜근에 형사 오라, 집이 들어오라가 민 영혜근에 신호허민 이젠 다다미 걸으민 그 굴 쏘곶에 들어강.[177] 경해도 우리 잇는 땀나 경찰서 사름 아니 오란. 게난 비단도나 일본 츠루하시서이 그땀 저 유동치메 비로도(ビロード), 양단 그런 거 많이 츠루하시서 몬 대마도로 보내허민 몬 그거 받아근에 죽은방이 막 데며선게. 한국더레 시꺼갈 거.

아 한국더레 시꺼갈 거. 한국더레 풀 거.

- 어 밀항. 우리 시꺼온 배로 시꺼갈 거주게. 밤내로. 경허난 그 집이 아덜은나, 그자 바깳디서만 사는 거라. 그자 형사덜 완신가 집이 조사 오람신가, 경허난 손님이고 그런 거 그냥 뒷문으로. 경허난 やっぱ 그런 장서허는 사름덜이 머리덜이 좋아. 이거 땀 년이라, 나가 오란에 이젠 으든 서이나 똥난에, 스물흐나 만으로 스물하나에 오난 이젠 육십삼 년, 육십이 년.

어머니는 여기서 태어나셨잖아. 어릴 때 얘기 해 줘서. 뭐 허명 놀고 어떻 학교 다녔수과? 아버지 어무닌 또 무신 일 해낫수과?

- 아버지, 어머님은 우리, 우리 우리 아버지네 형제 간덜은 다 고향에 사는디 우리 아바지만 놀음혜 부난에 영 고향에 살 수가 엇언. 응 놀음. 우리 할아버님네 부제곶 허난 이제 집이영 빛이영 몬. 우리 아버지네 형제간덜이 이제 스형제고 고모님덜이 삼형제. 경헌디 모두 고향에 사는디 우리 아바지만 놀음만 혜네, 이거 이제 ろくおん허는 디 부끄럽다게.

- 경허난 이젠 그 놀음 빛 물어노난 집도 엇고 빛도 엇고 고향에서 살 수가 엇이난 우리 아버지가 며 일본 온 거라. 경허난 昭和5年度야.

- 경허난 그때 오랑 허난 이젠 우리 며 사람덜도 땀사름 오란 잇고 허난에 이젠, 그 후에 우리 고향에 잇는 때 우리 큰언니들도 잇고 셋언니도 섯고 헌디[178] 우리 큰언니도 큰언니 으둑 설이고 우리 셋언닌 저 일곱 설에, 다 으섯 술에. 그 시절엔 군대환이 아니고 복목환.

아, 결혼헐. 기민 결혼혜신디도 경 놀음만 헐?

- 응 놀음만 헐. 경허난 이젠 우리 어머님이 아기 여라 오누이 낫주만은 아들덜은 몬 죽어 불고 딸 성제.[179] 난 낳지 았은 때고. 경허난 복목환으로 이제 일본 오젠 헤가난, 우리 할아버님이 막 며에서 유명한 할아버님이난. 이제 일본 가도 돈 엇주게. 아버지 며 일본 오고. 경허난 콩, 콩 잇잖여. 그걸 5톤 가마니에, 우리 셋고모님이 동네에서 막 유맹혜근에 쉼 헐 고모님이 잇어낫주게. 경허난 사그네 우리 세계 저 사는 삼동. 지금 우리 곁는 딸은 사그네엔 허주 마는 사그네에서 배에 복목환을 대난 --- 우리 동네는 2동이야나, 감수동이야.[180] 삼양 감수동. 경허난 이젠 할아버님이 우리 셋고모님신더레 저 복목환 콩 헐 가마니 지어다그네 우리 어머님신더레 아 어린 거 들고 강허민 돈도 엇고, 콩은 아무 세계서도 먹는 거난 이제 콩^느물이라도 놓곡 국 깔리명 먹고 콩 밥허영 먹으명 살렌 혜영 저 헐 가마니 시꺼 주고 우리 큰 성님 으둑 설이고 셋 성님은 뇌 두곶 혜연에[181] 어머님허고 큰성님허고 일본을 온 거라.

와서 무슨 일 혜신고예?

- 그 어린 나이에 허는 일이 있어난 생이라. 독 터럭 골똥는 일.[182]

그 닭털을 뭐하려고? 이불 만들젠?

- 아니 이런 마후라. 그런 일 허레 강 허민나 막 독똥내 나고나, 우리 언니 곁는 거 들으민. 경허도나 일 아니 시키민 못 살 거난.[183] 우리 일본 온 사름덜은 대강, 이제 지금 혼 구십난 사름, 팔십 넘은 어른덜은 으덜 설에부떠 일헌 사름이 만허주게.

어무니랑 큰언니 일을 하고?

- 일허고, 경허난 셋성님은 불렁허고 허난 셋성님도 으덜 솔부터 일허고, 경허난 나도 낭 허난 우리 아버지가 어느제 돼민 요덜 술에 일 시키카 기다린 거라, 경해도 우리 셋언니가나 똑똑헌 언니난 저 일 안 시경 입학시켜 분 거라.[184]

학교에? 아이구.

- 일본 학교에. 게난 우리 아버지 막 육혜 불연, 막 육허연 경해도 우리 언니가나, 일허멍 월사금은 나가 물어 갈 거난 이 시대에, 야이네 시대에 우리 시대에 공부 안 허민 통 봉, 까막눈 돼언 못 삼니덴헨.

경 학교 갔다와서 집안 일은 도와 줬던 거?

- 어 집안일은 몬 헤여근에 선탕도 허고 언니가 시난에 밥ㄴ튼 것도 몬 허고. 우리 언니가 일 땡기멍도 살림살이 대부분 살안. 우리 어머님은 또 야미 장서 かいだし 땡기곡, 경허연 나도 도웨고, 일본 신 땡. 야미 장서, 하간 거 かいだし 땡기멍나 어머님 살림 도웨 냐주. 한국은 가난 밧디 농서일, 검질 메레나 땡기고 지들커 허레나 땡기고 아이고, 못 전더, 못 전더.[185]

어머니 かいだし는 뭐 かいだし헛수과? 쓸?

- 쓸 かいだし, 야미, 야미로 저 거시기 밀ㄴ루 かいだし, 또 미깡(みかん) かいだし, 몬 배급 제도가 돼여 노난 녀녁이 먹지 못허주게. 경허민 たまねぎ かいだし허민나, 일본 사름덜나 부제칩이덜은 야미로 몬 상 먹주게. 그 배급으로 나오는 건 조래지 아녀혀. 우리 한국 사름들은 수단이 좋아근에이 촌에 가근에 사탕ㄴ루 배급으로 나온 거 아니 먹엉[186] 아정 가근에 이젠 선물 써진, 경허민 몬 그때 농촌에선 농촌이 부제가 돼근에 농서 헤는 거 몬 갈라주주게. 아정 강 먹으렌 헤근에. 장서로 오고렌 허민 쓸 아니 주고.

게민 여기선 사탕가루를 가정 강 선물이렌 주고, 거기서는 쓸 주고.

- 응 쓸 풀아 줘.

쓸 풀아 주민 여기 왕 야미로 풀아?

- 야미로 풀앙.

게민 어머님은 まとめ허당 かいだし허고 어머니는 그거 도웨 줬고?

- 어머님허고 셋성님허고. 우리어머님은 말도 몰르고 헤도이 못 땡기는 디가 엇주게.

일본말 몰라도?

- 말게 공부 안 헤놓고 헤노난 일본말 잘 몰르주게. 경해도 말 통역헨, 일본사름덜 참 친 절헤근에이, 그 촌에 가근에 농부 집이 가근에 그 사탕ㄴ루 선물허멍 ‘고메 와께떼(こめわけて)’ 허멍 곁으민나[187] 그것도 말이엔 헤근에나 일본사름 ほんとに(本当に) 친절헤근에 しんせつや.[188] 우리 한국 사름 거트민 봐린 책도 안허주만네나, 불쌍허덴 헤근에 이녁도 아니 먹으멍 영 선물 주곡 헤근에나, 그 지금은 경해도 그 시절에 일본은 참 인정 잇언이, 일본 사름덜.

경허난 어떻 疎開를?

- 그때 이리 가신곡 허민이 삼양 우리 성님네 씨퀸당이 저 전장 전이부떠 돈이 하난에
[189] 이리에 현디 논밭이 막 눈이 좋아그네 곡석이 많이 나는 세계난 쓸밥 먹젠허네
이리엔 현디 강 살앗주게.

성님네가?

- 큰 성님네 씨퀸당이 대정시대로부떠. 경헨 강허난 이제 우리 사돈님네 일본서 돈 벌어
네이, 막 잘 살아지난 이제 ぞかい 허라 ぞかい 허라 허난[190] 이젠 우리 사돈님이 그
퀸당 사느디 갖주게. 가 보난 막 쓸도 흐느러지고이, 일본선 먹을 거 엇어근에 배급으
로 먹젠 허민 막 그냥 배고플 정도 주만은 우리 한국 사름덜은 ㄱㅈ 장서허명 ㄱㅈ
받앙 먹으명 사느디 경허난 거기 강 허난 쓸도 막 좋고이, 막 그 눈이 बे지근헤난에
우리 사돈이 이리엔 현디 강 살젠 허난 간 거라. 그디 가난 이젠 가수원 복승게 난, 산
으로 영 하나 신거이, 그거 하나 사고 논밭도 잇고 현 걸 산 거라, 계난 산허난이 일본
서 가고 허난 그런 거 허여져? 그 복승게도 손 봐서 크고 하간 거 허느디, 경현디 그
거 이제 놓 빌영 허난이 육지 사름덜 강 일 즐바로 안 허고 해더레만 바레명 헤노난
이, 인건비에 돈 들어가근에 돈이 아니 남는 거라. 먹을 것도 남지 안허여. 돈 그거 아
니헤 들어민이 돈 썩어근에 털어지곡.[191] 경헤영 허난 인건비도 아니 나주만은 경 복
승게 열매 썩는 열매 내 불도 못허고 허당 보난 이젠, 우리 아주바님도 일본서 가곡
헛주만은 직업이 엇어. 일본서 큰 공장 출려근에 사장이라 낫주만은 계난 이젠 해방된
에 이젠 저 육이오 시작허영 소와 혼 25년도에 밀항허연 일본 나오랏주게 우리 큰 성
님은. 경허난 우리 사돈님은 이젠 촌이서 살명 이리엔 현디서 살명, 그 과수원 돈 풀아
네 허고 이젠 재산 일본서 야정간 재산 돈 풀안에이, 돈 벤리 놈신디 주언에 벤리 주
단 보난에 돈도 엇어지고 재산도 엇어지고 경현후계 일본 나오란에 아덜덜 쫓아내 일
분나오란에 막 고생허당 돌아갓주게. 경허난 그 관련으로 이리엔 현 디 갖주게.

아 강 일허고?

- 응 경허난 일헛 것도 엇주게. 경허난 야정 간 돈 즈근즈근 먹으명. 쓸이나 받앙 먹으
명. 일이 엇주게. 그 시절엔. 일도 엇고 약도 엇고 사름도 아프민 그냥 죽게 뉘 거라.
경허난 이 그 육지도이 난 그 이리엔 현 디 간에 다섯 둘동안 강 사느디 사름 살 디가
아닌가 생각나져. 육지 가근에 우리 막 똑똑허고 제주 좋고 현 사름이 강 육지서 성공
허주 우리거추룩 명칭헌 사름은 속아근에 못 살아.

- 경허난 비디오(ビデオ)도 보민이, 난 요새 일도 안허고 비디오(ビデオ) 보건 디가 혼 거
자 십년 뉘엇주만은,[192] 아이고.

경 이리에서 제주는 어떻헤연 들어갓수과?

- 이리에서이 기차 탄 목포까지 강, 목포서 이젠 연락선 탄에 제주도꺼지 갓주게. 경허난
이리서 거세기 목포까지 차가 잇주게. 기차.

경 제주도는 산지향에 도착헌 거?

- 어 산지 도착허연, 계난 산지서 이젠 물<るま 탄에 그뻐ン ㅍㅈ도 엇고 그 시절엔.[193]

물구루마 하하

- 마차. 차 あれへん. 삼양 들어간, 짐 시끄고.

- 경허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님이영 나영 일본 사난 우리 어머니은 이제 한국서 돈 벌 것도 엇고 이젠 재산, 돈 보내난 재산이영 샷주만은 돈 벌레 일본 밀항으로 오란.

어머니가 나중에?

- 어 나중에 예순 하나에.

예순 하나민 昭和 몇 년 될 것과?

- 삼십, 우리 큰 딸이 33年度生まれだから、32年度. 어머니이 밀항헨 오란. 시모노세키서 걸려네, 오단 걸련.[194] 경허난 나가 이제 걸언에 운동해연 우리 성님네 돈 내 난에 보석금 걸언, 경혜네 이젠 자비 출국으로 이젠 물건 많이 해연에 한국 들어갓주게.

얼마만에 걸린 거, 여기 와서? 들어올 때 시모노세키에서 걸련?

- 걸련.

그럼 일도 못해 보고 다시 들어간?

- 일도, 돈 우리어머니 딸신디 돈 는태레 오랏단 걸렸주게.[195] 우리 성님네 장서헨 돈 벌 때고 나 일헨 때고. 경허네 운동헨 빼젠 허난이, 시모노세키 일곱 번 간에 으덱번 채에 어머니 보석금 걸영 빼오랏주게. 경혜네 자비 출국으로나. 경허영 우리 어머니 昭和 32년도에 오란 허난 민단 증명 안허민, 민단 등록 엇이민 석방, 자비출국 아니 시켜주켄 허연 관리청에서, 계난 우리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질로 므녀 우리가 민단 가입헨 민단등록 만들엇주게.

- 경허영 어머니 자비 출국으로 한국 들어간, 부산으로 물건헨 간나 경혜네 돈 뺏기명 중간 사름덜 돈 빼명 풀아 먹으명 허연에[196] 경해도 원채 물건나 많이 행가고 돈 뒀난 이젠 한국 들어간 빚 물어두고 밧 사고. 경허네 또 2년만이 또 밀항해연 오란. 밀항해 온 건 다음은 저 구주.

규슈.

- 사세호엔 현디, 그디서 걸령 허난 이젠 그디도 강 빼어 오젠 허난 보석금 걸언, 경혜네 빼오란 허난 이젠 등록 맨들양 일본 살게시리. 갱 글로부터 죽장 일본 살앗주게. 경헨 사노렌 허난, 이젠 우리 아시도 오고 우리 오래비도 오곡 한국서 직업 시원 안 허고게, 돈 벌 디가 엇이난 또 일본 오란.

- 경허난 우리 어머니 곁는 말이 그 말이주게. 딸 시성제, 우이로 시성제 중이 느ㄹ추룩 호강현 아이 엇덴. 학교 무똥에도 텅기곡.

- 경허난 그거 물건 돈 うんぱんしゃ로 큰큰헌 큰 차로 혼 번에 혼 천 필쭙 물건 들어오주게. 生地おろし問屋에서 경허민 그것도 돈 수정 세여근에이 이만이 들어오랏젠 현 문서 허영 봐 두지 안 허민 안 뒀주게.[197] 물건 시꺼온 사름신디, 경허고 물건 たち 현 거 돈 내치는 것도 수정 세명 아무 집이 멧장 간 거 돈 기록헨 나두지 앗으민 안 뒀주게.[198] 부속품이고 무시거고, 경허명 이제 트명엔 미싱일허고.

계난 어머니가 사무일을 다 봐준 건게예?

- 어 거자 단도리(だんどり).

- 경허난이 나 스물으덱 스물일곱에 시집 갓주만은, 늙은 시집간. 경허난 우리 집 딸덜은 나, 어머니 시대엔 특허게 시집가는 디 늙어 시집, 나이 하네 시집가나난 새각시 굿어 부난 중진 아니 오란 제기 시집 못간 거 아니우과?

- 스물일곱에 시집 간.

아이구 스무두 살에 경 와근에 일만 일만 헛수과?

- 응 일만개, 일도 경 엇어주게, 처음엔. 양복 したばり칩이 강 허민 아침 으둡시로 밤 열 두시꺼지 허여근에이, 이백 원이야데 하루 이백 원, やみ 쓸은 이 혼 말에 대싱 혼 말에 천팔백 원.

이백 원이면 혼 달에 이백 원?

- 하루에. 경허민이 미싱, 미싱 불루는 しょくにん달이 くせ가 나빠근에이[199] かんじょう 타지민 술이나 먹고 놀음이나 허고 돈 떨어져사 일허레 오주게.[200] 양복쟁이덜, 막 행실 나빠근에. 게민 우린이 그거 したばり 허주게.[201] 주어는 거 몬 アイロン かけ허명 몬 꺼끄 명 ミン 일 허기 좋게시리[202] 몬 허는디 미싱 가게가 일 허여사 우리가 일 있는 거 주. 게민 혼 달 출입헨에이 일헌 것이 열흘빠끼 못헌 거라.

그냥 그냥 나는 일허레 가신디 안 와부난 공친 거?

- 아니 그 しょくにん ミン 가게가 일 아니 오는 거. 게난 열흘을 일헤네 돈 이천 원. 이천 원이민이 쓸 대싱 혼 말 받으민 메기, 끝이라. 그런 시절이 잇어 낫주게. 게난 나뿐 아니라 처음 온 사름덜 다 그거. 경허난 미싱 양복, 그땐 막 양복이 세월난이 일이 바빠 낫주게.[203] 깡헌디 쪼금만 재주신 사름덜은 ミン 가게 헨 돈 버는디, 그 ミン 가게 덜 이 놀음 이나 허고 술 이나 먹고 かんじょう 많이 타민 かんじょう 타지민 경허명 일을 아니 나오는 거라.

경헨 지냈던 게 한 몇 년?

- 경헤네이 혼 삼년. 경허다가 우리 성님네가 우메다(梅田)서나 이제 오사카서 그디 몬 엇어졌주만은 우메다서 장서허게 웨난 성님네 일 파탄에 ミン 혼 차 놔네, 그때 モー ター ミン 도 아니고 足踏み야, 발 ミン, 공업용 이주마는 그 시절에 발 ミン 으로 블루명 그 하루 백 장은 주웠 주게.[204] 경헤네 혼 두해 지난 モー ター ミン 이 나왕[205] モー ター 로 블룸 게 웨언[206] 경헨 나가 ミン 일을 혼 스십 년 헌 거라.

계속, 그 언니네 브라우스 마튼 거?

- 경헤네 우리 성님, 셋성님 죽어 불고, 경헤네 그 일을 못허게 웨난 이젠 일본 칩이 問屋 에 턴, 경허난 ワンピース 마튼 거 ブラウ 스 마튼 거 이런 ズボン 마튼 거 이런 スカート, 경헤근에 아침 으둑 시에 ミン 일 얏으민 밤 혼 열두 시꺼지, 경헤연 뱅신 웨여네 영 건 지도 못허고 허리 도 아프고 햐 주게. 돈 번 건 엇고.

- 난 일본서 난에 일본서 경 제주 들어가 난, 세 달은 거 엔 헨 나 말은 상대 안 헤 연.[207] 세 달 양. ‘을’ 말 못 썩.

- 경허난이 일본말은이 못 알아먹는 말도 엇고 곶 는 말 도 다 곶 아 지고, 벨 헌 말 이 라 도 다 알 아 지 꼭 허 주 만 은 우 리 한 국 말 은 서 툄 영 이.

근디, 제주도말 완전 잘 햐신디마썩.

- 경허난이 이제 저 몰레 뜸허레, 이 무렵 아판에 혼 십년 전 이 부 터 연 속 으로 혼 오 년 땡 겻 주 게. 우 리 삼 양 몰 레 뜸 허 는 디 가 잇 이 난.

어디?

- 삼양. 우리 유명한 옛날 로 부 터 땡 백 년 전 이 부 터 몰 레 뜸 허 는 약 웨 는 몰 레 판 이 잇 주 게.[208] 경허난 나가 지 금 십 년 전 에, 십 오 년 전 에 몰 레 뜸 허 레 강 허 민 이 나 만 제 죽

사람이야, 문 표준말. 경허난 아이덜도 할머니 곁는 말 알아듣지 못 허켄. 거난 나가 일본에 제주도 사투리.

- 경허디 할아버지덜은이 표준말 쓰는 때문에 제주 사투리 얼마 아니쓰주게. 경허난 우리 아버지네도 고향 잇는 때, 제주도말 아니써 표준말 쓰지. 우리 아바진 말 좋은 어른 이난 이제 서울에 강 허민 서울말 쓰고 부산도, 경상도 강허민 경상도 말 쓰고 전라도 가민 전라도 말 쓴덴 해근에 유명허주게 우리 친정아바지. 참, 광주 고등재판에 간에 이, 증언으로 가네 말허는디, 고등재판이 판서허고 변호사가 겁났젠.

뫼 때문에 증언으로 강 말허는디?

- 제주도 옛날엔 게 집 사도 이동 안해근에 그냥 내불어 낫주게. 경허난 오대 자손이 할 아버지 이름으로 이름이 헤영 잇이난 지거엔헨 빼앗젠 헨거라. 경허난 그거 우리 고모 님 딸인디, 재판 걸영 허난 제주도에선 허난 지연. 지연 허난 이제 고등재판에 간 걸영 허난 증언은 우리 아버지라 증언해줍젠 헤연[209] 이제 광주 재판에 간 허난이 이제 판서영 변호서영 겁났젠.

- 응 말해 부난. 우리 제주도엔 이제 그 쪽허게 옛날 사람이 살아온 옛말을 허는 거라 이제 문 아니 줌그는 거, 도둑 엇어근에 인심 좋은 거, 사람 좋아근에 밧 폴아도 이동 안허는 거 그런거 밧 대씩나 행 살아온 말 쪽허게 곱으난이, 변호서허고 저 판서가 겁났젠. 제주도 양반에서 이렇게 말 잘허는 사름 처음 보고렌. 경해근에 재판 이견 오란.

어머니 아버지 닳았구나?

- 아니 난 아버지 미치지도 못허여. 우리 아바진 정말로나, 침 저 밑에서 유명한 아바 지주마는 저 우리 동네사름 일본 오랏단에 우리 아덜덜 니네 아버지 때문에 막 가난헤 여근 못살 때 살아나신에 허판데, 어떻헨 따쭈 허난, 그 칠십 년도에 제주도에도 막 가난했주게. 경허난 그 저 할아버지대엔 부제난, 아버지대엔 문 재산 폴아 먹영 아무것도 엇이난 그 손지대엔 이제 양 질왕 허민이 거 병작 받아근에 새끼 낭 허민 새끼 두 개 받는 생이라[210] 양 질루민.

- 경허난 이제 그 양 키와 도렌 허는 양 임제가이 그 사람덜신디 가네 그걸 키웁게서리 줍젠 허난에 이제 보증을 아버지가 문 재산 폴아 먹어네 가난헤노난 문 놈의 돈 빚저 먹고 헤노난 신용 못 헨 그 아이덜은 암전헤도게 아버지가 행실이 나빠노난 경허난 느넨 보난 불쌍허주만은 보증 앓을 사름이 엇이민 느네신디 양 키와 도렌 못 허켄. 경허난 이제 우리 아버지신디 간 거라. 우리 아버지 그때 이른, 거자 으든 뉘 갈 때야, 경허난 어떻해근에 저 사름 자이네 저 아이네 보증 앓어줍서헨 우리 아버지 허는 말이, 나가 이제 팔십 뉘 가는 사름이 보증 앓으면 책임해근에 폴아 먹영 허민 나가 돈이라 도 내 뇌사 혈 거주만은 나 보증 앓으면 이제 돈 낼 즈신도 엇고 이제 경허난 난 이제 보증은 앓지 못허주만은 젊은 사름 막 보지 말아근에 하늘을 믿고 땅을 믿어근에 혼번 믿어근에 쥐 보렌. 경 곱으난 그 양 임제가이, 그 말 들언에이 아니 주질 못헨젠게. 아이덜 불쌍허여근에, 폴아먹는 거 눈으로 변히 알아져도. 경해도 우리 아버지 곁는 말 이나 젊은 사름 막 보지 말아근에 하늘님을 믿고 땅님을 믿어근에 혼번 믿어근에 주어 보렌. 경허네 그말 곁는 말에나 그 저 젊은, 어린사름덜나 신용은 엇주마는 그 말에 할 수 엇이 양 주영허난 경 곱게 키완에 숨션생이라. 놈의 양 질왕에, 우유도 빨아 먹고, 또 그 양 세막, 그 양 키웁는 디 그 기슨 새 헨거 미깡밧디 걸름이 잘 뉘는 생이라

[211] 경허민 미깡허는 사름덜나 돈 아정오랑 그 걸름 폴아 도렌헨 경허여근에 숨 쉬엇젠.

사람 살려신게.

- 어 경허난 우리 아바진이 우리신더래 시키는 말도 경 곧주게. 적이라도 원수웁 사름이라도 이녁집이 좃앙 오랑허민나 문전 나근에 후년 대접으로 곱게 대접헨 보내산덴.
- 적이 뵈젠 헤근에 싸웁젠 헤근에이 이녁집이 좃아오라근에 뉘 상대 안허민 아니 뵈덴. 이녁 집이 들어온 이상은나 손님이난 잘 행 보내산덴.[212] 경허고 집이 들어온 사름신디 인사 잘허고 물론 책허지 말아근에 공손허게시리나, 동녕바치 거추룩 뉘 헨 사름이라도 공손허게 어서웁서 헤근에 인사잘허고 그것이 사름 살아가는.

ご主人은 어떻게 만났수과?

- 主人은이 중진, 중진애비가 잇어근에이 중진 헤취근에.[213]

누가 중진해 줍디가? 삼양 사람이?

- 아니 아는 사름이게 영 살아가민 동네 사람광 아는 사름이 잇주게.[214] 경허민 이제 장개 못가는 새서방. 겐디 우리집이 우리 시집은 북촌이주게. 저 북촌. 그 세젠데, 우리 시아버님네이 대정 시대부터 일본 오란 산 어른이주게. 경허난 우리집이 주인이 지금 살아시민 나보다 내설 우이난 저, 昭和2年生まれや, 경허난 으든 으둑. 경허난 한국말도 몰르곡이, 우리 시어머님네 열네 설에 일본 오란 산 어른덜이난, 경허고 일본서 난 일본서 고향에 혼 번 못 가보고, 경헨 일본서 공부헨에 일본사름と 일체야.[215]
- 경허난 고향에도 혼 번 못 가보고 우리 시아버님도이 대정 시대에 지금 살아시민 백멧설이주만은이 열여섯으로부떠 탈의귀성해도 고향에 혼 번 못 가보고 고향에 갈 거주마는이 그 일본서게 総連系だから, 총련.
- 겨난 철 몰르게 커네 시아버님은 돈 벌언이 부재 노릇도 허고 막 돈 번 어른이난 아덜덜은 철을 몰른 거라.[216]

시아버님은 뉘 일을 해낫수과?

- 메리야스. 메리야스 영 짜는 거.

아 면 짜는 거?

- 어 면 짜는 거, 세타(セ夕) 같은 거.[217] 경허난 제국시대부터 그런 일을 허난 막 돈은 막 데며지게시리 번 어른덜이주게. 경해도이 철 몰르게시리 그리저리 허단 보난 돈도 늣 빚저 췌에 받지 못헨 것도 싣고.

경허난 ご主人은 고생 몰랑 큰 坊っちゃん인게?

- 어 고생 몰란. 坊っちゃん이야. 경허난 이 일본 사름 풍습으로이 사름이 악허지 못헤연 [218] 경허난이 이녁도 늣의 말 들어근에, 늣을 신용헤근에 보증 앓고 경허명이 이녁 신세가 가련허게 허영 살당 죽어 불엇주게. 일본여자 만난에 감추안에 십년 살고.

어무니 경 십년 감취 둔거는 나중에야 안 거?

- 죽게 뵈사. 죽을 병 걸런 죽게 뵈사 시경 보내언, 일본 사름. 경허도이 시경 보낸 허난 이젠 영 곱음도 부끄러운 말이주만은이 이젠 저 병원에 입원시켄에, 입원시켄에 그 여자신디 전화 걸언에 오랜 행 부름씨 시켜주게. 간호허렌 헤근에, 느광 혼디 살명 병난 것도 아는 거고,[219] 난 어떻사 살단 병 나신디사 몰르나 이제 다 보렌 헨에. 경허난 오란에 열 흐를만이 죽언게. 죽영허난 이젠 저 나 몰르켄 곱앗지 딸 시 성지 싣고 시

아버님네 시어머님네 잊어놓고 경호여도 돈 마탄에 영장허고 또 그 일본 사름신디도 그냥 가젠 허난 가지 말아근에, 이제 한국 사름은 ちゃんと 구양풀이도 허고 이녁도 영헨 おほらいしてもらって 영혜영 돈 걷어산덴 혜영 허난, 경허연에 이제 가게 웨난 돈 오만 원취네 보내 して. 지금으로부터 삼십오년 전에.

시아버님, 시어머님은 막 애껴주시고 어머니를?

- 으 아덜 못 낳젠 혜근에 쿠속은 아니 쥬. 큰아덜이곡 허난이 우리 메뉴리 아덜 못 나 근에 헛젠 현 그런 말은 안 허연.[220] 아덜이란 아니 나도 못 나도 좋으난에 딸이라도 열 성제 나렌 굴아낫주게 딸도 귀한 집이난. 딸이라도 많이 나민 좋으난에, 경해도 나가나 딸 시성지빼끼 낫지 못허연. 경해도 그 딸 시성제도나, 아니 난 것보다는 좋아. 저 다심, 놀 난 애기 키웁지 안 허고[221] 이녁 난 애기로 혜근에 고생허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이거 무신 때문에 나저신고 현 것도 엇고, 경해도 그 딸 시성지에서 아덜 시성지에 딸 성제 손지덜 다섯 오누이 보고, 경허네 돈 손지덜 돈 대학 웨나 아니 웨나 대학 시키고 딸덜이 돈. 경 손손지도 보고.

- 어 경허난이 욕심이엔 현게, 사름이 욕심 버리민 사는 거라. 경허난 실허게시리 그 신용 잇인디 또 그 엇인 사름은 たのもし 들어근에, 아기들 시집갈 때도 노력와근에 무시 거 이부자리도 해주곡, 경혜근에 들들이 벤리 물어 허민게.[222]

그럼 たのもし 시작할 때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

- 순서이, 노력게 웨민 새 델에쫘 이녁이 쓰고프민 가근에 おや신디 강 굴주게.[223] 미리 굴양 이번 たのもし 노력와 쥬서 영 정헨 쓰게 웨수다 허민 오야가이 아기괘가이 노력우는 사름이 신용이 좋으면 노력와 주고 경 안혜영 신용 엇인 사름은 이거영 저거영 노력울 사름 잇영 핑계허멍 아니 노력와 주주게.

아 무슨 말인지 알쿠다. 거난 먼저 내린 사름이 신용이 좋은 사람 아니예. 신용 안 좋은 사름은 막 끌등.

- 어어. 핑계 허멍 아니 노력와 주주게.

그럼 어머니는 たのもし 한 번에 몇 개 정도 해낫수과?

- たのもし, 늬의 집이 신용 좋은 어른신디나, 삼만 원짜리 현 다섯 구지쫘 들어낫주 게.[224] 흔델에 현 십오만 원.

아이구 적금 하영 들어신게.

- 어 경혜연 그걸로 혜근에 딸덜 일 멩김 시작허난 현 델에 오만 원 주주게. 경허민 오만 원 받아노민 たのもし 들어 된. 갹 그거 구투왕 시집가게 웨민[225] 새각시 짐 혜여주 주게. ふとん이여 たんす여 무시거영 현 오백만 원 들어근에. 그거 노력와근에. 경 안허민 돈 어디 셔근에 출려줍니까?

- 응 오래오래 たのもし 오야 현 사름들. 경허난 엇인 사름은이, たのもし 엇어도 못 살주게. 우린 たのもし가 지난 살아젓구나헤져. 경허민 신용 좋게허는 때문에 강 굴으면 노력와 주주게. 열흘날꺼지 벤리 채와그네 원전허고 딱딱 가져가른, 막 말쑈 가가민 아니 들젠 혜도 들어 도렌헨 굴으레 오주게. 경허난 그런 것이 사름 살아가는 것이 신용이야. 거 짓말 말아근에. 경허난 욕심부리민 아니 웨주게. 경허난 우리 제주도 사름은나 たのもし 들어근에 ダイヤモンド 반지 허고 목걸이도 스몏 ダイヤモンド로 허여근에 막 흐느러지게

홉서 허는 사름덜은 말썸 웨민 돈 들러먹어してね.

- 들러 먹영, 쟁 우리 일본 살아도이 이런 거 자랑할 말이 아니주만은 이거 ろくおん행 가 근에 이제 제주도 사름덜 들영 옷시카부다.[226] 개 귀에 늘어진 ダイヤモンド 혼 번 찌어 보지 못허고 또 개 귀에 늘어진 ロレックス의 시계 혼 번 찌어 보지 못 해してるね.[227]
- 로렉스 시계 찌고정은 するね.[228] ダイヤモンド 반지영 찌고정 해도 이녁크로 사지는 못 허주게.[229] 돈 쓸디가 하노난. 우린이 조캐덜 하고 이제 동싱 하곡 헤노난이 그거 사젠 허민 충분히 살 능력은 있어도이 볼 디가 하부난. 조캐덜 성님네 아이 큰 성님네 집이가 으둡 오누이, 셋 성님네 집이가 다섯 오누이, 우리 아시네 집이가 서 오누이 경 허난 거, 동싱 조름에 조캐 조름에 보노랜 허민이 그런 ロレックスのとけいところか.

そかい헐 제주도 강 무신일 헤낫수과?

- 농서게. 검질 메곡.

어느 밧디?

- 이녁 밧디게. 조팠디, 우리 세계엔 감저가 많이 심영 허주게 계난 감저왔디, 조팠디, 산 디왔디, 콩밧디 그런 농서 지으는 일게.

농서 짓는 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밧디 가수과?

- 아침이 혼 으섯 시 웨민 밥 헤근에 점심 지어 아저근에 밧디 가난게.

누게랑?

- 어머님네영 나영, 검질 뇽이영 빌어근에.[230]

검질 뇽도 빌영. 계민 농서는 크게 지언.

- 으 크게.

계민 재산은 있어신게예?

- 겨난 밧디 농서헤근에이 이녁 밧디서 농서헐 걸로 살아시난이. 경헤근에 겨울에 이제 일 엇일 때 이젠 지들커 허레 가곡. 고사리 꺾으레만 아니 멩겨 밧주.

고사리 꺾으레는 무사 안 가수과? 그때?

- 걷지 못 헐 노난, 멀어 노난. 우리 세계선 고사리 잘 아니 나주게. 목장꺼지 걸어아장 가는 때문에. 지금은 즈동차 탕 멩기주만은. 겨난 우린 난 고사리 꺾어보지 못 허연.

- 경허난 지금은 차 타근에 막 먼먼헌 목장에덜 들어감주만은 우린이, 걸어아자근에 어 멩헐 그 먼 질을 가, 멩겨するの.[231]

물질은 안 헤 밧지예?

- 물질, 휘도 못허는디, 예순 나사 이디 プール에 간 휘여밧주.[232] プール에 간 돈 주어 근에 월사금 물언에 휘어서.

지금도 풀장에 다넘수과?

- 지금 이디 몸이 차잡는 때문에 아니 다넘서.[233] 훤 예순 하나에 멩길 때 뇽 휘는 거 보민 막 뭐 허난이 훤, 휘지 못 허연게, 걷는 거, 계난 월사금 물언에 훤 배완에이. 조 금 휘여지난이, 경 훤는 것도 어렵는 거라.[234] 숨 영, 계난 くらう이 くらう로 혼 二百メートルは 휘여. 이백은 휘여 영헤근에 이십メートル 열 번은 갔다왔다 허주게. 경헌디 이젠 가도 휘지 못허여 숨가빔.

계난 얘기 때 조천리 잇어서민 훤 건디?

- 경헌디 이젠 나이 들어가난이 물에 가도이 부끄러왕 휘지 못 헐게. 경헌단보난 경정

늡어져가고 이젠 7-에 간에 이 무렵 아프난 7-에 강 걸으민 뉘텐 허난[235] 이젠 그디 강 걷는디이 늡 휘는 거 보난 이제 막 불려완에 이제 월사금 물언에 휩 베완.[236] 하루 오백 원. 영헨 숨 쉬는 거영 경헌디 경 휘는 것도 어려완이 저 나 휘는 거 보안, 영 휘젠 헤가민이 골라앗아 불언게. 경허난 일본 사름덜나 영 헤근에 발 헤근에이 영 헤근에 쉼주크메 휘여보렌 헤근에, 일본 할망덜 친절허게 허여주주게.

제사에 생선은 뉘 올립니까?

- 생선은 저 지숙이, 불락 그튼 거 그자 옛날은. 지금은 조기 헤근에 올리주만은.[237]

옥돔 안 올립니까? 오토미?

- 오토미 올리주게, 경허주만은 우리 고향에 있는 뉘 경 그런 오토미도 아무상 잇이 못 사주게. 게난 팔월 추석에 뉘민 불락, 그런 거 사근에 몰류와근에 지숙 쓰주게.[238]

독재기 국은 어떻게 끝립니까?

- 그건 물 꿰와근에이[239] 우리 잇는 뉘 지금은 꿰기도 흐느러지주마는 옛날은 사름은 하고 이제 큰큰헌 서말뜨기에서 국 깔리주게 우리 집인 사름 하영 오는 때문에 경허민 지숙 뉘지고기, 독재기 적갈허여근에 옆으로 남은 거 잇잖여 꺾갱이 같은 거 그런 거 낡 허민, 그런 거 그차 놓고 헤근에 큰 대접으로 이 하나썸 뉘 거 허여근에 서말뜨기에 뇌근에 국 깔려근에 놉빼 썰어낡 국 깔리주게, 꺾국. 경허여근에 꺾 올려난 다음은 느려왕 허민 이제 그 제관덜 손지덜이영 뉘 그 곤밥 혼 직씩 국 걸여 놓고 허여근에 뉘.

애기 날 때는 산파씨가 와가지고 애기 낡는 거 다, 뉘 낡고 허는 거 다?

- 어 뉘 헤여주고 뉘 배똥줄도 끈여 주고, 경 아기 물 꿰와근에, 산파씨는 들어오라가민 큰숫에 물 꿰우주게 가스에, 겐 물 아기낡 허민 たい에 저 물 아기 목욕시키기 좋게 시리[240] 뉘 물헤근에 아기 목욕시키주게.

산파상이 먹을 것도 헤주고?

- 먹을 건 아니. 경허민 먹을 건 우리 시어머니 탄약방에 가근에 약 짓어다근에 무시거 먹기 전이 탄약 먹어사 효과 잇넨 헤근에. 경헤근에.

경해도 호강헤시게. 애기낡 탄약먹고 헤시민.

- 어 호강 우리 시어머님은 뉘 경헤영 맥여쥬. 병원에서 나도 탄약헨 오라근에 맥여주고.

산파는 며칠 읍니까?

- 일뉘 동안 앓다갓다 허주게. 그뉘 왕 목욕 시켜근에, 아기 뉘 이 입 소꿍에도 뉘 시치 꼭 경헤연 아기 막 깨끗이 시쳐주주게. 경헤그네나 우리 시어머님은 산파씨 오랑 간 후에 또 손지 목욕시키는 디 독세기 흰 거 흰 거 잇지 안허여 그걸로 뉘 시쳐쥬, 이런 조꿍뉘영.

독세기 흰 걸로 시치민 좋은 거마썸?

- 경허민 그 배 소꿍이 태독이 뉘 깨끗이 엇어진뉘 헤근에, 경헤네 아이덜 にきび 혼 번 나보지 안헤서.

아 피부가 경허민?

- 어 깨끗헤연. 게난 우리 손지덜토나 시어머님허는 거 보명 병원에서 뉘원헨 나오민 나가 목욕시킬 때 독세기 흰 거, 노린 거 말아 흰 거만 헤여근에 뉘 뉘도 시쳐주고 이런

디영 저깅이영 문 좋아리영 조금탱이영 문 시쳐주주게 경허난 손지덜 にかびでへん.[241]
소나이덜토.

큰 딸은 스물 여덟에 낳고, 셋딸은?

- 셋딸은 서른에 낳고.

막내는?

- 서른 시에 낳고.

혹시 뭐 태몽 같은 거 꿈 거 잇수과?

- 어 엇어, 뭐 꿈이나 싯곡.

꽃 이시난 딸이주.

- 경허난게 꽃 싯곡 허난, 꽃이나 시꾸와근에.[242]

병원에서 며칠 만에 퇴원합니까?

- 흔 일퀘,

병원에서 다 해주곡?

- 목욕시켜주곡 밥 헤어주고 경해도 집이서 아기난 어멍 배고픈데 헤어근에 우리 한국사 랍덜은 므물초배기 행 아정 강 맥이주게.[243]

므물이 피?

- 어 피 삭아진덴 헤어근에 곳인 피 문 느린덴 헤근에 므물크루 사다근에 낫다근에 므물 초배기헤근에 아정 강허민 우리대에 먹엇주만은 우리 아이덜대엔 아니 먹언. 솔진덴, 아니 먹나.

솔진덴?

- 우리대에 옛날에 부제칩이 메뉴리베끼-므물초배기도 먹지 못 헛주게. 우리 고향에 잇는 때엔 경 아무상 엇이 못 먹어서. 부제칩이 메뉴리나 므물초배기 헤영 맥이주. 겐디 일본서이 쉬운 세계난이 경헤근에 우리 대에덜은 시어머님덜 이넉크로도 사당 놔둬서 헤영 먹주게. 경허주만은 요셋 아이덜은 아니 먹어. 병원에서 나온 것베끼 아니 먹어. 우리 아기 낳허민 막 배고프주게 게난 무시거 먹고장 헤근에 먹당 보민 몸덩어리만 이만이 솔지곡.

많이 먹어야 젓도 나오고 혈 거 아니과?

- 경헌디 젓이 아니 나오란게. 젓이 나오는 사람은이 젓 맥이는 때문에 솔지지 안허주마는 젓 아니 나는 사람은이.

어머니 젓 안 나완?

- 아니 나오란.

경 분유 맥연?

- 우유, ミルク, 경허난 딸 시성제 키웁는 것도 못 전던게. 밤이 좀 아니잔. 버릇 곳어, 산름이 즈들젠 허민이, 아기도 버릇 곳어수른.[244] 밤이 좀 아니 자고이, 젓도 잘 아니 물고, 갹 먹기 쉬운 걸로, ミルク 허민 움막움막 먹고이. 경허건 참 사름 살아가는 대로. 아기 낳는 것도 아기 버릇 좋은 것도. 경허난 옛날 어른덜이 곱는 말이 맞은 말이라. 옛날 어른들이나 사름이 즈들젠 허민이 아이들 곱는 말 아니 듣고 어린 때 버릇 곳언 좀 아니 재와 주곡, 경헌덴 현 말이 맞은 말이야.

기저귀는?

- 그 시절엔 지성귀계. (지성귀) 히여근에 낫다근에 경허난 멩질날 しょうがつ 멩질날도나 지성귀 빨지 안허민 지성귀가 엇주게.[245] 이젠 돈 --だけど 엇날은 지성귀.

그거 맨날 맨날 빨앙 널어?

- 빨앙 널어그네.

그건 어머니가 다 헛거 아니?

- 아니 그건 시어머님 신 집인 시어머님이 오랑 해주곡, 또 근처의 사람이라도이 친절허민 오랑 해주곡 서로 도와 쥐근에 일본선이 서로가 친절허메, 얘기날 때 먹을 것도 헤다주고 맥이곡. 쟁헤연 인심이 좋주마는 이젠 그런 인심이 엇어.

옆이 살명 서로 도웨어 주멍 살아신디.

- 오 たのもし도 서로 せわ 헤 주멍이, 돈도 서로 벤리 엇인 돈나 꾸멍 씨곡,[246] 또 쓸도 쓸 받을 돈도 엇어, 경허민 이젠 이웃침이 강 곶아근에 쓸 엇으며 아무날꺼지 끼와십센 헨 쓸도 꾸어당 먹곡, 웬장도 꾸어당 먹곡, 경허멍 살아오라서.

얘기 나근에 며칠만이 일했수과?

- 얘기 나근에 혼 스무날은 일 안허주게. 몸 조리, 우리 시어머님은 혼 둘은 일 안 시켜. 삼칠일은 넘어사

- 오 늙어가민이 병신편헨 헨.

어쨌든 시어님네 잘 만나신게?

- 우리 시어머님은나 늙어근에 몸이 건강헤사 산헨 헤근에[247] 경 메뉴리 송 보진 안헤 시난이.[248]

어무니 때도 낭불 진엇수과?

- 어 낭불, 보리낭칠에 보리낭불.

- 숯, 저 밥 헤나민 그 불이 잇주게, 불 잇는 거, 일본말로 곶으민 게쓰미(けずみ)야, 게민 그거 놘근에 간테기(かんでき)에 놘둬서 거기서 반찬도 지지고 고기도 굽곡[249] 이제 국도 깔리고 남비에서. 밥만 숯덕에서 헤여근에.

아 그럼 밥 헐 때는 낭불로 허고 그거 헤난 잔불 간테기(かんでき)에 낱?

- 간테기(かんでき)에 놘근에,

그럼 물은 어디서 데퍼?

- 뜨신 물은 그 간테기(かんでき)에서게 불 살를 때.[250] 밥헤난 잉겔헤근에, 쟁헨 또 그 잉겔이 엇이민이, 저 숯, 숯 사당 놘둬서이 그 밥 헤난 잉겔이 그 단지 소꿍에 담앙 놘뉘네 끼와 두주게, 끼와 두민 그거 불 살르기가 주게 게쓰미(けずみ)렌 헤근에, 쟁헤근에 신문감이이라도 놘뉘네 불 살라근에 이제 그 우터레 이제 숯 놘근에 이제 국도 깔리고[251] 식구 하지 않은 집은 밥도 허고 간테기에서 냄비에서 쓸 씻어근에 밥도 허곡 국도 깔리고 반찬도 지지곡[252] 또 저 고기도 굽곡 바닷고기.

- 일본도나 가난헤연 엇날은 가난허연이, 경 집집마다 고기도 먹지 못헤서. 일본 사름덜 막 조냥허는 나라난이, 아책이민 밥허곡 장죽, 웬장죽에도 국, 우리 한국 사름덜은 둥비라도 하영 낱 깔리주만은 일본 사름은 혼 사름이이 둥비 요만씩 헨 거 두 개. 쟁헤근에 마농 썰어 놘근에 티와근에 먹주게.[253] 쟁헨 다짱 짐치 잇지 안허여, 그거 두 개 많지도 아니 썰어낱 혼 사름이 두 점.

어머니넨 어떻헐 먹엇수과?

- 우리도 경헐 먹엇주게. 우린 한국 사람이난 우리 어머니이, 저 일본 그 시장에서 ほかい거튼 거 채해근에 내껴 불주게 푸린 거, 그런 거 좃어다근에 경해근에 멜젿 놉근에 짐치헐 먹엇주게. 늑뻬 텡카리, 싣파리도 몬 내껴분 거 봉가당 우리 어머니네, 우리 어머니네 온 때 대강 경허멍 먹어서. 내껴분 거 봉가당 ㄴ물은 사지 못허여 돈 엇언.

어디서 봉가당

- 시장에서게 いちば에서 ほかい 촌에서 몬 시꺼 오랑 허민 헤영게 벳겨근에이, 헤영게 배추 몬 내농곡 무수도 이파리 몬 그차근에이 무수만 내 노민 그 이파리 몬 봉가다근에 멜젿 담아근에 짐치헐 먹엇주게.

여기서 태어나서 오사카에 살 때 일본말 써낫수과?

- 어머니이 일본말 몰라노난 우리 제주도말 썻수게게. 어무니가 일본말 몰르고 우리 아버지가 きびしいね.[254]

뭐가 きびしい?

- 놈의 나라장 살아도 이녁 나라말 써산덴. 경허난 두린 때부떠양 우리 형제 간들은 몬 제주도 사투리말 씽니다.[255]

어무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얘기할 때는 제줏말로?

- 예, 아버지가 일본말로 こうですか, あですか 헛당은 막 욱헐주게. 버릇쟁이 엇이, 놈의 나라 살아도 이녁 나라말 써산덴. 갱허고 어머니도 일본말 몰르는 때문에 즈연히 일본말, 한국말 쓰게 텡 거라마썽.
- 경허난 정말로 우리도나, 나가 우경 아니 가부난 아이덜토 일본학교 텡기곡, 이디 조선학교가 뻬더낫수다게. 경해근에 조선학교에서 막 선전 오라근에, 이목 몬 총련사름인디 우리집이만 민단이라낫수다.

경허민 이지메 안 당해낫수과 어디서?

- いじめる허민 대양헐주게, 이지메 당허게시리 ㄴ만이 속속허연 들읍니까? 무시거엔 오라 그네 선전해가민, 아이구 제주도에서 난 스삼사건에 경험헌 사름이난 우리 집이 오랑 경 선전허지 맏서.[256]

아, 경 굴멍?

- 경 굴으멍나 민단에선나 회비 받으레 오민 영해근에 속솨해근에 내 농곡, 총련에도 회비 받으레 오랑, 경허민 나 아니 내쿠다 헤연. 우린 총련 아니난 못 내쿠덴. 경허민 이거니 저거니 굴아가가민, 아이고 선전허지 맏서, 우린 제주도에서 스삼사건에 몬 경험 헤시난양, 사름죽이는 스상이난.

아, 경 마을에서 회비 받으레 다넛니까? 민단이랑 총련이랑?

- 예, 민단은 이제도 받으레 텡깁니다. 경헌디양 총련은 이제 만이, 이제는 받으레 못 텡기지.

- 아이고 헐 동안은 민단은 약허고 총련은 썸곡, 아이덜토 몬 조선학교 보내곡, 경허난 우리 아이덜토, 이 동네 아이덜 몬 조선학교우다게. 경허민 이제 학교, 조선학교 보내랜 허민, 우린 가난헌 사름이난 조선학교 못 보내쿠다 허민 무사 못 보내쿠덴 험수겐 허민, 조선학교도나 돈 신 집이 기부 많이 헌 집이 아기덜은 총 우등생을 주곡, 성적 나빠도, 또 아이덜토 우 앞져주곡.[257] 경헌디 가난헌 집이 아기덜은나, 저 기부도 아

내고, 월사금도 줄바로 내지 못해주게. 이 일본학교는 의무교육이난 돈 아니 내봐도 돼 주만은, 조선학판 돈 내봐사. 경허난 우리 가난헌 사름은 경 민족공부 못 시키쿠편. 경 허고 민족공부엔 헌 건 가, 가, 거, 거, 나라역사나 허곡 한글이나 배우민 다 알아먹는 거난나, 돈 옛날도 부제칩이 아기덜은 유학도 일본 유학꺼지 오랏주만은 일본 살명 무 신따문에 조선 공부헙니까? 오지 맘센 헤근에.

- 우리 말젧아버지도 제주에서 한국 학교 나오란에, 그 마을 사름 몰르게시리 슬쩍슬쩍 스상으로 운동헤헌 허난,[258] 우리 켜당 할마님 오라방이 아덜이 제국시대 순스로 잇 어근에[259] 헤영헌 옷 입어근에 칼창 다니는 순스가 잇어낫주게, 경 그 조케가 시난 나 심어 갓당이라도 나오라 낫주게, 조케가 보증 앓아근에. 게난 그자 우린 어느 신문 을 보카, 역사도 뱀도 못 허고 허난에 게난 분시 몰랑[260] 그자 무신 운동을 험신가 허단 보난, 우리나라 뺏겨 부난 그 조선 독립시키젠 헤네 운동헌 거라. 학자덜. 그때 경허난 중국으로 간 사람덜도 그 '토지'엔 헌 비디오 보난이, 토지엔 헌 비디오 봐사 처 음으로 알앗주게.

그 긴 거 다 봤수과?

- 응, 경허난 이 토지엔 헌 비디오 본 때 처음으로 아 우리 조선 나라 침략 당해 부난에 그때 정치가덜 도망친 사람덜, 또 이제 학자덜 그런 사름덜이 먼 중국으로 하간 디 러 시아로 가네나 조선 독립 운동을 헛구나 헨에, 그때 조선 좇아 놓젠 헨에 운동헌 사름 덜이 이제 사회주의자엔 헤근에 일본 정부에서덜은 그 사름덜 심어다 뇌근에 막 취조 를 허명 유치장에. 경허난 공산주이자 돼젠 헤근에 사회주이자 아니. 경허난 분시 몰라 네 경허난, 소련 그 공산주이가이 칠십년만이 씨러젧주게, 칠십년빼끼 못헤먹엇주게 경 허난이 그 시절에 조선나라 운동헌 탕긴 사름덜이 백십 명쯤 된 거 아니 나라 뺏겨분 후에 경헌디 그때 막 일본놈들 막 그냥 하간 거엔 굴아근에 총 혼번 맞혀보지 안허헌 우리나라 뺏겨젠 허주게. 나이 한 어른덜이 곁는 거 들으민, 우리아바지도 곁는 거 들 으민, 우리아바지도 경, 저 양반 쌍것만 구별허단 보난 우리나라 여우똥은 일본 아이덜 안티 나라 뺏겨젠. 양반 쌍것만 골리고 그냥 담뱃대 흥걸치단 보난이. 경허난 여우똥은 나 일본놈덜 들어오란에 나라뺏겨젠, 게난 일본나란 여우야. <전화벨 소리> もしもし, はい, 元気だけどきのうありがとうな. <전화 끊고> 큰 뜰. 어제 어버이날이난 돈 보내언게. [261]

- 일본이 경허난이 정 흥그렁 망그렁 허고 호소만 허민나 잘먹고 허당 보민 북조선에서 전장 들어오라도 이길 힘이 었어. 경허난 북조선은 막 장악헤근에 한국 나라 이제 전 장이라도 허여보주게 혀영, 막 사름 굶지명도 혼련 시키명 경허는디 한국은 그게 아니 엔. [262] 경허난 저 어른 배 사고 난 것도 사름 하나 줄바로 살리지 못허고나 기술이 부족허고 박대통령 ブライド만 높아네나 늙안티나 옛말이나 곁고 경 험젠[263] 일본 나라 에 옛말 곁암젠, 경허난 옛말 곁는 거 좋주게. 경허주마는 이제 이녀 요구혈 거랑 요구 허명 옛말 곁으민 좋을 건디 조금 고집볼통이라.
- 즈격이 었주게. 경헌디이 일본 공부헤노난 한국강 한 오년 동안 사는디이, 글이엔 헌 건 씨먹을 것이 하나토 었어. 어디 신문이 시카, 경허고 난 한글 배웁지 못헤여 노난이 한글은 몰르지이[264] 경허난 우리 고향에 잇는 댜이 신문도 었고 책도 었고 テレビ도 었고 라디오 방송도 었고 헤노난이, 그자 까망눈으로 살아근에 저 시장에 가도 그냥

말로만 곧고. 경허난이 공부한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소학교 삼학년까지 다니던 제주 가서 일학년 들어가난 말 몰를 거 아니파?

- 잘 몰란게. 경허도 집이선이, 우리 아버지가 놈의 나라강 살아도 이녁 집안이선 우리말 써산텐 허곡 우리어머님이 일본말 몰라노난이 집이선 어린 때라도 조선말 췌주게. 걸 지픈 말은 못 알아도.[265]

글은 몰라도 말은 다 알아졌구나예.

- 어 곧는 말은 다 알아들언. 계난 어머님 まどめ하고 성님네 일 텡기곡 경해건나 이제 정 말로 침 가난허게 살아근에 그뻐 온 어른들은 모두 고생헨 살앗주게. 경헨에 이젠 허 단보난 쪼금 일이라도 이녁크로 머리 존 어른들은 이녁크로 アルミ 공장 출령헌 사름도, 또 철공소 일 시작허는 사름덜 다 헤근에 그 췌은 사름덜이 몬 놈의 일본침이 강 제주 배와근에 조그만헌 집이서나, 이녁크로 일허명 돈 벌명 사는디 이제 공십은 나가난 몬 피난으로이 촌, 일본 촌에간 사름덜은 성공허고 고향에, 서울 거튼디 제주도 간 사름덜은 성공 못 헤연, 또 일본 몬 밀항으로 나오란 허난 자리 잡지 못헤연 또 새로 시작이야. 계속 잇어서민 모이ける 허주게.[266]

그때 내버던 들어갓던 사름덜은

- 계난 그때나 들어가지 안 허연 그냥 산 사름덜은 등록도 몬 췌주게. 경헨디 밀항으로 갓다운 사름덜은 즈수헨 등록 멘들아 노난[267] 밀항자가 웨어 노난이, 우리도 관리청에 가근에 연기 시킴주게, 밀항자 등록이엔 헨.

몇 년 몇 년씩?

- 아니 그런 건 아니헤도. 경허난이 하간 것이 그 여기서 사는, 저 자, 봐준텐 헤도이 제라허게시리 전장 일어나기 전이부떠 그 군대환으로 일본 오란에 그대로 산 사름 자격과, 도중에 갓다운 사름 자격이 뜯나주게.[268]

경해도 어머닌 여기서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증명이 잇이난?

- 응 경허난 등록은 나오란, 아이덜도 몬 영주권 잇고이, 아이덜도 몬 귀화허젠 허민 [269] 귀화허여도 난 귀화 못허주게. 밀항으로 오라부난.

영주권은 원래 살던 사람이랑 틀리구나

- 틀린, 사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틀린주 알암서. 경허난이 우린이, 정말로 그전이 그런 법이 엇인디, 한국에서 하도 이거니 저거니 헤가민 일본 교포들이 살기가이 힘들주게.

- 경허고 우리 연세의 사름덜은나 공부 안헤노난 テレビ 봐도 意味が分からへんよ. 意味が分からへん. 경헨디 우린 쪼금이라도 바농귀만이 배우난 テレビ에서 곧는 말도 다 의밀 알아지고 나라 정치 웨어 가는 것도 알아지곡 허난, 경허난 어제도 그 テレビ에서 곧는 거 들으난이, 한국서 현재가나 한국사름덜은 일본보다 이기노렌 헤근에 알아도 이기는 거 엇젠. 뒤떨어 져젠. 뒤떨어 져주게. 경허난이 즈동차도 현대또까(とか) 대우또까(とか) 헤근에[270] 한국서 즈동차를 많이 만들앙 허여도 가소린(ガソリン)을 많이 먹는 췌이라. 한국서 개발헌 거. 경헨디 일본은나 그 외국에서 일본차를 무사 많이 알아주는고 허민, 가솔린을 많이 아니 두나, 계난 이젠 일본차 알아준텐. 경해근에 일본 나라 이기노라 이기노라 ,기술이고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라도 일본 나라 이기노라 이기노라 헤도 이기는 거 엇젠. 뒤떨어전, 50년 뒤떨어 져젠 경 굴안게.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일본 아이덜이 어머니 조선 사람이라는 거 알았수과?

- 풀리주게. 응 알아그네 朝鮮人ニンニク臭い, 풀려.

이지메 당했어요?

- 응 그때 그 시절엔 일본 사름덜 닌니크 아니 먹고, 또 우리 어머님네 집이서나 마농지시, 이제 저 조선이치바가이 혼 백년 똬, 백년 똬 조선시장이주게.

그길 아니고 뒷길에예?

- 아니, 그 길에 그대로. 경허난 그디 가근에이, 어디서사 오는다사 마농 사다근에 마농 철에 마농지시허민 그 마농지시로 밥 먹으민, <さいね. 일본사름 하나토 닌니크 아니 먹을 때야. 경허민 朝鮮ニンニクくさい 허덴 헤근에 풀리주게. 쟁허민 이제 난 경 곶는 아이 뚜드려 불주게. 뚜드러민 가이가 울어근에 선생신디 가근에이 이제 金さん안티 맞고 렌 허민 선생이 나 불려다 뇌근에이 무사 뚜드러민디 헤근에 이유 들주게. 쟁허민, '朝鮮ニンニクくさい言うからたたきました' 헨 곶으민이, 경 곶으민 아니 똬덴. 생도ㄴ라. 'そんな言ったらあかんで.'[271]

아 그 맞은 아이신디, 지집빠이 스나이

- 지집빠이게. 지집빠이 스나이덜이영게. 쟁허고 조센진이엔 허민 풀려져 풀려. 쟁헤근에 이 정말로 가난헨 조센진덜 한국서 살지 못허난이[272] 가난허난 일본 오라근에이, 학교에도 경 クラス에 혼 서너 사름쫘. 지집빠이 하나 둘 시나마나.

수업은 몇 시간 정도?

- 수업은이, 토요일날은 네 시간. 쟁헤근에 월요일날 오후에 혼 서너 시간 본 때 잇주게. 오전에는 안허고?

- 오전에도 허고, 오전에 네 시간.

그럼 점심은?

- 점심 べんとう 점심 쌍 가주게.[273] 쟁허민이 일본 아이덜은 헤영헌 밥에, 쟁허고이 일본사름도 가난헨에, 반찬 경 안헤근에 우메보시 잇지 안헤여, 그거 헤영헌 밥에 우메보시 허여근에 가운데 뇌근에, 그것이 반찬이야 우리도 쟁허고.

밥 먹긴 ㄴ치 앳앙 먹고?

- ㄴ치 앳앙, 쟁허난이 일본 아이덜토, 일본 사름덜토 그뎨 가난허난이 경 이제거추록 쟁멧 가지썩 허지 안 허주게. 독새기도 귀헌 때고, 독새기도 귀허곡이.

귀허난 특별한 날 먹고예?

- 으 쟁허난 うめぼし나 놓고 그자 かつおぶし 허여근에 장물에 그거 영헤근에 장물이며 지쳐근에 그 정도야. 일본 사름덜토이 지금도 나이 한 사름덜은 문착문착 잘 아니 먹주게. 쟁허난 월급은 싸도이 애기덜 민 공부 시켜근에 아책이 똬장국에 둥비 사다근에, 둥비 하나 사다근에 영 반 끈어근에 반은 저녁이 먹곡, 반에서 요만썩 그차근에 서너개 들이청 국에, 쟁 똬장국도 우리 한국 사름ㄴ추록 둥박허게시리 ㄴ물이라도 똬 먹지 안 허주게. 쟁헤근에 얹게시리 똬장, 똬장만 티와근에, 쟁헤근에 파나 ねぎ나 썰어뇌근에 먹곡.[274] 쟁헤근에 그자 닥광(たくあん)이나 먹곡 아침밥은.[275]

쟁헤도 어무니 학교 가는 거 좋앗수과? 집이서 놀다근에.

- 집이서 놀다근에 어린 때 놀단에 학교가게 똬난게, 영헨 가렌 허난 분시도 몰르구게. 성님 못 전디게 헤네 가는 중도 몰르고. 성님네 일헤난에 생활엔 우리 어머님네 쫘 밥 허여근에 마농지시나 허영.

- 갱혀난 그자 성님네나, 생활하여근에 돈 벌, 경해도 우리 어머님네 댁년 살아가가난, 집 해영 살안이. 경혀난 이층집 시난에 큰이모님네영 셋이모님네영 돈 오란에 살곡, 우리 아래서 살곡 경허명, 이제 저 성님네 얌전허게, 우리 큰 성님은 막 손 재난이, 저 득 터럭침이 댁기단에 혼 으남은 설 돼 가난, たび 영 해근에 이디 끼웁는 거 잇잔허여. 일본 たび, 오카다비 영 쉼로 해영. 그거 줍는 거 受け取り로 마트곡 허영, 허민이 남저 덜은 우리 큰성님 곁는 거 들으민, 남저덜은 혼 십삼 원 번덴게.

@ 다른 일 헛을 댁 얼마 버는디?

- 혼 10원 정도. 젠디 우리 성님은 십팔 원쫘, 손 재난. 受け取り로 허연에.[276]

아이구 막 일 잘허는 성님이구나!

- 어, 우리 큰성님 경허고 셋성님도 경허민게, 성제가 일허민 혼 삼십원 이상 돈 집이 들 어오고 어무닌 まとめ 허고.[277]

어쨌든 큰형님은 일반 다른 여자들이 허는 거 거의 두 배는 벌어신게예?

- 어 두 배. 경혀난이 どんぐり, 옛 잇잔여어. 그런 것이 일전 주민 으둑 개 주주게. 그때에 우리 성님네 십팔 원씩 반안에. 혼 열두어 설 돼 가난.

하루에 십팔 원?

- 혼 덜에.

- 우리 성님 고급으로 돈 많이 벌엇젠 허주게. 손 재난에. 그 공장 안에서도나, 지일 최고 로 타젠. 남저덜보다 더 타젠. 갱혀난 우리 셋성님도 경허명 일허명이 저, 경혀난 우리 집이 집도 상 살고, 우리 큰아바지 나 두릴 때이, 저 삼양학교 지으젠 허난 일본 사는 어른덜신디 기부 받으레 오란. 우리 큰아바지허고 우리 아바지 청년때에이, 혼 열여섯 쫘에 우리 므을 혼 서너 사름이 화재 지금 사라린이엔 현디 잇지 안허여. 그 화재에 석탄 타는 일 허레 오란. 석탄게 石炭 그거 파레 일허레 온 거라, 돈벌젠. 갱헤네 허난 막 배 고프고이 樵太엔 허민 화재 막 추운 디주게, 러시아 지금 러시아에 붙엇주만은 옛날은 그거 전장 전인 일본 꺼랏주게, 樵太엔 헨 지금 사할린 뵈주만은.

거기에 삼양 사람덜이 한 세 사람정도?

- 서너, 서너 너이가 이제, 아바지네 친구덜 이젠 열 혼 대여섯설에나, 오란에 그 석탄 파 레 돈 벌레 오란 현디 그냥 막 배고프고 열고 그냥 짐도 낭 허민 얼음 돼 불어, 추워 근에.[278] 경 막 춡고 못 전디고 굴 안에서 사고 당허민 죽곡. 경혀난 우리 큰아바지 가 우리 아바지신더레, 우리 아바지 장개가기 전인 쟁이라, 경혀난 이디서 이런 고생허 느니 고향에 들어가근에 듯듯헌 세계에서 밧 농서허명, 이녁 잇는 밧디서 농서허명 이제 사는 것이 펜안허주, 이디서 돈이 천만금 준텐 해도 이 추운 디서 사고 당허민 목 심 어느제 죽을티사 몰른디서 일허지 말아근에 우리 고향에 들어가젠 헨에 고향에 들 어갓젠 곁주게.

그럼 큰아버지랑 아버지도 간 거?

- 어

아이구 아버지 일 헤수다예.

- 그 때 갓다그네게, 혼 혼 덜쫘 해영 그냥 돌아온 거주게. 차비만 써네. 그뎁 저 증맹 아니헨 뵈 때난. 경혀난이 그때 우리 아바지네광 혼디 간 어른이 고향에 혼 번 오라보 지 못헤연 그냥, 질 막아전게.[279] 전장헨 지어부난. 질 막아져, 소련 공산주의 뵈에,

일본나라가 화태가 뺏겨 분거라. 소련안테. 공산주의 때, 경허난 전장허연 일본 나라가 지어 부난이 소련안테 그 화태가 樺太엔 헤그네, ちず엔 からふと엔 쓰주게.

- 옛날에 나 우리 죽은 고모님안티 들엇단에 한국 노인덜에 강 그 옛말 곶으난 막 그냥 막 침, 그 젊은 시대 때 말을 들어전 이런 재미난 말이 었텐 허명 막 반가이데견게. 우리 큰고모님네, 죽은고모님네, OO 어머님네 또 강뻥생이엔 헤그네 유멍헌 어른네, 또 용신이네 혼 일곱사름이 양태, 양태일청에서 양태덜 허는디, 그 안에도 옛날도 이지메가 잇는 생이라. 쫓리는 사름이 잇언. 경허난이 우리 고모님 곶는 말 들으민 막 배설이 그차지게 웃어지주게.[280] 경헤네 쫓리는 사름이 잇언에 게메 이거 혼 팔십년 전이 말 아니? 쟁허연에 이제 양태허단에이, OO 어머님네도 혼 스무나무 뉘나마나 헐 때난게, 쟁허난 이제 양태덜 허단에 아이고 영 느량 양태만 허젠 허난 뉘 심심허고 답답허텐 허여네 막 젊은 처녀, 청춘이난게 어디 가근에 감저라도 파당 청 먹게 허연. 이제 그 우리 동넨 감저가 심허게 허주게. 쟁허난 이제 감저 시월에 파단에 놀 놀어근에, 구멍이에 놀 놀언에 그 양태청에 혼디 일허는 아이네 집이 감저 놀어시난에 느네 집이 강 감저 파당 먹어도 좋으나 허난에 파당 먹고정 허민 파당 먹어도 좋주게게. 거 말텐허민 쫓리주게, 혼 으답사름이 양태허는디. 쟁허난 이제 모두 골채덜 아전에 일층에서 그 감저파레 강 현디나, 그 감저 임제 하르방이 보재기난 퀘기 낚으레 강 오단에 시월에 이, 브름 불영허난에 도중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죽은고모님은 이제 직허는디[281] 직허는디게 그디서 속습허영 직허시민 좋은디 지침이 나네게 지침허여 부난[282] 그 하르방이 감저 임제 하르방이 이제 들린 거라게. 들리난 거 누게고 허난에 우리 고모님이 아이고 임제 하르방 이디 하르방 오람심에 도망치자 허연 이제 감저덜 파단에 내 불어던 그냥 도망치난 그것이 걸린 거라. 걸리난 이제 곶 파단에 눈 때에 도중에 가근에 영 고냥 파근에 감저 내어나민 썩주게. 비 맞고 구멍이 소곱에 눈 맞고 하간 거 헤가가민 썩을 거난 이제, 그 해에 매날 회합이엔, 그 일청허는 양태허는 사름네 부모덜 모여저근에 구장침이서.

그거 어떡해야 할 지 의논?

-어 경허난 이제 OO할아버님이 동네 구장이야. 게난 OO어머님도 들엇주게. OO어머님도 드난, 매날 저녁 그냥 석덜 열흘 더 걸리멍 회합이. 게난 우리 할아버님이 영 회합헤 봐야 소용이 었이난 봄 뉘민 놀 헤싸근에 문 따시 감저 씨 농곡 풀게 뉘민, 육지서 감저 받으레 오민 문 풀고 허주게, 쟁허난 농서 일 년 농서헌 거 그때 돈 벌어근에 집이 용돈으로 써가고 헐 건디 그 감저가 썩어 불언 허민 아니 뉘 거주게. 경허난 이제 우리 할아버님 매날 돈으로 얼마 내켄 헤도 것도 아니 뉘텐 허고, 경허난 그 봄 낭 감저 헤쌍 감저놀 헤싸근에 이제, 썩은 감저도 혼디 뉘여근, 말로 영 뉘주게 옛날은 그 目方로 저울이지 안허근에, 말 이만이헌 혼 말 두 말허는 말에 감저 영 뇌근에 뉘여근에 돈 받주게. 경허난 그 감저놀 문 헤싸근에 썩은 거고 성 현 거고 문 글류왕, 그 글류는 거 그 감저 도독질 현 아이덜 불령[283] 글류왕 말로 뉘여근에 경헤근에 현 말 들어났주게.

일본 갈 때 혼자 배타난 겁나지 안험디가?

- 무시거 겁나게. 쟁허난이 썩 걸로이 삼등표 산 허민이 백장 아래. 이 삼등실은이 백장

아래, 백장에 몬 맛맛 누워근에 흔 일뿔 걸리주게. [284]

일뿔, 일주일? 어땜 오는 디 일주일 걸립니까?

- 군대환 소꿉에 배탄.

어머닌 어디서 배닷수과?

- 산지

산지항에서 출발허민 바로 성산포로 간?

- 응 경허고 성산포 델 때도 잇고 아니 델 때도 잇고. [285]

경 어쨌든 다 산지항에 모였다는 거라예?

- 응 경 산지서 해근에 종선 타근에 굿디서 못 타주게. 종선 타근에 이젠 군대환더래 올란. 경허민 이제 선포가 싸주게. 그 삼등은 경헌디 이등은 백장 우이. 영 바당도 봐지 곡 허는 디서 배짱으로 영허영. 경허고 먹는 것도 딱나주게. 쌀밥으로.

거 돈 많이 들엇수과?

- 돈 많이 들주게 짓코서게 전차 타민 싸주마는 じんりきしゃ(人力車), 옛날은 タクシー 엇어 낫주게. 우리 어린 땐. 경허난이 タクシー 엇이난에 じんりきしゃ 타 앓아네, 경헤네 주소 들런에 그 じんりきしゃ안티 영 뵈우난, 그 주소대로 집 앞이꺼지 태와 완. [286]

돈은 누가 물고?

- 우리 큰아버지 부제だから 돈은. 우리 큰아버지 삼양에서나, 이제 돌아가셔부난 그 집도 엇어젓주만은 부제야. 포목 장서해근에, 육지 가근에 모시여 미녕이여 몬 허영 오라근에 이 경헤근에 제주 칠성통에서 장서허는 사름덜신디 몬 도매로 풀안.



부록 3.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질문지

제주방언 사용 실태 조사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재일제주인을 대상으로 제주방언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언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직접 쓰거나 V표시를 해 주세요.

성 별	① 남 ② 여	나 이	_____세 _____년생
이주 세대	① 1세대 ② 2세대 ③ 3세대 ④ 4세대 ⑤ 기타() 1세대이면 이주 시기: _____세		
본인출생지	_____제주도 _____읍/면/동 또는 일본 _____시 _____구		
이주1세(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배우자의 출신지	조부모님 조부 _____ / 조모 _____ 부모님 부 _____ / 모 _____ 배우자 _____		
거주지	오사카 _____구	거주 기간	_____년
직업	① 농림·어업·임업 ②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 ③ 단순노무 ④ 판매·서비스직 ⑤ 사무직 ⑥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무직 및 기타()		
학력	① 무학 ② 소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 ⑥ 대학원		

조사일: 2014년 월 일
조사지:

1. 귀하는 한국어와 제주방언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① 구분할 수 있다 ② 구분할 수 없다

2. 귀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조금 한다 ④ 못한다

3. 귀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조금 한다 ④ 못한다

4. 귀하는 제주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조금 한다 ④ 못한다

5. 귀하는 제주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조금 한다 ④ 못한다

6. 일상생활에서 어떤 언어가 사용하기에 편합니까?
 ①한국어 ②제주방언 ③일본어

7. 가정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1세의 경우>

	대부분 제주방언으로 말한다	대부분 한국어(표준어)로 말한다	대부분 일본어로 말한다	(제주방언,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사용한다
배우자에게 말할 때				
자녀에게 말할 때				

<2세 이후의 경우>

	대부분 제주방언으로 말한다	대부분 한국어(표준어)로 말한다	대부분 일본어로 말한다	(제주방언,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사용한다
부모가 자신에게 말할 때				
자신이 부모에게 말할 때				
형제들과 말할 때				

배우자에게 말할 때				
자녀에게 말할 때				

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대부분 제주방언으로 말한다	대부분 한국어(표준어)로 말한다	대부분 일본어로 말한다	(제주방언,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사용한다
제주 출신인 평소 친한 친구(이웃)과 이야기할 때				
제주 출신자들 간의 친목모임(마을친목회, 도민회) 등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방언화자들과 같이 하는 동포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9. 귀하는 자녀나 손자들이(동포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모르겠다

10. 귀하는 자녀나 손자들이 제주방언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모르겠다